학/술/대/회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조명

18세기 정통주자학자의 현실 인식과 학문적 대응 / **구만옥**

이범창과 이범철의 행적 / **장연환**

이성열의 생애와 식민지적 삶 / **김해규**

학/술/대/회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과 과제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현황과 성과 / **최치선**

평택의 마을과 간척:1950년대 이후 조성된 간척촌을 중심으로 / **양선아**

인문조사로 살펴본 평택의 마을 조사 / **김해규**

특/집/논/문

평택의 문화유산

평택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 **이광섭**

평택 심복사 고려초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찰 / **최성은**

평택 지역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시론 / **황우갑**

일/반/논/문

일본에서 펼친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 / **김명섭**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 **성주현**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6.0600 Fax 031.654.8807

9 772713 688004 05
ISSN 2713-6884

평택문화연구 第3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평택문화연구

第3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평택문화연구

第 3 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발 간 사

평택학 연구의 보고(寶庫)

평택문화원 부설 지역사 연구기관인 '평택학연구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올 한해 두 번의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조명'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강호보, 이범창과 이범철, 이성열 등 우리지역 인물을 발굴해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또한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과 과제'에서는 그간 여러 경로로 진행해온 평택의 마을조사 과정과 성과, 간척 등을 주제로 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택문화원에서 2014년부터 지역사 핵심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을조사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 더욱 뜻깊은 학술대회였습니다.

이번《평택문화연구》제3집 발간은 그간 평택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학술대회 논문과 더불어 특집논문, 일반논문을 더해 폭넓은 주제와 시각으로 평택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추가된 특집논문 주제는 '평택의 문화유산'입니다. 평택의 문화유산은 수백 년 지역주민과 함께해오면서 평택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학연구소는 지역 문화유산의 꾸준한 발굴, 연구, 콘텐츠화 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를 발굴, 깊이 있게 연구하여 평택시민이 지역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평택학의 지평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평택문화연구》가 평택학 연구의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학연구소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 1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소장 박 성 복

목 차

학/술/대/회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조명

18세기 정통주자학자의 현실 인식과 학문적 대응 / **구만옥** 09

이범창과 이범철의 행적 / **장연환** 61

이성열의 생애와 식민지적 삶 / **김해규** 81

학/술/대/회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과 과제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현황과 성과 / **최치선** 105

평택의 마을과 간척:1950년대 이후 조성된 간척촌을 중심으로 / **양선아** 117

인문조사로 살펴본 평택의 마을 / **김해규** 139

특/집/논/문

평택의 문화유산

평택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 **이광섭** 171

평택 심복사 고려초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찰 / **최성은** 197

평택 지역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시론 / **황우갑** 223

일/반/논/문

일본에서 펼친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 / **김명섭** 247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 **성주현** 273

18세기 정통주자학자(正統朱子學者)의 현실 인식과 학문적 대응

- 사양재(四養齋) 강호보(姜浩溥, 1690~1778)의 저술을 중심으로 -

구만옥/경희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생애와 학통(學統)
   1) '주자도통주의자'로서의 생애
   2) '주자(朱子)=성인(聖人)'론의 제기와 도통론(道統論)의 계승

3. 이단(異端)·이설(異說) 변척(辨斥)과 '주자정론(朱子定論)'의 확정
   1) 이단·이설 변척
   2) '주자정론'의 확정

4. 맺음말

1. 머리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양란(兩亂) 이후 조선후기 사회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직면하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시대사조라 할 수 있는 '실학(實學)'의 등장은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학은 새로운 사조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주제로 마땅히 주목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현실 타개책을 모색했던 여타의 흐름들, 특히 조선후기 사회를 이끌어 간 지도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정통주자학(正統朱子學) 내지 주자도통주의(朱子道統主義)의 역할과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조선후기 사상사를 균형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실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그 대척점에 위치한 정통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西人)-노론계 (老論系)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8세기 서인-노론계의 정통주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강호보(姜浩溥, 1690~1778)의 저술을 분석하여 그의 사유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강호보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한원진(韓元震, 1682~1751)으로 이어지는 노론-호론계(湖論系)의 정통 계보에 위치하는 18세기의 학자이다. 그의 대표적 저술인 《주서분류(朱書分類)》는 주자의 모든 글을 주제별로 종합·정리하여 이른바 '주자정론(朱子定論)'을 확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일찍이 송시열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서인-노론계의 오랜 공동 작업을 거쳐 강호보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는 한원진의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와 함께 조선의 주자학이 이룩한 커다란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강호보의 학문 경향과 사상적 지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강호보는 정통주자학의 계보에 위치하는 중요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인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강호보의 개인적 생애와 학문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던 강호보의 문집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종합하여 그의 현실 인식과 학문관, 경세론(經世論)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강호보는 중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계보와 학통상의 위치는 당대 집권 세력인 서인-노론계의 핵심을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호보는 연구 대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 조선후기 사상사의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강호보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조선후기 사상사의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보다 진전된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조선후기 서인-노론계의 사상적 특질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호보의 방대한 저작 속에는 유교 경전을 둘러싼 학문적 논의[經學], 당시 학계의 학문적 논쟁점과 학파별 입장의 차이, 18세

1) 姜浩溥의 문집인 《贅言》과 연행록의 일종인 《桑蓬錄》은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열람실에 소장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고서해제》 Ⅱ, 평민사, 2004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고서해제》 Ⅲ, 평민사, 2005 참조. 한글본 《상봉록》의 교주본으로는 朴在淵·李在弘·李相德 校註, 《상봉녹(桑蓬錄)》, 學古房, 2013이 있다.

기 후반 조선왕조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 해결책, 대청(對淸) 외교의 실상과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 조선의 자연지리와 역사지리 문제, 서학(西學)의 유입과 이에 대한 논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통주자학자인 강호보의 학문과 사상, 나아가 조선후기 서인-노론계의 사상적 특질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통주자학과 '실학'으로 대별되는 조선후기 사상사의 지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생애와 학통(學統)

1) '주자도통주의자'로서의 생애

강호보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字)는 양직(養直)이다. 오아재(聱齖齋) 강석규(姜錫圭)의 측실(側室) 소생의 서자(庶子)로서, 어머니는 안동(安東) 김씨(金氏) 김성급(金成岌)의 딸이었다.[2] 강호보는 숙종 16년(1690) 9월 25일 태어났다. 그의 나이 6세 때인 숙종 21년(1695) 아버지 강석규가 별세하자 일가족이 연천(漣川)으로 이주하였다. 8세 때 족숙(族叔) 강석붕(姜錫朋, 號 翠巖)에게서 《소학(小學)》을 배우기 시작해 육경(六經)과 사서(史書)를 질정하였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가세가 빈곤하였는데, 팽성(彭城: 平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해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는 일찍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과거에 응시한 적이

2) 강호보의 생애는 그 문인 林在達이 1807년(순조 7)에 작성한 행장(〈四養齋姜先生行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이하 특별히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이 행장에 근거한 것이다. 金滿析의 학위논문에는 행장의 역주본이 수록되어 있다[金滿析, 〈四養齋 姜浩溥《贅言》選譯〉, 慶尙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138~167쪽.].

있었다. 그의 나이 13세 때 경기도 회시(會試)에 수석을 차지하였으나 '무적(無籍)'이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다.[3] 그는 20대 중반쯤 집안의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후,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 ~ 1751)을 배알하고 그 문하에서 성리학에 침잠했다.[4]

영조 2년(1726) 생원시(生員試)에 1등으로 합격했으나,[5] 이후 경학에 매진할 것을 결심한다. 그의 호 사양재(四養齋)는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강호보가 거처하던 방의 편액에서 유래했는데, '성(性)·기(氣)·재(材)·량(量)' 네 가지를 기르고자 하는 강호보의 학문적 지향을 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 본래 선한 성품[本善之性]은 하늘이 부여한 바이니 비록 요(堯)·순(舜)이라 하더라도 더할 것이 없다.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사람들이 모두 지니고 있으니 맹자(孟子)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재주[材]는 학문에 말미암아 완성되니, 천지(天地)를 도와 바로잡는 것 또한 나에게 달려있다. 기량[量]은 학식에 따라 진전되니, 기질(氣質[氣局])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찌 다른 데서 말미암겠는가.[6]

3) 〈四養齋姜先生行狀〉. "年十三, 冠京畿都會試. 雖以無籍扶去, 而聲名由此益震."

4) 〈四養齋姜先生行狀〉. "如是十餘年, 家貲果優足, 不復屑意於榮利, 而欲窮淵源之深. 先生自贄謁于南塘韓丈席(元震)門, 沉潛性理之學……."

5) 〈四養齋姜先生行狀〉. "英宗丙午(1726년 - 인용자), 中生員試一等." 《司馬傍目》에 따르면 강호보는 2등 25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丙午式年司馬傍目》 生員試, 二等二十五人(414쪽 - 영인본 《司馬傍目》 3, 國學資料院, 1984의 쪽수). "業儒姜浩溥(養直, 庚午), 本晉州, 居平澤, 父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敎錫圭, 慈侍下, 膺行(嫡兄澤溥, 濟溥, 浚溥, 弟淵溥)."].

6) 《贅言》 卷15, 〈四養齋上樑文〉, 21ㄴ. "嘗以一得之淺見, 盖有四條之要言. 本善之性, 天所賦焉, 雖堯舜無以加矣. 浩然之氣, 人皆有也, 而孟子豈欺我哉. 材由學成, 輔相天地, 亦在我. 量隨識進, 變化氣局, 豈由他." ; 〈四養齋姜先生行狀〉. "以爲本善之性, 均賦於天, 浩然之氣, 皆有於人, 材由學成, 可以輔相天地, 量隨識進, 庶能變化氣質, 內取性氣材量四字扁其室, 曰四養齋."

이듬해인 영조 3년(1727) 그는 아버지의 문인이었던 이세근(李世瑾)의 요청을 받고 연행길에 오르게 된다. 당시 호조참판(戶曹參判)이던 이세근은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副使)였다. 그는 일찍이 숙종 44년(1718)에도 동지사의 부사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7] 이때의 경험에 비추어 이역(異域)에서의 향수를 같이 나눌 사람으로 강호보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다.[8] 북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강호보는 정환(程瑍)과 백수채(白受采)라는 중국의 선비들과 사귀게 되었다.[9] 정환은 정자(程子)의 후손으로 역학(易學)에 밝은 사람이었고, 백수채는 과거에 합격한 수재였다.[10] 두 사람은 강호보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후에도 수십 년간 왕래하는 사절 편에 서신을 교환하는 등 교유를 지속했다.[11]

강호보는 영조 30년(1754) 국왕 영조의 회갑을 맞아 시행한 증광시(增廣試)에 모친의 간청에 따라 응시하게 된다. 남성(南省〈試〉)에 발해(發解)한 강호보는 전시에서 2등으로 합격하여[12] 탐화랑(探花郞)의 예에 따라 제용감(濟用監) 직장(直長)을 제수받았고 특별히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 국왕 영조가 강호보의 나이와 이미 출신(出身)한 사람으로서 다시 과거에 응시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91세 노모의 간청에 따라 응시하게 되었다는 강호보의 답변에 감탄한 영조는[13] 봉상시(奉常寺) 판관(判官)으로 임명하였고 얼마 있어 양천현령(陽川縣令)을 제수하였다. 강호보는 그 해 6월 모친상을 당하여 부임하지 못했다.[14] 이후 유곡찰방(幽谷察訪)에 제수되었다. 영조 39년(1763) 국왕 영조가 칠순을 맞아 추은(推恩)할 때[15] 첨중추(僉中樞)에 제수되었다. 몇 년 후 제자 윤염(尹琰) 등 12인이 상서하여 "사람을 가르쳐 생원·진사 5명을 배출하면 가자(加資)한다."는 국가의 전례에 따라 가자를 요청해 동중추(同中樞)가 되었고, 영조 49년(1773) 지중추(知中樞)로 승진하였다. 이후 거듭된 추은으로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의 반열에 올랐다. 정조 2년(1778) 11월 30일, 팽성의 사양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강호보의 학문과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마도 한원진일 것이다. 강호보는 한원진이 《주자언론동이고》를 통해 주자 초만설(初晩說)의 이동(異同)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500여 년 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했고,[16] 이이(李珥) → 김장생(金長生) → 송시열 → 권상하로 이어지는 학문적 성취도 한원진으로 말미암아 천명되었다고 보았

7) 《肅宗實錄》 卷63, 肅宗 45년 3월 22일(乙未), 22ㄱ(41책, 61쪽). "冬至正使兪集一·副使李世瑾·書狀官鄭錫三等, 還自燕京, 世子召見."

8) 《桑蓬錄》 卷1, 1727년 9월 11일. "李公曰, …… 而吾曾於戊戌爲此行, 異域往來, 羈抱難抑, 至今追想, 猶覺無聊. 今行則必欲得可以分異域之愁者, 與之俱, 庶幾忘行彼之勞. 念之久矣, 無逾於君者, 君有遠遊之意否. 君雖不欲, 吾不肯捨君, 君將奈何."

9) 강호보가 程瑍과 처음 만난 것은 1727년 12월 11일 小黑山에서였고[《桑蓬錄》 卷3, 1727년 12월 11일(壬辰)], 程瑍의 소개로 白受采를 상면하게 된 것은 山海關에 도착한 12월 19일이었다[《桑蓬錄》 卷4, 1727년 12월 19일(庚子)].

10) 〈四養齋姜先生行狀〉. "到燕有程瑍者, 程子苗裔, 而精于易學, 名于世. 有白受采者, 甲于科第, 黃金榜其家, 而方被檄召者也."

11) 이들의 교유 과정에 대해서는 金玲竹, 〈姜浩溥의 《桑蓬錄》을 통해 본 교유의 일단 - 程瑍, 白受采와의 筆談을 중심으로 - 〉, 《東方漢文學》 60, 東方漢文學會, 2014를 참조.

12) 《承政院日記》 1106책, 英祖 30년 윤4월 3일(壬子). "上親自坼封, 八天洪宗海文, 以三中居魁, 九玄[天]姜浩溥文, 以三中一爲第二, 七天尹東暹文, 以三下爲第三." ; 《國朝文科榜目》 卷15, 當宁期(英祖朝), 甲戌增廣榜, 甲科三人, 1161쪽(영인본 《國朝文科榜目》, 太學社, 1988의 쪽수).

13) 《承政院日記》 1106책, 英祖 30년 윤4월 11일(庚申). "姜浩溥進伏. 上曰, 汝何以事君乎. 對曰, 臣有百歲老母, 以事母之心事君矣. 上笑曰, 奏語誠純直矣. 爾母年幾何. 對曰, 九十一歲矣. 上曰, 貴矣. 以九十一歲, 見六十五歲子之科慶, 誠稀貴矣."

14) 《贅言》 卷30, 〈先母行狀〉, 20ㄱ ~ 21ㄱ.

15) 《英祖實錄》 卷101, 英祖 39年 1月 1日(己未), 1ㄱ ~ ㄴ(44책, 121쪽).

16) 《贅言》 卷27, 〈祭南塘先生文〉, 3ㄱ. "朱子後, 遺訓之眩於初晩, 諸儒之傷於破碎者, 得我先生發揮爬櫛, 而五百餘年來, 多少未了之案, 更無竢於後人矣."

다.[17] 한원진이 "주자에게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를 빛내기도 하였다."[18]는 강호보의 평가는 주자 이래로 이이를 거쳐 권상하에 이르는 도통의 적전(嫡傳)으로 한원진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강호보가 20대에 한원진을 사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학설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강호보는 한원진의 문하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대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 대해 한원진의 주장이 옳고, 이간(李柬)의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19] 그는 심(心)의 선악 문제를 기질(氣質)의 청탁(淸濁)과 관련해서 이해하였다. 기질의 청탁이 반반인 사람은 선(善)이 될 수도 있고, 악(惡)이 될 수도 있으며, 완전히 맑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성인(聖人), 완전히 탁한 기질을 지닌 사람은 우인(愚人=下愚)이 된다고 하였다.[20] 기질의 청탁수박(淸濁粹駁)은 성인과 범인(凡人)을 가르는 기준이 되며, 기질의 편전통색(偏全通塞)은 사람과 사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강호보의 기본적 입장이었다.[21] 사람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였고, 사물은 그렇지 못한 존재였다. 하늘이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행(五行)의 이치가 오행의 수기(秀氣)에 들어가면 그것은 오상(五常)의 성품이 되고, 오행의 수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17) 《贅言》 卷27, 〈祭南塘先生文〉, 3ㄴ. "朱子後, 吾道旣東, 有栗沙尤遂四先生. 四先生者, 實啓我先生之學, 而發揮之功, 乃屬於先生者, 亦以四先生傳授之意, 皆成於我先生之手故也."

18) 《贅言》 卷27, 〈祭南塘先生文〉, 3ㄴ. "是我先生不但有功於朱子也, 抑亦有 光於四先生矣."

19) 〈四養齋姜先生行狀〉. "先是湖西理氣之說有二歧, 先生自兒時, 聞南塘嵬 [巍]巖所爭之論, 卽以爲嵬[巍]非塘是. 吾於南塘之門, 已作受幣處子矣."

20) 〈四養齋姜先生行狀〉. "先生曰, 氣質淸濁相半者, 可以爲善, 可以爲惡, 十分淸者爲聖人, 十分濁者爲下愚."

21) 〈四養齋姜先生行狀〉. "先生曰, 淸濁粹駁, 聖凡之大分也. 偏全通塞, 人物之大分也."

오상의 성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다.[22] 결국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오행의 수기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결판난다고 강호보는 생각했다.[23]

강호보는 한원진의 문하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송능상(宋能相, 1709~1758), 권진응(權震應), 김근행(金謹行, 1712~?) 등과 학문적 토론을 하였고, 김용경(金龍慶, 1678~1738), 정존겸(鄭存謙, 1722~1794), 조엄(趙曮, 1719~1777), 이석재(李碩載) 등의 관료들과도 교유 관계를 가졌다.

강호보의 저서로는 문집인 《췌언(贅言)》과 문장론인 《불후방(不朽方)》 3편(篇), 역사서인 《사유(史腴)》 10편, 예서인 《상례보유(喪禮補遺)》 1권, 학자의 실천을 경계한 《하학일과(下學日課)》 3권, 연행록인 《상봉록(桑蓬錄)》 4권[24] 등이 있다. 강호보는 일찍부터 "성인의 학문은 모두 《춘추(春秋)》에 있다."고 하여 《춘추》의 사상적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가 보기에 역대의 여러 주소들은 경전의 본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에 그는 《춘추》의 경문 아래 역대의 주소를 기재하고 단락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논의를 적었으며, 정자와 주자의 단안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안설을 붙여 《춘추원류(春秋源流)》라고 명명했다. 이 책은 100여 편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탈고하지 못하고 강호보가 사망한 후 잃어버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25]

22) 〈四養齋姜先生行狀〉. "先生嘗論人物同異之性曰,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人得仁義禮智之性而物不得者, 何也. 夫五行之理, 入於五行之秀氣, 則爲五常之性. 不入於秀氣, 則不得爲五常之性."

23) 〈四養齋姜先生行狀〉. "盖人物之辨, 惟在於一秀字而已."

24) 林在達은 행장에서 《桑蓬錄》 4卷이라고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한문본 《四養齋外集桑蓬錄》은 모두 6책 12권이며, 이 가운데 순수한 연행록에 해당하는 것은 11권이다.

25) 〈四養齋姜先生行狀〉. "先生嘗曰, 聖人之學, 都在於春秋, 而爲諸家註疏所亂, 反使大旨晦而不明, 乃先書四傳于經文下, 逐段各書程朱之論, 或無程朱斷案, 則以按說自足之, 名曰, 春秋源流. 凡百餘篇而未及脫稿……."

강호보의 저작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주서분류》이다. 그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산재해 있는 각종 논의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는 서인-노론계의 주자도통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이었다. 일찍이 이 사업을 시도한 이는 송시열이었고, 이것이 한원진을 거쳐 강호보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26] 그것은 강호보의 40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다. 초고가 완성되었을 때 《주서분류》는 84권의 거질이었는데, 이것은 조엄(趙曮)의 조력을 얻어 정본화(淨本化)되었다.[27]

2) '주자(朱子)=성인(聖人)'론의 제기와 도통론(道統論)의 계승

강호보는 공자와 주자를 '우주간양대인(宇宙間兩大人)'으로 추앙했다.[28] 그것은 사공(事功)을 기준으로 한 평가였는데, 주로 공자와 주자의 학문적 업적을 중시하였다. 공자의 경우 앞선 성인들의 계통을 열어 밝혀서 만세의 법식[萬世法程]을 수립했다는 점을 그 업적으로 들었다.[29] 이는 도통론(道統論)의 관점에서 학문적 업적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희(伏羲)·신농(神農) 이래의 여러 성왕(聖王)들이 공자로 말미암아 비로소 밝혀졌듯이 안자(顔子)·증자(曾子) 이래의 여러 성현들이 주자로 말미암아 비로소 밝아졌다는[30] 강호보의 언급은 철저히 도통론의 관점에 서 있었다.

주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현(大賢)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성인(眞聖人)'이었으며, 그 사공의 성대함은 공자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31]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공자를 능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라고 강호보는 주장했다.[32] 그가 보기에 주자는 후세의 공자였으며,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의 의리도 오직 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33] 따라서 공자를 배반하는 자들이 이단(異端)이듯이 주자를 배반하는 자 또한 이단일 따름이었다.[34] 이와 같은 평가는 주자의 경전 주석이 역대 성인들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35] 특히 주자의 만년 논의는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미혹됨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36]

강호보가 볼 때 주자야말로 '진유(眞儒)'였다. 그는 공자와 맹자 이후로 진(秦)·한(漢)·수(隋)·당(唐)을 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출현했지만 진유라는 명칭에 걸맞은 사람은 없다고 보았다. 송나라 때 이르러 비로소 진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주돈이(周敦頤)가 공자와 맹자 이후로 끊어진 학문을 창도(唱道)하고 주자가 이를 집대성(集大成)함으로써 도학이

26) 金駿錫, 〈朝鮮後期 畿湖士林의 朱子인식 - 朱子文集·語錄연구의 전개과정 - 〉, 《百濟硏究》 18,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87 ; 金駿錫, 〈17세기 畿湖朱子學의 동향 - 宋時烈의 〈道統〉계승운동 - 〉,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8.

27) 〈四養齋姜先生行狀〉. "……口誦手繕, 垂四十年, 草成者, 爲八十四卷, 而名曰朱書分類, 竟賴趙公曮之仗義衛道, 專擔出力, 淨本續成, 此所謂千載一時也."

28)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1ㄱ. "自生民以來, 宇宙間有兩大人, 孔朱二夫子是已."

29)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1ㄱ. "人皆知刪詩書作春秋述十翼, 以啓後學於無窮, 爲夫子事功, 不知其闡發前聖之統緖, 俾作萬世法程, 尤爲其事功之大者也."

30)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2ㄴ. "夫羲農以後諸聖王之得孔子而始 明, 旣如右所陳矣, 顔曾以後諸聖賢, 得朱子而始明."

31)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2ㄱ. "若吾朱夫子, 人皆知其爲大賢 而已, 鮮能知其爲眞聖人也. 其事功之盛, 夫人亦皆知之, 而猶不能眞知其可 與吾夫子若是班, 斷然無疑也."

32)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4ㄱ. "然其事功, 孔子少而易, 朱子多而難."

33)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7ㄱ. "惟我朱夫子, 是後孔子也. 春秋大一統之義, 惟朱子可以當之."

34)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7ㄱ. "夫背孔子者爲異端, 背朱子者亦爲異端."

35)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2ㄱ. "大聖人能知聖人, 朱夫子生於二千餘年之後, 爲經傳註解也, 如從前聖肚裏過, 若說自己心中事, 非聖人而能然乎."

36) 《贅言》 卷15, 〈宇宙間兩大人說〉, 2ㄱ. "是以其一言隻字之出於晩年者, 眞可以建天地而不悖, 百歲以俟聖人而不惑矣."

다시금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37] 강호보는 진유란 성인(聖人)을 공부해서 자득(自得)한 자라고 보았고,[38]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공부'와 '진실한 심지(心地)'가 있어야만 했다.[39] 그런데 주자는 사공(事功)의 측면에서 볼 때 '공자후일인(孔子後一人)'이었고, 문장(文章)의 측면에서 볼 때 '맹자후일인(孟子後一人)'이었다.[40] 주자의 언의(言議)와 문장(文章)을 '민이물칙(民彝物則)'[41]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42] '주자=성인'론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조선의 학계·사상계를 보았을 때 상황은 어떠했을까? 강호보는 당시 조선의 학계에서 주자가 후세의 공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파악했다. 나머지는 "주자가 성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퍼붓는 자들이었다.[43] 이는 이른바 조선후기의 '반주자(反朱子)', '탈주자(脫朱子)', '비주자(非朱子)'의 사상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강호보는 이와 같은 조선후기 학문 경향의 변화를 두 가지로 대비하여 설명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학문 방법이었다.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사우

37)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0ㄴ. "是時未有道學之名也, 歷秦漢隋唐而亦然矣. 其間雖或有荀卿·楊[揚]雄·韓愈·王通而俱不足當眞儒之名矣. 至大宋, 天運循環, 五星聚奎, 而眞儒輩出, 前有濂溪之倡絶學, 後有晦翁之集大成, 道學復明於世矣."

38)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0ㄴ. "夫人之所以爲眞儒者, 以其學聖人而有得也. 聖人之所以爲聖人者, 以溫良恭儉讓也."

39)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1ㄴ. "所謂眞儒, 以其有刻苦工夫眞實心地之謂也"

40) 《贅言》 卷22, 〈朱文百選序〉, 44ㄴ. "嘗聞前輩言, 朱子是孔子後一人, 此以事功言之也. 若言其文章, 則又當爲孟子後一人而已."

41)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르고 떳떳한 도리[民彝]와 사물의 법칙[物則].

42)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4ㄴ. "人有秉彝, 好是懿德, 天生萬物, 有物有則, 而朱夫子言議文章, 便都是民彝物則也."

43)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7ㄴ. "今四海之內, 惟吾東賴大 賢背出而表章之, 故便同鄒魯之鄉, 知朱子之爲後孔子者, 幾乎半一國, 而其外則聞朱子是聖人, 則弱者反唇, 强者饒舌……."

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이른바 학문적 '연원(淵源)'을 중시하는 학문 방법론이었다. 반면에 당시 유행하는 학문 경향은 '불유사승(不由師承)'을 강조하면서 '자오(自悟)'·'자득(自得)'을 중시하는 것이었다.[44] 전자는 일찍이 이익(李瀷, 1681~1763)이 '근수규구(謹守規矩)'라고 정리했던 서인들의 학풍을 지칭함이었다.[45] 사제 간의 학문 전수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새롭게 유행하는 '자득' 중시의 경향은 위험하거나 불온한 것이었다.

강호보는 바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師道)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도(人道)의 핵심을 군(君)·사(師)·부(父) 삼자로 요약했다. 그런데 오륜(五倫) 가운데 사(師)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강호보가 생각하기에 사(師)는 본래 군(君)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존재였다. 사위(師位)는 군위(君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군주의 지위와 별도로 스승의 지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46] 군주는 통치하는 자요, 스승은 교화하는 자로서 양자는 본래 하나였고 군위와 사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47] 군사부(君師父) 일체의 관념에서 논의를 더욱 확장하면 사(師)의 지위는 이른바 '군신지의(君臣之義)'와 '부자지친(父子之親)'을 겸유하는 것이었

44)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51ㄴ. "而後世學者輒曰, 學貴自悟, 豈待人誘掖引進耶, 曰師曰弟子, 則必非笑之, 貴其不由師承而自得也. …… 古人之學, 必從師取友, 以求資益, 乃所以貴淵源也."

45) 《順菴集》 卷16, 〈函丈錄〉, 12ㄴ~13ㄱ(230책, 119~120쪽). "西人學問, 專以謹守規矩四字, 爲涉世無病敗之斷案, 故知識終甚鹵莽, 爲可恨也." 이와 같은 西人의 학풍과 대비되는 星湖學派의 학문방법론에 대해서는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 학풍 연구》, 혜안, 2003 참조.

46)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6ㄴ. "五倫外更無人道, 人道之大 者有三, 曰君師父, 而師不在五倫之中, 何也. 曰, 師也者, 本與君同一位也, 師位包在君位中, 不當別立一目也."

47)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ㄱ. "君者, 所以治之也, 師者, 所以教之也, 此可見君位便包在師位也."

다.[48] 또 스승이란 나와 같은 세상에 나서 나보다 먼저 도(道)를 들은 사람이니 이는 붕우(朋友) 가운데 나보다 연장자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사의 지위에는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윤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사의 지위는 '오륜의 총회처(總會處)'라고 일컬을 수 있었다.[49]

강호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륜 속에 사(師)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부연했다. 그는 오륜의 핵심 개념들이 '사승(師承)'에 말미암아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오륜의 의리는 스승이 없이는 밝혀질 수 없었다.[50] 그렇다면 오륜에 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도〉(師〈道〉)의 중요성이 오륜 가운데 섞여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오륜의 한 항목으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었다.[51] 사실 이렇게 과도한 주장은 이전의 누구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없었다. 그러나 강호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국어(國語)》에 나오는 난공자(欒共子)의 발언[52]이 자신의 이러한 논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53]

강호보에 따르면 원래 군도(君道)와 사도(師道)는 일치되어 있었다. 현실

48)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ㄱ. "此君師父一也. …… 以是言之, 則師位旣兼君臣之義, 而又兼父子之親者也."

49)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ㄱ. "且師者, 與我並世而生, 聞道先於我者, 是朋友中年長於我者 …… 是師又兼長幼朋友之倫者也. 師之一位, 是可謂五倫之總會處也."

50)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ㄱ ~ ㄴ. "又錯而言之, 則五倫之 義也, 親也·序也·信也·別也者, 不由師承而著明之, 則何從而明之耶. 是可謂師無當於五倫, 而五倫之義, 非師則不明矣."

51)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ㄴ. "以是究之, 則其 不列於五 倫之目者, 反有重於混入五倫中者也. 若列於一位, 則豈不局於偏滯 而不得爲普徧也耶."

52) 《國語》 卷7, 晉語 1. "武公伐翼, 殺哀侯, 止欒共子曰, 苟無死, 吾以子見天 子, 令子爲上卿, 制晉國之政. 辭曰, 成聞之,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教不知生之族也……."

53)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ㄴ. "斯意也, 古人未有說及者, 而質諸聖人之訓, 亦有不相悖者, 民生於三, 事之如一, 生之族數句語, 可作吾說之旁證矣."

사회의 권력자로서의 군주가 교화의 임무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군주가 군도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도를 방기하게 되었고 결국 군도와 사도가 이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호보는 군주가 군도만 행해서는 그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도를 방치하면 군도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54] 이러한 강호보의 주장은 일견 영조의 '군사론(君師論)'[55]이나 "내가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다.",[56] "지금 사도(師道)의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다."[57]고 갈파했던 정조(正祖)의 그것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강호보는 군주가 사도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학자의 지위에서 강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도지직(司徒之職)', '전악지관(典樂之官)'으로 대변되는 신하들의 임무였다. 강호보가 생각하기에 군주가 사도를 자신의 임무로 삼는 자세를 보여주면 조정의 신하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신하

54)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7ㄴ. "而自三代時, 世運不能長泰, 君或有不能盡君道, 而遂幷與師道而失之, 師遂貳於君矣. 自是世主但 知君道之爲己任, 而不知夫師道之曠闕, 爲不能盡君道也."

55) 英祖의 君師論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 鄭豪薰, 〈18세기 政治變亂과 蕩平政治〉, 《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金容燮敎授停年紀念論叢 2)》, 지식산업사, 1997 ; 정경희,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韓國學報》 97, 一志社, 1999 ; 李根浩, 〈영조대 君師論의 정치적 의의〉, 《北岳史論》 10, 北岳史學會, 2003.

56) 《正祖實錄》 卷33, 正祖 15년 9월 2일(甲戌), 18ㄱ ~ ㄴ(46책, 239쪽) ; 《正祖實錄》 卷33, 正祖 15년 10월 24일(乙丑), 48ㄱ(46책, 254쪽) ; 《正祖實錄》 卷43, 正祖 19년 8월 2일(庚辰), 13ㄴ(46책, 591쪽) ; 《正祖實錄》 卷49, 正祖 22년 7월 20일(壬午), 4ㄴ ~ 5ㄱ(47책, 95 ~ 96쪽). "三代以上, 聰明睿智之聖, 作之君作之師, 三代以下, 則師道在下, 未聞有能盡君師之責者. 當仁不讓於師, 聖人有訓, 於今之世, 予安得不以師道自任乎. 旣不得不以師道之責爲己任, 則師之所存, 道之所在, 道外爲[無]理, 理外無義, 理之所在, 卽義之所在也. 予居君師之位, 已於此義理, 明辨而深察, 固守而篤信, 凡今在廷之臣, 但當率敎之不暇, 而俗習去益渝薄, 太半是朝東暮西, 改頭換面之徒, 寧不奇怪之甚乎."

57) 《正祖實錄》 卷45, 正祖 20년 8월 10일(壬午), 15ㄱ(46책, 666쪽). "顧今師 道之責, 在於予."

들이란 군주와 더불어 천위(天位)를 공유하고 천직(天職)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58] 그렇다면 군주가 실제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건극론(建極論)에 입각하여 사도(師道)에 따라 위에서 표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사도를 준행한다면 사방에서 이를 본받을 것이라는 논리였다.[59]

이처럼 학문적 연원(淵源)과 사도(師道)를 중시하는 강호보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승 한원진이 일부 사림들의 비난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원진은 스승 권상하의 행장을 지으면서 "주자께서 서거하신 이후 우리의 도(道)가 동쪽으로 왔다. 도를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는 율곡(栗谷)과 우암(尤菴) 두 선생님이 가장 현저했다."[60]라고 썼다. 그런데 이 구절이 도통론과 연계되어 노론 내부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이이 → 김장생 → 송시열이라는 도통의 계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한원진이 김장생을 빠뜨리고 이이 → 송시열 → 권상하의 계보를 만들려고 기도한다고 간주했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장생의 집안과 돈암서원(遯巖書院)을 중심으로 한원진에 대한 비판이 조직적으로 제기되었다. 급기야 영조 25년(1749) 정월에는 구건(具楗) 등이 국왕에게 상소하여 한원진을 처벌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61] 그 배후에는 김장생의 후손인 김상무(金相戊), 송준길의 후손인 송문흠(宋

58)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8ㄱ. "夫所謂人君之以師道爲 己任者, 非謂人主必據皐比之位, 行講授之任也. 古所謂司徒之職, 典樂之官, 亦有其位矣. 今聖主旣以師道爲己任, 則廷臣之佐聖上下風者, 孰不以聖主之憂爲己憂, 而以師道爲己責耶. 不然則聖主所與共天位治天職者, 不過爲貪饕者之香餌而已矣."

59)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8ㄴ. "伏願聖上, 先從師道爲標準於上, 則上所陳貢擧之議, 鄕擧里選之法, 不難致於整空衡平, 是在聖上建極於上, 使四方取則也."

60) 《南塘集》 卷34, 〈寒水齋權先生行狀〉, 23ㄴ ~ 24ㄱ(202책, 247쪽). "盖朱子 歿而吾道東矣, 其任傳道之責者, 惟栗谷·尤菴二先生爲最著."

61) 《承政院日記》 第1040冊, 英祖 25년 2월 5일(癸未) ; 《承政院日記》 第1040冊, 英祖 25년 2월 9일(丁亥) ; 《承政院日記》 第1040冊, 英祖 25년 2월 27일(乙巳) ; 《承政院日記》 第1047冊, 英祖 25년 8월 27일(癸卯) 등 참조.

文欽, 1710 ~ 1752), 그리고 송학상(宋學相) 등이 있다고 지목되었다.[62]

이 문제는 한원진이 권상하의 행장을 작성한 영조 12년(1736)으로부터[63] 10년이 흐른 영조 23년(1747)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64] 그 실상은 한원진이 1747년 송능상(宋能相, 1710 ~ 1758)에게 편지를 보내 행장을 고치지 않은 뜻을 설명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원진은 스승 권상하가 사문에 끼친 공이 이기설(理氣說)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기설을 밝힌 이이와 송시열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65] 그것은 주희가 《중용》과 《대학》의 서문을 지으면서 정자(程子)만 거론하고 주돈이(周敦頤)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중용》과 《대학》에 대해 주돈이가 학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66]

다음으로 송시열이 김장생의 행장을 지으면서 도통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쳤지만 가까운 이이만 거론했고 조광조(趙光祖)나 이황(李滉)과 같은 여러 현인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답습하여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도를 전하는 책임을 맡았다[任傳道之責]."라고 한 구

62) 《南塘先生年譜》 卷3, 29ㄱ ~ ㄴ(1103쪽 - 영인본 《南塘集》, 蔡仁植 發行, 1976의 쪽수. 이하 같음).

63) 《南塘集》 卷34, 〈寒水齋權先生行狀〉, 24ㄱ(202책, 247쪽). "崇禎紀元後 再丙辰正月日, 門人宣務郎前宗簿寺主簿韓元震謹狀." ; 《南塘先生年譜》 卷3, 12ㄴ(1094쪽). "丙辰(先生五十五歲), 正月, 撰寒水先生行狀."

64) 金正默(1739 ~ 1799)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 權尙夏의 행장은 蔡之洪에게 의뢰했던 것인데 韓元震이 제멋대로 지었으며, 또 이것을 숨기고 세상에 내놓지 않아 10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볼 수 있었다고 한다[《過齋遺稿》 卷6, 〈寒水齋先生行狀辨〉, 10ㄴ(255책, 310쪽). "按此狀文, 始托於蔡鳳巖, 而南塘橫作之(遂菴姪燮祭鳳巖文曰, 何來一筆, 以闕公文). 又復祕不出, 十年之後, 人始得見, 稍稍傳說."].

65) 《南塘集》 卷19, 〈答宋士能丁卯九月〉, 43ㄱ(201책, 451쪽). "先師之有功於斯道 者, 理氣說是也. 東方理氣之說, 實自栗谷·尤菴二先生始明, 而先師繼之發揮, 故又不得不推本於二先生之說."

66) 《南塘集》 卷19, 〈答宋士能丁卯九月〉, 43ㄱ(201책, 451쪽). "朱子撰庸學二 序, 只擧程子而不及周子者何也. 二序以庸學爲題目, 而周子 之說, 未有及於庸學故也."

절은 총론한 것이므로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67]

한원진은 또 〈주자행장(朱子行狀)〉의 "증자(曾子)와 자사(子思)가 그 은미함을 계승하여 맹자(孟子)에 이르러 비로소 현저해졌다.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가 그 끊어진 것을 계승해서 선생(=朱子)에 이르러 비로소 현저해졌다."[68]라는 구절을 거론하면서 맹자나 주자에 이르러 '현저하다'고 한 것은 현부(賢否)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행한 사업의 크기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율곡과 우암이 가장 현저했다."라고 한 것이 지나치지 않음을 변명하고자 한 것이다.[69]

그런데 이 편지는 논란을 증폭하는 촉매제가 되었다.[70] 이에 한원진은 이듬해인 영조 24년(1748) 윤봉구(尹鳳九, 1683~1767)에게 《중용》과 《대학》의 서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은 송시열의 견해를 따른 것이고, "율곡과 우암이 가장 현저했다."라고 한 것은 〈주자행장〉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이황·김장생·송시열 등이 작성한 행장을 거론하여 자신의 논지를 해명하고자 했다.[71]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한원진이 사문(師門)을 무욕(誣辱)했다는 이유로 돈암서원 유생 김오일(金五一)이 인근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회덕향교(懷德鄕校)에 모여 한원진을 '치토(致討)'할 일을 논의하자고 했던 것도[72] 그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73]

강호보는 김오일의 통문에 대한 장문의 변론문을 작성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한원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강호보는 기본적으로 김오일의 통문이 '도통적전자(道統嫡傳者)'를 추악하게 욕보이는 것이라고 단정했다.[74] 반론의 기본 논리는 한원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권상하의 행장을 지을 때 이기설을 주된 논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기설을 수립하고 후세에 물려준 공적을 기준으로 이이와 송시열을 거론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한원진의 논리가 권상하의 그것과 다르다는 김오일의 주장이었다. 김오일은 김장생이 "조화(造化)·성명(性命)의 근원으로부터 일용(日用)·사위(事爲)의 말절에 이르기까지 정통하게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75]고 한 권상하의 말을 거론하면서 이때의 '조화성명지원(造化性命之原)'이란 이기설을 말한 것이고, 따라서 김장생의 학설이 이기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스승인 권상하의 학설과 다르다고 지적했던 것이다.[76] 요컨대 한원진의 논의는 처음에는 김장생을 경멸하고, 중간에는 자신의 스승인 권상하의 주장을 배반했으며, 마침내는 송시열의 논의를 잘못

67) 《南塘集》 卷19, 〈答宋士能丁卯九月〉, 43ㄱ~ㄴ(201책, 451쪽). "尤翁撰沙 溪行狀, 直據道統爲說, 而近擧栗谷, 不及靜·退諸賢, 盖亦不欲蹈襲陳言, 而後來尙論者, 亦未嘗以此爲尤翁之罪也. 况僕之撰師門狀, 不敢全沒道統, 而曰朱子歿而吾道東矣. 其任傳道之責者, 惟栗谷·尤菴二先生爲最著. 旣以任傳道之責一句, 摠而言之, 則凡可與於傳道之責者, 皆在其中矣."

68) 黃榦, 《勉齋集》 卷36, 〈朝奉大夫文華閣侍[待]制贈寶謨閣直學士通議大夫謚文朱先生行狀〉. "由孔子而後, 曾子·子思繼其微, 至孟子而始著. 由孟子而後, 周·程·張子繼其絶, 至先生而始著." ; 《性理大全》 卷41, 諸儒3, 朱子, 8ㄱ(2645쪽).

69) 《南塘集》 卷19, 〈答宋士能丁卯九月〉, 43ㄴ(201책, 451쪽). "朱子行狀曰, 曾子·子思繼其微而至孟子而始著, 周·程·張子繼其絶而至先生而復著, 曾·思之於孟子, 周·程·張子之於朱子, 其賢等耳. 猶以孟·朱爲著者, 以其事業之大, 比往賢有加也. 據此則以栗·尤二先生爲最著者, 亦豈爲過哉."

70) 《南塘集》 卷13, 〈與尹瑞膺戊辰七月〉, 43ㄴ(201책, 313쪽). "自答宋君書出, 詈謗益甚."

71) 《南塘集》 卷13, 〈與尹瑞膺戊辰七月〉, 43ㄴ~45ㄱ(201책, 313~314쪽).

72)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1ㄱ~4ㄴ 참조.

73) 金長生의 후손인 金正默이 작성한 〈寒水齋先生行狀辨〉은 이들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過齋遺稿》 卷6, 〈寒水齋先生行狀辨〉, 1ㄱ~12ㄴ(255책, 306~311쪽)].

74)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4ㄴ. "小人之 誣毁聖賢, 何代無之, 而自號爲君子之黨, 托名爲道統辨誣, 而反乃醜 辱道統嫡傳者, 載籍以來, 所未有之變也."

75) 《寒水齋集》 卷21, 〈代忠州儒林通諭道內文丁卯三月十三日〉, 17ㄱ(150책, 389쪽). "自造化性命之原, 以至日用事爲之末, 靡不精硏洞究, 不差抄忽."

76)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2ㄴ~3ㄱ. "其所謂 造化性命之原, 獨非指理氣而何. 遂菴先生之言如此, 而元震乃謂沙溪之說, 不及理氣, 則一何背其師說也."

인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었다.[77]

이러한 '배사설(背師說)'의 연장선에서 김오일은 '식사지도(熄邪之道)'에 '성죄지거(聲罪之擧)'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하면서 한원진에 대한 '징치(懲治)'의 방도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원진에 대한 온건한 대응을 주장하는 논의를 주희의 '야가착야가서지론(也可捉也可恕之論)'으로 몰아부쳤다.[78] '야가착(也可捉), 야가서(也可恕)'란 맹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배척한 것을 도적을 쫓는 일에 비유하여 만약 도적을 마땅히 잡아야 하고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주인 편 사람이며, 잡을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도적 편의 사람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79] 강호보는 김오일의 이 논리가 한원진을 양주와 묵적 같은 이단으로 모는 한편 자신들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적변인(賊邊人)'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80]

강호보가 김오일의 통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가 배사설을 제기하고 있었고, 한원진에 대한 거벽(距闢)·징치(懲治)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으며, 그러한 논의의 배후에 김장생과 송시열의 후손들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1] 강호보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한원진의 학문적 위상에 손

77)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3ㄱ. "噫嘻甚矣, 元震之癡駭無識也. 始也輕蔑我老先生, 中爲背反遂菴先生說, 終又誣引尤菴先生."

78)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4ㄱ. "其在熄邪 之道, 詎緩聲罪之擧, 但念近來一種所論, 以爲元震之說, 何損於老先生哉, 當以不治治之, 此眞也可捉也可恕之論也."

79) 《朱子語類》 卷55, 孟子 5, 滕文公 上, 公都子問好辯章, 葉賀孫錄, 1319쪽. "如人逐賊, 有人見了自不與捉, 這便喚做是賊之黨. 賊是人情 之所當惡. 若說道賊當捉·當誅, 這便是主人邊人. 若說道賊也可捉·可恕, 這只喚做賊邊人."

80)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16ㄴ. "其引用此句者, 其意以我先生爲異端, 而又欲盡驅不附己者而直歸之於賊邊人也."

81)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18ㄴ. "尤有所痛心疾首者焉. 彼之爲此者, 非其罪也, 爲沙溪尤菴兩先生之後承者, 爲其嚆矢, 而扇動慫恿, 以致此耳."

상을 입히고 노론-호론계의 도통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불순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강호보가 생각하는 도통의 전수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상의 논의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주자=성인'론의 연장선에서 이이를 '집군현이대성(集□賢而大成)'자로 평가하면서 그가 주자의 도통을 계승했다고 보았다. 이이 이후 도통의 전수 과정은 이이 → 김장생 →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으로 파악했다.[82] 강호보는 당쟁 이후 김장생-송시열 계열이 세상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김장생-송시열 계열의 진작을 위해서는 이이 → 김장생 →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의 도통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18세기 후반의 상황에서는 한원진을 중심으로 도통론을 공고히 해야만 김장생-송시열 계열의 도가 천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83] 노론-호론계의 강고한 도통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이단(異端)·이설(異說) 변척(辨斥)과 '주자정론(朱子定論)'의 확정

1) 이단·이설 변척

강호보는 스승 한원진의 학문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이단과 이설에 대한

82)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5ㄱ. "栗谷先生, 集羣賢而大成, 遠紹晦翁之緖, 而以是道傳之於沙溪, 沙溪以是傳之尤菴, 尤菴以是傳之遂菴, 遂菴以是傳之於我先生."

83) 《贅言》 卷19, 〈遯巖書院儒生金五一誣辱師門通文辨〉, 17ㄴ ~ 18ㄱ. "嗚呼, 自有黨論以來, 人能知尊慕沙溪·尤菴者, 擧一世而未及三之一, 沙溪·尤菴之道, 固已孤矣. 然而沙溪沒而有尤菴, 則沙溪爲不沒, 尤菴沒而有遂菴, 則尤菴爲不沒, 遂菴沒而有我先生, 則遂菴爲不沒. 使我先生之道大行, 則是沙溪·尤菴之道大行也."

변척 작업을 거론하였다. 주자 사후에 황간(黃榦)을 비롯한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후학들을 혼란하게 한 점을 바로잡았고, 양명학(陽明學)처럼 문호를 따로 세운 것이나 나흠순(羅欽順)과 같이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을 일일이 논파(論破)했다고 찬양한 것이다.[84] 이는 한원진의 〈황면재오행설변(黃勉齋五行說辨)〉, 〈황면재성정설변(黃勉齋性情說辨)〉, 〈나정암곤지기변(羅整菴困知記辨)〉, 〈선학통변(禪學通辨)〉, 〈왕양명집변(王陽明集辨)〉 등의 저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85]

강호보는 스승 한원진의 작업을 계승하여 이단·이설에 대한 변척 작업을 진행했다. 그것은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일체의 학문 경향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명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유행하고 있던 서학(西學)이나 주자학과 양명학을 절충하려 했던 시도들까지 철저하게 비판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내지덕(來知德, 1525 ~ 1604)의 역학(易學)에 대한 방대한 분석 작업을 들 수 있다.

내지덕은 사천(四川) 양산(梁山) 사람으로 명대(明代)에 상수파 역학의 집대성자로 이름을 떨쳤다. 상수학에서 그는 소옹(邵雍) 이후 제1인자로 칭송되었고, 1571년(隆慶 4)에서 1599년(萬曆 26)까지 29년에 걸쳐 《주역집주(周易集注)》 16권을 완성하였다. 여기서 내지덕은 주희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착종설(錯綜說)'을 주장했다. 내지덕의 《주역집주》는 상수역에서 일가를 이루어 뒷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86]

내지덕에 따르면 '착종(錯綜)'이란 64괘의 순서에 착(錯)과 종(綜)이 있어

84) 《贅言》 卷27, 〈祭南塘先生文〉, 4ㄱ. "勉齋以下命辭之差, 有迷前旨而誤後學者, 先生又皆一一證正之, 以至於陽明之別立門戶, 整庵之高占標置者, 亦無所遁其情而肆其喙矣."

85) 이상의 논설은 《南塘集》 卷27, 1ㄱ ~ 48ㄱ(202책, 74 ~ 97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金駿錫,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硏究 -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 》, 지식산업사, 2003, 354 ~ 373쪽 참조.

86) 廖名春·康學偉·梁韋弦(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621 ~ 632쪽 ;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三卷, 華夏出版社, 1995, 272 ~ 310쪽.

음양 변화의 이치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착'이란 '교착대대(交錯對待)'를 일컫는 것으로 양(陽)이 왼쪽이면 음(陰)이 오른쪽, 음이 왼쪽이면 양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며, '종'이란 '고저직종(高低織綜)'을 일컬음인데 양이 위면 음이 아래, 음이 위면 양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다.[87]

내지덕은 공자 이후로 후대의 유자(儒者)들이 문왕과 주공이 상(象)을 세워 서괘전(序卦傳)의 착종 가운데 담아둔 뜻을 모르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왕필(王弼)이 상을 제거한 이후 역(易)에 주석을 붙이는 유자들이 상이 이미 실전(失傳)되었다고 하여 상을 말하지 않고 다만 그 이치만을 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역》에서 상을 취한 뜻이 마침내 후세에 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88] 내지덕은 상을 모르고, 문왕(文王)의 서괘(序卦)와 공자의 잡괘(雜卦)의 뜻을 모르고, 후세 유자들의 괘변설(卦變說)의 잘못을 모르면 역에 입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서거한 이후 역이 망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사성(四聖)의 역이 2천년 동안 긴 밤과 같은 어둠에 빠져있다고 보는 내지덕의 논리였다.[89] 그에게 역은 곧 상이었고,[90] 따라서 상을 모르면서 역에 주를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91]

강호보는 바로 이와 같은 내지덕의 《주역집주》가 주자학의 근간을 흔드는

87) 《易經來註圖解》, 〈周易集註序〉, 7 ~ 8쪽(《(慈恩本)易經來註圖解》, 高雄: 高雄復文圖書出版社, 1998의 쪽수). "又序六十四卦, 其中有錯有綜, 以明陰陽變 化之理. 錯者, 交錯對待之名, 陽左而陰右, 陰左而陽右也. 綜者, 高低織綜之名, 陽上而陰下, 陰上而陽下也."

88) 《易經來註圖解》, 〈周易集註序〉, 9쪽. "孔子沒, 後儒不知文王周公立象, 皆藏于序卦錯綜之中, 止以序卦爲上下篇之次序, 乃將說卦執圖求駿. 自王弼掃象以後, 註易諸儒, 皆以象失其傳, 不言其象, 止言其理, 而易中取象之旨, 遂塵埋於後世."

89) 《易經來註圖解》, 〈周易集註序〉, 9 ~ 10쪽. "均不知其象, 不知文王序卦, 不知孔子雜卦, 不知後儒卦變之非, 于此四者, 旣不知, 則易不得其門而入. 不得其門而入, 則其註疏之所言者, 乃門外之粗淺, 非門內之奧妙. 是自孔子沒, 而易已亡至今日矣. 四聖之易如長夜者二千餘年, 不其可長嘆也哉."

90) 《易經來註圖解》, 〈周易集註序〉, 10쪽. "夫易者象也."

91) 《易經來註圖解》, 〈周易集註序〉, 11쪽. "不知其象, 易不註可也."

것으로 간주했고, 이에 축조적 분석을 통해 그의 학문을 논파하고자 하였다. 내지덕이 주공(周公)과 공자의 정통 적자인 주자를 추존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웃으며 모욕하고 유린하기도 부족해서 심지어 헐뜯고 배척하기에 여력을 남기지 않아 주자를 이단이라고 지목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92] 강호보는 내지덕을 오도(吾道)의 강적인 또 하나의 양명(陽明)으로 보았던 것이다.[93]

강호보는 내지덕이 2천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뜻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착종설이나 기존의 괘변설에 대한 논변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역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94] 그는 기존의 주석에 대한 내지덕의 비판이 왕필이나 우번(虞翻)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정이(程頤)와 주희를 지목한 것이라고 파악했다.[95] 그런데 강호보는 정이와 주희의 주석이 없었다면 내지덕의 논의도 근거할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내지덕이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역(易) 가운데 상수(象數)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自然而然]을 겨우 엿보고서는 성급하게 천고(千古)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며[眼空千古] 정주(程朱)의 전의(傳義)를 모조리 없애버리려 하고, 거만하게 뽐내면서 자기 자신을 곧바로 공자에 연결하고자 한 행위가 망령된 것이라

92)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1ㄴ. "彼能於周孔遺經闡發如是, 而乃於 周孔正嫡, 不但不知推尊, 反嘲侮陵轢之不足, 甚而至於詆毁排斥, 不遺餘力, 目之爲異端也. 豈非無忌憚之甚乎."

93)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1ㄴ. "顧念是書, 稍稍盛行於世, 行將見 家藏, 而人誦之矣. 吾道强敵, 又添一陽明矣."

94)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4ㄱ. "錯綜之義, 卦變之辨, 來氏果見 得二千載不傳之旨, 而雖無來氏註, 易何嘗亡, 又豈至長夜耶."

95)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4ㄱ. "不知其象, 易可不註云者, 其意非指王弼虞翻也, 正指程朱傳義也."

고 비판했다.[96]

강호보는 정주와 내지덕을 각각 성인(聖人)과 백공(百工)에 비유했다. 《중용(中庸)》의 비은장(費隱章)은 그 논리적 근거였다. 내지덕이 다만 백공기예(百工技藝) 가운데 한 가지 재주에만 능한 사람이라면 정주는 도(道)의 전체를 탐구하지 않은 바가 없는, 한 몸에 백공의 일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주가 착종의 뜻을 발명하지 못하고 괘변설에 잘못을 범한 것은 '만분(萬分) 가운데 일분(一分)의 결함이 있는 것'이라면, 내지덕의 새로운 학설은 '만분 가운데 일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97]

강호보는 내지덕의 역학에 대한 자신의 비판 작업이 스승 한원진의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사실 그가 내지덕의 책을 처음 구해 본 것은 한원진의 말년에 해당하는 영조 26년(1750)의 일이었다. 당시 그는 한원진에게 이 책을 질정하고자 했으나 어사 정홍순(鄭弘淳, 1720~1784)의 탄핵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98] 이듬해 한원진이 서거함으로써 끝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강호보는 평소에 한원진이 설파했던 논리에 입각하여 내지덕의 책에 대한 변척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자 이후 500년 이래로 결정이 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이 한원진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유독 내지덕의 저술만이 감단(勘斷)과 취사(取舍)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천고(千古)의 유한(遺恨)이 될

96)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4ㄱ ~ ㄴ. "錯綜之說未及出, 而只有程朱傳義, 易未嘗不可讀矣. 必見得錯綜之義而後, 是可謂知其象而易 可註耶. 使無舊註, 吾恐來氏亦無所考据而得其象也. 彼竭平生之力, 三十年忘寢與食, 粗能覷得易中象數之自然而然, 遽乃眼空千古, 並與程朱傳義而欲一切掃去之. 又傲然欲直接乎孔子之後, 開口輒曰, 孔子沒, 易已亡, 至今日, 欲免爲千古一妄人得乎."

97)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4ㄴ ~ 5ㄱ.

98) 《贅言》 卷30, 〈先母行狀〉, 17ㄴ ~ 18ㄴ. 당시 鄭弘淳은 姜浩溥와 姜淵溥 형제를 豪强으로 지목하여 탄핵하였고, 강호보 형제는 겨울에 遠配에 처해졌다가 이듬해 봄에 解配되었다. 정홍순의 탄핵 내용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承政院日記》 1062책, 英祖 26년 11월 4일(癸卯)].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99]

명대에 이른바 '동림파(東林派)'로 불린 고헌성(顧憲成, 1550~1612)과 고반룡(高攀龍, 1562~1626)도 강호보의 비판 대상이었다. 동림파는 서원에서 대규모 강학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집회·결사 활동에 종사했다. 이들의 활동은 16세기 중엽 중국의 사상운동을 대변한다. 고헌성과 고반룡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중건하고 주희의 '백록동규(白鹿洞規)'에 의거해서 '동림회약(東林會約)'을 짓고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술적으로 이들은 정주도학(程朱道學)의 전통을 묵수했다고 평가되지만 한편으로 주희와 왕수인의 학풍을 절충하고자 시도했다.[100] 그런데 강호보가 보기에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주자학의 본질에 투철하지 못해서 벌어진 폐단이었다. 이에 강호보는 고헌성과 고반룡의 저술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차록(箚錄)하고 변설을 붙였다. 〈고고유서차의(顧高遺書箚疑)〉와 〈양계집변(梁溪集辨)〉이 바로 그것이다.[101]

강호보는 먼저 명대의 사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황명(皇明) 일대(一代)의 학술은 대저 바른길을 버리고 간사한 지름길을 좇는 것이었다. 열에 여덟아홉은 더럽고 잘못된 것이었는데, 대개 앞에서는 육상산(陸象山)에게 중독되고, 뒤에는 왕양명(王陽明)에게 잘못되었으니, 주문(朱門)의 지결(旨訣)과 일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102]라는 강호보의 언급이 그의 자세를 분명히

99) 《贅言》 卷17, 〈來知德易註辨上〉, 1ㄴ~2ㄱ. "余於庚午秋, 始得是書, 方欲奉質於函丈, 未及行而遭世禍謫嶺外, 未及放而先生遽棄後學矣. 朱子後五百年來, 多少未了之案, 皆被我先師爬櫛釐正, 而獨是書未 及經勘斷取舍, 此可爲斯文千古之遺恨矣. 每一披閱, 不禁愴涕, 而於其大故謬誤顯然易知處, 以先師之所已言者推之, 其剖擊之易, 不費再思, 而時於字義零瑣, 眩於從違, 益切安放之慟."

100) 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 第4卷(下), 人民出版社, 1960, 第25章 〈東林黨爭的歷史意義及其社會思想〉; 裘永東, 《明末清初思想》, 民音社, 1992, 163~193쪽 참조.

101)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1ㄱ~12ㄱ; 《贅言》 卷20, 〈梁溪集辨〉, 12ㄱ~34ㄴ.

102)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1ㄱ. "皇明一代學術, 大抵棄正路而 趍邪徑, 十八九醜差者, 盖前則中毒於象山, 後則被誤於陽明, 一切背馳於 朱門旨訣故也."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헌성과 고반룡이 출현하여 양명을 스승으로 삼는 세태를 배척하였으나 그 논의가 불철저하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은 주자의 학설에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103]

예컨대 고헌성이 왕수인의 '사구교(四句教)' 가운데 무선무악설(無善無惡說)을 비판하면서도 고자(告子)의 '무선무불선(無善無不善)'과 구별하려고 한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배후에는 왕수인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04] 나아가 양지(良知)가 천리(天理)라는 왕수인의 주장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호보는 왕수인의 학문과 식견의 오류가 모두 '양지=천리'설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지=천리설을 수용하면서 양명학의 다른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지엽 말단에 불과했다. 강호보가 보기에 이는 고헌성이 양명학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였다.[105] 그는 자신의 비판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양지(良知)는 기(氣)이고, 지(知)의 소이연(所以然)은 리(理)이다. 양지는 지(智)의 리가 지각(知覺)의 기를 타서 발하는 것이다. 양지를 가리켜 천리라고 하는 것은 기를 리로 인식하는 것[認氣爲理]이다. 무릇 소견의 궁극처가 리에 있으면 성인이고 기에 있으면 이단이다. 양명은 기를 리로 인식하였으니 그 학문이 이단임을 이미 여기에서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106]

103)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1ㄱ~ㄴ.

104)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2ㄴ~3ㄱ. "但其將告子無善無不善, 陽明無善無惡, 差殊觀者, 雖其爲說張王, 而終未見其有異也. …… 無善無惡, 公之所深闢, 而必欲與告子分而二之, 謂有高卑之卞者, 非欲回護 陽明而然也."

105)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3ㄱ~ㄴ.

106)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3ㄴ~4ㄱ. "夫良知者, 氣也, 所以知者, 理也, 何也. 夫良知者, 智之理, 承知覺之氣而發者也, 指良知爲天理者, 是認氣爲理也. 夫所見極處在理, 則爲聖人, 在氣, 則爲異端. 陽明認氣爲理, 則其學之爲異端, 於此已自首實矣."

이처럼 양명학을 철저하게 이단으로 간주하는 강호보에게 주자학과 양명학의 절충을 시도했던 동림파의 학문적 논의는 주자학이 옳고 양명학이 틀렸다는 기본 인식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07]

강호보는 18세기 조선 사회에 유행하고 있던 서학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했다. 그는 명나라 말기에 서양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학술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 차츰차츰 서학이 천하에 유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그것을 숭상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가운데도 서학을 따르는 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니 천하가 그 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았다.[108] 사실 당시 조선의 선비들 가운데는 서학을 존숭(尊崇)하는 자도 있었고 그것을 공척(攻斥)하는 자도 있었다. 논의는 분분했고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109] 강호보는 기본적으로 천주교를 도교와 불교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무망망탄(誣罔妄誕: 사람을 속이는 터무니없는 것)'하다고 보았으며,[110] 정교함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었던 서양의 천문학과 화법(畵法)에 대해서도 '요괴(妖怪)의 재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였다.[111]

강호보는 시헌력(時憲曆)에 대한 비판문인 김시진(金始振, 1618~1667)의 〈역법변(曆法辨)〉과 이에 대한 반박 논문인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의 〈김참판역법변변(金參判曆法辨辨)〉을 검토했다.[112] 그는 역법의 구성 원리를 둘러싼 전문적 논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극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가 역법(曆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특히 시헌력의 원리에 전문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호보는 "시헌력이 정말로 커다란 오차가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80년 동안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니 그 대법(大法)이 커다란 오류에 이르지는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113]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서양 역법의 수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용(器用)은 오랑캐의 것을 취할 수도 있지만 도술(道術)과 법제(法制)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역법은 역대 성왕(聖王)이 천기(天氣)에 따르고 인시(人時)를 부여해 주는 도술·법제로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로요마(醜虜妖魔: 더러운 오랑캐와 요괴)'의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114]

이는 시헌력의 수용을 둘러싼 양자의 논의 가운데 김시진의 견해를 지지한 것이다. 강호보는 역법의 세부 논의에서는 김시진의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장하는 근본이 바르고 소견이 깊다고 보았다.[115]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 이래 서학의 유행이 명을 멸망의 길로 이끈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파악했고, 시헌력이 서양 역법이라 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남극관은 김시진이 신뢰하는 수시력(授時曆)도 원대(元

107) 《贅言》 卷20, 〈顧高遺書箚疑〉, 4ㄱ. "公於此不覺其非, 則大原處, 公未及見得, 是豈能眞知朱子之爲是, 陽明之爲非也哉."

108)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至明末, 自西域流傳, 始入中國, 已有售其術, 染其習之漸矣. 其後浸浸然盛行於天下, 今則燕中人, 无不尊尙之, 我東之人, 亦往往有尙其道而從其說者, 則其害已被於四海矣."

109)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西洋道術, 我東近世學士, 或尊崇之, 或攻斥之, 議不歸一, 多有辨說."

110)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其誣罔妄誕, 可憎亦可笑也. 又其學術, 淸淨以无慾爲工, 以得道坐化爲驗云, 蓋合仙佛而爲一者也."

111)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其畵誠如夢囈鬼化, 未可知其何以爲然, 眞可謂妖怪之才矣."

112) 양자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 時憲曆 施行과 節氣配置法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 《東方學志》 117,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2002를 참조.

113)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使時憲曆誠有大誤而差違者, 則似不可行八十年矣. 其大法則或不至大謬也歟."

114)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道術法制, 則決非可取法乎遠夷故也. 曆法者, 聖王所以順天氣而授人時也, 其於道術法制所關之重何如, 而可以比之於尋常器用, 一從醜虜妖魔, 任自改易也哉."

115)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金公所論者, 其是非得失, 則吾不敢知, 而其所執之正, 所見之深, 則恐非年少後生所可及也."

代)에 만들어진 것인데 달단(韃靼)과 여진(女眞)을 가릴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하였다.[116] 강호보는 명의 멸망을 서학의 성행과 연결한 김시진의 견해를 '지극한 이치가 담긴 말[至理之言]'로 평가했다.[117]

이와 같은 강호보의 태도는 지구설(地球說)을 둘러싼 양자의 논의에 대한 평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지구설에 대한 김시진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118] 이는 서학과 같은 이단에 공격적인 김시진을 옹호하고 서학 수용을 주장한 남극관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강호보는 지구설에 대한 김시진의 비판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남극관이 장문의 반론을 제기한 의도를 불순하게 보았다.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서학을 보호하고 그것을 부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119] 강호보는 당시 해박한 선비들이 서양 학설을 좋아하여 마테오 리치의 뒤를 추종하는 세태를 바라보며, '궁리지사(窮理之士: 이치를 궁구하는 선비)' 가운데도 그 학설에 빠져 왜곡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대중을 미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120] 이른바 '육면세계설(六面世界說)' 논쟁은 그 대표적 예였다.[121]

그렇다면 강호보는 왜 지구설이나 육면세계설을 비판하였을까? 거기에는 주자의 언설에 대한 평가, 논리적 정합성, 경전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

116) 《夢囈集》 乾, 〈金參判曆法辨辨〉, 16ㄴ ~ 24ㄱ(209책, 300 ~ 302쪽) 참조.

117)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金公之以虜酋陷中原, 歸罪於西術之盛行者, 眞至理之言也."

118)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至於攻斥地球之論, 金公之言, 十分是且當矣."

119)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見人之攻其術, 乃立言作文, 主其說而力爭之, 披流波而墟埋炎, 使之熾盛焉."

120)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聰敏能文者, 例好奇, 故近世該博之士, 喜聞西洋之論而樂道之, 靡然趨附於利瑪竇之下風, 力主其論, 皆匍匐欲歸焉, 不獨夢囈爲然也. …… 而間或有窮理之士, 亦陷於其論, 曲爲之說, 巧成義理, 故惑之者衆, 思非細憂也."

121) 임종태, 〈'우주적 소통의 꿈' - 18세기 초반 湖西 老論 학자들의 六面世界說과 人性物性論 - 〉, 《韓國史硏究》 138, 韓國史硏究會, 2007 참조.

이 얽혀 있다. 그렇지만 강호보가 지구설을 공격했던 궁극적 이유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불온함 때문이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 인간 만사(萬事)는 모두 천지(天地)를 본받는다. 군신(君臣) 간의 상하(上下)의 분수는 하늘과 땅이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처럼 확실하며 더욱 큰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천지의 상하는 본래 정해진 위치가 없다고 하니, 이 학설이 제멋대로 유행하는데 금지하지 않는다면 장차 군신 간에 분수가 없어지고 상하의 정해진 위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니 그 말류(末流)의 폐단은 어떻겠는가.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끊이지 않고 세상에 출현하지 않겠는가. 그 도리에 어긋남이여.[122]

강호보는 지구설이 "천존지비(天尊地卑), 건곤정의(乾坤定矣)"[123]라는 유가의 진리와 어긋나며, 그것은 결국 '군신무분(君臣無分)', '상하무위(上下無位)'라는 주장으로 연결됨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18세기 당시 노론 학계 내부의 최대 논란은 이른바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었다. 인성과 물성에 근본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분기가 말해 주듯이 주요 사상논쟁이었다. 강호보는 철저히 호론의 입장에서 낙론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비판했다. 그는 인간과 금수의 차이점을 오륜(五倫)의 차원에서 찾고 있었다.

122) 《桑蓬錄》 卷7, 1727년 12월 29일(庚戌). "人間萬事, 皆效法天地, 而君臣上下之分, 截然如天地定位者, 尤其大者也. 今乃謂之曰, 天地上下, 本无定位, 此說恣行而不禁, 則將君臣无分, 上下无位, 末流之弊幾何, 而亂臣賊子不繼出於世也, 其悖矣."

123) 《周易》, 繫辭上傳, 1章.

> 사람은 금수와 더불어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 천지의 이치를 똑같이 얻어 성(性)으로 삼고, 천지의 기운을 똑같이 얻어 마음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가[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오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24]

강호보는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 하늘에서 부여하는 이치는 똑같지만 기(氣)의 경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기(二氣)와 오덕(五德)을 제대로 품부(稟賦)하면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성인이 되고, 그 아래로 아성(亞聖)과 대현(大賢) 이하의 경우는 약간의 편벽됨을 면할 수 없고, 중인 이하는 대체로 편벽된 기운을 품부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기의 편벽됨으로 말미암아 타고난 자질은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모두 음양오행의 '수기(秀氣)'를 품부하기 때문에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것이다.[125]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오륜이란 바로 '오행수기지리(五行秀氣之理)'였다.[126] 따라서 인물이 생성되는 초기에 사람은 오행의 수기를 얻기 때문에 오상(五常)을 구비하고 있지만, 사물은 오행 가운데 하나의 수기만을 얻고 나머지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덕 가운데 하나만을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사람과 사물의 같고 다름을 구분하는 경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호보는 생각했다.[127] 그는 "오직 사람만이 그 수기를 얻어 가장 신령하다."[128]라고 한 《태극도설(太極圖說)》의 구절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129]

이상과 같은 강호보의 논의는 본연지성(本然之性)도 리(理)가 아닌 성(性)인 이상 기질에 영향을 받아 청탁수박(淸濁粹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사람만이 오상을 구비하고 사물은 오상을 구비할 수 없다고 여기는 호론의 일반적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호락논쟁에 대한 강호보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저술이 낙론의 종장(宗匠)인 이재(李縡, 1680 ~ 1746)의 《천상강설(泉上講說)》에 대한 비판적 논문인 〈한천중용강설차의(寒泉中庸講說箚疑)〉[130]이다. 이는 윤봉구(尹鳳九, 1683 ~ 1767)의 〈한천중용수장급대학명덕강의변(寒泉中庸首章及大學明德講義辨)〉(1752년 作)[131]에 비견되는 호론 측 입장의 비평문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호보는 김창집(金昌緝, 1662 ~ 1713)처럼 호론계의 논의와 다른 주장을 전개했던 낙론계 학자들의 저술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을 가했다.[132] 이와 같은 강호보의 작업은 주자의 학설과 다른 일체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것은 주자의 정론을 확정하는 작업과 표리 관계에 있었다.

2) '주자정론'의 확정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단·이설 변척이 현실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학(正學)'의 실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것은 바로 '주자정

124)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5ㄱ. "人與禽獸並生於天地之間, 同得天地之理以爲性, 同得天地之氣以爲心, 而其所以異於禽獸者, 以其有五倫也."

125)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5ㄱ ~ ㄴ. "自最靈降賦之初, 而二氣均適, 五德齊齒, 則是爲生知大聖之資, 其次亞聖大賢以下, 已不能無小偏, 衆人以下, 則或木氣多而偏於仁厚, 不足於剛果……雖其生質之異, 有贏乏多少之殊, 而皆均賦二五之秀氣, 故所以爲最靈."

126)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5ㄴ. "盖五常者, 五行秀氣之理也. 必得其秀氣然後, 方謂之五常."

127)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5ㄴ ~ 46ㄱ. "此所以造化生物時, 人得其秀氣, 故五常無不備, 物則或得其一氣之秀, 而不能盡得其餘, 故僅存其一德之明也.……此人與物同異之大界分也."

128) 《性理大全》 卷1, 太極圖, 36ㄴ(136쪽). "惟人也得其秀而最靈."

129) 《贅言》 卷16, 〈科弊綸音後貢擧私議〉, 46ㄴ. "人物同異偏全之義, 太極圖說已勘破無餘蘊, 惟人也得其秀而最靈一句, 盡之矣."

130) 《贅言》 別集, 〈寒泉中庸講說箚疑〉.

131) 《屛溪集》 卷35, 〈寒泉中庸首章及大學明德講義辨壬申冬〉, 33ㄴ ~ 48ㄱ(204책, 191 ~ 198쪽).

132) 《贅言》 別集, 〈圃陰集箚疑〉.

론(朱子定論)'을 확정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강호보의 이단·이설 변척과 주자정론의 확정은 정통주자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논리를 학문·사상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었다. 강호보가 '주자정론'을 확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개략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133] 여기에서는 강호보의 대표적 저서라 할 수 있는 《주서분류(朱書分類)》의 편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서분류》는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논어맹자집주(論語孟子集註)·대학중용장구(大學中庸章句)·《사서혹문(四書或問)》·《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주자연보(朱子年譜)》 등 주자의 모든 언설(言說)을 수괄해서 '문단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문목을 세워서[逐段分類, 各立門目]' 4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한 84책의 거질이었다.[134] 다종다양한 주자의 문장과 논의를 축목심강(逐目尋綱 : 조목에 따라서 강령을 찾음)해서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문목(門目)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 "합하면 강령이 되고, 나누면 조목이 되게[合之爲綱領, 分之爲條目]" 하는 방법이었다.[135] 《주서분류》를 편찬하는 작업은 이처럼 방대한 주자서(朱子書)의 문의(文義)를 파악하는 한편 그렇게 파악한 내용에 알맞은 문목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여기에 《주자언론동이고》·《주서절요기의(朱書節要記疑)》·《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주자대전차의후어(朱子大全箚疑後語)》·《주자어류고문해의(朱子語類考文解義)》 등과 같은 여러 문헌을 인용해서 주설(註說)을 베풀고, 필요한 경우

133) 金駿錫, 앞의 논문, 1987.

134) 〈四養齋姜先生行狀〉. "從古學者, 每欲分類朱書, 而不敢輕爾下筆, 盖由大全及語類, 卷帙浩汗, 義理無窮, 且有初晩異同, 眩於取舍故也. 於是先生病之, 遂逐段分類, 各立門目, 若遇事攷質, 則瞭然如燭照焉. 口誦手繕, 垂四十年, 草成者, 爲八十四卷, 而名曰朱書分類."

135)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4ㄴ. "讀朱書而苟欲其分數明也, 莫如合之爲綱領, 分之爲條目, 使各有部伍也."

에는 강호보 자신의 안설(按說)을 부연해야만 했다. 이 방대한 편집 작업에는 그만한 인적·물적 지원이 요구되었던 것이다.[136]

이미 강호보 이전에도 주자정론을 확립하는 작업은 송시열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 한원진의 《주자언론동이고》는 그 주요 성과물 가운데 하나였다. 강호보는 자신의 작업이 송시열의 유의(遺意)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표방했다. 실제로 송시열은 《정서분류(程書分類)》와 짝을 이룰 수 있는 분류서의 편찬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 시절 차록(箚錄) 작업을 했지만 그것은 전체의 10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송시열은 자신의 작업을 후학들이 계승해서 완성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주자대전차의》의 후속 작업은 제자들에게 위촉한 바 있었지만 분류·편찬하는 작업[類編]은 부탁하지 못했다.[137] 강호보는 바로 이러한 분류·편찬 작업의 계승을 자신의 소임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강호보가 이 작업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7세 때인 영조 12년(1736)이었다.[138] 이때부터 그의 40년에 걸친 집념의 작업이 계속되었다. 강호보는 먼저 주자서에 대한 10년간의 독서를 바탕으로 노트

136) 金駿錫, 앞의 논문, 1987, 111~112쪽.

137)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5ㄱ. "此尤菴晩年所以有分類之義者也. 以尤菴聰明, 滿腔子都是朱子書, 而猶以爲未也. 乃欲編次之, 以配程書分類, 而以工夫支離, 未及下手. 以初晩同異, 迷於從違, 尤爲後學之憂, 乃於耽羅囚海日, 略加箚錄, 未及十之一二而止, 以貽後學踵成之責焉. 箚疑屬之門人, 而類編未有分付處矣."

138) 〈朱書分類序〉, 《贅言》 卷22, 55ㄱ~ㄴ. "余自丙辰廢學杜門, 盡棄舊業, 惟以朱子書爲桑榆補過之計……." 1730년대 중반에서 174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서울·경기 지역 노론 학자들과 호서 지역 노론 학자들 사이의 호락논쟁이 본격화된 때였다. 이 시기 호락논쟁은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267쪽]. 아마도 이런 상황이 강호보의 작업에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찍이 주자가 제시한 독서법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 주자는 "문자(文字)를 순서에 따라 편찬할 때는 반드시 공책[草簿]을 마련하여 항목을 초록(抄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마음을 써서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문자를 순서에 따라 편찬할 때 공책을 이용해 초록하는 것[用簿抄記]은 또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139]라고 설파한 바 있다. 강호보는 바로 이와 같은 주자의 독서법에 따라 노트를 작성해 나갔다. 《주자대전》을 시작으로 하여 《주자어류》, 《사서혹문》에 이르는 방대한 편찬 작업은 20년이 지나 겨우 그 틀이 완성되었다.[140] 무려 80여 책에 이르는 초본의 편찬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강호보 자신이 각고의 노력으로 수행하였다. 필사 작업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전체 구성과 범례도 자신의 생각으로 마련했다.[141]

초고가 대체적인 모습을 갖춘 1750년대 중반부터 강호보는 조정 요로에 있는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부의 조력으로 자신이 기획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경연석상에서 국왕에게 이 사업의 내용을 주달(奏達)해서 국왕의 동의를 끌어낸 다음, 정부의 물적 지원을 받아 정본화(正本化) 및 출판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강호보의 복안이었다. 이는 예로부터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으면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조정에 보고해 사업의 성취를 도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를 당시 조선에서도 여러 차례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판단이었다.[142] 최립(崔岦, 1539~1612)의 《주역본의구결부설(周易本義口訣附說)》이나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의 《황명강목(皇明綱目=明史綱目)》의 경우에는 저술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외직에 보임하는 경우도 있었다.[143] 특히 영조가 표방한 '숭도우문(崇道右文 : 도를 숭상하고 학문을 높임)'의 정치 지향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144] 그러나 강호보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람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호보의 《주서분류》 편찬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사람이 조엄(趙曮)이었다. 영조 44년(1768) 무렵에 강호보가 조엄에게 보

139) 《朱子語類》 卷11, 學 5, 讀書法 下, 輔廣錄, 195쪽. "編次文字, 須作草簿, 抄記項頭. 如此, 則免得用心去記他. …… 編次文字, 用簿抄記, 此亦養心之法." ;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5ㄱ.

140)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5ㄴ. "讀之十年, 轉迷轉晦, 疑難塞胸, 憤悱莫啓, 每開卷輒有望洋之歎, 無緣會而統之於一貫之中. 遂率意起草簿, 先從大全始, 次及語類及四書或問, 二十載而編次粗成."

141)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5ㄴ. "蔀屋下寒措大, 無書手可與共者, 草簿八十冊, 皆手寫錄出. 又無强輔之可與議者, 規模凡例, 皆出臆斷." 《朱書分類》의 전체 권수를 姜浩溥는 80책이라고 하였는데 林在達이 작성한 行狀에는 84책으로 되어 있다. 또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80권이라고 했고[《五洲衍文長箋散稿》 卷32, 〈朱子晩年定論辨證說〉(上, 908쪽). "朱書分類八十卷(姜浩溥輯)."], 《增補文獻備考》에는 54책이라고 하였다[《增補文獻備考》 卷246, 藝文考 5, 儒家類, 13ㄱ(下, 883쪽). "朱書分類五十四卷, 知事姜浩溥輯."]. 현존하는 《朱書分類》는 54책본(규장각장본 : 奎1788)과 84책본(국립중앙도서관장본 : 한古朝17-179)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서지 사항은 文藝元, 〈姜浩溥의 《朱書分類》 편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文獻情報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를 참조.

142) 《贅言》 卷3, 〈與李校理碩載叔果〉, 28ㄴ. "從古自下, 編書而有可裨世道者, 上之人, 未嘗不薦聞於朝, 以資其成就焉. 雖以我東事言之, 亦多有可援之例矣." ; 《贅言》 卷4, 〈上時相壬午〉, 29ㄴ. "以此, 從古自下, 編書而有可裨世道者, 上之人, 未嘗不薦聞於朝, 以相其役."

143) 《簡易集》 卷1, 〈周易本義口訣附說投進疏〉, 35ㄱ~ㄴ(49책, 196쪽). "臣伏以往在壬寅年中, 臣控辭周易校正廳疏中, 有乞恩補一僻郡, 專意治易一款, 雖未卽蒙準許, 旣而罷局數月, 蒙恩除授本任, 于今三年, 將息衰疾, 賤業亦就完訖." ; 《芝湖集》 卷11, 〈簡易堂崔公行狀丙辰四月〉, 7ㄱ(143책, 532쪽). "壬寅, 又差槐院提調, 周易校正廳堂上. 上疏乞守一郡, 畢所著書, 用除杆城郡守, 卽歲癸卯也. 居歲餘, 所著周易本義口訣成, 具疏投進." ; 《游齋集》 卷10, 〈寒碧錄〉, 1ㄱ(156책, 439쪽). "甲戌冬, 公爲撰修明史綱目, 力辭京職, 出宰淸風." ; 《贅言》 卷4, 〈上時相壬午〉, 29ㄴ. "雖以我朝事言之, 崔簡易之撰本義口訣也, 借杆城守, 李玄錫之撰皇明綱目也, 借淸風伯."

144) 《贅言》 卷3, 〈與北伯金漢喆 乙亥二月〉, 18ㄱ~20ㄱ ; 《贅言》 卷3, 〈與李叅判〉, 24ㄱ~25ㄱ ; 《贅言》 卷3, 〈與金判尹漢喆〉, 25ㄱ~26ㄴ ; 《贅言》 卷3, 〈與李校理碩載叔果〉, 26ㄴ~31ㄴ ; 《贅言》 卷4, 〈與李校理碩載〉, 26ㄴ~28ㄱ ; 《贅言》 卷4, 〈上時相壬午〉, 28ㄱ~31ㄱ 등 참조.

낸 편지에 따르면 당시 필묵(筆墨)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조엄이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엄은 《주서분류》의 정서(淨書)를 독려했던 듯한데, 강호보는 초고의 수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작업 내용을 보면 성리(性理)와 위학공부(爲學工夫)에 대한 것이 10여 권, 사서(四書)에 대한 내용이 20여 권이 넘고, 삼경(三經)에 대한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145] 강호보는 30여 년에 걸친 자신의 작업이 결과를 맺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였다.[146]

강호보가 《주서분류》의 서문을 작성한 것은 영조 52년(1776), 그의 나이 87세 때였다.[147] 실로 40년에 걸친 방대한 작업의 결산이었다. 이 작업은 주자 학설의 '초만부동(初晩同異 : 초년설(初年說)과 만년설(晩年설)에 같고 다름이 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148] 궁극적으로 '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149] 강호보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업이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기를 희망했다. 주자 도통의 계승과 정학(正學)의 수호라는 숭고한 이념이 그 사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강호보가 자기 자신을 '주문충신(朱門忠臣 : 주자 문하의 충신)'으로 자처하면서 후세에 주자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양지탄(望洋之歎)'이 없게 하고 '초만이동(初晩異同)'에 다시는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145) 《贅言》 卷4, 〈答趙侍郎曮〉, 37ㄴ. "性理門及爲學工夫, 過十許卷, 四書又過二十餘卷, 今三經當次, 而筆墨及工錢見乏, 不得繼書, 而又復煩瀆, 亦涉支離, 故欲待入城面告, 書中不敢提告者, 以此也. 盖迷見以爲草稿釐正爲急務, 盡意爬櫛已了, 則淨書雖待早晏好機, 恐亦無妨故耳, 未知如何."

146) 《贅言》 卷4, 〈答趙侍郎曮〉, 37ㄱ. "撫念平生, 雖無大罪過, 而卅載積勞, 未及畢其功, 終成未了之案, 此爲至恨."

147)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6ㄱ. "崇禎後三周丙申月日, 海東姜浩溥八十七歲翁書."

148)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4ㄴ. "然後一部朱書, 始得以類相從, 而支分節解, 詳略相因, 巨細畢擧. 初晩同異, 亦可以攷歲月, 辨蚤暮矣."

149) 《贅言》 卷22, 〈朱書分類序〉, 54ㄱ. "凡事物至前, 吾有朱子書, 可否從違, 一遵於晩年定論, 則是以吾之耳目, 借視聽於朱子也."

이해할 수 있다.[150] 《주서분류》에 대한 강호보의 자부심은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편서는 비록 소인(小人)의 손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결같이 여러 선생들의 정론(定論)에 의거하여 주자의 언어와 문자를 모두 분류함으로써 한 번 책을 펼치면 명료함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뒤섞여 어지러운 의리(義理)에 대한 단안(斷案)이 여기에 있고, 번잡한 사무(事務)에 대한 준칙(準則)이 여기에 있으며, 정치의 방법[政謨治法] 또한 모두 자세히 구비되어 있으니 이는 다만 사군자(士君子)의 지결(至訣: 지극한 비결. 중요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위로는 제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초사자(初仕者[一命])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편서의 완성이 어찌 사도(斯道)와 사세(斯世)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151]

강호보의 생애 후반부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주서분류》 한 편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152] 《주서분류》는 강호보 사후 정조(正祖)의 주목을 받았다. 정조 21년(1797) 당시 《주서분류》는 조진관(趙鎭寬, 1739~1808)의 집에 소장되어 있었다.[153] 조진관은 조엄의 아들이었고 강

150) 《贅言》 卷4, 〈答鄭副學存謙大受〉, 21ㄴ~22ㄱ. "浩溥於前書, 自稱爲朱門忠臣者, 盖有以也, 執事乃貶之爲朱門老奴, 何也. 浩溥嘗謂朱夫子於後學有罔極之恩, 故今老白首忘其死日之將迫, 積十秊, 夙夜殫誠於編摩之役, 庶幾今與後之讀朱書者, 無望洋之歎, 而不復眩於初晩異同……."

151) 《贅言》 卷4, 〈上時相壬午〉, 30ㄱ. "玆編雖成於小人之手, 而一依諸先生定論, 使朱子言語文字, 皆得以類, 而從一開卷, 了然如指諸掌, 義理之錯亂而斷案在此, 事務之繁雜而準則在此, 政謨治法, 亦皆纖悉備具, 此不但爲士君子之至訣, 上自帝王, 下至一命, 尤不可一日無者, 玆編之成, 豈不關係於斯道斯世耶."

152) 《贅言》 卷3, 〈與李校理頤載叔果〉, 31ㄱ. "況鄙人小腹中, 朱書分類便作一餠子, 橫在肚裡……."

153) 《日省錄》 正祖 21년(丁巳) 6월 4일(癸酉). "又敎都承旨趙鎭寬曰, 卿家所儲朱書分類, 今此取覽, 則凡例極爲精詳, 此是故知事姜浩溥所抄輯云, 其工夫可知矣."

호보와도 일찍부터 교분이 있었다. 조엄이 《주서분류》의 정본 사업에 물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정본이 조진관의 집에 소장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조진관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주서분류》는 원본(原本)과 등록(謄本)의 두 종류였다.[154]

정조는 강호보의 《주서분류》의 범례가 매우 상세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정서분류》의 범례와 유사한지를 물었다. 이에 조진관은 《주서분류》의 범례가 《정서분류》와는 다르며 《사문유취(事文類聚)》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주서분류》가 《사서혹문》이나 《주자대전차의》와 같은 책들도 빠뜨리지 않아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책의 권수가 많아 교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오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55] 조진관의 말을 통해 유척기(兪拓基, 1691 ~ 1767)를 비롯한 당대의 주요 인사들이 이 책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강호보의 《주서분류》를 일람한 정조는 강호보의 공부를 칭찬하면서 《주서분류》를 간행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했다.[156] 이는 정조 자신이 기획하고 있던 《주자전서(朱子全書)》의 편찬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정조는 주자의 모든 글을 망라하여 통일된 전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범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다. 그는 《주자대전》처럼 시문을 앞에 싣는 것은 문집체(文集體)로서 주자서의 본뜻과는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울러 경서에 대한 장구(章句)나 주석(註釋)도 모두 분류해서 수록할 것인지, 이황·송시열·김창협(金昌協)·이의철(李宜哲)과 같은 조선 학자들의 관련 저작들도 모두 수록하여 전석(詮釋 : 해설, 풀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도 고민거리였다.[15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조는 《주자전서》를 편집할 때 강호보의 《주서분류》를 참고하고자 했던 것이다.[158]

154) 《日省錄》 正祖 22년(戊午) 4월 19일(癸丑). "予教大護軍趙鎭寬曰, 卿家所在故知事 姜浩溥所編朱書分類, 其原本與謄本, 詳略不同, 未知何件爲精詳乎. 鎭寬曰, 臣亦未知其何者爲詳, 而其凡例之詳知者有人, 張鴻是也."

155) 《日省錄》 正祖 21년(丁巳) 6월 4일(癸酉). "其凡例, 與程書分類, 果如何耶. 鎭寬曰, 與程書分類有異, 而與事文類聚略相似焉. 或問箚疑無有遺漏, 其該洽則極矣. 但卷帙浩多, 故未及校準, 或不無文字間訛誤處, 而故相臣兪拓基曾見此書, 亦爲歎賞矣."

156) 〈四養齋姜先生行狀〉. "先生卒之二十年, 正宗丁巳, 有筵奏者, 而朱書分類原本及先生遺稿, 命並入之. 御覽而 歎賞顧左右曰, 故知事姜浩溥所編朱書, 極其該備, 予一覽而其人工夫可知, 此書決不可束閣, 正合印布也." 정조 23년(1799)에는 정조가 강호보의 손자인 姜晦煥을 인견했을 때 강호보의 학문을 칭찬하면서 그 문집을 간행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고 한다[〈四養齋姜先生行狀〉. "己未, 又引見先生之孫姜晦煥曰, 汝祖眞徽國之忠臣也. 汝祖遺集, 亦將並刊. 未及入梓, 弓劒遽藏卒, 亦未之遂焉, 命也."].

4. 맺음말

조선후기 서인-노론계를 대표로 하는 주자도통주의자들은 양란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을 주자학을 이념적 좌표로 삼아 보수·개량하고자 하였다. 송시열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인-노론-호론계의 사상적 지향은 대개 그런 것이었다. 강호보는 18세기에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학문적 목표는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노론-호론계의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수사문설(守師門說)'을 바탕으로 각종 이단·이설을 변척하고 '주자정론'을 확립하는 데 두어졌다.

그것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다종다양한 주자의 문장과

157) 《日省錄》 正祖 21년(丁巳) 6월 4일(癸酉). "予曰, 此書實合印行, 而任其束閣, 則終爲可惜矣. 予於朱書, 嘗欲作一部全書, 博極無遺, 而其凡例最難, 蓋大全則以詩文載於卷首, 此乃文集體也, 恐非朱書之本義, 未知何以則能盡美耶. 竝與經書章句註釋之文, 而皆彙分類聚, 至於退溪記疑, 尤菴箚疑, 及金昌協·李宜哲所錄, 亦皆收錄以備詮釋爲好耶. 鎭寬曰, 朱書甚爲浩多, 欲爲便覽, 則似無如以類彙分之爲簡當矣."

158) 《日省錄》 正祖 22년(戊午) 4월 19일(癸丑). "予方得此而將欲參用於朱書編輯時矣."

언설을 분류·종합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주자 학설의 '초만동이(初晩同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자정론'을 확립하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와 병행하여 주자학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었던 일체의 논의들을 조목조목 비판·배격하는 것이었다. '주자정론'을 확립하는 작업은 스승 한원진과의 학문적 토론을 통해, 주자학과 다른 경전 주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되었으며, 그 최종적 성과물이 바로《주서분류》였다. 그는 여기서《주자대전》과《주자어류》의 각종 논의들을 강목(綱目)에 따라 분류·정리함으로써 학자들로 하여금 주자학의 주요 담론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단(異端)·이설(異說)에 대한 비판 작업은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일체의 학문 경향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양명학이나 불교처럼 이전부터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학문·사상·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후기에 유행하고 있던 서학(西學)이나 동림파(東林派)와 같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절충하려 했던 시도들까지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강호보는 명대(明代)의 내지덕(來知德), 고헌성(顧憲成), 고반룡(高攀龍) 등의 저술에 대해 축조적으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인-노론계열 학자들 가운데 이재(李縡)나 김창집(金昌緝)처럼 호론계의 논의와 다른 주장을 전개했던 낙론계 학자들의 저술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을 가했다. 이와 같은 강호보의 작업은 주자의 학설과 다른 일체의 논의에 대한 변척이었고, 그것은 '주자정론'을 확정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호보는 노론-호론계의 전형적인 정통주자학자였다. 그의 학문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노론-호론계는 주자와 주자학을 절대화하는 주자도통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보수개량 노선의 경장론을 전개했다. 그것은 양란 이후의 사회 변동으로 동요하고 있던 조선후기 사회를 중소지주 계급 출신의 양반 사대부 입장에서 재조정하려는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 노론-호론계는 주자학을 이념적 기치로 강렬한 명분론을 전개함으로써 사상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18세기 이후 중앙 정계의 정치적 주도권이 노론-낙론계로 넘어가는 현실은 이들의 강고한 이념적 지향이 더 이상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를 주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補論】강호보와《팽성지(彭城誌)》

《팽성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숙종 25년(1699)으로 보인다. 당시 현감이었던 김중우(金重禹)의 발문이 작성된 시점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다. 발문에 따르면《팽성지》를 제작하는데 참고가 되었던 자료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중우 본인이 현감으로 부임한 이래로 견문한 '일읍(一邑)의 사정(事情)', 예컨대 풍속의 좋고 나쁨, 인물의 성쇠, 병폐[疵瘼]의 유무로부터 자질구레하고 저속한 말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을의 진사 신식(申埴)이 '본읍(本邑)의 사적(事蹟)'을 수집해서 상세하게 정리한 책자였다. 김중우는 신식의 책을 입수하여 이를 본인이 기록한 내용과 대조해서 보탤 것은 보태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서《팽성지》를

만들었다고 하였다.[159]

그런데 현전하는 《팽성지》의 인물조에 수록되어 있는 신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인쇄한 《팽성지》는 공이 편찬한 바이다"[160]라고 언급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팽성총론(彭城摠論)〉을 편찬한 이도 신식이며,[161]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나 〈관사신건상량문(官舍新建上樑文)〉 등의 기문을 작성한 것도 신식이었다. 강호보 역시 자신이 작성한 발문에서 "향선생(鄕先生: 고을의 명망 있는 선비)인 상사(上舍) 신식 공(公)이 널리 자료를 수집하고 대충 조리[條貫]를 이루었다"고 하여,[162] 팽성의 읍지가 이루어진 공을 신식에게 돌린 바 있다.

강호보가 발문을 쓴 《팽성지》는 숙종 25년에 편찬된 것을 증보한 것으로, 영조 33년(1757)에 편찬되었다. 여기에서는 '신증(新增)'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새롭게 증보한 내용을 표시하였다. 강호보는 그의 발문에서 증보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 옛 읍지 가운데는 산삭(刪削)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괴이하고 황당무계하며 자질구레해서[詭誕瑣屑] 후세에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수에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록(補錄)한 것도 있으니, 선생안(先生案)의 임후(林侯)의 혜정(惠政)과 처사(處士) 박공(朴公), 상사(上舍) 신공(申公) 등 세 개의 조목은 사라지게[泯沒] 할 수 없기 때문이다.[163]

강호보는 《팽성지》의 증보 과정에서 괴이하고 황당무계하며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삭제하였고, 새롭게 증보한 내용도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증보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본관선생안(本官先生案)'에 수록된 임상익(林象翼)의 사적과[164] 인물조에 새롭게 등재된 '처사(處士) 박천건(朴天健)'과 '진사(進士) 신식(申埴)'의 사적이었던 것이다.[165]

《팽성지》에서 임상익의 사적 가운데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가 재직 중에 읍민들에게 명해 토지 보유의 다과에 따라 약간씩의 재물을 내게 해서 보역청(補役廳)을 창립하여 '인부(人夫: 부역에 응하는 사람)의 폐단'을 제거하였고, 영송계(迎送契)와 고마청(雇馬廳)을 설치하여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을 영송하는 폐단'을 제거했다는 사실이었다.[166]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자료가 강호보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평택현영송청약속서(平

159) 《彭城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古2726-1), 跋文. "故自莅官以來, 邑中之事, 無論鉅細, 凡得之於耳目者, 輒記之. 至於風俗之美惡, 人物之盛衰, 疵瘼之有無, 尤加意焉, 而雖瑣屑鄙俚之語, 亦不憚於隨得而記之, 使一邑之事情, 幾無所有失焉, 則是亦可以備守土之觀省, 爲治民之一助也耶. 縣居申上庠埴, 以知名之士, 數奇(不偶), 屢擧不中, 退而教於鄕, 於勸課之暇, 時復裒集本邑之事蹟頗詳, 余取其書, 以余所祿[錄]叅互而增減之, 合爲一編, 各[名]曰彭城誌. …… 崇禎後己卯, 至月下浣, 安東後人金重禹識." 김중우는 《팽성지》가 편찬된 이듬해(숙종 26년, 1700) 임기를 마치고 교체되었다[《彭城誌》, 本官先生案. "金重禹, 庚辰瓜歸, 有去思碑."].

160) 《彭城誌》, 人物, 新增, 進士申埴. "今所印彭城誌, 卽公之所纂也."

161) 《彭城誌》, 彭城摠論. "進士申植[埴]撰." 여기에서 '申植'은 '申埴'의 오기로 보인다.

162) 《贅言》 卷24, 〈跋彭城誌後〉, 23ㄱ. "而惟玆彭城, 獨無有焉. 幸有鄕先生上舍申公埴甫, 廣加裒集, 粗成條貫……."

163) 《贅言》 卷24, 〈跋彭城誌後〉, 23ㄴ. "就舊誌中, 不能無刪削者, 以其詭誕瑣屑, 不足傳於後也. 又不得不僭有補錄者, 先生案林侯惠政, 及處士朴公上舍申公凡三條, 皆有不得以泯沒故也." ; 《彭城誌》, 跋(姜浩溥).

164) 《彭城誌》, 本官先生案, 林象翼. 임상익은 영조 13년(1737) 윤9월에 평택현감에 제수되었다[《承政院日記》 858冊, 영조 13년 윤9월 3일(己未[戊午]). "以林象翼爲平澤縣監."]. 전임 현감이었던 徐宗朝가 어사의 장계에 의해 貪吏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파면하고 그 후임으로 임상익을 임명한 것이었다[《承政院日記》 858冊, 영조 13년 윤9월 6일(辛酉). "上曰, 十八邑中兩守令新差者, 誰也. 顯命曰, 平澤縣監林象翼, 德山縣監崔守約受黜[點]矣. 上曰, 二人, 何如. 寅明曰, 皆可善爲者矣.上曰, 以御史狀啓觀之, 則平澤前縣監徐宗朝, 直是貪吏也. 令該府嚴治, 可也."].

165) 《彭城誌》, 人物, 新增, 處士朴天健 ; 進士申埴.

166) 《彭城誌》, 本官先生案. 林象翼. "又令民逐結出若干財, 勘立補役廳, 以除人夫之弊. 又設迎送契及雇馬廳, 以除新舊官迎送之弊."

澤縣迎送廳約束序)〉이다.[167] 강호보는 이 글에서 어진 현감[仁侯]의 정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이 바로 '인부의 폐단'과 '영송의 폐단'을 제거한 것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임상익의 사적을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강호보가 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그의 나이 49세 때인 영조 14년(1738) 12월로 임상익이 평택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다면 《팽성지》를 증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또한 강호보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침 명부(明府: 縣令, 지방 수령) 김후(金侯)가 활자로 그 선대부(先大夫)의 유고(遺稿)를 인쇄하였는데, 작업이 거의 끝나갈 즈음 상사(上舍)의 증손인 신보(申堡)가 읍지를 이어서 인쇄하여 영구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을 청하였다. 명부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허락하고 관조미조(官糶米租: 還上穀) 약간 석(石)을 내어 주어 그 일을 돕게 하였다.[168]

여기에서 말하는 김후는 김면행(金勉行, 1702~1772)이 아닐까 한다. 그는 영조 32년(1756) 6월에 평택현감에 제수되었다가[169] 두어 달 뒤에 홍주어사(洪州御史)의 장계로 인해 파면되었는데, 평택현 백성들의 소청에 따라 11월에 그대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170] 김면행이 평택현감을 떠난

167) 《贅言》 卷22, 〈平澤縣迎送廳約束序戊午十二月〉, 11ㄱ~12ㄱ.

168) 《贅言》 卷24, 〈跋彭城誌後〉, 23ㄱ. "適會今明府金侯, 以活字印其先大夫遺稿, 工垂訖, 上舍曾孫堡, 請以邑誌繼印之, 以爲永久之圖, 明府樂聞而許之. 又出給官糶米租若干石, 以相其役."

169) 《承政院日記》 1132冊, 英祖 32년 6월 25일(辛酉). "金勉行爲平澤縣監."

170) 《承政院日記》 1138冊, 英祖 32년 11월 8일(辛丑). "金尙魯曰, 平澤前縣監金勉行, 頃因洪州御史狀達, 以體例間事見罷, 而有政聲守令之此時遞易, 固已可惜. 且於近日, 本縣民人等, 路傍齊訴, 請仍甚懇, 殆無虛日, 民情如此, 則其治績, 尤可知矣. 本縣, 以至殘之邑, 今年災荒尤甚, 明春將至設賑, 其代不可不擇差, 而如欲擇差, 莫如還仍, 以責成效, 敍用仍任, 使之卽爲下送, 何如. 上曰, 頃聞相臣所奏, 欲爲下敎, 而旣已差代, 故不諭, 所奏誠是, 金勉行仍任, 其令明日下往." ; 《彭城誌》, 本官先生案, 金勉行.

시점은 영조 33년(1757) 10월 28일에 시강원(侍講院)의 문학(文學)에 임명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초라고 판단된다.[171] 요컨대 김면행은 영조 32년 6월부터 영조 33년 10월 말까지 평택현감으로 근무했으며, 바로 이 시기에 《팽성지》가 증보·인쇄되었던 것이다.

《팽성지》에서는 평택의 서원으로 '사우(祠宇)'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평택읍의 서면(西面) 경정리(鯨井里)에 있는 것으로 유생 김간(金侃) 등의 창의(倡義)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른바 '삼절사(三節士)'인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와 처사(處士) 우남양(禹南陽)[172]를 모신 사우였는데, 이것이 후에 '포의사(褒義祠)'로 사액되었던 것이다.[173] 《大東地志》에 따르면 포의사(褒義祠)는 현종 2년(1661)에 건립되었고, 숙종 30년(1704)에 사액되었다고 한다.[174]

강호보의 문집인 《췌언(贅言)》에는 포의사와 관련한 글이 있다. 권6에 수록되어 있는 〈대포의사재임상원장(代褒義祠齋任上院丈)〉이라는 편지가 그것이다.[175] 이는 포의사의 재임(齋任)을 대신해서 원장(院丈: 院長)에게 올린 글이다. 그에 따르면 포의사는 심양에서 순절한 홍익한·윤집·오달제 세 선생을 '병향(並享: 신주를 다른 신주와 나란히 모셔 제향함)'한 사우였다. 그런데 사우의 正堂 동편의 문 담장 안쪽에 '우처사(禹處士=禹南陽)'를 봉안한 별당이 있었다. 강호보는 현종조에 근방의 선비들이 포의사의 건립을 앞장

171) 《承政院日記》 1149冊, 英祖 33년 10월 28일(丁亥). "金勉行爲文學." ; 《承政院日記》 1150冊, 英祖 33년 11월 2일(庚寅). "又以侍講院言達曰, 本院新除授弼善李聖發, 時在京畿龍仁地, 文學金勉行, 時在忠淸道平澤任所, 說書權正忱, 時在慶尙道安東地, 書筵入番事緊, 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令曰, 依."

172) 《浦渚集》 卷23, 〈禹處士傳〉, 8ㄱ~10ㄴ(85책, 416~417쪽) ; 《國朝人物考》 卷33, 休逸, 禹南陽.

173) 《彭城誌》, 學校. "書院, 洪公翼漢吳公達濟尹公集三節士, 及禹處士南陽祠宇, 在於西面鯨井里. 儒生金侃等倡義營建, 厥後賜額褒義祠."

174) 《大東地志》 卷5, 忠淸道, 平澤, 祠院. "褒義祠(顯宗辛丑建, 肅宗甲申賜額)."

175) 《贅言》 卷6, 〈代褒義祠齋任上院丈〉, 7ㄴ~10ㄱ.

서서 주장하였는데, 당시 평택현의 金侃 등이 실제로 그 일에 앞장섰으며, 그 과정에서 삼선생의 사우와 우처사의 별당이 일시에 세워졌다고 보았다. 강호보의 글은 삼선생과 우처사를 병향이나 배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서 자료를 첨부하면서 원장의 마땅한 처분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가 올린 자료는 《팽성지》의 학교조에 수록되어 있는 포의사와 관련한 사적과 인물조에 수록되어 있는 우남양의 관련 기록이었다.

* 이 글은 구만옥, 〈18세기 正統朱子學者의 현실인식과 학문적 대응-四養齋 姜浩溥(1690 ~ 1778)의 저술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1, 韓國思想史學會, 2008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축약하고, 이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贅言》(四養齋集), 《桑蓬錄》(四養齋外集桑蓬錄), 《朱書分類》
朴在淵·李在弘·李相德 校註, 《상봉녹(桑蓬錄)》, 學古房, 2013.
《朱子大全》, 《朱子語類》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栗谷全書》, 《順菴集》, 《南塘集》, 《寒水齋集》, 《過齋遺稿》
《(慈恩本)易經來註圖解》, 高雄: 高雄復文圖書出版社, 1998.

2. 저서

金駿錫,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硏究 -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 》, 지식산업사, 2003.
廖名春·康學偉·梁韋弦(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 학풍 연구》, 혜안, 2003.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三卷, 華夏出版社, 1995.

3. 논문

1) 학위논문

金滿析, 〈四養齋 姜浩溥《贅言》選譯〉, 慶尙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碩士學

位論文, 2014.

文藝元, 〈姜浩溥의《朱書分類》편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文獻情報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鄭乃媛, 〈四養齋 姜浩溥의《桑蓬錄》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碩士學位論文, 2013.

2) 일반 논문

고운기, 〈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 - 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 〉,《洌上古典硏究》20, 洌上古典硏究會, 2004.

金玲竹, 〈姜浩溥의《桑蓬錄》을 통해 본 교유의 일단 - 程瑛, 白受采와의 筆談을 중심으로 - 〉,《東方漢文學》60, 東方漢文學會, 2014.

金駿錫, 〈朝鮮後期 畿湖士林의 朱子인식 - 朱子文集·語錄연구의 전개과정 - 〉,《百濟硏究》18,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87.

金駿錫, 〈17세기 畿湖朱子學의 동향 - 宋時烈의 〈道統〉계승운동 -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8.

夫馬進,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大東文化硏究》68,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2009.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韓國漢文學硏究》51, 韓國漢文學會, 2013.

李根浩, 〈영조대 君師論의 정치적 의의〉,《北岳史論》10, 北岳史學會, 2003.

임종태, 〈'우주적 소통의 꿈' - 18세기 초반 湖西 老論 학자들의 六面世界說과 人性物性論 - 〉,《韓國史硏究》138, 韓國史硏究會, 2007.

임준철, 〈연행록에 나타난 幻術認識의 변화와 박지원의 〈幻戱記〉〉,《민족문화연구》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임준철,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韓國漢文學硏究》51, 韓國漢文學會, 2013.

전용훈,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 時憲曆 施行과 節氣配置法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 〉,《東方學志》117,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2002.

鄭景姬, 〈朱子禮學의 변화와《儀禮經傳通解》〉,《震檀學報》86, 震檀學會, 1998.

정경희,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韓國學報》97, 一志社, 1999.

정내원, 〈漢譯本 연행록《桑蓬錄》의 특징과 漢譯 양상 연구〉,《東洋古典硏究》55, 東洋古典學會, 2014.

鄭豪薰, 〈18세기 政治變亂과 蕩平政治〉,《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金容燮敎授停年紀念論叢 2)》, 지식산업사, 1997.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洌上古典硏究》49, 洌上古典硏究會, 2016.

이범창과 이범철의 행적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차 례

1. 머리말
2. 이범창·이범철 형제의 출신 지역과 경제적 기반
   1) 가계와 출신
   2) 경제적 기반
3. 이범창과 이범철의 활동
   1) 이범창의 관직 생활
   2) 대한 제국 시기의 활동
   3) 일제 강점기의 활동
4. 《흥학회취지서》로 본 이범철의 행적과 교육관
5. 맺음말

1. 머리말

문호개방 이후 근대 문물이 유입되고 일본 문명개화론과 중국 양무 운동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후 서양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직면하면서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이른바 개화 자강 계열의 움직임은 특히 교육과 식산분야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고, 러일 전쟁 무렵부터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서울에서 시작된 애국 계몽 운동은 지방 각지로 확산되었다. 각 지방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활동은 교육 운동이었다. 고종의 흥학조칙에 따른 지방 수령의 노력과 지역의 개명 지식인들의 호응이 뒤따르며 근대 교육 운동은 더욱 활성화 되었고, 교육 진흥을 위한 여러 학회(學會)도 결성되어 활동을 넓혀갔다.

평택 지역에서도 애국 계몽 운동과 이에 따른 근대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이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평택지역의 애국 계몽 운동 및 근대 교육에 연구는 서태정의 논문이 2편 있을 뿐이다.[1] 이는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와 근대학교의 설립 과정에 국한되었다. 또한 애국 계몽 운동과 근대 학교 설립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평택시사》 등의 '역사' 부분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범창과 이범철 형제는 평택지역 근대 교육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1898년에 사립으로 설립된 진위소학교는 이범창과 이범철 형제의 노력에 의해 평택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근대 학교이며 이듬해 공립소학교로 전환되었다. 진위소학교를 시작으로 1910년까지 대략 11개 정도의 학교가 문을 열어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운동은 지역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중요한 자강 운동이었다. 이범창은 대한제국 시기 사회진화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실력양성론자로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생 이범철과 더불어 평택 지역의 근대 교육사에서 연구되어야 할 인물이다.

지금까지 평택 지역에서 설립된 학교와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학교를 설립한 인물들의 행적을 제대로 밝힌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세운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에 이범창 형제에 대한 행적을 정리하여 평택 지역에서 전개된 교육 운동, 나아가 애국 계몽 운동의 모습이 실체적으로 파악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이범창·이범철 형제의 출신 지역과 경제적 기반

1) 가계와 출신

이범창(李範昌, 1854 - ?)과 이범철(李範喆, 1858 - ?)은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17대손으로 참봉 벼슬을 했던 이장하(李章夏)의 둘째와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들의 7대조 이제(李濟)는 평안도 관찰사, 이제와 4촌간인 이유(李濡)는 영의정, 6대조 이현모(李顯謨)는 홍문관 응교를 역임했다. 그의 증조부인 이수연(李秀淵)이 한성부 판관을 지냈으나 조부 이인섭(李寅燮)은 벼슬에 나가지 못했고, 아버지 이장하는 생원시에 합격[2]하고 참봉을 지냈다. 둘째인 이범창은 아버지 이장하의 종형(從兄)이며 그에게는 종숙이 되는 이명하(李命夏)의 양자가 되었다.[3] 이범창의 바로 아래인 셋째가 이범

1) 서태정, 〈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2) 《사마방목》에는 생원시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족보에는 진사로 기록되었다.

3) 이범창의 친형 이범문(李範文)이 12세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어서 이범창은 다시 자신의 큰 아들 기종(箕鍾)을 이법문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철이며, 넷째 이범규(李範圭)와 다섯째 이범구(李範龜)가 있으나 벼슬이 없고 특별한 행적도 남기지 않았다. 한편 족보[4]에는 이범창의 5형제 중 장남인 이범문에게 양자로 간 아들을 포함하여 이범창이 아들 셋을 끝으로 더 이상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범철은 후사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으며, 다섯째인 이범구는 아들 하나를 두었던 것을 끝으로 더 이상 후사가 기록되지 않았다. 넷째인 이범규만 아들 하나와 손자 넷으로 이어는 5대손까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일찍이 요절한 장남 이범문과 후손이 기록된 이범규 외에는 족보에 사망 연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이범창과 이범철, 이범구의 후손들은 종중(宗中)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5]

이범창과 이범철은 일반적으로 고덕면 율포1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고덕면 율포1리는 다양한 성씨로 구성된 마을인데, 2007년 무렵까지 40여 가구가 거주하였으며 대성(大姓)을 이루는 집안은 없었다.[6]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율포리에 토지를 소유한 거주민 중 이씨(李氏) 성을 가진 명단은 이범창, 이범철 외 포함하여 6명[7]이고, 좌교리에 토지를 소유했으면서 율포리에 살고 있는 인물이 1명이다. 이중 이두종(李斗鍾)은 28세의 나이에 요절한 넷째 이범규의 외아들이다.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가 율

4) 《전주이씨광평대군파세보》 6권, 정안부정파(定安副正派)

5) 현재 이충동에 거주하며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19대손인 이규혁씨는 이들의 후손 대부분이 서울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후 주로 서울에 정착하였다가 오래 전에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였다.

6) 평택문화원·고덕면지편찬위원회, 《고덕면지》, 2007. 473쪽. 고덕면지에 전주이씨 광평대군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편찬된 《송탄시사》(1994), 《평택시사》(2001, 2014)의 '성씨' 및 '인물'란에도 이 집안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7) 두 인물 외 4명의 이름은 이두종(李斗鍾), 이호종(李浩鍾), 이명의(李命儀), 이기원(李淇遠)인데, 이중 이두종은 이범철의 바로 아랫 동생 이범규의 외아들이고 이호종은 '종(鍾)'자 돌림으로 보아 이범창 집안의 방계로 추정될 수도 있겠으나, 이기원과 이명의는 어느 집안 출신인지 추정이 어렵다.

포리에서 오래 전부터 살아왔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이다.

지금까지 이범창과 이범철 형제가 율포리 출신으로 알려진 이유는 당시 신문기사 등 사료에 그들의 거주지가 진위군 율포리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8] 족보에는 이들의의 5대조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집안의 묘는 현재의 김포시인 통진군에 있고, 그의 할아버지 이인섭과 아버지 이장하의 묘가 평택시 장당동에 자리 잡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묘의 위치로 본다면 그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고덕면 율포리 입향조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 이장하 역시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양자로 간 이범창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양부인 이명하는 통진군 선영에 묘가 있는데, 《사마방목》과 《국조방목》에는 거주지가 수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가 황해도 연안군수로 나가기 전인 1907년에 제출한 청원서[9]에도 본인의 거주지를 경기도 수원 북부 신풍동(新豊洞)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1910년대 이후에는 기록에는 주소가 대부분 고덕면 율포리로 되어있다.[10] 따라서 그가 양자로 입적한 이후 수원의 신풍동에 거주하면서 고덕면 율포리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친가의 토지와 선영이 있는 이곳에 그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가령 1907년 2월 23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진위에 거주하는 전 승지 이범창씨와 전 참봉 이범철씨는 ……"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1908년 5월 20일자 《공립신보》에는 내지인에게 6개월 동안 이 신문의 배송지 주소를 '진위군 율포동'으로 보도하였다.

9) 《各司謄錄》 3, 京畿道各郡訴狀 25 이 청원서는 진위군 오타면 포변(浦邊)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세(地稅)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이면서도 거주지는 수원의 신풍동으로 기재하였다.

10) 다만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의 50,858평에 대한 매립권을 그의 아들 이규종(李奎鍾)에게 양도하는 기록에서는 이범창과 이규종의 주소가 모두 경성부 창성동으로 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240호, 소화6년(1931) 2월 25일.)

이범철은 참봉에 임면(任免)되었던 기록만 간단히 있을 뿐이다.[11] 당시 신문기사와 1907년에 작성된 《흥학회취지서》로만 본다면 그는 고덕면 율포리에 거주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범창은 54세가 되는 1908년까지 관직 생활로 인해 타지에서 생활했지만, 이범철은 뚜렷한 관직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 율포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2) 경제적 기반

1912년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범창과 이범철이 율포리, 좌교리, 장당리에 소유한 토지는 아래와 같다.

[이범창 소유 토지]

마을	전(田)		답(畓)		대지(垈地)		임야(林野)		합계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율포리	24	12,729	21	15,136	16	6,272	3	2,998	64	37,135
좌교리	3	1,415	9	8,839	.	.	1	831	13	11,085
장당리	15	8,516	20	21,749	.	.	3	7,326	38	37,591
합 계	42	22,660	50	45,724	16	6,272	7	11,155	115	85,811

[이범철 소유 토지]

	전(田)		답(畓)		대지(垈地)		잡종지(雜種地)		합계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필지	평수
율포리	9	3,709	18	12,902	5	1,380	1	72	32	18,063
좌교리	2	636	5	8,426	.	.	1	480	8	9,536
장당리	11	5,166	6	5,858	1	168	.	.	19	11,192
합계	22	9,511	29	27,186	6	1,548	2	552	59	38,791

11) 당시 신문 기사와 〈흥학회취지서〉에 이범철은 모두 '전 참봉'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이범철(李範喆)이 1900년(고종 37) 4월 20일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임명되고, 바로 다음날인 4월 21일에 의원 면직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범철과 같은 인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덕면 율포리의 들판은 서정천이 흐르고 배후습지가 발달하였다.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역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큰 규모의 방죽을 인공으로 조성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다.[12] 방죽은 개간으로 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율포리 그 인근의 개간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1907년 이범창이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여기에 "본인의 답토(畓土) 9석(石) 11두락(斗落)이 진위 오타면 포변(浦邊)이온바 이는 60여년 전 바다를 막는 둑을 쌓아 새로 개간한 논과 매입한 사토(私土)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오타면은 서정리천이 진위천과 합류되는 곳으로 지금의 고덕면 해창리 및 궁리, 방축리의 일부 지역이다. 이범창은 이곳에 있는 4,350평 정도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범창과 이범철은 율포리, 좌교리, 장당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적지 않은 넓이의 농지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집안은 서정천 주변의 개간에 참여하여 농지를 확보함으로써 집안의 경제력을 확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3. 이범창과 이범철의 활동

1) 이범창의 관직 생활

1854년생인 이범창은 1880년(고종 17) 진사시에 급제하고, 33세가 되는 1887년(고종 24)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런데 그가 급제한 1887년 12월에 '새로 급제한 이범창을 교리(校理)에 제수하라'는 전교가 내려진다.[13] 보통 장원 급제한 인물이 정6품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던 것에 비추어, 이범창

12) 평택문화원·고덕면지편찬위원회, 《고덕면지》, 2007, 473쪽.

13)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12월 22일.

은 과거 합격 전에 이미 관직에 진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이후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주로 옥당(玉堂)에서 근무하다가 1891년(37세) 사간원 대사간을 거쳐 38세인 1892년 6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올랐다. 1895년에는 김산군수(金山郡守, 지금의 경북 김천)로 나가기도 했고, 1898년에는 중추원2등관(中樞院二等議官)으로 임명되었다. 1901년에는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다. 1908년 4월에 황해도 연안군수(延安郡守)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해 11월에 자원(自願)에 의해 면직되었다. 이때 사직(辭職)을 원했던 사유에 대한 근거는 불확실하며, 이후에는 관직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14] 일제 강점기에는 약간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2) 대한 제국 시기의 활동

이범창과 이범철은 일본의 침략적인 행태를 목도하면서 국권을 지킬 수 있는 자강(自强)의 방책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자강의 한 방식인 교육 운동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교육과 식산을 통해 강대국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주 국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당시 개화 자강 계열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이범철은 교육을 강대국에 대적할 만한 수준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하였다. 이범철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1894년 이후 신문과 잡지 및 열국사기(列國史記)를 구해서 읽고 한국에 비해서 앞선 외국의 문물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물이 외국에 비해 뒤쳐진 대표적인 이유로 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그

14) 1912~1916년 임시토지조사국 기수(技手), 1923~1936년 보통학교 훈도(訓導)였던 인물로 이범창(李範昌)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러나 정 3품의 벼슬을 지냈던 이범창이 58세가 되는 1912년 임시토지조사국 기수가 되었거나, 67세 때인 1923년 보통학교 훈도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들은 동명(同名)의 다른 인물로 판단된다.

는 교육이야말로 한국을 강대국에 대적할 만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15]

이범창이 김산(金山, 지금의 김천)군수로 있을 때 김산의 향반 출신인 여영소(呂永韶), 여중룡(呂中龍) 등이 거병 준비를 하면서 군수인 그를 영입하여 관민이 합세하는 의병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산시키려고 거사 날짜를 늦추도록 하고 감영으로 가버렸다.[16] 이범창이 직접 의병 투쟁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밝힌 내용은 없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의병 투쟁 같은 무력 투쟁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는 근거로는 충분하다.

이범창은 러일 전쟁 전후 시작되었던 애국 계몽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인다. 1904년 6월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가 대한제국 전국 황무지 개간권을 특허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여 유생 및 전직 관료들의 상소와 통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범창은 전 비서승(前祕書丞) 윤병(尹秉), 전 군수 홍필주(洪弼周), 전 주사 이기(李沂) 등과 함께 선언서를 발표하여 황무지를 외국인에게 인허하지 말고, 국민으로 하여금 개척하여 농사짓게 하도록 처분하라고 촉구하였다.[17] 또한 9월 7일에는 관원과 유생을 대동하고 대궐 문 앞에서 상소하고 엎드려 왕의 답을 기다리는 도중에 일본 헌병에 맞았으며, 다음 날에는 명동에 있는 일본헌병부로 압송되어 18일 이상 억류되었다.[18]

이범창은 헌정 연구회의 후신인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본회 회원[19]이 되었으며, 1908년 3월에 조직된 대동학회의 회원 명단[20]에도 들어있다. 그

15) 《흥학회취지서》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1999, 375쪽.

17) 《황성신문》 1904년 6월 29일, 잡보 〈紳士宣言〉.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4권, 〈闕文陳疏者 洪鐘榮 등 방면 및 억류헌병 嚴懲 요구〉

19) 《대한자강회월보》 제12호(1907년 6월 25일) 및 《대한협회월보》 제2호(1908년 6월 25일).

20) 《대동학회월보》 제1호(1908년 2월 25일).

가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고덕면 율포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에서 동생 이범철과 더불어 근대 학교를 설립을 주도했으며, 빈민 구제 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범철과 함께 빈민 구제를 위한 혜민사(惠民社)를 세우고, 1906년에는 고두면 율포리에 진흥의숙(振興義塾)을 설립하였으며, 문맹자를 위하여 여러 마을에 국문야학교(國文夜學校)를 세웠다.[21]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범철이 관직에 있을 때이므로 혜민사와 진흥의숙 설립 같은 일에 대한 실무는 그의 동생 이범철이 주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범철은 1907년 흥학회 조직을 주도하여 교육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서도 이범창의 일정한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범창은 1908년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에 근대 교육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서정리에 진동학교(振東學校)를 세웠다.[22] 1910년 4월에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 이 학교는 그가 연안군수를 사직한 다음해인 1909년쯤이 될 것이다. 이미 율포리에 진흥의숙이 있고, 각 마을에 야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서정리에 이 학교를 세운 것은 근대 교육에 대한 그의 열망이 컸음을 짐작케 한다. 1910년 4월 17일 거행된 진동학교 졸업식에는 경기관찰사 뿐만 아니라 진위군수, 각 면장 16명 및 이장 100여 명, 지역 유지 5백여 명, 구경꾼 1천명이 참석하였다.[23] 이는 단순한 졸업식이 아니라 이범창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요 인물을 초청하고 근대 교육을 계속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07년 2월 대구에서 서상돈의 발기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2

21)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3일 〈是兄是弟〉. 여기에는 교육과 사회 운동을 이범창이 주도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범철이 작성한 〈흥학회취지문〉에는 이범철이 주도한 듯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22) 《조선총독부관보》 제804호 대정4년(1915) 4월 12일. 여기에 피허가인 이범창이 '진동학교설립자'로 기재되어 있다.

23) 《황성신문》 1910년 4월 21일 〈振東卒業〉

월 22일 국채보상기성회 설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평택에서도 진위군율포의약사(振威郡栗浦義約社)에서 33환 10전을 황성신문사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24] 진위군율포의약사에서 성금을 기탁한 것을 보도한 날짜는 3월 18일이며, 여기에 35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25] 이범창과 이범철은 이보다 3개월 이상이 늦은 6월 27일 각각 6환과 4환을 기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26] 그러나 비교적 늦은 시기라는 점, 집안의 경제력에 비해 성금 액수가 낮았다[27]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참여로 비춰진다.

3) 일제 강점기의 활동

대한 자강회 및 대한 협회는 독립 협회 및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애국 계몽단체이다. 대한 제국 말기에 이르면 대한 협회는 일진회와 친일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 앞에 사회 진화론을 수용한 실력양성론자들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자주독립을 위한 방략으로 근대 학교를 설립했던 이범창은 1914년에 일제로부터 목배(木杯)와 더불어 토지 54두락(斗落)을 하사받았다.[28] 대한 제국이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일제의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인 한 실력양성론자의 한계로 보인다. 또한 1919년 3·1 운동 후 일제가 이 운동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비밀리에 각 지역의 유력 인물들을 통하여 해당 지

24)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1. 2014. 327쪽.

25) 《황성신문》 1907년 3월 18일 〈振威郡栗浦義約社〉.

26) 《황성신문》 1907년 6월 27일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員及額數〉

27) 당시 지물포를 운영했던 김종호, 김종원, 장윤식 등 3인이 100환을 기탁했다.(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1. 2014. 327쪽.)

28) 《조선총독부관보》 제465호, 대정13년(1914) 2월 19일.

역민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에 나서는데, 이범철을 이때 이 임무를 부여받고 6일간 지역민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29] 반면에 그의 둘째[30] 아들인 이익종(李翼鍾)은 1919년 경성의전 학생으로서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20년 2월 27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였다.[31]

1904년 전국의 황무지 개간권을 한꺼번에 침탈하려다가 실패한 일제는 일본인의 토지 소유 및 개간권을 합법화 하기 위해 1907년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을 시행하였다.[32] 여기에 짝하여 이범창은 1912년 5월 남양군 우정면의 자개도(自開島) 간석지(干潟地) 34,790평을 논으로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는 받아낸 것[33]을 시작으로, 1913년 4월 서탄면 황구지리 초생지(草生地) 12,113평을 논과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34] 1915년 4월에는 이전과 같은 장소인 서탄면 황구지리에 있는 간석지 46,102평에 대하여 논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허가받았다.[35] 또한 1930년 12월에 수원군 반월면의 간석지 50,858평에 대한 매립권(埋立權)을 허가 받아서 1931년 2월 이규종(李奎鍾)에게 권한을 넘겨주었다.[36] 1931년 이후 이범창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29)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7冊 (국사편찬위원회 학국사데이터베이스)

30) 이익종은 이범창의 세 아들[기종(箕鍾), 규종(奎鍾), 익종(翼鍾)] 중 막내인 셋째였는데, 기종을 친가 형인 범문에게 양자를 보냈으므로 둘째라고 하였다.

31)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학국사데이터베이스)
이익종은 1995년 건국포장을 받았다.(국가보훈처 홈페이지)

32) 이영호,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역사와현실》37, 2009, 292쪽.

33) 《조선총독부관보》 제524호, 명치45년(1912) 5월 28일.

34) 《조선총독부관보》 제223호, 대정2년(1913) 5월 1일.

35) 《조선총독부관보》 제504호, 대정4년(1915) 4월 12일.

36) 《조선총독부관보》 제1240호, 소화6년(1931) 2월 25일.

보아 반월면의 간석지 매립권한의 양도는 그의 사망 전후에 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범창은 일제 강점기 내내 국유미간지 개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와 맞서기 보다는 식민지로 전락된 현실을 인정하고 적절히 타협하였다. 그러면서도 1923년에는 민립대학발기총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실력양성을 위한 사회운동에는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37]

이범창과는 달리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이범철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낼 만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38]

4. 《흥학회취지서》로 본 이범철의 행적과 교육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택 지역에서 이범창과 이범철 형제가 활동했던 사실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교육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관련된 신문 기사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각각 1건으로 모두 2건에 불과하여 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학교 설립의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1907년 1월에 진위군 고두면 율포리에서 설립된 흥학회의 설립에 대한 취지서는 이범철이 저술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근대 학교 설립의 배경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범철의 이력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흥학회취지서》는 그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37) 《매일신보》 1923년 3월 21일 〈發起總會臨迫〉

38) 대한협회와 일진회 회원이면서 일제 강점기 친일 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범철이라는 인물은 일진회가 조직한 자위단원호회 제11부위원장으로서 경상남도 지역을 담당했다. 그가 율포리 출신 이범철과 동일 인물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흥학회취지서》에서 이범철은 일찍이 신문과 잡지 및 외국의 역사책을 통하여 외국과 국내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3년 항일 운동을 위해 조직된 공립 협회(共立協會)가 1905년부터 발행한《공립신보》를 1908년 5월부터 구독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39] 즉 이범창은 고덕면 율포리에서 우편을 통하여《공립신보》를 배달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범창의 성향으로 볼 때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그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범철 또한 1899년 폐간된《독립신문》,《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등 신문류 뿐만 아니라,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회원이었던 이범창을 통하여 대한자강회월보 등 국내 잡지류도 손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범철은 이러한 신문과 잡지 등을 보고 국내·외 사정을 두루 파악하게 되었다. 한국이 외국에 비하여 뒤진 근본적인 이유를 교육의 부재에서 찾았고 이를 한탄한 끝에 진위소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율포리에 거주하는 이범철이 진위면 봉남리에 소학교를 세운 것은 첫째 설립 과정에서 관청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이며, 둘째는 읍치(邑治)에 근대학교를 세워야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위소학교를 설립하고 8년 후인 1906년 6월에 일본인 우메야마 소이즈미[梅山楚泉]을 초빙하여 율포리에 '진흥의숙'을 설립하였고, 11월에는 찬성장(贊成長)인 진위군수 백남규(白南奎)가 참석한 찬성회(贊成會)를 개최하였다. 또한 인근 마을에 국문야학교(國文夜學校)를 열어 글을 가르친 결과 아이들이 목불식정(目不識丁)을 한탄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당시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점에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활동했으며 애국 계몽 운동 단체 회원이었던 이범창의 영향이 컸음을 읽을 수 있다.

39) 《공립신보》 1908년 5월 20일 〈寄內地同胞書〉

이렇듯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근대 교육에 힘썼던 이범철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한남흥학회이다. 율포리에서 설립된 흥학회는 전 참봉이면서 당시 진흥의숙(振興義塾) 숙감(塾監)을 맡고 있었던 이범철을 비롯하여 진위군수 백남규, 진위소학교 교원 윤대선(尹大善), 경중고의숙(京中槁義塾) 숙감 송순두(宋淳斗), 개성보창학교 교장 김종호(金鍾護), 전 주사(前主事) 이승철(李承轍)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총 6명의 발기인 가운데 1명은 진위군수였고, 2명은 근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외부 인사, 본인을 포함한 3명은 진위군의 인물로 구성되었다. 백남규는 1904년 11월 ~ 1907년 6월에 진위군수를 역임하면서 진위공립소학교 신축에 부족한 자금을 요청하였고, 교육과 식산의 방침 및 지방자치 제도를 연구하는 등 교육과 산업, 정치 제도에 대한 근대적 식견을 가진 인물이다.[40] 김종호가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개성보창학교는 이동휘가 강화도에 설립한 보창학교의 지교로 설립되었다. 이동휘(李東輝)는 1904년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세우고 강화학무회(江華學務會)를 조직하고 의무교육을 강하게 추진하여 지역 유지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개성보창학교 역시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개성지역 유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유지되었다.[41] 윤대선은 서탄면 사리 출신으로 진위소학교 교원을 역임하였으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19년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42] 송순두는 1901년 한성재판소 주사로 임명되었던[43] 인물로 1910년 시

40) 평택문화원,《진교일기》, 2020, 141쪽.

41)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2집, 2009, 117~119쪽.

42)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298쪽.

43)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5월 5일 및 5월 6일

흥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44] 이승철은 한성부재판소 주사였다가 이후 대동학회 진위군지회 부회장이 되었다.[45]

이범철은 흥학회를 조직하기 전부터 근대교육을 추진한 인물들과 광범한 접촉을 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한 자강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교육, 특히 의무교육을 강조하였던[46] 사항도 숙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멀리 개성의 보창학교 교장을 섭외하고 서울에서 교육을 하고 있던 송순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실력양성론에 어느 정도 경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흥학회취지서》의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 今者我國情形을 海外列國에 比ᄒᆞ면 種種에 關係로 差異가 有ᄒᆞ야 千百年傳來에 舊制를 一朝一夕間에 快變一新ᄒᆞ키ᄂᆞᆫ 難ᄒᆞ나 內國情形을 詳料ᄒᆞ고 外國에 制度를 參酌ᄒᆞ야 我國에 最適合ᄒᆞᆫ 制度와 可히 急急實施ᄒᆞ야 三四年만 過ᄒᆞ면 可히 明四民一體로 ᄒᆞ야곰 善良한 子壻弟姪靑年輩를 培養ᄒᆞ며 健全ᄒᆞᆫ 國民老士宿儒까지 醒勵케하야셔 人人이 十年만 敎育殖産에 埋頭沒身ᄒᆞ야 熱心苦篤ᄒᆞ게 되면 至光武二十二年ᄒᆞ야 大韓獨立國權을 還覓ᄒᆞ야셔 諸般利益에 讓與外國ᄒᆞ얏던 것셜 俄國人民이 차지ᄒᆞ야 國富民强을 致ᄒᆞ야 共享昇樂할 方針을 左에 錄하오니……

44) 《조선총독부관보》 제394호, 명치44년(1911) 12월 19일. 《승정원일기》 및 《조선총독부관보》에 등장하는 송순두(宋淳斗)가 흥학회에 참여했던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45)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113쪽

46) 전영택, 〈성재 이동휘의 교육활동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17쪽.

이범철을 교육과 식산을 통하여 자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으며, 교육이야말로 자주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이 국가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눈앞의 현실 때문에 국가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47] 1906년에 설립한 진흥의숙에 일본인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던 것도 이러한 취지였다.

한남흥학회가 설립된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교일기》에는 1907년 12월 21일(음) 이범철이 진위군수 김영진을 방문하고, 1908년 12월 6일에는 이범창이 진위군수를 방문하여 '교육 등에 관한 일을 몇 시간 토론하다 돌아갔다'는 내용[48] 등으로 보아 이범철과 이범창이 근대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흥학회 결성 이후 진위군 지역에 7개의 사립학교가 새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평택군 지역에 1개교, 현재의 평택시에 속하는 수원군 지역에 1개교가 신설되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점에서 한남흥학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지역사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유명세를 띠거나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인물의 행적이 어느 한 시대의 변화를 추동했다면 이 역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범창과 이범철은 평택 지역에서 전개된 애국 계몽 운동 및 근대 교육의 출발 및 전

47) 최기영, 《애국계몽운동》Ⅱ-문화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6~17쪽.

48) 평택문화원, 《진교일기》, 2020년, 51, 90쪽.

개 과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들이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을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실력양성론이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범창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에 진출하여 승지(承旨)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한 여러 근거들이 남아있지만, 이범철은 약간의 신문 기사와 그가 저술한《흥학회취지서》가 있을 뿐이다. 이 글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문헌을 근거로 하여 두 인물의 행적을 살펴본 것이다. 인물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게 되는 구체적 계기'나 과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가 진척되어 이들의 행적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분석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各司謄錄》
《승정원일기》
《공립신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조선총독부관보》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 2014.
평택문화원,《진교일기》, 2020년.
평택문화원·고덕면지편찬위원회,《고덕면지》, 2007.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최기영,《애국계몽운동》Ⅱ-문화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43. 1999.
서태정,〈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71, 2012.
서태정,〈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형목,〈한말 경기도 사립학교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2집, 2009.
이영호,〈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역사와현실》37, 2009.
전영택,〈성재 이동휘의 교육활동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전주이씨종약원 홈페이지(http://www.rfo.co.kr)

이성열의 생애(生涯)와 식민지적 삶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생애(生涯)와 사회적 기반
   1) 이성열(1878~1943)의 생애(生涯)
   2) 안종철의 생애(生涯)
   3) 어인남리와 '계인조합(契人組合)'

3. 근대도시 '평택(平澤)'과 사회·경제활동
   1) 근대도시 평택의 발달과 유지집단의 형성
   2) 1920~30년대 이성열의 식민지적 삶
   3) 1920~30년대 안종철의 식민지적 삶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강점기는 격변기였다. '근대(近代)'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했고, 어쨌든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일정한 삶을 살아내야 했다. 가치관(價値觀)의 변화와 혼동도 심했다. 일제의 지배와 통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으로 정체성을 갖기도 힘들었다.

국가권력은 지방 지배를 위해 지배층이나 유력 집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의 경우도 그렇다. 신분제가 해체되던 일제강점기에는 지역 유지들이 식민기관과 관료, 일반민의 매개 역할을 했다.[1] 지역유지들은 전통의 양반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지주(地主)도 있었지만 근대전후의 격변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사회변동을 이용하여 출세한 자본가나 정치가들도 많았다.

일제강점기 평택역전에 형성된 '근대도시 평택'은 평택지역의 전통적 유지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면서, 철도역과 근대교통, 평택장이라는 교통과 상업적 기반으로 새로운 유지층이 형성되었던 공간이었다. 평택역전의 유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 평택 일본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인 유력자들이었다. 일제는 근대도시 평택과 같은 공간에서는 일본인 유지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조선인 유지들의 협조 없이는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선인 유지들을 적극 회유 포섭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것은 근대도시 평택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거나 지주적 경제기반을 가졌던 전통적 유지들에게도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다.

본 논문은 이성열이라는 근대 인물에 대한 연구다. 이성열은 비전동 어인남리의 양성 이씨 출신이었지만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유력하지 않았다. 이성열이 근대도시 평택의 대표적인 유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했고 경부선 평택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근대도시 평택의 변화와 특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1)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2010년 봄호, 역사비평사, 2010

평택지역의 근대인물연구는 안재홍, 원심창, 지영희 등 극히 일부 인물에 불과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이나 문화예술운동에서 족적을 나긴 위인들이지만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시대적 상황이나 민(民)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평택(平澤)'의 변화와 발전을 몸으로 체험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조응하면서 살았던 유지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양한 유지연구를 통해 평택의 근대(近代)가 객관적으로 설명되고 해석되기를 희망한다.

2. '근대도시 평택'의 성장과 이성열

1) 평택역전의 근대화와 중심지 이동

1905년 1월 1일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진위군 병파면 통복리와 평택군 읍내면 군문리 경계에 평택역(平澤驛)이 설치됐다. 평택역이 설치되고 근대적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황무지에 가까웠던 '평택역전'은 편리한 교통망과 평택장을 기반으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철도역 설치 전부터 근대도시 평택(平澤)은 전도유망한 근대도시로 주목받았다. 1904년에 간행된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 針)》에도 '일본인이 이주하여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만한 유망지'로 평택[2]을 꼽고 있다. 근대도시 평택의 중심에는 일본인거류지가 형성되었고 가로(街路) 좌우

2) 허영란,〈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 제2호, 1997, 167쪽

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근대회사와 상점, 평택장이 자리 잡았다. 1914년 4월에는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군청이 평택역전으로 이전했다. 평택경찰서[3], 병남면사무소, 평택세무서[4], 평택우편소, 경성지방법원평택출장소, 경기도곡물검사소 평택지소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평택역전에 위치했다.[5] 1936년 작성된 《경기도 도세개요(京畿道 道勢槪要)》'[6]에는 근대도시 평택에 진위군청, 평택경찰서, 평택우편소[7] 외에 학교조합, 평택금융조합[8], 조선상업은행 평택지점[9], 평택농회[10], 조선흥업주식회사 파출소, 진위흥농주식회사, 미쓰이물산 대리점과 같은 근대회사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종교단체, 진위청년회를 비롯한 사회단

3) 경찰청, 《한국경찰사》제1권 7부편, 766쪽. 당시 진위경찰서 산하에는 순사 주재소가 4개였다.

4) 국세청 홈페이지(https://j.nts.go.kr). 평택지역에 세무서가 설치된 것은 1934년 5월이다.

5) 진위군, 《진위군 군세일반(振威郡郡勢一斑)》, 1930

6) 경기도,《경기도 도세개요(京畿道道勢槪要)》, 1936

7) 근대적 우편제도는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고, 1895년 인천 등 24개소에 우체사가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1900년 3월 23일 농상공부에 통신원이 신설되어 우체사를 통신원에 편입했다. 1905년 12월 20일에는 통감부 통신서관제가 반포되어 우편사무를 통신관리국·우편국·우편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1906년에는 통감부령에 의해 통신원 관제가 폐지되면서 우체사는 기능을 상실했다.

8) 평택금융조합은 1912년 성환금융조합 지원으로 창립되었고, 1914년에는 일본인 우에노(上野進一郎)와 윤종민의 노력으로 평택금융조합으로 독립했다.

9) 조선상업은행은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1905년 설립된 한성공동창고(주)에서 출발했다. 한성공동창고(주)는 창고업무, 보세 창고업무, 대출업무를 담당했는데 1912년 대한천일은행의 후신인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됐다. 1950년에는 한국상업은행으로 개칭되었고 현재는 우리은행으로 부른다.

10) 농회(農會)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였다가 1906년 한국중앙농회가 설립되었고, 1926년 관련단체를 통합하여 계통농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농사개량지도사업을 추진했다.

체, 평택미상조합, 진위축산조합, 평택곡물조합[11], 평택상업조합, 평택상공회, 평택곡자제조합, 평택병원, 평화병원, 대동병원, 동화의원, 평택치과의원도 평택시가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 단체였다.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근대도시 평택의 인구는 급증했다. 1910~20년대 평택역전의 인구 중에는 일본인 뿐 아니라 조선인과 중국인들도 많았다.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12]에 따르면 평택역이 위치한 평택리 일대의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일본인, 임종상[13]과 같은 조선인 부재지주, 김춘희[14], 민영철[15], 권종태와 같은 토착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택역전이 향후 근대도시로 유망(有望)할 것을 예상하고 일본인들 외에도 조선인 지주나 자본가들이 토지에 투자하거나 상공업활동을 위해 몰려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1920년대 후반 일본인 거류민과 일부 조선인들을 위해 발행되었던 《조선신문》[16]의 광고(廣告)를 통해 당시 근대도시 평택의 일본인 및 조선인 유지의 면면을 살펴보자.

11) 1930년 11월 '평택·안성 곡자재조합'과 '평택·안성 곡물조합'으로 창립되었다. 1938년 곡자재조합장은 이민훤, 신순호였다.

12)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 《토지조사부》, 1912년,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D0003022

13) 임종상은 평택지역 뿐 아니라 경기도 양주, 부천 등 여러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고, 일제 말에는 국방헌금 1만 원 이상 헌납했던 인물로 평택지역에는 평택역전 외에도 팽성읍 노와리, 남산리 등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4) 진사(進士) 김춘희는 1907년 합정동 조개터에 동명의숙이라는 근대학교를 설립했던 인물이다.

15) 1938년 작성된 '지주명부'에 따르면 세교동에 거주했던 민씨 일가는 일제강점기 1만석에 가까운 토지를 보유했던 대지주였다.

16) 1923년 창간된 일본어 신문

표1)1929년 1월 22일《조선신문》신년축하 광고

이름	상호	직책	출전
石川耐藏	평택우편소	소장	조선신문 1929.01.22
賴良彦三郎	평택곡물입검사소	소장	조선신문 1929.01.22
林新兵衛	평택공립보통학교	교장	조선신문 1929.01.22
판정백화점 안성판정상회 지점	잡화, 재목, 건축, 석탄	일본인 상점	조선신문 1929.01.22
金橋商店	농장경영, 잡화, 석탄, 도서, 매약	일본인 상점	조선신문 1929.01.22
西村折太郎	비료, 농구, 곡물, 석유 판매상	일본인	조선신문 1929.01.22
森賢吉	미곡, 발동기 특약점	진위군학교조합의원, 평택발전회장, 평택소방조두	조선신문 1929.01.22
前川金藏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上肥義太郎	안중-내기리행 버스	자동차부 주임	조선신문 1929.01.22
林田春次郎	임전조선농사개량(주)	사장	조선신문 1929.01.22
波多野哲二郎	임전조선농사개량(주)	평택부 취재역	조선신문 1929.01.22
深田與三兵衛	진위흥농(주)	사장취재역	조선신문 1929.01.22
山田顯義	진위흥농(주)	지배인	조선신문 1929.01.22
石見久藏	덕천농장	평택출장소 주임	조선신문 1929.01.22
가납여관	평택역전	금융조합연합회 외 지정여관	조선신문 1929.01.22
永井小梅	제3북일루 女長	평택역전 본정통	조선신문 1929.01.22
荒木倉一	경성지방법원 평택출장소	소장	조선신문 1929.01.22
島田昇	상업은행 평택지점	지점장	조선신문 1929.01.22
鬼頭鐵藏	평택역	역장	조선신문 1929.01.22
三山淸吾	진위군청	과장	조선신문 1929.01.22
田中二次郎	평택경찰서	서장	조선신문 1929.01.22
박원용	평택금융조합장, 부용면장		조선신문 1929.01.22
金鎭瀅	평택연초원매영업소	주임	조선신문 1929.01.22
정우범	현덕면장, 도평의원		조선신문 1929.01.22
김대경	오성면장		조선신문 1929.01.22
崔鐘院	평택의원	원장	조선신문 1929.01.22
김병룡	평화의원	원장	조선신문 1929.01.22
정석모	병남면장		조선신문 1929.01.22
원춘식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강증철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최재옥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유상열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황지섭	평택금융조합	이사	조선신문 1929.01.22
최익하	진위군청	군수	조선신문 1929.01.22
이성열	평택합동운송(주)	사장	조선신문 1929.01.22
춘향원	평택역전	중화요리	조선신문 1929.01.22

표1)에는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과 직업을 엿볼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평택 사회는 일본인들이 주도했지만 상당 수 조선인들의 협조를 통해 운영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가운데 식민통치에 협조적인 유력 조선인 유지들을 포섭하여 식민통치의 하부기관이나 중요 공공단체의 단체장과 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근대도시 평택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평택역과 평택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근대적 유지들이 담당했다.

표1)을 보면 광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일본인이 다수다. 평택역전의 일본인들은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를 제외하고는 주로 농장경영이나 상공업, 여관업에 종사했다. 그들의 취급품목은 국내외 잡화와 함께 미곡무역, 목재, 건축자재, 석탄, 석유, 비료, 농기구, 의약품 등 식량이나 근대적 상품들이 많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조선인 유지들은 일본인들과 연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조선인 유지들은 초기에는 평택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으로 기반을 잡은 뒤 1920년대 후반 제반 여건의 변화에 편승하여 운수업, 유통업, 창고업, 대부업, 무역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또 각종 사회단체를 후원하고 빈민구제에 기부하며 사회적 신망(信望)을 얻으려고 했으며, 1930년대에는 일제의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라 면협의회 의원이나 읍회의원, 도평의원과 같은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전시체제기 일제에 적극 협조하면서 정치적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일제강점기 근대도시 평택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열과 안종철이다.

2) 이성열의 평택역전 진출과 상업 활동

이성열은 1878년 6월 30일 비전2동 어인남리에서 이동병(李東炳)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양성(陽城)이며 고려 때 상서(尙書)를 지낸 이원부(李元富)의 17세손이다. 비전동 덕동산 동쪽 산기슭 이성열시혜비 앞에 건립한 〈유래비〉에 따르면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 《매일신보》에 "어렵게 살다 근년 상업에 근로하고 검약한 생활로 의량의 허는 면했으나"[17]라고 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이성열이 태어난 어인남리는 조선후기 진위현 병파면에 속했다. 《호구총수》[18]에는 병파면에 교리, 남리, 비전리, 통복리가 있었다. 이 가운데 남리가 현재의 '어인남리'다. 1911년경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는 남리 대신 '어인남리'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19세기 남리 옆에 '어인'이라는 마을이 생겼는데 두 마을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1914년의 《지지조서》[19]에는 민가 36호 17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에 병남면 비전리에 속했으며, 1931년 병남면이 평택면으로 개칭되면서 '평택면 비전리'로 부르게 되었다. 어인남리의 대표 성씨는 광주 안씨, 양성 이씨, 전주 이씨였다. 주민들은 이성열, 안종철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주가 많아서 옛날에는 부자동네라고 했다고 말한다.[20]

이성열의 교육과정은 알 수 없다. 다만 집안이나 마을환경을 고려할 때 서당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빈한했던 이성열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평택역이 설치되고 평택역 일대가 전도유망한 근대도시로 발전하자 거주지를 평택역전으로 옮겼다. 1929년 《조선신문》 기사에도 동향이었던 안종철은 거주지가 비전리였지만 이성열은 '평택리'였다.

이성열이 평택역전으로 이주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910년 전후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평택장(平澤場)을 중심으로 미곡상을 했다. 1927년 《조선신문》의 광고란에도 직업을 '곡물무역상 및 포목상'이라고 했다.[21] 당시 평택장(平澤場)의 대표 거래품목은 쌀이었다. 그래서 군문포와 화포 등을 통해 평택평야의 미곡이 평택장과 평택역으로 실려 왔으며, 안성과 둔포의 미곡들도 평택장을 통해 반출됐다. 이성열은 평택장에서 미곡상으로 신망을 얻었다. 1935년 《조선신문》의 인물평에도 "상업으로 성장했으며 인품이 온후하고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처신과 인물 됨됨이가 부드럽고 진중했음을 알 수 있다.

1917년에는 안종철, 유창식과 함께 자본금 3만 원으로 '평택상업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이 되었다. 평택상업조합은 대부업을 했던 회사였다. 조선상업은행 평택지점과 평택금융조합이 공적인 금융기관이었다면 평택상업조합은 일종의 사금융(私金融)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평택상업조합의 영업은 무척 잘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에는 취급품목을 비단, 삼베 등 포목으로 확장했고 어인남리 일대에 농지로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업활동과 근대회사 운영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많지 않았다. 1920년 《매일신보》 기사에 " 소유재산이 기만원 뿐인데 수년 전부터 연말에 극빈자를 구제했고, 같은 해에는 소작료 300여 석 전량으로 어인남리, 비전리, 합정리, 오산리, 산직리 등 주변마을의 빈민들을 구제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성열의 구제활동은 사회적 신망(信望)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앞서 1935년 《조선신문》 인물평에 극찬을 했던 것에서도 지역사회의 신망이

17) 《매일신보》 1921년 3월 7일자
18) 《호구총수》, 1789
19) 조선총독부, 《지지조서》, 1914
20) 배영원(남, 1940년생), 2010년 7월 31일 마을노인정에서 인터뷰
21) 《조선신문》 1927년 6월 5일자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한다. 구제와 함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1918년이다. 1923년에는 일제의 식민지배기구의 회장을 맡았고 이후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확장시켰다.

3) 1920년 전후의 경제활동과 빈민구제

지수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방지배는 관료(官僚)-유지(有志) 지배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전후 평택역전이 근대도시로 발전하고 경제와 교통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근대도시 평택에도 관료-유지 지배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친일보수적 사회경제단체를 조직하여 상호 결속하는 한편 상호연대 및 협조 하에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했다. 또 교육사회단체나 주요행사, 빈민구제, 일제 말에는 국방헌금 모금 등 전시체지기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에 적극 앞장서면서 사회적 신망(信望)을 획득하는 한편, 1930년대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제의 확대[22]에 따라 면협의회나 읍회, 도평의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했다.

1910년 전후 근대도시로 성장하던 평택역전에 진출한 이성열은 시장통의 곡물상으로 자리를 잡는데 성공했다. 이 시기 주임으로 활동했던 곡물상점이 대성상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에는 어인남리 출신의 안종철, 평택역전의 유지 유창식과 '평택상업조합'을 설립[23]하여 대부업으로까지 진출했다. 평택상업조합은 1920년대 초 곡물, 비단, 저포, 종이, 어물의 유통과 무역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24]

대성상회와 평택상업조합을 통해 경제기반을 다진 이성열은 191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현안에 관여하는 한편 유지집단으로 구성된 주요 단체에 가담하면서 평택역전의 유력한 인물로 성장했다. 특히 1919년 평택발전회 참여와 1921년 4월 진위군청이 주최했던 '공진회 시찰단'[25] 참여는 이성열의 정치·사회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발전회는 1919년 11월에 창립한 계몽단체였다. 이 단체는 창립목적으로 공공사업 장려, 선량풍속 배양, 개발확전연구를 내세웠다. 창립 당시 임원을 살펴보면 회장 한붕석, 부회장 신찬우, 협의원 이성열, 이보선, 유창근, 최화섭, 이학준, 김문환, 이하선, 서병목, 남상은, 최한긍, 서상복, 회계 정학모, 서기 성주한, 김찬현이었다.[26] 이들은 평택 각 지역에서 근대도시로 발전하던 평택역전으로 모여든 유지들이었다. 평택발전회는 1923년 1월 28일 평택공립소학교에서 소비절약 강연회를 개최했다.[27] 하지만 활동과 관련된 기사는 이것뿐이어서 이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공진회(共進會)는 일종의 '산업박람회'다. 1921년 4월에는 일본 큐슈 북

22)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협의회와 지역정치-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130쪽. 일제는 1920년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하여 도(道)에는 도평의회, 부(府)와 지정면에는 부·면협의회를 설치했다. 1930년 11월부터는 개정지방제도에 따라 부(府)·읍(邑)·면(面)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정면은 읍(邑)으로 개편되었고 도회(道會), 부회(府會), 읍회(邑會)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었다.

23) 《매일신보》 1921년 9월 6일자. 평택상업조합은 1917년(대정6년) 10월 이성열, 안종철, 유창식 등의 발기와 자본금 3만원으로 설립된 근대회사다. 초기에는 대금(貸金) 영업을 했으며, 1921년부터 무역판매부와 위탁판매부를 신설했으며 자본금을 5만원으로 증자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24) 《매일신보》 1921년 9월 6일자. 평택상업조합은 1917년(대정6년) 10월 이성열, 안종철, 유창식 등의 발기와 자본금 3만원으로 설립된 근대회사다. 초기에는 대금(貸金) 영업을 했으며, 1921년부터 무역판매부와 위탁판매부를 신설했으며 자본금을 5만원으로 증자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25) 《매일신보》 1921년 4월 7일자.

26)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자

27) 《동아일보》, 1923년 2월 6일자

동부 오이타현(大分縣)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 공진회가 개최되자 부용면장 박원용이 앞장서서 시찰단을 제안했고 이것을 진위군청에서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1인 회비는 60원이었으며 20명을 선발하였고 2주간 공진회 시찰과 큐슈지역 관광을 계획했다. 참가자는 이성열, 김교영, 서상언, 유창근, 장윤식, 이두종, 원제학 등이었다. 이들은 평택지역의 전도유망한 인물들로 향후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 이성열의 활동에서 평택발전회와 공진회시찰단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활동도 이성열의 사회적 신망(信望)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유지들의 사회적 기부는 단순한 선행(先行)으로 미화시킬 수만은 없다. 기부는 그 자체가 신망(信望)을 얻기 위한 사회적 행위였으며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한 정치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성열의 기부와 구제활동은 1920년 전후의 기부와, 그 이후의 기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20년 전후의 기부는 '가진 자의 선행(先行)'으로 지역사회의 신망(信望)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1920년 2월 14일《매일신보》기사는 이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 평택지역은 1919년의 극심한 한해(旱害)로 빈민(貧民)과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했는데 이성열은 당시 전 재산이 1만원이고 소작료는 300석에 불과했지만, 소작료로 거둬들인 300석 전량을 풀어 비전동에 속한 5개 마을 130호의 빈민을 구제했다.[28] 이에 감동한 지역사회에서는 1921년 3월 덕동산 기슭에 시혜비 (施惠碑)를 건립했다.[29] 1920년 7월과 1922년 7월에는 안성천이 범람하여 평택평야가 수몰되고 8명이 사망했으며 가옥손실만 500여 호에 달했다.[30] 이때에도 곡물을 풀어 빈민을 구제했으며 1934년 한해(旱害)에서도 빈민구제에 앞장섰다. 이성열의 기부활동은 1935년 11월 1일자《조선신문》의 인물평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어인남리 출신으로 상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인품이 온후하고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빈민구제에 힘썼다"고 말하며, 특히 대정8년(1919년)과 대정 12년(1923년) 한해(旱害)와 수해(水害) 때의 공적을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1920년 전후의 빈민구제는 이성열이 측은지심과 사회적 신망을 얻기 위해 직접 구제활동을 전개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28) 《매일신보》 1920년 2월 24일자. 이성열은 호(戶) 당 백미5석, 보리 13되씩과 돈 100원을 분배했다.

29)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자 보도에는

30) 《동아일보》 1922년 7월 28일자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이성열의 구제활동은 양상을 달리한다. 1940년 1월 23일자《매일신보》의 기사는 이 같은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39년(소화14) 평택지역은 대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유지들이 구제에 나설 것을 호소했으며 진위군청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중국이나 만주에서 생산된 잡곡을 배급하며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유지들은 너도나도 빈민구제에 나섰다. 이성열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했다. 이성열은 1940년 1월 15일 한해(旱害)로 인한 이재민 구제를 위해 거금 1천 원을 기부했는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평택군청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고 식민지배기관의 눈에 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이성열의 기부활동은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지역유지로 사회적 신망이나 선의를 표하기 위한 행위보다는 정치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일제로부터 신망을 얻기 위한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1920, 30년대 이성열의 식민지적 삶

1) 식민지배기구 참여와 사업영역 확장

근대도시 평택의 근대교통망은 1920년대 초·중반 정비되었지만 완전하게 정비된 것은 1940년경에 가서야 이뤄졌다. 1930년 〈진위군 관내도는〉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위 지도에 따르면 국도1호선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거의 완전한 상태로 개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택-둔포 간 국도45호선 경우는 자동차가 다녔지만 평택-양성-용인 간은 미 개통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국도38호선도 안성-평택역-포승읍 내기리 사이는 개통되었지만 내기리-만호리 구간은 아직 미 개통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지도) 1930년《진위군세일반》의 〈진위군관내도〉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근대교통망이 정비되고 평택역이 주변지역 물산의 집



결지이며 중계지로 크게 성장하자 근대도시 평택에는 운수, 화물운송, 창고

업을 하는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성열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성열은 1927년 7월 31일 자본금 5만원으로 평택합동운송주식회사와 평택상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평택합동운송은 자본금 5만원, 평택상사는 7만 5천원이었다.[31] 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동향인 안종철의 도움과 일본인 자본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32] 이성열이 일본인들과 손을 잡고 회사를 설립한데는 당시 근대도시 평택이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사가 위치한 '평택리 176번지'는 평택역 출입구와 버스정거장이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다.[33] 평택합동운송이 운수, 운송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평택상사는 물품판매업, 노력청부, 보관업(창고업)을 담당했다. 두 회사는 이성열과 안종철이라는 비전동 어인남리 출신의 기업가들이 운영했지만 임원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고루 섞여 있었다. 먼저 이성열이 대표로 있었던 '평택합동운송'은 교본유조(橋本柳助), 등본신이(藤本新二), 삽곡광평(澁谷光平), 삼현길(森賢吉) 같은 유력한 일본인들이 주주 및 임원진으로 포진했고 조선인은 안종철과 성주한 뿐이었다.[34] 평택상사주식회사는 안종철이 사장이었지만 이성열과 일본인 교본유조(橋本柳助, 전무이사)가 대주주였고 이사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포진했다.[35]

이처럼 이성열은 평택역전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미곡상에서 대부업, 무역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근대

31) 中村資良,《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 東亞經濟時報社

32) 평택합동운송주식회사의 이사에는 岡田武吉, 橋本柳助, 藤本新二 등 일본인과 이규현이 올라 있고, 감사에도 안종철과 함께 평택역전의 유력 일본인 森賢吉이 포함되었다.

33) 中村資良,《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34)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평택합동운송주식회사〉, 국사편찬위원회,

35) 이사는 교본유조(橋本柳助, 전무이사), 등본신이(藤本新二, 상무이사), 삽곡광평(澁谷光平), 이성열, 윤응구, 이범수, 목양광(目良廣) 이었다.

도시 평택의 주류세력인 일본인 기업가들과 손잡고 운수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성열은 운수업에 대한 발 빠른 투자와 일본인들과의 적절한 연대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근대도시 평택의 중심인물로 성장한다. 1935년 당시 맡은 직책만도 평택상업조합장, 평택운송주식회사 사장,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겸 학부형회 회장, 진위군학교비 평의원, 진위군 농회 특별의원, 평택면협의원, 평택농촌진흥회위원, 진위군소작위원회 위원 등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36] 이성열은 1938년 평택상공회 창립을 주도하는 한편, 1942년에는 일제가 전시체제기 경제 통제를 위해 설립한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37] 상임위원에도 선출됐다.

1938년 7월 9일 창립된 평택상공회는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해 설립된 식민지경제기구로 삼현길(森賢吉), 삽곡광평(澁谷光平), 목양광(目良廣), 서촌절태랑(西村絶太郎) 등 일본인과 이민훤, 안종순, 성주한, 이성열, 안종철, 황경수, 신순호, 정인창 등 근대도시 평택의 조선인 유지들이 회원 81명으로 출범했다.[38] 또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는 1942년 5월 26일 평택군청 회의실에서 각 상공업단체 수뇌부들이 모여 창립했다. 단장은 평택군수였으며 부회장은 파정역일(坡井役一)이었고 상임위원은 이성열 외 9명이었다.[39] 이성열이 두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고 중심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일제말 근대도시 평택상공업계의 거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시체제기 적극적 친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했음을 알게 한다.

36) 《조선신문》 1935년 11월 1일자

37) 경제통제협력회는 전시체제기 일제가 경제계의 일원적 조직화를 위해 만들었다. 경제통제협력회의 설립으로 공업, 금융, 상업, 무역 등 각 분야에서 신체제를 표방한 일원적 조직화가 추구되었으며, 이를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연계하여 행정조직, 관제민간조직, 상공업 조직을 망라하는 통제조직의 일원화가 이뤄졌다.

38) 《매일신보》 1938년 7월 12일자

39) 《매일신보》 1942년 5월 28일자

3) 1930년대 지방제도개편과 '평택'의 변화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제〉가 공포되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면(面)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총독부 말단행정기구로 4,322개의 면(面)이 설치됐다. 면(面)에는 지방 유지들로 면장(面長)을 임명하고 판임관으로 대우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는 군(郡)·면(面) 통폐합으로 317개의 군(郡)이 220군(郡)으로 축소되고, 면(面)의 수도 2,521개로 축소했다. 1917년 6월에는 〈면제〉(面制, 제령1호)와 〈면제시행규칙〉(부령 34호)을 공포하여 면(面)을 공공단체로서 지위를 격상했으며 행정권[40]을 부여했다. 또 〈면제〉와 함께 지정면제도 시행됐다. 지정면은 도시화한 면(面) 중에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됐으며, 우선적으로 도(道) 예산을 배정받고 면장(面長)은 일본인으로 임명했다. 1930년 12월에는 기존 면제(面制)를 지정면은 읍(邑)으로 하는 〈읍·면제〉(제령 12호)로 개정했다.[41]

1920년 7월의 〈면제〉(面制, 제령1호)와 〈면제시행규칙〉(부령 34호)에 따라 면(面)에도 면협의회가 설치됐다.[42] 면협의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면장이 의장이었으며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1931년 4월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의 면협의회는 읍회(邑會)가 되었으며 보통면의 면협의회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읍회는 이전처럼 의결권을

40) 면(面)의 행정사무는 ①도로와 교량, 도선, 하천제방, 관계배수 ②시장, 조림, 농사, 양잠, 축산 등 생업의 개량보급 및 해충구제 ③묘지, 화장장, 상하수, 전염병 예방, 오물처치 ④소방, 수방 및 기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사무 등이었다.

41)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 2017, 465~467쪽

42)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협의회와 지역정치-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130쪽

가졌던 반면 면협의원은 여전히 임기 4년의 명예직이고 자문기관이었다. 비록 자문기관이기는 했지만 면협의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예컨대 면협의회는 ①면(面) 규칙의 개폐 ②세입세출 예산 ③법령에 규정한 외 면세, 부역현품,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 ④면채 발행과 기채 발행 방법 및 이자 정율의 방법 규정 및 변경 ⑤면의 결산보고 및 특별회계 수립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했다.[43]

경부선 평택역전(平澤驛前)은 1905년 평택역이 설치될 때까지만 해도 평택군 읍내면 군문리와 진위군 병파면 통복리의 경계쯤이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병남면으로 통폐합했고 통복리 정거장과 평택군 읍내면 군문리를 통합하여 '평택리'를 신설했다.[44] 1917년 〈면제(面制)〉가 시행되면서 병남면은 보통면으로 편재됐다. 그래서 1920년 설치된 면협의회도 면장이 의장을 맡는 비 선출직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1931년 4월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병남면은 평택면으로 개칭되고 면협의원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지방제도개편과 지방자치제 확대는 식민통치의 필요성과 재조 일본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인 유지들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면서 적극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늘었다.[45] 1931년 평택면협의원 선거의 과열양상[46]은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성열은 1920년 전후 축적한 경제력과 사회적 신망(信望)을 배경으로

43)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 2017, 469~470쪽

44) 越智唯七,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중앙시장

45) 지수걸,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사회와 조선의 지방정치-충남 공주· 대전·조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2007, 77~83쪽. 읍·면협의회 선거권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의 남자로 부세(府稅)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46) 《조선신문》, 1931년 5월 15일자

1920년대 중반에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하고 재 평택 일본인들과 인망(人望)을 구축하며 사회적 영향력과 사업 확장을 꾀했다.

이성열이 처음으로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것은 1924년 '진위군 학교평의원'으로 선출되면서부터다.[47] 학교평의회는 1920년 제령 제14호 학교비령 제9조에 의거 설치됐다. 평의원[48]은 면협의회가 선출하고 군수가 임명했다. 주로 학교비 세입출과 예산편성, 부과금 사용료, 부역 및 현품의 부과 징수, 기채, 세입출 예산 외 의무금 부담 권리 폐기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였다. 진위군의 경우 의장인 군수를 포함해서 각 면(面)에서 1명씩 12명의 위원이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방지배의 핵심기구인 학교평의원에 이성열이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되면 경제적 지기반과 함께 사회적 신망(信望)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5년 5월에는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49] 당시 학부형회는 교수방법, 학교행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했고 교장이 참여하고 군수가 격려 강연을 하는 등 영향력 있는 기구였다. 이처럼 진위군학교비평의원과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 회장이라는 직책은 이성열을 평택사회의 중심인물로 부각시켰다. 진위군청과 평택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하는 연합대운동회에서 주요 인사로 소개되거나, 1928년에는 진위청년회에서 설립한 진청야학의 후원회장으로도 선출되고, 1928년

47) 《동아일보》 1924년 4월 7일자. 당시 진위군학교평의원에 선출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병남면 이성열, 고덕면 안재봉, 현덕면 이종태, 오성면 정홍섭, 서면 장남진, 서탄면 유인석, 송탄면 홍학유, 청북면 안녕균, 포외면 이원서, 북면 양계원, 부용면 이한규

48) 평의원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학교비 5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졌다.

49) 《동아일보》 1925년 5월 15일자. 당시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성열, 부회장 유창근, 감사 정석모 외 3인, 평의원 이보선, 이하선, 안종철 외 24인

《동아일보》 평택지국의 고문(顧問), 1929년 진위군 농회 특별의원[50], 평택농촌진흥회 위원, 평택금융조합 감사[51], 1931년 평택금융조합 평의원[52]에 선출된 것은 이 같은 사회적 역할이 큰 영향을 끼쳤다.

4) 전시체제기의 정치사회활동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제가 확대되자 이성열은 정치계로 눈을 돌렸다. 이것은 근대도시 평택에서 기반을 닦은 일본인 및 조선인 유지들의 보편적 움직임이었다. 이성열은 1931년[53] 평택면협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당시 정원 10명이었던 평택면의원 선거에는 일본인 삼현길(森賢吉), 서촌절태랑(西村折太郎), 교본우일(橋本右一) 등 6명이 출마했고, 조선인으로는 이성열, 안종철을 비롯하여 이민훤, 성주한, 황영재, 장구식, 최명환, 박병석, 민광식 등 14명이 출마하여 도합 20명이 열띤 경쟁을 펼쳤고[54], 일본인 삼현길(森賢吉), 서촌절태랑(西村折太郎)과 조선인 박병석, 이성열, 안종철, 이민훤 등이 당선되었다.[55] 이성열은 1935년 평택면의원 선거에도 연거푸 당선됐다.[56]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정치적 입지까지 더해지면서 1930년대 후반 근대도시 평택의 가장 유력한 인사로 부상하면서 이성열의 사회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먼저 1940년 전후 평택상업조합장[57], 조선운송주식회사 평택대행영업소 주임[58], 1939년 평택합동운송주식회사 사장[59], 평택상사주식회사 사장[60], 대성상회 주임, 평택농회 의원[61], 진위군소작위원회 위원, 등 근대도시 평택지역의 굵직한 사회경제단체의 대표와 임원을 맡았으며, 1930년대 후반부터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 평택지부[62] 창립에 참여하고[63], 평택상공회 창립을 주도했으며[64], 일제가 전시체제기 경제통제를 목적으로 설치한 평택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65]에도 선출됐다. 이 가운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총력전을 전개하기 위해 거국일치(擧國一致), 견인지구(堅引持久), 진충보국(盡忠報國)을 내세우며 조직한 관제기구였다.[66] 평택지부는 지역유지와 각종단체, 평택시민들을 결집시켜 진위군청 주도로 조직됐는데 1938년 7월 4일의 창립총회에는 삼산(森山) 진위군수가 사회를 봤고 일본인 삼현길(森賢吉)이 이사장, 강전무길(岡田武吉), 황경수, 정인창, 서촌의웅(西村義雄)이 상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또 평택상공회는 전시체제기 상공업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경제통제협력회도 전시체제기 경제 통제를 목적으로 상공업단체 수뇌부를 모아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대표적 친일단체였다.

이와 함께 이성열은 국방헌금 납부와 사회적 기부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성열은 1937년 8월에서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70원의 국방헌금을 헌

50) 《조선신문》 1929년 4월 19일자
51) 《조선신문》 1929년 4월 17일자
52) 《매일신보》 1931년 4월 24일자
53) 《조선신문》 1931년 5월 23일자
54) 《조선신문》 1931년 5월 15일자
55) 《조선신문》 1931년 5월 23일자
56)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9일자
57) 《매일신보》 1940년 2월 3일자
58) 《조선신문》1931년 8월 20일자
59) 《매일신보》 1939년 6월 1일자
60) 《조선신문》 1941년 11월 7일자
61)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자
62) 《조선신문》 1938년 7월 7일자
63) 《매일신보》 1938년 7월 7일자
64) 《매일신보》 1938년 7월 12일자
65) 《매일신보》 1942년 5월 28일자
66)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 2017, 665쪽

납했는데, 10월 9일의 경우에는 차남 결혼비용을 아껴 70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67] 또 1940년에는 황군장병위로금으로 500원을 헌납하는 한편 1939년 대가뭄에 따른 빈민구제금으로 1,000원을 기부했으며, 진청학원 상량식에 100원을 기부하고, 서촌의웅(西村義雄)이 지국장으로 있었던 일본어 신문《조선신문》의 광고에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다.

5. 맺음말

식민지 상황에서 지역 유지들의 삶은 개인적이면서도 평택지역 근대를 성찰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다. 이성열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적 상황을 살아간 근대도시 평택의 대표적인 유지였다. 1905년 진위군 병파면 통복리 부근에 경부선 평택역이 설치되고 근대도시가 발전하자 평택역전으로 이주하여 상업 활동을 전개했고, 상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단체와 식민지지배기구에 진출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으며, 빈민구제를 통해 사회적 신망을 획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평택면협의원 등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다졌다.

이성열은 고향에 대한 애정과 이웃에 대한 측은지심은 있었지만 민족의식이나 반일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기에는 식민지라는 상황과 식민지근대도시로 발전한 평택(平澤)이라는 공간을 출세를 위한 기회의 장(場)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1935년《조선신문》[68]의 인물평에서 "면(面)의 제반 사업은 물론 공공사업에 헌신하며, 모든 일을 엄정 공평하게 일하고 일반 조선인들의 존경과 신망(信望)이 높다"라고 한 것은 일제의

67) 《매일신보》 1937년 8월 3일, 9월 15일, 10월 9일자
68) 《조선신문》 1935년 11월 1일자

식민지배에 헌신한 한 조선인에 대한 상찬이라고 해석된다.

일제강점기 인물연구, 그 중에서도 유지집단 연구는 매우 조심스럽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의 친일문제는 매우 섬세하면서도 냉엄한 기준이 필요하다. 식민지라는 공간, 그 중에서도 근대도시 평택처럼 일본인 중심의 근대도시에서 일정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려면 일제식민통치에 일정부분 협조하거나 평택역전의 주류세력인 일본인들과 연대와 협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민족적 양심을 팔고 친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성열처럼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의 친일은 일반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고통을 안긴다는 점에서 철저한 규명과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광주 안씨 감찰공파 세보》
《호구총수》
《황성신문》
《매일신문》
《조선신문》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경기도,《경기도 도세개요(京畿道道勢槪要)》, 1936
진위군,《진위군 군세일반(振威郡郡勢一斑)》, 1930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토지조사부》, 1912년,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D0003022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1938년 판
中村資良,《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 1930, 1934, 1940, 1941년 판), 東亞經濟時報社
이성열 시혜비 및 유래비, 비전2동 덕동산 동쪽 기슭, 1921
경찰청,《한국경찰사》제1권 7부편, 2015
국세청 홈페이지(https://j.nts.go.kr)
민족문제연구소,《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 2017
허영란,〈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역사문제연구》제2호, 1997
지수걸,〈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사회와 조선의 지방정치-충남 공주·대전·조치원 사례를 중심으로〉,《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허영란,〈일제시기 읍·면협의회와 지역정치-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현황과 성과

최치선/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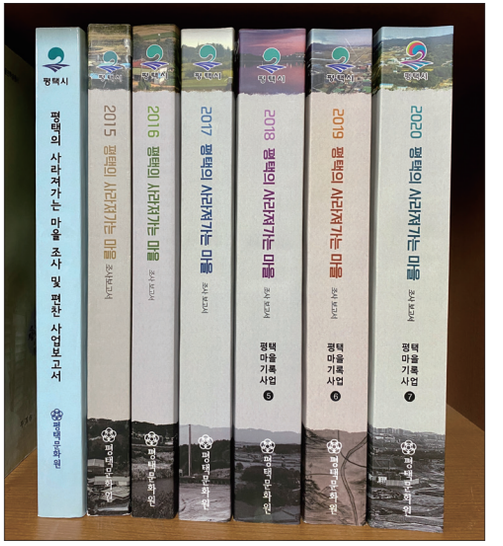
차 례

1. 머릿말
2.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
   1) 주제 별 조사 현황
   2) 연도 별 조사 현황
3. 연구조사의 변화와 성과
   1) 연구조사의 변화
   2) 연구조사의 성과
4. 맺음말

1. 머릿말

지역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 접근은 물론 다양한 통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평택문화원은 그동안 유적과 유물, 인물, 민속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학술, 출판, 시민강좌를 꾸준히 해왔다. 또한 읍. 면지 및 평택시사 등 다양한 자료들을 편찬했다. 이런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미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큰 사건만 역사가 아니다. 마을, 그곳, 그곳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가족사, 향토사, 지역사가 되고, 나라와 시대의 역사가 된다.

평택문화원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을 눈앞에 둔 마을을 우선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을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시작은 평택인문연구소 소장 김해규(당시 한광여중 역사교사)의 제안으로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평택문화원 목적사업으로 시작됐다. 전문연구조사자가 인문지리, 구술조사 및 각종사료를 수집 하고 채집된 자료들을 문서와 영상기록물로 담아내고 있다. 마을이 사라지더라도 공간과 주민들의 삶을 기억하고 마을의 정서와 문화가 기억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지역민들의 소중한 삶이 담긴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다. 조사한 자료는 1년에 한 번씩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사업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고,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아카이브 기록관에 지역별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2014~2020)

2. 평택의 마을조사

마을은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존속되어온 공동체다.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다. 근대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는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사라지는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택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의 경관과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의 변형, 왜곡도 심하고 전통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은 주민들이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술, 각종 사료 및 유물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조사 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지역사 이해에 가장 필요한 마을, 사라지는 마을을 우선 조사했다. 둘째, 지역에 이해가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조사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활용했다. 셋째, 조사연구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되는 자료들은 시사의 근간이 되는 읍면지 및 마을지 편찬, 문화축제, 마을역사만들기사업과 문화예술 컨텐츠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자료로 쓰여 지고 있다.

1) 주제 별 마을 조사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기반으로 마을을 선정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①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2014년~)
②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된 기지촌마을(2018년~)
③ 전통의 읍치(邑治)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2019년)
④ 전통의 수로교통이나 어업과 관련된 포구마을
⑤ 구릉지대에 위치한 전통마을
⑥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마을
⑦ 상업이 발달한 도시와 시장마을

조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BIX포승지구), 화양택지개발지구, 용이동 신흥지구, 소사동 소사2,3지구, 영신·동삭 ·서재지구, 평택호관광단지, 진위2,3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진위4산업단지등이 해당된다. 두 번 째 주제인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 된 기지촌마을'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주제이며 세 번 째 주제인 '전통의 읍치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원평동)은 2019년에 조사했다. 나머지 주제는 기 조사했던 마을과 일부 연관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 조사해야할 숙제이다.

2) 연도 별 조사 마을

평택은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고나면 마을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연구조사한 연도 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조사 원년인 2014년에는 현재 개발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BIX포승지구)'으로 당시 개발을 목전에 두었던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일대와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충동 동령마을, 그리고 재개발이 논의중인 세교동 은실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서부, 북부, 남부 등 지역적 안배도 고려한 선정이었으나 이후 그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평택도시개발계획을 토대로 2021년 현재 개발이 시작된 '평택화양지구도시개발'지구에 속한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일대 7개 마을과 급격한 도시개발로 원형이 사라지기 전 칠원동 새말, 동삭동 모산, 영신, 서재 일대 6개 마을과 용이동 신흥마을, 소사동, 합정동 배미등 6개 마을을 조사했다. 2016년 에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현덕면 권관리 일대 14개 마을과 진위2,3산업단지 개발구역인 진위면 가곡리, 마산리 등 23개 마을을 조사했다. 2017년은 자연마을 기본조사로 포승읍 일대 27개 마을과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개발예정지인 현덕면 장수리를 조사 했다. 2018년은 자연마을 기본조사로 현덕면 일대 18개 마을과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와 서탄면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구장터 등 11개 마을을 조사했다. 2019년은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치였던 진위

면 봉남리, 평택현의 읍치였던 팽성읍 객사리, 일제강점기 평택의 중심이었던 원평동을 조사했다. 2020년은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개발구역인 송탄동 관할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 12개 마을을 조사했다. 2021년 현재는 진위4산업단지(진위테크노밸리사업지구) 개발예정지인 진위면 하북리, 야리와 인접한 견산리, 신리 등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 중 이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 까지 총 14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연도	읍·면·동	마을	비고
2014년 (9개마을)	포승읍	희곡리(3), 신영리(4)	황해경제자유구역 (BIX포승지구)
	이충동	동령마을	도시개발 진행 중
	세교동	은실마을	도시개발 논의 중
2015년 (19개마을)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도시개발
	안중읍	현화리(2)	화양지구 도시개발 중
	현덕면	화양리(2), 운정리(3)	화양지구 도시개발 중
2016년 (23개마을)	현덕면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논의 중
	진위면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진위2,3 산업단지개발
2017년 (27개마을)	현덕면	장수리(1)	도시개발 논의 중
	포승읍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자연마을 기본조사
2018년 (18개마을) 외 미군기지 관련 11개 마을	현덕면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자연마을 기본조사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마을
	서탄면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구장터	
2019년 (10개마을)	진위면	봉남리(3)	진위현의 읍치
	팽성읍	객사리(6)	평택현의 읍치
	원평동	원평동	근대도시
2020년 (12개마을)	송탄동	도일동(4),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5), 모곡동	평택브레인시티 개발 진행 중
2021년 (12개마을)	진위면	하북리(4), 견산리(6), 신리, 야막리	진위4산업단지 개발 예정

〈표1〉 연도 별 조사 마을 현황



〈사진2〉 개발되기 전 용이동 신흥마을 전경. 마을 뒤로 백운산과 고성산이 보인다. (2010년)



〈사진3〉 아파트 숲으로 변한 용이동 신흥마을 전경 (2018년)

3. 연구조사의 변화와 성과

1) 연구조사의 변화

연구조사를 시작한 2014년에는 김해규가 주도하고 평택문화원 황수근이 간사를 맡아 총 13명의 연구자가 9개 마을에 투입됐다. 3개월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에 결과를 얻기 위해 인문지리와 구술을 나눠서 조사했다. 앞서 경험을 토대로 2015년부터는 평택문화원 최치선 상임위원이 마을조사를

전담하면서 김해규의 자문과 김명수의 도움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연구조사'의 기반을 만들었다. 당시 연구조사팀은 김해규, 양선아, 이도정이었고 양선아팀에 이수유, 이도정팀에 오창현이 지원하고 영상 및 사진기록은 연구자는 물론 최치선과 김명수, 정승환 작가가 19개 마을 조사에함께 했다.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김해규, 양선아, 이도정 세 명의 연구자가 총 69개의 마을 조사했다. 조사의 시급성 때문에 많은 마을을 조사했던 이 분들의 열정과 수고가 평택마을조사의 근간이 됐다. 2018년에는 연구자 한 명을 더 보강했다. 향토사학자인 장연환 은 양선아, 이도정과 함께 현덕면 18개 마을을 조사했고 김해규가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12개 마을을 조사했다. 이렇게 2019년 까지 역사, 민속, 인류학 전공자가 인문지리와 구술을 묶어서 매년 3~4팀 씩 구역을 정해 연구조사를 했다. 특정부문 조사로는 어업과 염전에 오창현, 간척에 양선아, 전통민가 부문에 김지석 등이 참여했다.

2020년부터는 연구조사 방식과 연구자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보통 서너 팀으로 구성했던 인문지리, 구술 작업을 지역향토사학자인 김해규와 장연환 두 팀으로 축소하고 광무양안을 토대로 조사지역의 지주 현황과 가문의 형태를 조사하는 문헌자료팀 윤한택과 도시건축사로 조사구역에 대한 지도와 위성사진을 토대로 공간유형을 분석하는 장수아가 함께 하고 있다. 장수아의 공간유형에 대한 분석이 연구조사의 효율성과 다양한 버전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고 윤한택의 연구자료는 인문지리 조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상 및 사진 기록작업은 최치선이 맡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드론을 활용하여 사라지기 전, 후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300여 마을의 '360 파노라마' 사진을 아카이브했으며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마을과 주제가 담겨진 조사보고서는 A4 국배판으로 제작되는데 2014년 470쪽으로 출간 된 보고서가 매년 조사 분량이 늘어나 2020년에는 750쪽의 보고서가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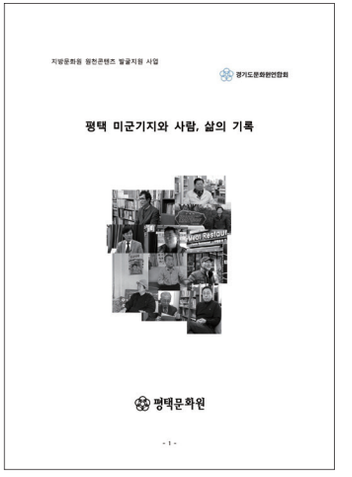
연번	조사위원	조사분야	조사연도	비고
1	김택호	구술	2014년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2	변진섭	구술	2014년	경기도산이제도당굿 연구회장
3	성주현	인문지리	2014년	숭실대학교 연구교수
4	신대광	인문지리	2014년	안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5	이창언	인문지리	2014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대학협력위원장
6	최자운	구술	2014년	세명대학교 교수
7	허홍범	인문지리	2014년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8	황수근	지원	2014년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9	김지석	건축 및 도구	2014년, 2017년	경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0	장연환	인문지리, 구술	2014년, 2018년~현재	효명고등학교 교사
11	양선아	인문지리, 구술	2014년~2018년	전북대학교 쌀.삶 문명연구소 전임연구원
12	김해규	인문지리, 구술	2014년~현재	평택인문연구소 소장
13	최치선	구술 및 지원	2014년~현재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14	김명수	구술 및 지원	2015년~2016년	건국대학교 구비문학 박사과정
15	오창현	어업	2015년~2016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16	이도정	인문지리,구술	2015년~2018년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과정
17	김태우	인문지리,구술	2019년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8	김희식	미군기지	2018년~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연구센터 연구원
19	윤한택	문헌자료 분석	2020년~현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20	장수아	공간유형 분석	2020년~현재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소장

〈표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연구진 현황

2) 연구조사의 성과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조사숙련도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연구조사의 성과가 나타났다. 2015년 조사 당시 양선아팀은 현덕면 운정1리에서 '피우치이중계'를 발굴했다. 이 자료는 1914년부터 2014년 까지 현덕면 운정

1리 피우치마을을 중심으로 대정, 글갱이 마을사람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규약, 임원, 세입 및 지출 등이 기입되어 있다. 이렇게 발굴된 '피우치이중계'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2020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동안 마을조사를 통해 발굴된 각종 자료들은 현재 설립준비중인 '평택박물관'에 모아져서 기억과 기록이 전승될 것이다. 마을조사의 결과물은 지역사 연구 및 각종 편찬물의 기초자료인데 2019년 발행 된 〈포승읍지〉는 2017년에 조사한 포승읍 일대 27개 마을조사를 기초로 편찬됐다. 소소한 사람과 마을이야기가 큰 사건과 역사적 공간 속에서 지역사를 세밀하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현덕면 40개 마을은 3년에 걸쳐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면지 등 각종 출판물은 물론 도시개발과 문화사업에 기초자료로 쓰여 질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 사례가 있지만 특이할 사항은 미군기지 관련이다. 평택의 미군기지 관련 마을 조사는 2018년 김해규가 총괄정리 했으며 김희식은 '송탄기지촌의 공간변화'(2018) '평택, 안정리, 캠프험프리스'(2019)등 두 건의 논문 작업을 했다. 최치선은 2017년 11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으로 평택미군기지와 사람에 대한 아카이브작업을 했다. 송탄과 안정리기지촌 사람들에 대해 이념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오롯이 삶의 기억과 기록을 중심으로 했다. 10시간 분량의 영상기록물과 e-book을 제작했고, 이를 편집해서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이란 영상물을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한 상태다. 어쩌면 불편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회한어린 말씀들이 담담하게 담겨있다. 이런 결과물들이 미군기지와 평택, 나아가 한미역사문화 연구에 마중물로 쓰여 지기를 기대한다.



〈사진4〉 평택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e-book 표지

3. 맺음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20여 명 연구자들이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에 참여했다. 연구자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조사대상 마을은 많고 의욕만 앞서는 기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연구자들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서 나열했던 주제별, 지역별 연구조사가 8년 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축적 된 자료의 가치는 지대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급성에 쫓겨 놓치고 왔던 그곳, 마을사람들의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발목을 잡는다. 한 연구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건과 인

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탐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지점이다. 언택트 시대에 다중이 모이는 노인정 및 개인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구술을 토대로 하는 마을조사 작업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마을조사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20년부터 문헌조사팀과 공간유형분석팀 자료를 활용한 마을조사를 기획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그 동안 조사 보고서에 담겨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마을지나 주제별 단행본 제작에 쓰여 지기를 바란다. 현대는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평택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부족한 연구조사와 결과물. 연구환경과 정책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책속에 자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쓰여 지고 활용될지를 고민해야한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불완전하고, 기억은 기록돼야 완성 된다'는 말이 있다. 오늘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 기억되는 일은 미약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 들춰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를 하는 이유이다.

평택의 마을과 간척:
1950년대 이후 조성된 간척촌을 중심으로

양선아/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

차 례

1. 들어가며
2. 1950년대 이후 간척과 간척촌 현황 : 청북·포승·현덕 지역을 중심으로
  1) 청북·포승·현덕 일대 간척촌 분포와 자료
  2) 조성 시기와 계기
    (1) 1950~60년대 난민정착촌
    (2) 1970년대 남양간척촌
3. 간척촌에서의 생활
  1) 1950~60년대 난민정착촌
    (1) 입지
    (2) 정착과 인근 마을 주민과의 관계
  2) 남양간척지 정착촌
    (1) 입지 및 기반시설
    (2) 정착과 인근 마을 주민과의 관계
    (3) 남양간척촌의 사회조직

1. 들어가며

간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통해 조성된 촌락을 간척촌이라 한다. 간척의 일차적인 영향은 경지 확장이다. 대규모 간척을 통한 경지의 확장은 인구의 이동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촌락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남양간척지와 함께 조성된 평택시 청북면과 포승읍 일대에 새로 조성된 촌락들은 간척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있었던 피난민들의 정착사업은 주로 간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간척지와 함께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청북읍 고잔6리 혁명촌이나 현덕면 권관4리 가사마을은 피난민 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한국 역사에서 간척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새로운 촌락의 형성은 1950년대 이후의 현상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대규모 간척이 전개되면서 간척촌이 형성되었다. 황해도 및 평안도 연안, 호남평야 및 예당평야 등에서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간척촌의 존재가 확인된다. 신규 간척지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간 초기 불안정한 농업 생산 및 재해 극복, 식수·연료·건축재료 등 식생활 및 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공급, 마을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관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서해로 유입되는 안성천과 발안천 변에 있는 평택 지역은 역사적으로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특히 화성(華城) 축조와 함께 전개된 둔전 개발과 모민(募民) 정책으로 안성천 일대의 간척은 탄력을 받았다. 《화성지》(1831)에 기재된 둔전 조에 따르면, 수원부 내에 있는 총 9개의 둔전 중 4개의 둔전이 현 평택 지역에 속하는 안성천 변에 있었다. 이중 오타둔(五朶屯)과 포내둔(浦內屯)은 화성 축조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화성으로 이속된 둔전이며, 삼도둔(三島屯)과 숙성환포둔(宿城換浦屯)은 화성 축조 이후 신설된 둔전이다. 삼도둔과 숙성환포둔은 언답(堰畓)이라 하여 이 둔전이 간척을 통해 조성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간척촌은 구릉지에 입지해 있는 한국의 일반적인 전통 촌락과 달리 평야 지대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입지적인 특징으로 보았을 때 화성 둔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도 19세기에 간척촌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이 발표문에서는 〈평택마을기록사업〉에서 필자가 조사했던 포승·현덕 지역과 《평택 대곡일기》(1959~2005, 이하 《대곡일기》로 기재)의 주 무대인 청북읍 고잔리 일대를 중심으로 간척촌의 분포, 조성 시기 및 계기, 간척촌에서의 생활 등을 소개할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간척촌은 모두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신규 촌락이다.

2. 1950년대 이후 간척과 간척촌 현황: 청북·포승·현덕 지역을 중심으로

1) 청북·포승·현덕 일대 간척촌 분포와 자료

필자는 2014~2019년 〈평택마을기록사업〉에 참여하여, 안중·포승·현덕 일대 마을조사를 하였다. 필자가 조사했던 마을 중 1950년대 이후 조성된 간척촌으로는 포승읍 원정4,5,6리, 홍원4,5,6,7리, 현덕면 권관4리 가사마을 등이 있다. 이중 원정4,5,6리, 홍원 4,5,6,7리는 남양간척지와 함께 조성된 마을이며, 권관4리 가사는 피난민 간척사업과 함께 형성된 마을이다. 원정7리 호암과 홍원1리 외원 마을은 기존에 있던 거주지에 1950년대 중반 황해도 출신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호수가 증가한 곳이다. 《대곡일

기》의 저자인 신권식 옹이 거주하는 청북면 고잔리 일대에도 1950년대 이후 형성된 간척촌들이 있다. 농꼴로 불리는 고잔6리 혁명촌은 피난민 정착촌이며, 고잔7리 청룡은 남양간척지 이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이 일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고잔리 남쪽에 있는 삼계리 신영촌도 피난민 정착촌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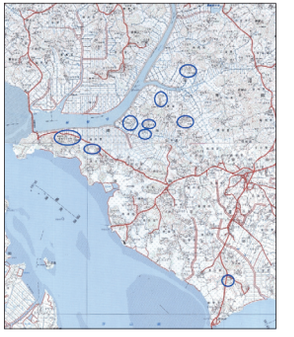
1910년대 안성천·발안천 일대

본 발표에서 〈평택마을기록사업〉 자료와 함께 일기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기초 조사의 성격을 가졌던 마을조사 자료가 간척촌이라는 특수 촌락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평택마을기록사업〉은 매년 조사자별로 평균 5~7개의 행정리를 조사지로 정하였다. 원정리와 홍원리를 조사했던 2017년의 경우 필자의 조사 마을은 10개 리가 넘었다. 정해진 기간 내에 10개 리가 넘는 마을을 조사해야 했던 까닭에 개괄적인 조사를 넘어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간척촌은 주민들의 이주율이 높아 정착 초기부터 거주한 주민들을 만나는 일도 기존 마을보다 어려웠다. 구술을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는 과거의 상황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기억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기는 구술과 마찬가지로 경험과 특정 사건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기는 하나, 기록의 즉각성에 의해 구술과 달리 현재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일상의 생활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술자료와 차이점이 있다. 《대곡일기》에는 1950년대에 조성된 피난민 간척촌과 남양간척지 이주민에 대한 기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신규 간척촌 사람들에 대한 기존 주민의 시각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간척촌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1970년대 초 청북·포승·현덕 일대



1980년대 후반 청북·포승·현덕 일대

* ○ 지역이 1950년대 이후 조성된 간척촌이다.

2) 조성 시기와 계기

(1) 1950~60년대 난민정착촌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간척사업은 제도적 정비 없이 진행되어오다,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대 들어와 간척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轉機)를 가져온 것은 미국의 원조식량에 기반한 농촌정착사업이었다. 농촌정착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로 발생한 '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간척을 통한 농지와 천일염전의 조성이 선호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오면 농촌개발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구호를 주목적으로 했던 사업도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는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농촌정착사업의 대상도 난민에서 도시의 부랑아, 실업자, 고아 등으로 확장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개발의 논리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농촌정착사업은 지역민의 자조와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조근로사업으로 흡수되었다. 1950~60년대 난민들의 농촌정착사업에서 자조근로사업으로 이어지는 간척사업에서 핵심적인 자원은 미국의 원조식량이었다. 한국 정부와 원조기구 합동으로 추진되었던 난민정착사업은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원조 식량을 노임으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척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호되었다. 간척사업은 작업에 참여한 난민들 역시 완공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착에 필요한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다(김아람, 2017).

고잔6리 혁명촌은 난민정착촌으로 1950년대 조성되었다. 혁명촌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농꼴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고잔리에 들어온 난민들은 옹진 사람들이었다. 농꼴에는 〈고잔사업소〉와 〈농꼴사업소〉 등 두 사업장이 있었다. 대곡 마을 남쪽에 있던 〈고잔사업소〉는 간척 면적이 15만 8천 평 가량 되었다. 〈농꼴사업소〉는 〈고잔사업소〉 동쪽에 있었는데, 간척 면적은 20만 평에 달했다. 두 사업소 모두 처음에는 각각 약 50세대가 들어왔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30~40세대로 줄어들게 되었다. 5.16 이후에 두 사업소는 합쳐서 혁명촌으로 불리게 되었다.

권관4리 가사는 1960년대 기산리 앞바다 간척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원병철씨의 주도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완공 후 피난민들이 불하받은 토지를 팔고 많이 나가 현재 남아있는 피난민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에 조성된 신규 간척지는 '사업장' 또는 '원장[堰庄]'이라 불린다. 처음에 마을이 조성될 당시에는 20여 호가 거주하였으나 점점 가구 수가 늘어 1970년대에는 30여 호가 되었다.

홍원1리 외원 마을은 기존에 거주지가 있었던 곳으로, 1950년대 중반 연백 출신 피난민들이 간척사업을 통해 정착하면서 거주 호수가 증가하였다. 이곳은 〈연백사업소〉라 불렸다. 이 간척은 1955년에 황해도 연백 출신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황해도 연안 출신 차연홍(車連弘, 1914년생)이다. 연백사업소 간척으로 홍원리~옥길리 사이에 627.8정보의 토지가 조성되었다. 연백사업소 간척지는 작답 과정에서 300평 단위로 구획하여 경지정리까지 하였으며 수로도 정비하였다. 농토는 피난민들에게만 분배되었는데, 한 세대 당 300평씩 7배미, 총 2,100평이 지급되었다.

외원 마을에는 면산, 낡은성, 대갈미, 장다리골, 밭원, 뱃목, 벼락바위, 사둘구지 등의 거주지가 있다. 원주민들이 주로 살았던 곳은 대갈미와 밭원이다. 다른 곳은 집이 한두 채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연백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간척공사에 참여한 연백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강화도 교동으로 피난을 나왔다가 바다를 막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 연백 출신 중에서 홍원리로 오기 전에 강화도에서 포승면 일대로 들어와서 1~2년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는 면 단위로 피난민을 정착시켰는데, 포승면 일대로 왔던 피난민들도 포승면사무

소의 주선으로 원주민들 집에 세 들어 살았다. 홍원리에는 자오에 피난민들이 여남은 집 들어와서 세를 들어 살다가 연백사업소 간척공사가 시작되면서 외원으로 이주하였다. 연백사업소 간척공사에 참여한 피난민들은 300세대라고 하나, 실제 세대 수는 250세대 정도였다. 이들은 사업소 사무실이 있었던 외원 마을에 대부분 정착하였으며, 일부가 석정6리와 청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원정7리 호암 마을 역시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피난민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이다. 피난민들은 간척사업을 통해 정착의 기반을 닦았다.

(2) 1970년대 남양간척촌

1970년대에 완공된 남양간척사업은 한국 간척 역사에서 큰 전기(轉機)가 되는 사건이다. 남양간척사업은 규모 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간척보다 압도적이었으며, 방조제 축조와 기반시설의 구축 과정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현대적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자원 동원 방식, 신규 간척지의 분배 방식 등에 있어서도 남양간척사업은 이전에 있었던 간척사업과 크게 비교된다.

남양방조제는 1973년 12월 28일 농업진흥공사에 의해 완공되었으나, 공사의 시작은 1960년대 중엽 이기창의 민간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 매립면허를 받은 〈화성농장〉 대표 이기창이 준공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인수하여 IBRD 차관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아산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남양간척지는 금강지구와 함께 IBRD 차관을 이용한 전천후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최초의 사업이었다. 간척농지 조성과 함께 관개시설도 완비하였다.

시	읍면	리	초기입주 세대수	입주대상자
화성	장안	독정4	75	일반 공모 서울시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반공청년회
		장안5	194	
		장안7	45	
		덕다3	20	
		사곡5	39	
		노진3	90	
계			353	
평택	청북	고잔7	21	대청댐 수몰민z
	포승	원정4	70	
		원정5	71	
		원정6	48	
		홍원4	60	
		홍원5	31	
		홍원6	40	
		홍원7	33	
계			816	
총계			837	

정부는 새로 조성된 간척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다. 1960년대까지 있었던 난민 중심의 농촌정착사업의 경우 정부는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한 이들에게 신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외국 차관에 의존하여 국가기구에서 완공을 본 남양간척지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유상 분배되었으며, 개인들 사이에서 분양권이 매매되었다. 1975년 6월 남양간척지 유상분배 방침과 분배 대상 선정 조건을 밝힌 정부는 1976년 6월 원래의 방침을 일부 수정하고, 그해 8월부터 농지 분배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남양간척지 주변에 이미 정착한 난민, 대청댐 수몰민, 대한반공청년회, 국가보훈대상자, 서울시 철거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며, 나머지 농토는 일반 공모를 통해 분양하기로 하였다. 우선 분양대상자들은 각각 경기도지사, 건설부장관, 서울시장, 대한반공청년회, 보훈처장,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0.75㏊~2㏊를 분양받았다. 일반 공모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되었는데, 농지 2㏊ 또는 3㏊

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남양간척지 분양과 함께 주택도 함께 공급하였다. 정부는 평택시 포승·청북 지역과 화성시 장안면에 신규 촌락을 조성하여 이주민들을 정착시켰는데, 평택 지역에는 대청댐 수몰민들이 정착하였다.[1] 남양간척지 분양 당시 정착촌 현황은 〈표 1〉과 같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은 충북 청원, 보은, 옥천, 충남 신탄진 등에 분포해있었다. 정부는 수몰민 이주대책의 하나로 남양간척지 이주를 계획하고 197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일간 신문에 입주 요강을 발표하여 입주 신청자를 받아, 신청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수몰민의 이주는 수몰 지역의 한 마을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수몰민 중에 남양간척지의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여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정리와 홍원리로 들어온 수몰민들의 고향은 옥천, 청원 등으로 다양했다. 특이하게 홍원4리에는 신탄진에 거주하였던 연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연씨들이 일가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관에 청원한 결과라고 한다. 연씨들 역시도 한 마을에서만 온 것은 아니며 신탄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다. 대청댐 수몰민들은 1977~79년 사이에 많이 입주하였다. 정착 초기부터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입주 주민들 중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래의 〈입주 요강 발표문〉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출신으로 대청댐 건설로 고향 마을이 수몰되자 원정5리로 이주한 고 김학규 옹이 남긴 《이주 30년사 — 이주 30돌 우리는 이렇게 왔다》에 실린 자료이다.[2]

1) 정부는 남양간척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개답 면적 2,279㏊ 중 1,734㏊를 개인에게 유상 분배하였다. 남양간척지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개인등록지(238.4㏊) 및 개인면허지(177.3㏊), 처음 남양방조제 공사를 진행했던 이기창에게 주어지는 농지(107.3㏊) 등은 유상분배 면적에서 제외되었다(박상인, 2003: 35~50).

〈입주 요강 발표문〉 (김학규, 2007: 4)
대청댐 수몰민 정착지구
위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홍원리 고잔리
할당면적: 700ha 충북 450ha 충남 245ha, 1호당 분배 면적 1ha
입주년도: 77년 78년
상기와 같이 입주 요강 발표문이 발표되었다.
토지 금액 평당 1,000원
이자율 년 7% 입주금 선불
토지 3년 거치 10년 상환, 주택 3년 거치 15년 상환

남양간척지 정착촌은 지명에서부터 기존 마을과 구분되었다. 원정4,5,6리는 2지구, 3지구, 1지구라 하였는데, 이 중 5리와 6리는 마을 조성 당시 주택을 건설한 회사의 이름을 따라 쌍용과 한일이라고도 부른다. 원정5리에는 원주민이 두어 집 거주하고 있었다. 원정6리의 경우 대청댐 수몰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홍원4리는 만석동, 5리는 2지구, 6리는 3지구, 7리는 1지구로 불린다. 만석동이라는 이름은 이곳이 앞으로 인천의 만석동처럼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고잔7리는 청룡으로 불린다. 청룡이라는 이름은 이주민들의 고향인 충청도의 '청'에 마을이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용'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나, 예전부터 청룡뿌리라고 불렸던 곳에 마을이 들어선 것도 이러한

2) 고 김학규 옹은 남양간척지를 분양받고 1979년에 원정5리로 이주하였다.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일기로 남긴 김학규 옹은 2007년에 그간에 자신이 기록해왔던 자료를 정리하여 《이주 30년사-이주 30돌 우리는 이렇게 왔다-》, 《나의 발자국》 등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이 책에는 이주 초기 마을 현황, 남양간척지에서의 영농, 마을조직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있으며, 사진 자료도 많이 실려 있다. 김학규 옹은 2011년에 사망하여 그 자제인 김기덕씨로부터 이 책을 수집하였다.

마을 명이 붙여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남양간척지 정착촌은 마을 명칭뿐 아니라 마을의 입지, 마을 내 공간 배치 등 여러 면에서 기존 마을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구릉지 말단부에 들어선 마을의 입지나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된 마을 내 공간 배치는 기존 촌락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신규 촌락의 새로움은 마을 명이나 경관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여러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출입 가구 수도 역시 많았다. 남양간척사업은 수리체계를 완비한 바둑판 모양의 대규모 농업 단지라는 새로운 경관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농촌을 만들었다.

3. 간척촌에서의 생활

1) 1950~60년대 난민정착촌

(1) 입지

1950~60년대 이후 평택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간척촌은 구릉지에 들어섰다. 고잔리 혁명촌과 홍원리 외원 마을은 간척농지와 맞닿아 있는 구릉지 말단에 거주지가 조성되었다. 반면 권관리 가사 마을의 경우 경작지에서 북쪽으로 1.5㎞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신규 간척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기산1리 기산과 권관3리에 속하는 텃골[덕산]이다. 가사 마을과 가장 가까운 기존 촌락은 기산2리 물미 마을이다.

가사 마을의 거주지가 조성된 곳은 임야로 국유지에 속한다. 이 땅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이후 적산으로 처리되어서 국유지가 되었다. 가사 마을에 소재한 가사초등학교 터는 아이들을 묻었던 애장터였으며, 기산2리 물미에서 주로 이용했던 곳이었다. 경작지와 떨어진 곳에 집들이 들어선 것은 이 땅이 국유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착 당시 난민들은 등기 없이 집을 지어 살았으며, 현재까지도 등기가 없는 가옥이 대부분이다. 권관4리에 초기 정착했던 피난민들은 '뗏장집'을 지어 살아서 이 일대가 "뗏장거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뗏장집이란 나무판 두 장을 간격을 두고 세워서 그 사이에 흙을 부어다져서 벽을 세운 집을 가리킨다. 지붕은 초가로 이었다. 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착민들은 지게를 지고 주변 동네를 다니면서 짚을 얻어 와야 했다. 정착민들은 새로 이주해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산이 없었다. 주변의 산은 수성 최씨, 곡부 공씨 등 이 일대의 유력한 집안 소유지였다. 정착민들은 뗏장집 목재나 땔감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 산에서 나무를 구해 와야 했는데, 나무를 몰래 채취해가지 못하도록 감시가 무척 심했다. 마을이 형성될 무렵에는 우물이 없어서 학교 우물에서 물을 퍼다 쓰다가 1970년대 초반에 동네에 우물을 새로 팠다. 빨래는 오복골이나 장수리 넘어가는 쪽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해오기도 하였다. 물미 가는 길에 있는 넙적배미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였다. 아산만수로가 생기고 나서는 여기에서 빨래를 하였다.

홍원리 외원 마을의 경우에도 피난민들이 집을 많이 지었던 면산은 면 소유의 토지였다. 이밖에도 개인 소유의 산에도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한참 후에 산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집터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자 마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각자가 집터를 구입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정부는 난민들의 정착을 보조하기 위해 가옥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제공하기도 했다.

고잔리 혁명촌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에 거주지가 조성되었다. 혁명촌 난민들도 정부로부터 가옥 건축용 송판 등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되팔

고 토막집을 지어서 살았다.

(2) 정착과 인근 마을 주민과의 관계

난민정착사업은 간척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난민으로 충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방조제 축조에 성공하여 그 내부에서 안정적인 생산물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성공을 보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간척촌에서 주민들의 이출입이 많았던 데에는 이와 같은 간척사업의 특징이 작용하였다. 정착 초기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던 간척촌의 이주민들은 인근 촌락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타지로 나가 일을 구하기도 했다.

두 개의 사업장이 있었던 고잔리 혁명촌의 경우 〈농꼴사업소〉는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며 간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모두 농지를 불하받을 수 있었다. 〈고잔사업소〉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로 개간하지 못하고 염전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조성 과정이나 운영이 순조롭지 않아, 사업자가 몇 차례 변경되었다. 이 염전은 1965년에 있었던 큰 해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인수되었다가 남양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농지로 이용되었다. 〈고잔사업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막은 간척지를 농지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 가서 품을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곡일기》에는 혁명촌에 정착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신권식 옹은 혁명촌이라는 이름보다는 예전부터 써왔던 농꼴이라는 지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신권식 옹이 거주하는 고잔리 대곡 마을과 농꼴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난민들이 정착하기 전에 농꼴은 대곡 주민들의 전답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일기에서 신권식 옹은 새로 이주해 들어온 농꼴 주민들에 대한 경계심을 종종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농꼴 주민들을 일꾼으로 고용하는 일이 점차로 많아지면서 농꼴 주민들과 신용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경계심 또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신권식 옹은 연초에 일꾼으로 자주 오는 농꼴 사람들 몇 명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며, 새로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할 때 고잔리 고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꼴 사람들도 초대한다. 대곡과 농꼴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대동 상례 조직인 연반계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기존 거주지가 확장된 홍원리 외원 마을에서도 정착 초기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주민들은 홍원리 여러 마을들이 참여하는 연반계와 당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외원 마을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독자적으로 마을 우물고사를 지냈다. 이때 농악패가 걸립을 하여 모은 쌀 300가마를 마을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자금으로 마을회관과 구판장, 농약물류창고 등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외원 마을에서만 쓰는 상여도 별도로 장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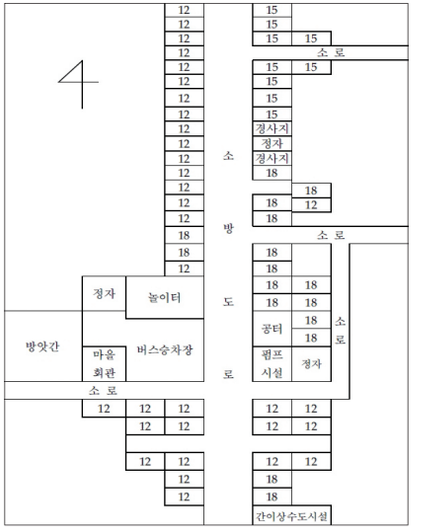
권관리 가사 마을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계는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 몇몇이 계를 조직하여 혼례나 상례를 치르는 일은 있었다.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마을에 상여가 없어서 들것으로 시신을 옮기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삯을 내고 옆 동네인 기산2리 물미에서 상여를 빌려왔다. 곡부 공씨 집성촌인 물미에서는 상여를 빌려줄 때 까탈스럽게 굴어서 마을 청년회에서 돈을 모아 마을 상여를 장만하였다.

2) 남양간척지 정착촌

(1) 입지 및 기반시설

전통 촌락들이 골 주변에 위치하였던 것과 달리 남양간척지 정착촌은 구릉지 말단부에 들어섰다. 정착촌 조성을 위해 정부는 거주지가 들어설 터를 매입하였다. 《대곡일기》에는 집안 묘지가 주택부지에 편입되어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신규 촌락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던 까닭에 도로와 주택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열촌(列村)의 형태를 띠었다. 촌락의 중앙부에는 소방도로를 놓고 이와 직각으로 가로망을 배열하였다. 이 가로망을 따라 양편에 가옥을 연속으로 배치하였다. 각 가옥의 대지는 가옥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0평으로 분할하였다. 12평, 15평, 18평으로 구분된 가옥은 조립식 건물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후, 철골조로 틀을 짜고 특수아연으로 처리한 함석을 소재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였다(박상인 2003: 52). 함석 사이에는 스티로폼을 넣어 단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옥 중에는 스티로폼이 빠진 것들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보수를 하였다. 함석집은 더위와 추위에 약했으며, 함석 사이에 쥐들이 많이 살아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른 정착촌의 주택은 본채만 있고 부속건물이 따로 없었으나 홍원4리는 부속시설인 창고와 변소가 계획적으로 건축되었다. 다른 정착촌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1980년에 평택군에서 창고가 딸린 7평 규모의 아래채와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었다.



홍원4리 촌락 공간구조 (※ 숫자는 평수임)
(박상인, 2003: 51)

아궁이는 연탄을 사용하게 되어있었으나, 연탄 구입이 힘들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나무나 볏짚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아궁이를 다시 설치하였다. 산감의 감시를 피해 나무를 해와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1980년대 중반에 연탄보일러가 도입되어 연탄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골 주변에 있는 전통 촌락들이 생활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과 달리, 신규 촌락들은 자연적으로 샘이 나는 곳이 없어서 생활용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마을별로 지하수를 양수하여 간이저수조에 저장해두었다가 각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박상인, 2003: 43-44). 원정4리의 경우 처음 저수조가 있었던 곳이 개인 소유의 토지여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원정5리에서는 이주 초기 샘물을 이용하였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 이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지하수 관정을

파고 저수조를 설치하였으나 수량 부족과 높은 염도로 관정 위치를 변경하였다. 홍원6리의 경우 상수도 물에 염분이 높아서 스테인리스 그릇이 녹이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하수를 새로 팔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주민들끼리 모내기 작업반을 조직하여 돈을 모은 뒤, 1980년대 초반에 그 돈으로 지하수를 새로 팠다. 새 지하수도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면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하수를 다시 팠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 물을 사용했다.

(2) 정착과 인근 마을 주민과의 관계

남양간척사업 이전의 간척사업은 간척공사 이후 작답(作畓) 과정 역시 정착민들에게 주어진 작업이었다. 작답은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뿐만 아니라 관개 및 배수시설의 등의 조성을 포함한다. 간척농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간척지는 안정적인 경지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대단위농업개발단지로 조성된 남양간척지는 농촌진흥공사에서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조성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간척사업과 구별된다. 남양간척지 경작인들은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나 남양간척지 역시 경작 초기에는 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 전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했으며, 논바닥에서 올라오는 염기 역시 농사에 장애를 주었다.

남양간척사업은 초기에 분양권의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얼마 없어 자유 매매가 허용되어 수몰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남양간척지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었다. 분양권 매매는 입주 당시부터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신규 촌락의 인구 이동이 잦았던 것은 분양권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영향이 크다. 분양주택과 농지의 소유권 이전은 상환금 납입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 현지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팔기도 하였으며, 정착한 이후에도 간척농지 경작에 적응하지 못하여 얼마 되지 않아 입주권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입주권을 사고 들어온 사람들은 분양 조건에 따라 농지와 주택 상환금을 대신 갚았다.

분양 계획상으로만 보면 남양간척사업이 그 자체로 지역 주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해 보일 수 있다. 《대곡일기》는 남양간척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 일기에서 남양방조제 축조에 대한 언급은 얼마 되지 않으나, 남양간척지 분양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급증한다. 신권식 옹이 남양간척지를 농토로 구입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농사는 이 일기에 기록된 주요 일과가 된다. 이 일기에 따르면, 남양간척지 분양 계획 발표 이전 지역 주민들은 경지 확보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는 계획 발표에 실망을 표하기도 하였다. 인근 주민에게 허용된 것은 분양 이전 신규 간척지의 임시 경작과 남양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하천부지의 임대 경작이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정착촌의 주택 공사 등에 품을 팔러 가기도 하였다. 분양권 매매가 허용되면서 남양간척지는 인근 주민들이 경지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되었다.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서 대청댐 수몰민들은 단체로 남양간척지를 견학하였으며, 이때 지역민들을 면담하기도 하였다. 분양 확정자들은 작답이 불완전한 1~2년 간은 이주를 미루고 경지를 임대하기도 하였는데, 이 중에는 인근의 지역민들도 있었다. 지역 주민은 임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여 남양간척지를 경작하였다. 외부에서 들어온 임차농들은 인근 마을에 세를 주고 거주하기도 하였다.

(3) 남양간척촌의 사회조직

평택시에 조성된 남양간척촌은 정착 당시 정부에서 마을회관 부지까지 마

련하여 이주민들이 분할 납부하는 주택 자금에 그 비용을 포함시켰다. 이주민들은 리 단위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사회조직을 결성하였다.

리 단위 사회조직으로는 원정5리 대동계 등을 들 수 있다. 1978~79년 사이에 정착이 많이 이루어졌던 원정5리에서는 1980년 12월에 대동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동계 계칙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원정5리 대동계칙 (김학규 2007)

제1조 총칙
1. 본계는 대동계라 칭한다.
2. 본계는 계원 상호간의 합동단결로써 친목과 유대를 공고(鞏固)히 하고 상부상조하여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계의 입계는 우리 마을 주민으로서 본계를 찬동하고 소정의 입계금을 납입하면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입계할 수 있다.
4. 본계의 입계금은 백미 5승으로 하고 설립 이후에 입계금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기금의 증액이 필요할 시는 연차적으로 추징한다.
5. 본계 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할 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며 납입된 입계금은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본인의 사정에 의한 탈계나 처벌에 의한 탈계도 이와 동일하다.
…

제3조 사업
1. 본계의 계원의 유고 시(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 시)에는 연락이 있으면 필히 참석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본계의 계원의 가족 중 상사를 당했을 시는 계원 전원이 일치하여 운구(運軀) 산역(山役) 계서(計書)의 전달 등 상례 절차에 따른 제반사에 전책임을 지며 상례 시행 중 계원이 지시에 절대 승복하여야 한다.
3. 본계의 기금은 계원의 공익이 되는 건전한 사업으로 계원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

부칙
1. 본계는 198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1989년부터 계원들의 직계 가족의 길흉사 간에 1인당 탁주 20말씩 태워주기로 결정함(1인 1회에 한함).
…

리 단위를 넘어서는 계 조직으로는 대청계(대청향우회), 문의면계, 충남향우회 보령계 등이 있다. 대청향우회는 대청댐 수몰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되었다. 조직 범위는 원정 4,5,6리로 수몰민 중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이 모임은 1980년에 조직되었으며, 처음 조직 당시 참여 인원은 40여 호가량 되었다. 계의 목적은 친목과 단합, 애경사 참여 등이었으며, 계원의 애경사가 있을 시 일인 당 백미 1두씩을 거출하여 지급을 하였다. 문의면계는 남양간척지로 이주한 문의면 출신 수몰민들의 모임으로, 1981년에 조직되었다. 문의면에서 평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0여 호가 넘었으나, 이 계에 참여한 가구는 35호 정도였다. 충남향우회 보령계는 홍원리와 원정리에 정착한 남양간척지 이주민 중 보령 대천 출신들이 조직한 모임이다. 대천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남양간척지 분양권을 사고 들어왔다. 이들이 들어온 시기는 주로 1977~79년 사이이다. 참여 인원은 20여 명 정도이다. 처음에는 모임이 잘 되었으나 연세가 높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한다.

■ 자료

경기문화재단·(사)지역문화연구소, 2007,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I: 평택 대곡일기(1959 ~ 1973)》.

경기문화재단·(사)지역문화연구소, 2008,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II: 평택 대곡일기(1974 ~ 1990)》.

김학규, 2007, 《이주 30년사 — 이주 30돌 우리는 이렇게 왔다》

평택문화원, 2016, 《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 2017, 《2017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화성지》 (규장각 소장, 古 915.12-H991j).

■ 참고문헌

김아람, 2017,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인, 2003, 〈남양호주변 문화경관 변화 연구 — 간석지 개간과 생활공간 형성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문조사로 살펴본 평택지역의 마을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마을연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마을의 인문적 접근
   2) 평택지역의 마을조사활동
2. 평택지역의 인문지리적 조건과 마을
   1) 인문지리적 조건
   2) 평택지역 마을분포와 특징
3. 문헌을 통한 마을조사의 방법과 가능성
   1) 근대이전 사료(史料)를 통한 마을조사
   2) 근·현대 사료(史料)를 통한 마을조사
4. 구술을 통한 마을 인문자원 조사
5. 마을의 인문자원-평택시 도일동 사례
6. 맺음말 : 평택지역 마을 인문조사와 과제

1. 마을연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마을의 인문적 접근

마을은 일상적 삶이 이뤄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다. 또 가장 작은 규모의 '지역(地域)'이며 국가행정의 기본단위이기도 하다. 농경사회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뤄졌으며, 이웃과의 교류와 문화가 만들어졌고, 개인의 경험이나 전승, 사회적 작용도 이뤄졌다. '마을사'는 중앙사나 광역지역의 역사연구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이나 지배층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地域史)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연구'의 바탕이 되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그만큼 '마을사 연구'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 디테일이 요구된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설정하고, 마을과 주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전은경은 '마을연구는 특정지역 거주민의 삶과 그것을 규정하는 생태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생각하고, 그 조건이 질적(質的)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1]"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을연구의 범위는 마을공동체이며, 마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마을은 하나의 역사적, 인문적(人文的) 공간이다. 하나의 '지역(地域)' 으로서 지리적,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고, 일정한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외부의 역사적 사건에 조응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일정한 사회조직이 작동되며, 도덕과 규범이 존재하고, 경제활동, 교육, 종교, 문화, 예술이 생성 발전한다. 설령 일정한 외부의 강요와 요구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마을공동체와 개인이 이것을 받아들여 적용하는 방식은

1) 전은경, 〈마을학, 무엇을 연구하고 활용할 것인가〉, 《월간 주민자치》37, 한국자치학회, 2014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마을연구는 하향적 관점, 하향적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 마을공동체의 관점, 주민 개개인의 관점과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령 전문연구자가 개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관점과 해석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을을 관점, 주민들의 관점에서 마을연구가 이뤄지려면 사료수집과 분석, 해석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주민들의 삶이 투영된 사료를 발굴해야 하며, 사료비판을 통하여 마을과 주민들의 관점과 해석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마을 관련 사료(史料)는 크게 문헌사료와 구술 사료,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와 지배층이 문자와 교육을 독점했다. 그래서 피지배층의 삶과 생각이 후대에 전승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나 지배층이 생산한 사료(史料)들 중에서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사료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노력과 피지배층의 유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과 관련해서는 관찬(官撰) 사료보다는 사찬(私撰) 사료가 유용하다. 사찬(私撰) 읍지(邑誌)나 사대부들의 문집(文集)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들도 가치가 있다.

국가나 지배층의 문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마을문서, 민장문서, 구술(口述)이 있다. 근대전후 마을에는 대동회나 대동계, 연반계, 상여계, 옷계와 같은 다양한 계(契) 조직이 있었다. 근대 이후에는 마을의 공적 조직과 사회단체, 이동협동조합이나 새마을운동, 작업반 같은 각종 마을사업들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생성된 마을문서와 사진, 유물들은 마을연구의 귀중한 사료(史料)다. 가문(家門)에서 발간한 족보나 분재기, 호적단자, 각종 문헌, 농사일기를 비롯한 일기류나 편지와 같은 민장문서도 개인 뿐 아니라 가문과 마을의 성격이나 운영을 파악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서, 신분증, 토지대장, 호구단자, 고

지서도 연구주제에 따라 활용가치가 높다.

구술(口述)은 문헌이나 유물로 채우지 못하는 근·현대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기록으로 남겨진 사실들의 진실여부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재해석된 역사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료(史料)다. 얀 반시나는 "역사가의 모든 산물은 기억의 산물"이라고 말했다.[2] 사실 문헌사료도 기억을 문자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역사학자 폴 톰슨은 "구술사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자리를 잡아 줄 수 있고 새롭고 다양한 접근과 자료를 통해 과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밑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초점을 이동시키며,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역사가들의 가정과 이미 인정된 해석에 도전하며, 미시됐던 실제적인 집단이 인정하게 함으로서 역사서술 자체의 폭을 넓히고 풍성하게 하여 좀 더 민주적인 역사서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폴 톰슨이 말한 '민주적'이라는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과거 역사서술이 중앙이나 지배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술은 비민주적이고 지배층에 의해 독점되었던 역사를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도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사는 지배층의 역사를 서술할 때도 유용하지만 역사적으로 문자를 소유하지 못해 기록할 수 없었던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할 때 훨씬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2) 평택지역의 마을조사 활동

마을관련 연구는 농어촌의 인문지리, 사회조직, 민속종교, 구비문학, 축제와 놀이 등에 대한 개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마을공동체와 관

2)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기억과 구전〉, 아르케, 1999

련한 문중계, 대동계, 두레, 향약, 마을조직, 자치조직, 혈연공동체, 지연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조직, 근래에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근대화사업 등에 대한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3] 새마을운동 연구는 초기에는 사업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관제근대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평택지역은 오랫동안 문헌조사 및 구술조사를 통해 마을사를 연구하여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필자도 1990년대 후반부터 마을관련 문헌 발굴 및 구술조사를 통해 마을연구를 했다. 2000년대 이후 평택문화원에서 '지역지(地域誌)'를 편찬할 때나 평택시립도서관의 '기억수집' 사업에서도 구술조사는 핵심적인 조사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004~7 사이 팽성읍 대추리를 중심으로 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을 전개할 때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폐동(廢洞)될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실시하여 《들이 운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근래 미군기지 문제 시민단체 '평택평화센터'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여 구술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평택에코뮤지엄연구회 마을박물관 분과에서는 마을의 구전자원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것을 토대로 마을박물관을 건립을 시도했다.

평택문화원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4]는 마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문 및 구술조사보고서다. 평택지역은 1990년대 이후 도시확장과 공단건설, 평택항 확장공사 등으로 마을이 폐동(廢洞)되거나 경관과 생활환경이 크게 변모하는 마을이 많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로 폐동되거나 경관변화가 심한 마을, 평택지역의 역사와

3) 이영배, 현진주, 〈마을연구 담론의 경향과 전망〉, 《민속연구》3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

4) 평택문화원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조사연구' 프로젝트다. 매 년 대상마을의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집된 각종 사료와 함께 아카이브하여 지역사료축적 및 연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인문 및 구술조사, 유물 및 사료 수집 통해 역사자원과 구전자원을 수집·연구·수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건의하고 평택시가 지원하며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친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사료(史料)와 유물수집이 이뤄졌으며, 이것을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에 아카이빙하여 연구자 및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실증적 노력을 통해 마을관련 사료(史料)는 축적됐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마을과 주민중심의 분석의 틀, 해석의 틀을 갖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향후 실증적으로 마을조사도 실시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역사관(歷史觀)과 연구방법을 계발하고 지역과 마을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평택지역의 인문지리적 조건과 마을

1) 인문지리적 환경

평택지역은 구릉과 평야, 바다가 고루 발달한 고장이다. 구릉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서남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졌으며, 서쪽으로는 경기만과 인접했다. 구릉은 해발고도 최고 200m에서 최저 10~20m 내외로 낮은 편[5]이다.

서남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평택평야는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바다와 갯벌이었지만 조선후기부터 궁실(宮室)이나 관아(官衙), 군영(軍營)의 간척[6]과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 뒤까지 일본인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한국전쟁 피난민, 대청호 수몰민에 의해 간척되면서 평야지대로 바뀌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발안천 하류지역에서는 어업과 염업(鹽業)도 발달했다. 평택지역은 1974년 5월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방조제 준공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부분 천수답이었던 평택평야가 옥토로 변했으며 농업생산력이 두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00년 전후 공업화와 도시 확장도 아산만 방조제 준공에 따른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 때문에 가능해졌다.

평택지역은 근대 이전부터 교통·통신이 발달했다. 근대 이전에는 삼남대로와 충청수영로를 중심으로 육로교통이 발달했으며, 아산만이나 안성천, 진위천 수로(水路)를 통해 조운(漕運)과 수로교통[7], 포구상업과 어업, 염업이 발달했다. 근대교통도 발달했다. 우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도1호선, 국도38호선, 국도45호선과 같은 신작로가 건설되었고 철도역 주변에는 근대도시와 시장이 신설되었다. 1970년대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된 이래 서해

5) 평택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진위면의 무봉산(208.6m)이고 낮은 산은 해발 30m 내외의 삼각산, 덕동산, 매봉산이다.

6) 평택평야에 궁방전이나 역둔토가 많았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평택궁내부수어둔전답도타조봉상책〉등 각종 추수기(秋收記)에 잘 나타나 있다.

7) 수로와 해로교통에서는 안성천과 진위천, 발안천 유역, 그리고 아산만 연안이 중요하였다. 안성천 유역의 주요 나루, 포구로는 평택시 군문동의 군물포(군문포), 통복동과 신대동의 신덕포, 화포, 삽교포, 팽성읍 석봉리의 원봉나루, 석봉나루, 팽성읍 대추리의 곤지진, 노양리의 경양포(계양), 현덕면 신왕리의 신흥포, 대안4리 구진, 권관리의 계두진이 있었다. 또 진위천 유역에는 고덕면 동고리의 이포진, 궁리의 다라고비진, 해창리의 해창진, 동청리의 동청포, 서탄면 황구지리의 항곶포, 진위면 갈곶리의 갈곶포, 청북면 토진리의 토진(土津) 있었다. 발안천 유역에는 청북면 삼계리의 옹포, 현곡리의 신포, 포승읍 홍원리의 자오포, 호구포가 대표적이고, 아산만 연안에는 포승읍 만호리의 대진, 신영리의 신전포, 원정리의 한나루, 현덕면 장수리의 석화진이 컸다. 이 가운데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포, 고덕면 해창리의 해창포, 청북면 삼계리의 옹포는 직산현과 평택현(경양포), 진위현(해창포), 양성현(옹포)의 세곡을 집적하여 운송하는 해창(海倉)이었고, 포승읍 만호리의 대진(大津)은 삼국시대에는 대당교역의 중심나루였으며, 근대전후에는 충청도 내포지역과 서평택의 상권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서울-천안 간 국철이 개통되었다. 1986년 12월에는 평택항이 개항했으며 1999년에는 해군제2함대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해로(海路) 교통과 무역이 크게 성장했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평택지역 인구는 진위현에 221호 535명, 평택현에 179호 704명이 거주했다. 이것을 수원도호부, 양성현, 직산현, 평택현의 월경지와 두입지 인구와 합산하면 대략 3,700여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8] 조선후기에는 간척으로 농업인구가 이주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1789년(정조13)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진위현 7,093명, 평택현 5,742명[9], 직산현 경양면, 수원부, 양성현, 평택현의 월경지에 약 7, 8천 명이 거주하여 전체적으로 약 2만 명 수준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1952년 팽성읍 안정리와 신장동 일대에 미군기지와 미군기지촌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편리한 육로교통과 해로교통을 배경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2021년 7월 말 현재 54만 9,901명으로 증가했다.

2) 평택지역의 마을분포와 변화

마을은 지형과 교통,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평택지역 마을은 구릉(丘陵)과 포구(浦口)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간척과 수전농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낮은 지대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평택지역의 오래된 마을들은 주로 구릉지대 남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가 짧을수록 들판에 가깝게 위치한다.

8) 《세종실록지리지》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직산현, 양성현 조

9) 《호구총수》 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 1789

초기 마을들은 무봉산과 덕암산, 부락산, 팽성읍의 부용산, 오성면의 오봉산, 삼정승산, 청북읍의 무성산, 현덕면의 고등산, 마안산, 안중읍의 자미산, 비파산 기슭에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구릉지대와 하천을 중심으로 밭농사와 수렵, 채집 생활을 했지만 점차 농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곡을 중심으로 밭농사와 함께 논농사가 발달했다. 조선후기에는 간척사업이 촉진되어 궁방전이나 역둔토가 많았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산민증식사업으로 대규모 간척이 이뤄졌고, 한국전쟁 뒤에는 피난민정착사업으로 간척이 촉진되어 경지면적이 확대되고 마을도 늘었다. 논농사와 같은 수전농법은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간척지는 대부분 천수답이어서 한해(旱害)나 수해(水害)의 피해가 많았고 수확량이 매우 낮았다. 들판에 위치하여 계곡의 물을 모으기도 힘들었으며, 들판 사이로 흐르는 하천으로는 바닷물이 유입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부터는 하천에 보(洑)가 축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저수지도 만들어졌다. 1974년 아산만·남양방조제 준공과 경지정리사업, 야산개발은 경지면적 확대와 함께 농업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 가스렌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들판 마을에서도 식수와 땔감,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이전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발안천 하류지역에서는 어업과 염업, 수산업이 발달했다. 어업은 오성면 당거리, 길음리, 현덕면 대안리, 신왕리,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원정리, 팽성읍 노양리 같은 마을에서 발달했다. 바다와 인접한 마을 중에는 순 어업을 하기도 했지만 간척사업이 활발했던 일부 마을은 반농반어(半農半漁)를 했다. 염업(鹽業)은 자염(煮鹽)의 경우 어촌마을의 부업으로 했지만 한국전쟁 뒤 간척지에 천일염전이 조성되면서 염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염전은 1970년대 초 아산만, 남양방조제가 준공되고 염전이 논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사라졌고, 동진염전을 비롯한 일부 염전만 1990년대 중후반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삼남대로와 충청수영로 변에 역촌(驛村)과 원촌(院村)이 발달했다. 평택지역에는 삼남대로에 역(驛) 1개와 원(院) 5개가 설치됐고, 충청수영로에는 역(驛)1개와 원(院)1개가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곳곳에 점막도 생겼다. 주막이라고도 부르는 점막은 대로(大路) 분 아니라 중로(中路)나 소로(小路)의 길목이나 나루·포구에도 발달했다. 역(驛)과 원(院)에는 역촌(驛村)과 원촌(院村)이 발달했으며, 나루·포구에는 진촌(津村)과 어촌(漁村)이 발달했다. 평택지역의 역촌(驛村)으로는 진위면 청호리, 팽성읍 추팔1리이며, 원촌(院村)은 진위면 신리와 칠원1동, 소사1동이 대표적이다.

근대 이후 철도역이 설치되고 역전(驛前)에 근대교통과 도시화가 이뤄졌다. 역(驛) 앞의 근대도시는 상공업도시였다.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기지 주변에는 미군기지촌도 발달했다. 철도역전의 근대도시로는 원평동을 비롯한 구 평택시 지역과 서정리역 일대의 중앙동, 서정동, 송탄역 앞의 지산동 일대를 꼽을 수 있다. 미군기지촌은 신장동과 서정동 일대 그리고 팽성읍 안정리, 본정2리 일대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평택지역 간척으로 오성면 안중리 안중장 일대가 도시화되었다. 1990년대 서평택지역에 평택항이 개항하고 공업화되면서 포승읍 도곡리의 도곡신도시, 청북읍 옥길리의 청북신도시, 현화택지지구, 화양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도시화가 확대되고 새로운 근대도시가 발달했다. 2010년대 전후에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평택지역의 도시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다.

3. 문헌을 통한 마을조사

1) 근대이전 사료(史料)를 통한 마을조사

마을의 인문학적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로 나눠 볼 수 있다. 특정 지역(地域) 문헌조사는 매우 세심하고 어렵다. 사료(史料)의 수집과 정리도 잘 안 됐을 뿐더러 중앙관련 사료에 비해 양(量)과 질(質)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처럼 소규모 공동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문조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문헌으로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정사(正史)와 《지리지(地理志)》, 《읍지(邑誌)》, 《문집(文集)》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는 지역이나 마을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그나마 《실록》이나 지리지(地理志), 읍지(邑誌)가 활용 가능한 사료다.

조선전기 편찬된 지리지(地理志)로는 1454년(단종2)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1481년(성종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25)이를 증보(增補)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을의 연혁, 방리, 인구, 성씨, 토지, 특산물, 역원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고을단위의 연구에서는 참고할 만하지만 마을과 관련된 정보는 많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재도 참고할 내용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두 문헌이 국가나 중앙의 통치적 관점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당시 피지배층의 시각과 입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조선후기에는 관찬(官撰) 지리지(地理志)·읍지(邑誌)와 사찬(私撰) 지리지·읍지가 간행되었다. 관찬(官撰) 지리지로는 1757~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가 있다. 《여지도서》는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책으로 엮은 전국읍지(全國邑誌)라는 점에서 조선전기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슷하지만 제언, 창고, 목장, 봉수, 물산,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

(進貢), 전세, 대동(大同)등 사회·경제적 내용이 강화된[10] 점이 특징이다.

18~19세기에는 읍지(邑誌) 편찬이 많았다. 읍지(邑誌)는 편찬목적은 비슷하지만 지역적 관점이 투영되었고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어 이전 사료들보다 마을관련 정보가 많다. 특히 1899년 광무개혁 후 편찬된 읍지(邑誌)는[11] 부세제도 개혁, 지방재정의 통합, 수취구조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편찬되어 경제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 된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는 조선후기 마을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조선후기 호구(戶口)·인구(人口) 관련 조사보고서로 고을의 면(面) 별 호구와 인구수, 그리고 마을지명이 소상하다. 1894~1904년 사이 작성된 《광무양안》도 마을연구에 활용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양안(量案)이란 조선시대 토지를 측량하며 기록한 토지대장으로, 《광무양안》에는 당시 경제규모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이름과 마을과 들판지명이 수록되었다.

진위현(振威縣)은 1843년, 1891년, 1899년 세 번에 걸쳐 《읍지(邑誌)》를 편찬했다. 평택현에서도 1899년 《평택현 읍지》를 발행했으며, 평택지역과 관련된 수원도호부, 직산현, 양성현에서도 여러 차례 《읍지(邑誌)》가 편찬되었다. 이 시기의 관찬(官撰) 읍지는 지역의 사회경제상이나 마을과 관련된 정보가 소상한 편이다. 예컨대 1891년 《진위현 읍지》는 기존의 내용에 여염, 전답, 조세, 군기(軍器), 군병, 식목, 관름(官廩), 농보(農堡), 문묘, 역원, 고적, 성씨, 인물, 풍속과 같은 내용까지 담고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상이나 마을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수원지역에서 발간한 《수원부 읍지》, 《화성지》, 양성현의 《양성군 읍지》에도 마을관련 정보가 소상하다.

조선후기 사찬(私撰) 읍지는 관찬(官撰) 읍지·지리지 편찬의 경험과 사료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1) 나승만, 〈마을민속조사연구의 실제와 문제〉, 《민속연구》1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史料)를 토대로 편찬되었다.[12] 사찬(私撰) 읍지는 지배층의 시각에서 편찬되었지만, 지역적 입장이 반영됐으며 중앙이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마을연구에 귀중한 사료다. 평택지역에서 편찬된 사찬(私撰) 읍지(邑誌)로는 18세기 신치가 편찬한 《팽성지(彭城誌)》가 있다. 《팽성지(彭城誌)》에는 건치연혁과 함께 고을의 별호(別號)까지 수록했으며, 강계(疆界), 면(面)·리(里)의 구분과 지명(地名), 선생안(先生案), 공해(公廨), 산(山)과 산성(山城), 나루와 포구, 수리시설, 누(樓)와 정자, 학교, 서원, 역원, 불우(佛宇), 총묘, 고적, 인물, 성씨, 충신, 효자, 열녀, 토산품, 호구와 토지, 궁방전 (宮房田)과 역둔토(驛屯土), 재곡(財穀), 군기(軍器), 공안(貢案), 군안(軍案), 풍속, 문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을연구에 있어 고지도(古地圖)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조선후기 고지도는 산맥, 하천, 도로, 면(面)의 위치 등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기하여 마을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산맥과 하천, 도로, 특산품을 파악하는데는 도움 된다. 읍지·지리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읍지도(邑誌圖)는 중앙에서 편찬한 고지도보다 수록된 정보가 다양하다.

2) 근·현대 사료(史料)를 통한 마을연구

근·현대 평택지역 마을관련 사료도 관변사료와 민간사료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 관변사료는 《관보》,를 비롯해서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朝鮮各種文獻 風俗關係資料撮要》, 《李朝實錄 風俗關係資料撮要》, 《조선의 鄕土娛樂》, 《최신조선지지》, 《조선총람》, 《조선의 취락(聚落)》, 《경기도도세일반》, 《京畿道 道勢槪要》, 《진위군 군세일반》,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 《경기도통계연보》, 《朝鮮の市場》 및 《朝鮮の市場經濟》, 《지방행정구

12) 나승만, 〈마을민속조사연구의 실제와 문제〉, 《민속연구》1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역명칭일람》 등 매우 다양하다. 또 토지조사사업 문서와 호적문서, 토지문서, 소작관련 문서 등도 매우 귀중한 사료다. 평택지역처럼 근대전후 간척사업이 대규모로 전개된 지역에서는 간척관련 사료도 많다.

민간사료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의 신문 사료가 도움이 된다. 신문사료는 대한제국 시기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부터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문》, 《조선신문》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사마다 지국(支局)이나 분국(分局)을 운영하며 주재 기자를 두었기 때문에 중앙지에도 마을 관련 기사가 비교적 소상히 보도되었다. 특히 《황성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문》 그리고 재조선 일본인들을 위해 간행된 《朝鮮新聞》에는 지역이나 마을관련 정보가 많다.

이밖에 상업관련 사료, 조선농회, 금융조합, 수리조합관련 사료, 종중관련 족보, 마을관련 사료, 민장문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밖에 각종 영수증이나 편지, 일기, 상장, 개인기록물, 사진, 유물 등도 마을연구의 매우 귀중한 사료다. 마을사료 중에는 대동회 회의록이나 동계(洞契)나 연반계 문서가 있고, 해방 후 자료로는 이동농업협동조합 자료와 새마을운동 사료, 벼수매, 가마니공출자료, 피난민 정착사업 자료와 귀농정착사업자료도 있다.

근대 이후에는 정밀한 근대지도가 간행되었다. 근대지도는 축적이 정확하고 마을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가 소상해서 마을연구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근대지도로는 1899년 일본이 만든 군사지도도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적용한 근대지도(1918~1922)다. 이 지도는 근대 이후 지형의 변화와 간척, 마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해방 후 1963년부터 지도가 간행되었다. 초기 근대지도는 1:5만 또는 1:2만5천 지도가 많고 해방 후에는 1:5,000 지도도 간행되었다. 평택지역 마을연구에는 일제강점기 근대지도와 함께 1960년대 지도와 1980년대 중후반 제작된 1:25,000 지도 그리고 1:5,000 지도가 많이 활용된다. 근래에는 항공지도를 활용한 마을과 인구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4. 구술조사를 통한 마을인문자원 조사

이창식은 '지역학'을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학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개념 지었다.[13] 또 지역학(地域學)으로 지역민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민다움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국가공동체나 자치단체처럼 종합적인 공동체다. 마을 내에도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민속, 문화와 예술 같은 다양한 인문적 요소가 존재한다. 또 마을 내의 주민들은 각각 삶의 과정을 통해 위의 내용에 관여하며 영향 받고 있다.

구술(口述)은 구술자의 '생존기간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형,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 마을의 실체와 변화상, 주민들의 삶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주민들의 시각에서 밝힐 수 있는 마을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다. 구술(口述)은 구술자의 개인적 관점과 철학이 지나치게 개입되기 쉬우며, 질문자의 관점과 지식, 이해도에 따라 내용의 편차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술사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다. 동일한 경험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구술받아 표본을 다양화한다거나 집단 구술을 실시하는 방식, 녹취과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13)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19(2), 역사문화학회, 2016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를 통해 마을의 인문지리를 정리하고 개인 생애사(生涯史)를 구술 정리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을들이 우선 선정되었다. 또 마을은 폐동(廢洞)되지 않지만 경관과 주민들의 삶이 크게 변모하는 마을들도 대상지역이 되었다. 폐동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몇 년 동안 사업을 전개한 뒤에는 미군기지 기지촌과 주변 마을, 평택지역의 옛 읍치(邑治)였던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 최초의 근대도시였던 평택시 원평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였고 현재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인문 및 구술조사와 별도로 조사지역의 건축물 조사, 광무양안 조사, 지도를 통한 마을의 변화 연구 등 인문조사나 구술조사에서 채우지 못했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을은 지리적,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인문자원과 주민들의 삶의 기억이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연구'에서는 이 같은 일반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항목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되 개인의 생애나 마을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원들에게 제시한 조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지침[14)]

대 주제	소주제	내 용
지리와 역사	지리	· 마을의 위치, 경관과 입지, 기후, 산·하천·바다·들의 지명과 길이와 수량
	역사	마을의 형성과 발전,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화, 자연마을의 생성과 분포, 분동(分洞)과정, 성씨 분포, 주변마을과의 관계, 주민들의 직업분포
	교통과 통신	· 중심 생활권과 거리 및 교통망, 인접 마을까지 거리와 교통망, 면(面) 소재지와 거리와 교통망, 도보로 다닐 때의 도로망과 소요시간, 주막과 운영방식, 나루와 포구의 위치, 나루 포구의 활용, 철도역과의 거리 및 활용, 버스정거장의 설치시기와 대중교통의 변화, 교육시설과 거리, 의료시설과 거리, 종교시설과 거리, 주요 장시와의 거리, 교통편의 변화, 대중교통비의 변화 · 전화기 이전의 통신방법, 편지, 부고발송 방법, 혼례 소식 발송방법, 전화가설 시기와 보편화 시기, 휴대폰 사용
	지명	· 마을 : 법정 리(里)의 형성과 유래, 자연마을지명 · 산·하천·들판·바다 지명, 골짜기 지명 · 공공시설 명칭, 가게이름, 종교시설 명칭, 교육시설 명칭, 각종 공공시설물 명칭, 노거수 명칭 등
	인구와 성씨	· 일제강점기 인구 및 남녀비율 · 1960~70년대 인구, 인구증감의 원인 · 현재의 인구, 남녀 별, 직업 별 인구, 인구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 성씨 별 인구, 입향 시기와 분동, 시기 별 인구변화
	공공시설 및 근대시설	· 마을회관(공회당) 건립시기 및 변화, 마을 사랑방의 위치와 운영자 어촌계 사무실 건립시기 및 위치 · 경로당 설치시기와 운영, 마을문고 설치시기와 운영, 청년회관 설치시기와 운영 · 마을공동창고 및 농협창고 설치시기와 활용 · 버스정류장 설치시기와 위치, 상여집 위치와 운영, 공동우물 위치와 운영 · 야학당 및 강습소 위치와 운영, 학교, 교회, 마을제당(당집이나 당숲), 단골집(무당)의 위치와 운영, · 약국, 병원, 양조장, 방앗간, 우물, 담배 가게, 잡화점, 카페, 식당 설치 및 폐점 시기 · 전기도입 시기. 상하수도 설치(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
	근·현대 경험	· 일제강점기 경험 : 일제의 식민통치 경험, 근대학교 및 서당, 야학, 강습소 경험, 징용 및 징병 경험, 공출(미곡, 가마니, 목화)경험,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경험, 일본인과의 접촉 경험, 가뭄과 홍수 경험, 전염병 경험, 가난의 경험과 구황식물, 전염병 경험 · 해방 후~한국전쟁 : 해방 소식을 접했던 장소, 해방 후 일본인 및 조선인의 반응,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좌우익 대립, 좌·우익단체와 중심인물, 농지개혁, 보도연맹, 한국전쟁 경험, 평택역 폭발, 외국군의 동태 · 한국전쟁~현재 : 피난민정착촌사업, 귀농정착사업, 대청호수몰민 정착사업, 가뭄, 수해, 흉년, 전염병, 이동농업협동조합 기억, 간척 및 간척지 이용, 새마을운동, 유성기, 라디오, 영화, 연극(소인극) 경험

14) 본 조사지침은 사)지역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한 마을조사지침을 필자가 평택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2021년 7월 수정 보완한 것이다.

대 주제	소주제	내 용
경제활동	경제시설	· 공동우물에서 펌프 그리고 수도로 발전과정 · 등잔과 남포등에서 전기로 발전과정 · 옹기, 바구니, 방물의 구입 및 활용, 가전제품 사용 · 도정시설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정미소, 현재의 정미방법 · 양조 : 민간의 술 빚는 방법, 식초만드는 방법, 양조장의 설립시기 및 활용, 밀주단속, 술의 종류와 변화, 술의 유통 · 우편 : 편지쓰기와 발송방법, 우편배달부, 우체통, 전보, 소포발송, 택배 · 잡화점이나 점방 설치시기, 위치, 상품종류, · 주점(주막), 대장간의 위치와 역할
	경작지 확보 및 영농방법	· 경지 분포 및 경작지 종류, 1970년대 경지정리, 야산개발 및 경사지개발, 수전농업과 한전농업, 축산업과 과수농업, 채소농업 시작 시기와 발전 · 간척과 개간 : 간척시기, 간척주체, 간척방법, 간척지 활용, 소출, 아산만·남양방조제 준공 뒤 변화 · 농지개혁 : 시기, 상환방법, 지주들의 태도, 결과 · 농업용수 확보 및 수로건설 : 보 축조 및 관리, 저수지의 위치와 운영, 논우물, 관정(管井), 물꼬보기 · 영농방법 : 종자확보 및 관리, 비료 및 농약, 논갈이와 물 관리, 못자리와 모내기 시기와 방법, 밭농사의 종류와 김매기, 농기구와 농기계
	어업·축산업·과수농업·염업·부업	· 어업 : 어선의 종류 및 변화, 뱃동서의 수와 확보, 소득분배 방식, 선원들의 역할분담, 어구와 어종, 어로 방법, 시기 별 어업방식의 변화, 어촌계 결성과 운영, 유통과 수익, 맨손어업, 양식업 · 축산업 : 축산업 시작 시기와 계기, 1970~80년대 축산농가 1호 당 평균 사육 두 수, 우사와 돈사의 수, 축산폐기물 관리, 유통방법과 수익, 축산업의 쇠퇴와 현재 · 과수농업 : 평택지역 과수농업 시작 시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과수농장과 농장운영, 과수의 종류와 재배방법, 과수의 유통과 수익, 과수의 저장방식 · 염업 : 자염(煮鹽)을 했던 시기, 염계의 조직과 운영, (공동)솥의 사용법, 염보(벗) 만들기, 소금 만드는 절차, 소금의 유통과 수익, 천일염을 시작한 시기, 천임염전의 운영, 염부(鹽夫) 구하기와 임금, 소금의 유통, 소금 값의 변화와 쇠퇴 · 부업 : 가마니치기, 새끼꼬기, 짚신삼기, 볏짚공예(메꾸리, 삼태기, 멍석 등), 길쌈, 엿만들기
	경제관행	· 지주·소작관계 : 지주와 토지소유 규모, 소작계약 및 소작료 징수 방법, 소작권 이동, 소작료 외 수탈 · 두레 및 공동노동 : 두레조직 구성, 인원 수, 좌상과 상쇠, 논매기 시기와 방법, 두레풍물패의 역할, 악기보관 장소, 두레싸움, 백중놀이, 두레 쇠퇴 원인 · 품앗이와 작업반 : 품앗이 규칙, 작업반 결성시기, 규모, 운영방법, 쇠퇴시기와 원인 · 수리(水利)조직, 축력(畜力)이용, 시비법, 종자관리 · 파종시기 : 벼, 보리, 밀, 콩, 배추, 마늘, 파, 콩, 고추, 깨 · 볍씨 담그기, 모판 만들기와 생육기간, 모내기 시기와 방법, 품꾼 구하기와 품삯, 품꾼의 활용 · 머슴 : 머슴구하는 방법, 머슴의 구분, 세경, 계약기간과 만료, 머슴 날 관행

대 주제	소주제	내 용
경제활동	유통과 장시	· 장시 : 마을에서 이용했던 장시, 장시의 특징, 장시와의 거리, 거래품목과 종류, 장길, 마차길, 장차의 운영, 말감고, 거간꾼, 장날에 했던 일들 · 마을행상 : 마을행상의 종류, 거래방법, 교환수단 · 소상품 유통 : 농산물, 소금, 새우젓, 생선, 바구니의, 목면의 유통 및 교환행위 · 우시장과 우시장의 사용방법 · 포구상업 및 거래품목, 방법,
	금융	· 쌀계, 반지계, 옷계, 장리쌀 운영, 우체국 금융과 은행 이용, 고리채, 기타 사금융
사회생활	정치	일제강점기 도평의원 서거, 면협의원 선거 경험, 제1,2공화국 군(郡)의원·면(面)의원 선거, 1950~60년 면장(面長) 선거, 국회의원 선거, 농협 및 수협조합장 선거, 이동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5공화국 대통령선거인단 대의원 선거, 이장선거 및 마을임원 선거, 노인회장 선거
	마을조직	마을조직과 마을조직의 변화, 개발위원회 설치 및 역할, 대동회 설치시기와 역할,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조직, 농회, 이동협동조합, 4H구락부,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장학회, 각종 사조직, 계 조직
	친족 및 친족관계	마을의 주요 성씨, 종친회 구성, 종계(宗契), 종약(宗約), 종가(宗家), 종산(宗山)과 종중묘(宗中墓)의 위치, 종중의 주요 인물, 사당 및 재실, 족보편찬, 친족관계, 시제(時祭), 차례 등
	일생의례	· 관례 : 경험, 방법과 절차, 중단 시기 · 혼례 : 연예와 중매, 중매방법과 사례, 함과 예단, 혼례절차와 변화, 예식장의 사용시기와 변화, 혼례품과 변화, 신행과 재행, 신혼여행, 시댁의 호칭, 시집살이와 분가, 혼례 후 친정과의 관계 · 상례 : 연반계와 상계(喪契)의 존재, 장례절차, 상여의 존재여부와 사용방법, 장례요 상여꾼의 조달, 장례식장의 등장시기와 장례문화 변화, 매장지, 매장방법, 탈상시기, 만장, 상복제작, 상복을 입는 범위 · 제례 : 사당의 존재 유무, 4대 봉사의 전통과 변화, 제례의 참여대상과 절차, 제례음식과 배치방법, 기제사와 시제의 차이
	의·식·주	· 의(衣)생활 : 해방 전후의 옷과 신발, 교복, 고무신과 광목의 사용, 나일론의 등장,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화, 운동화의 착용, 길쌈의 경험(도구, 방법, 유통), 빨래와 다림질(장소, 도구, 종류), 바느질 경험(방법, 도구), 재봉틀 보급, 의복 구입방법과 종류 · 식(食)생활 : 옛 부엌의 구조와 변화, 식량의 변화, 부엌과 조리도구의 변화, 연료의 변화, 물항아리와 물깃는 도구, 주식/부식/구황음식, 장 담그기, 지역음식, 명절음식, 절기음식, 술과 음료, 옹기 등 주방용품과 구입, 김장, 메주와 된장 고추장 담그기, 젓갈과 굴, 어물의 유통 및 구입방법, 땔감의 종류와 확보, 솥과 옹기의 구입, 식사도구 및 조리도구 · 주(住)생활 : 주택의 종류와 기본구조, 초가집 짓기와 기와집 짓기-목수구하기, 기술자의 종류와 임금, 목재구하기, 황토와 시멘트 사용, 집 짓는 방법, 이엉 엮기와 초가지붕 얹는 방법, 노동력 동원, 주택개량 및 신축 시기, 난방-땔감의 변화, 아궁이의 변화, 연탄사용, LPG사용, 보일러의 사용

대 주제	소주제	내 용
사회생활	출산과 육아	· 출산 : 자녀의 수 및 변화, 1960, 70년대 산아제한운동, 임신 후 몸가짐과 금기음식, 출산준비 및 절차, 산파구하기와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 방법과 음식, 산후조리 기간 · 육아 : 육아준비(배넷저고리, 기저귀 종류 및 준비, 포대기, 아기베개), 수유 및 이유식 시기와 변화, 유아의료, 아이돌보기, 100일 잔치와 돌잔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교육·종교·문화	교육	· 학제의 변화, 교육시설(공사립학교, 야학, 강습소, 서당)의 존재유무와 위치 및 운영, 연령별 교육경험, 학교까지의 거리와 통학방법, 상급학교 진학과 입학시험, 학습내용, 학교건물, 흑판과 책걸상의 변화, 교과서 및 학용품의 변화, 교복의 종류와 변화, 일제 말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졸업 후 진로, 기억나는 선생님, 출세한 인물, 1950~70년대 학교경험과 에피소드
	종교	· 교회와 성당, 천도교당, 사찰의 존재 유무, 설립시기, 종교인의 분포, 종교와 생활 변화, 성탄절과 여름성경학교 경험, 수련회 경험, 부흥회 경험, 성직자 · 무속신앙 : 무속인(단골, 만신)의 존재유무, 무당의 역할, 굿하고 점을 쳤던 경험, 무속인과 의료행위
	의료	병원의 위치와 거리, 민간의료, 무자격 의료행위 경험, 약장수, 무자격 약방, 한방과 양방의 선호도, 무속인 의료행위
	공동의례와 놀이	· 마을제의 종류와 존재유무, 마을제당의 위치와 설립시기, 제의 시기와 변화, 제의방식, 제를 지내는 목적, 제물의 분배와 처리 · 놀이 : 놀이의 종류-줄다리기, 씨름, 윷놀이, 지신밟기, 거북놀이, 두레싸움, 투전 등 · 각종 금기
	세시풍속	설날, 추석날, 정월대보름, 한식, 오월단오, 칠월칠석, 백중놀이, 동지, 섣달그믐의 풍속과 음식, 금기
	가정신앙	터주, 제석, 대감독, 조왕신, 측신 등 가정신앙의 존재유무, 관리, 기대심리
	설화와 전설·음악	설화와 전설, 전래동요, 노동요, 어로요, 도깨비이야기, 개인경험

위 조사지침은 지리와 역사, 사회와 경제, 문화와 예술 등 전반적인 것이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수행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았다. 평택문화원에서는 각 항목의 80% 이상 수행할 것을 요구했고,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요구가 과다했으면서도 성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

5. 마을의 인문자원

앞서 살펴봤듯이 평택지역 마을은 전통적으로 구릉지대 마을과 구릉 아래의 마을, 들판에 형성된 마을, 어촌마을, 역원마을, 근대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은 지난 2020년 덕암산 남쪽에 위치한 도일동의 인문 및 구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토대로 평택지역, 좁게는 도일동의 인문자원을 살펴보겠다.

■ 사례 : 평택시 도일동 인문 및 구전자원 조사

1) 개요

도일동은 덕암산 남쪽에 형성되었다.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영신현 영역이었고 조선 세종 때 진위현으로 통폐합되었다. 영신현은 덕암산부터 안성천 경계까지를 영역으로 했다. 진위현(振威縣)으로 편입된 뒤에는 여방면에 편재되어 '여좌울', '여자울', '예제울'과 같은 사투리로 불렸다.

도일동은 원도일, 상리, 내리, 하리 등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도일동이라는 지명은 원도일에서 비롯되었고 나머지 마을은 여좌울이라고 불렀다. 역사적, 행정적, 문화적으로도 원도일과 나머지 3개 마을은 달랐다. 원도일은 1914년 이전까지 행정적으로도 독립적이었고 성씨도 진주 소씨를 비롯해 연안 김씨 등 여러 성씨가 함께 사는 데 비해, 나머지 3개 마을은 원주 원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일동에는 '석씨 천년, 소씨 천년, 원씨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본래 덕암산 남쪽에는 터를 잡은 성씨는 석씨였다는 말이고, 고려 후기에는 진주 소씨가 입향했으며, 조선 전기 원주 원씨가 입향한 뒤 지금껏 살아왔다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 있는 가문들의 터전이었고 문화유산의 폭이 깊고 넓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일동 일대는 '평택브레인시티사업' 대상지역이다. 평택브레인 시티사업은 2007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평택시는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단지, 국내 일류대학 유치, 친환경적인 산업단지와 고품격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482만여㎡ 부지에 산업단지 146만㎡, 주거시설 336만㎡ 등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려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일동은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경작지가 수용되어 경제기반이 축소되며, 문화유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크게 인문지리조사와 구술조사, 사진촬영 세 가지 부분에서 진행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마을사료나 민장문서 등의 소재와 가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2) 지리적 환경

도일동의 지리적 환경은 자연환경, 인구와 성씨, 교통, 지명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자연환경은 고지도와 근·현대 지도, 항공지도를 활용하여 산과 하천, 경작지의 분포를 밝혀냈다. 인구와 성씨 항목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조선 전기의 주요 성씨를 밝혔고, 도일동의 주요 성씨였던 진주 소씨, 원주 원씨의 연원을 소씨와 원씨 가문 족보(族譜)를 통해 밝혔다. 또 1789년의 《호구총수》를 통해 조선 후기 인구를 파악했으며, 일제강점기 인구조사와 해방 후 《평택시 통계연보》와 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시기 별, 연도 별 인구를 파악했다. 교통은 도일동 서쪽방면으로 지났던 삼남대로의 노정(路程)과 역원, 점막을 소개했다. 근대 이후에는 주민 구술과 근·현대 지도를 통해 도일동과 주요 중심지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고, 도보로 오가는 노정(路程)과 마차길, 근대교통과 대중교통의 발달 과정을 설명했다.

지명(地名)을 파악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근현대 지도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지역지(地域誌)나 지리지(地理志)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주민구술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주민구술이다. 다만 주민구술로 파악할 때는 본래의 지명과 사투리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평택지역의 마을들은 1970년대 이후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들의 기억도 성인으로 1970년대 이전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억이 분명하고 소상했다. 다만 지명(地名) 조사는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기억이 사뭇 달라서 서둘러 조사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20년 이내에 옛 지명들은 잊혀질 가능성이 많다.

3) 역사와 마을

도일동의 역사는 역사적 환경, 무신 난, 근·현대 경험을 구분하여 서술했다. 앞의 역사적 환경과 무신 난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진위현 읍지》, 《무신역옥추안》, 《조선지지자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근·현대지도, 학술논문 등을 참고하여 서술했다. 이밖에도 역사적 환경에서 참고할 자료는 가문의 족보(族譜)다. 대체로 마을의 생성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객관적 사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족보를 통해 주요 성씨들의 입향 시기를 파악하는 방법과 묘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도일동은 석씨의 묘역이나 후손들이 살지 않아서 진주 소씨와 원주 원씨의 족보와 문화유산으로 추정했다.

구술(口述)은 마을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사회와 경제를 파악하는데 유용

하다. 필자도 '근현대 경험'과 '해방 전후 여성들의 삶', 새마을운동 경험'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하였다. '도일동의 자연마을'은 《평택시사》(2014), 《송탄시사》(1994),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5]와 같은 문헌과 주민들의 구술이 밑바탕이 되었다. '근대시설과 공동시설'도 구술이 중심이었으며, '인물'은 《사마방목》, 《조선왕조실록》, 《신묘별시 문무과방목》 등과 같은 문헌과 《평택시사》, 원균장군 평전 《타는 바다》 등을 활용했다. 근현대 경험 구술조사에서는 나이에 따라 일제 말 전시체제기와 해방정국에 중점을 두거나, 한국전쟁과 이동농업협동조합, 새마을운동에 중점을 두어 조사했다. 여성들의 삶은 혼례나 출산, 육아, 가사노동과 의식주, 시집살이, 작업반이나 새마을운동에서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동농업 협동조합이나 새마을운동은 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사료와 구술조사를 병행했다. 이처럼 마을조사는 문헌과 구술조사를 병행하지 않고는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

4)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도일동의 지리·경제적 환경에 기초하여 농업, 축산업, 과수농업, 농가부업, 농사관행, 장시와 유통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사료(史料)는 1963년부터 작성된 《평택군 통계연보》가 기초자료였고 나머지는 구술에 의존했다.

경제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는 농업, 축산업, 과수농업의 비율과 경지면적, 경작지의 위치다. 도일동은 덕암산 계곡을 중심으로 논농사와 밭농사가 발달했지만 19~20세기 논농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일천 중류 배후습지를 개간하여 경지면적이 확대되었다. 경지면적 확대 이후 계곡의 문전옥답과 배후습지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과 농지가격, 농업용수 확보방법,

15)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I, 평택문화원, 2006

1974년 아산만방조제 준공과 경지정리 뒤 생산력의 변화와 농지가격의 변동도 중요한 요소다. 농작물의 종류, 종자관리, 파종시기, 모내기 시기, 논매기 방법, 품앗이, 농사관행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력의 확보, 두레의 운영방식, 농산물 도정, 농산물의 유통, 농가부업도 중요하다. 농가부업에서는 일제 말 가마니공출, 목화공출, 새끼줄공출도 조사했다.

5)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마을조직, 친족관계, 일생의례, 시집살이, 의식주, 교육으로 분류하여 서술했다. 마을조직은 대동회나 이장단,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공적조직과, 계, 두레, 이동협동조합, 작업반과 같은 사적 공동체 조직을 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친족관계는 성씨 별 입향 시기와 인구 수, 항렬에 따른 위계질서, 상장제례 등이 중심이었다. 혼례문제나 의식주, 교육은 구술을 통해 작성됐는데, 도일동의 특징에 따라 식생활과 주생활, 교육기관과 교육열, 통학문제,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도일동은 식생활에서 덕암산, 팔용산을 이용하여 겨울철에는 땔감 부업을 많이 했으며, 하리마을에서는 엿을 고아서 팔았는데 그 과정과 가격, 유통구조 등도 자세하게 조사했다. 교육에서는 일제강점기 야학, 강습소의 존재와 운영, 해방 후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실태와 통학방법과 거리, 학용품 확보, 상급학교 진학률 등이 조사되었다.

6) 문화생활

문화생활은 마을제, 전통사찰, 무속신앙, 가정신앙, 민속놀이, 문화유적과 설화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활용된 사료는 《송탄의 민속과 설화》[16], 《송탄시사》(1994), 《평택민속지》(2009), 《평택시사》(2014), 《평택의 마을

16) 송탄시·송탄시향토사연구소, 《송탄의 민속과 설화》, 1993

과 지명이야기》[17]를 참고하고, 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했다. 도일동 상리와 내리는 지금까지 산신제가 거행되고, 주민들이 설립한 덕암선원이 운영되며, 불과 20~30년 전까지 줄다리기가 거행되었다. 또 곳곳의 노거수에도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으며, 원균장군 관련 울음밭, 애마총, 수성최씨 묘역 관련 설화, 정골과 둔치골 설화, 뱃터 향나무 설화 등 설화와 전설도 풍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을제(산신제)의 절차와 방식, 줄다리기 방식, 골짜기마다 숨겨진 설화, 가정신앙의 존재와 의미, 묘역과 문화유산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또 세시풍속과 절기음식, 절기놀이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일동은 2020년까지만 해도 80살 이상의 노령층이 비교적 많았고 기억력도 좋아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맺음말 : 평택지역 마을인문조사와 과제

평택은 혼종적인 지역이다. 공간적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생태적, 문화적으로도 복잡하다. 평택의 마을은 초기에는 구릉지역이나 바닷가에 위치했지만 간척으로 저지대가 개발되면서 낮은 지형에도 마을이 형성되었다. 육로교통과 수로교통의 발달로 역촌(驛村), 진촌(津村), 원촌(院村)도 있었으며, 옹기를 비롯해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점촌(店村)도 존재했다. 근대 이후 철도가 개통되고 철도역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상공업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기지촌도 발달했다. 근래에는 편리한 교통과 항만의 발달로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17)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I, 평택문화원, 2006

마을은 인문학의 보고다. 마을은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경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위치와 경관, 주택의 배치와 종류, 마을기반시설의 상태가 다르다. 마을마다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이 작동되며, 문중조직이 있고, 계나 두레, 작목반처럼 관혼상제나 생산 활동과 관련된 공동체조직도 존재한다. 전통교육이나 근대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종교적 경험이 특별한 마을도 있다. 마을제나 전통놀이도 마을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 주민들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요소는 중앙의 통치에 조응하는 태도보다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삶이나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었다. 그러므로 마을을 연구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평택지역은 마을연구의 선진지역이다. 오래전부터 마을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과거에는 역사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들의 삶과 정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전후부터 《평택시사》(2014), 《고덕면지》, 《팽성읍지》를 비롯한 시사(市史)와 읍(邑)·면지(面誌)가 발간되는 과정에서 향상된 마을조사가 이뤄졌으며, 2014년부터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를 실시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조사가 이뤄졌다. 지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오성면 역사-다섯 가지 이야기》, 《평택사람들의 길》과 같은 사찬 지역지(地域誌)도 편찬되었다. 읍(邑)·면지(面誌) 편찬이나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찬(私撰) 지역지(地域誌)의 성과와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을 인문조사의 몇 가지 한계를 짚어보자.

첫째, 마을기억 전승의 한계다. 과거 전기, 전화 등 근대시설이 가설되기 전 농어촌마을에서의 삶은 공동체의 결속이 단단했고 삶이 단조로웠다. 주민들 다수가 마을운영에 관심이 많았고 이웃과의 교류도 긴밀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을전체의 삶에도 정확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전후 근대문물의 영향이 커지고, 젊은층의 이촌향도 및 도시정착으로 농어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촌공동체도 붕괴되었고 기억도 단절되기 시작했다. 마을조사를 하다보면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기억의 차이는 상당하다. 1940년 이전 태생은 80대 고령자들이다. 이들을 인터뷰하여 마을을 인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만큼 시급성이 요구된다.

둘째, 교통의 발달과 농업경영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이다. 근대교통이 발달하기 전 평택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도보와 나룻배, 마차였다. 도보로 다닐 때는 서로 간의 약속된 지명과 상징이 필요하다. 지명과 상징을 기억하는 것, 교통로 상의 위험요소나 위험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했다. 생산 활동에서도 절기(節氣)나 지명(地名)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농어민들은 절기에 따라 논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어업을 시작했고 지명으로 소통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과 같은 이동수단의 발달, 농기계의 발달로 예로부터 전승되던 생산 활동의 경험이나 지명, 삶의 기억들은 점점 잊히고 있다.

셋째, 근대도시와 기지촌, 신흥도시의 인문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에서는 전통의 읍치(邑治)였던 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와 미군기지 주변마을에 대한 인문 및 구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생성시기가 100년 내외의 들판마을, 60~70년 된 도시와 기지촌, 집창촌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상태다. 역사가 짧고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조사연구는 대상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조사방법이나 기간의 한계다. 근래 시사(市史)와 읍(邑)·면지 (面誌) 편찬에서 집필진에게 부여한 조사 및 집필기간은 1년 또는 몇 달에 불과하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도 10개월 미만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문헌조사와 구술조사를 하고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집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안과 주제에 따른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사항목과 방법도 지역과 마을,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산촌의 집성촌과 들판마을, 어촌,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의 마을, 기지촌 등은 각자의 역사성과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어 조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근래에는 두레, 세시풍속이나 놀이, 일생의례, 종교(무속, 마을제)같이 민속적 요소들의 조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중단하거나 필요한 요소만 조사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조사결과의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 평택지역은 평택문화원 주도로 시사(市史)와 읍(邑)·면지(面誌) 편찬이 이뤄지고,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도 평택문화원에서 주도하면서 사료(史料)의 아카이빙이나 도서출판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특히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는 인문 및 구술조사, 사진, 발굴사료의 아카이빙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민들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조사된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절실하다. 근래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덕면 장수리 마을지' 편찬은 주목되는 노력이다. 하지만 마을지 편찬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지역은 큰 변화의 물줄기를 타고 있다. 변화(變化)는 전통의 역사·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변모시킨다. 하지만 변화와 경제적 발전에만 도취되다보면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이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도도히 흐르고, 과거는 현재를 존재하게 하는 뿌리다. 평택지역이 지역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도모한다면 평택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마을은 평택지역 정체성의 근본이다. 마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과거 삶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평택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미래 평택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한다. 열정적이면서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세종실록지리지》

《호구총수》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기억과 구전〉, 아르케, 1999

평택문화원,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 2014~2020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전3권), 평택문화원, 2006~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전은경, 〈마을학, 무엇을 연구하고 활용할 것인가〉, 《월간 주민자치》37, 한국자치학회, 2014

이영배, 현진주, 〈마을연구 담론의 경향과 전망〉, 《민속연구》3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2

김미영, 〈일본민속학의 마을연구〉, 《민속연구》1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2.

나승만, 〈마을민속조사연구의 실제와 문제〉, 《민속연구》1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19(2), 역사문화학회, 2016

평택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이광섭/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차 례

1. 서론
2. 문화유산의 정의 및 분류
3. 평택의 문화유산
4. 관광자원 이란?
5. 평택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6. 평택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7. 결론

1. 서론

1) 평택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필요성

우리고장 평택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드넓은 평야에 그림 같은 풍경의 명승지가 있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급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유산을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1)]

평택은 국보급 문화유산은 없지만 국가지정 보물인‘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만기사철조여래좌상’및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연구나 정책은 미미한 편이다.

이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과거에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한다는 관념에서, 전승 및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또, 현재 관광문화 트랜드 변화의 하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찾아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수기/비수기 관계없이 개별여행과 일상처럼 여행을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유형으로 관광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 ‘문화관광 도시 평택’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1) 문화재청,《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의 실제》, 2000.3. 15쪽

2) 평택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목적

문화유산은 관광자원으로서 국내이든 해외든 가장중요한 관광자원의 기본이다.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유적지를 지역관광의 근간으로 하여 문화가 형성되고 관광자원이 되며, 지역축제와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 정부에서는 물론 전국의 각 지방자치제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평택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콘텐츠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단순한 정보제공은 물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평택의 문화유산을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평택의 문화유산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평택은 그냥 지나가거나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어 체류시간 및 방문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평택의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문화유산의 정의 및 분류

1) 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이란 보존 할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문화재’란 말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서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같은 개념

의 용어로 사용 한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유산을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문화유산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2)]

그런데 문화유산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서술된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UNESCO)의 정의에서는 문화유산을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유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유형의 물질 위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 정의하고 있다.[3)]

(1)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3)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窯趾)·유물포함층 등의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을 가리킨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문화재란 한마디로 민족이 이룩한 유형 ·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문화재) 종류

문화재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정문화재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며, 시· 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청,《문화재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실제 》, 2000.3. 15쪽

3) 문화재청,《문화재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실제 》, 2000.3. 15쪽

〈표-1, 지정문화재 종류〉는 다음과 같다.[4)]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문 화 재 자 료						

○ 국보 :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한다.

○ 보물 :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중요민속자료 :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자료 중 무형적인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여러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 사적 : 기념물 가운데 선사시대의 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교육·사회사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 천연기념물 :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 지방문화재 : 문화재의 네 개 유형을 그대로 시도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 명명한다.

4) 김희태 외,《문화재학의 이론과 실제 》, 향지사, 1998. 17쪽

○ 문화재자료 : 도지사가 지정하기는 하지만 건조물 · 사적 등의 구별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데, 건조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문화재이건 소중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없다.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나 우수성일 수는 없으며, 기념물이나 민속자료라고 해서 학문적·예술적 비중이 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생활 속에서 조상이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재라면 훨씬 가치 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다.

2)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5)]

(1) 매장문화재 : 토지·해저·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2) 일반 동산 문화재 :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된 동산 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와 작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향토유적유물)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문화재는

5) 김희태 외,《문화재학의 이론과 실제 》, 향지사, 1998. 23쪽

앞으로도 발견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3. 평택의 문화유산

1) 평택의 지정 문화재 현황

평택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4점 (보물 3점, 중요무형문화재1점), 경기도 지정19점, 향토유적 8점으로 총 31점 (2015년 기준)이 있다.

〈표-2, 평택 지정 문화재 현황〉[6]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일
국가지정	보물	제565호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 좌상	현덕면 심복사길 22	1972.3.2
		제567호	만기사 철조여래 좌상	진위면 진위로 181-82	1972.7.22
		제1133호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원릉군길 96-3(도일동)	1992.4.20
	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팽성읍 평궁2길 18-5	1985.12.1
경기도지정	유형	제40호	대동법시행 기념비	소사동 140-1	1973.7.10
		제132호	삼봉집 목판	진위면 은산길 80-5	1986.5.7
		제137호	팽성읍 객사	팽성읍동서촌로 101-3	1989.6.1
		제346호	평택불법 선원 신중도	삼봉로 62-11	
	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 이규남	어인남로 40-8(비전동)	2004.1.5
		제48호	평택민요(농요)	포승읍 포승남로 380	2009.3.19
		제48호	평택민요(어로요)	현덕면 신왕1리 35	2009.6.29
	기념물	제56호	이대원장군묘 및 신도비	포승읍희곡리산83-6	1980.6.2
		제57호	원균장군 묘	도일동 산82	1980.6.2
		제74호	농성	팽성읍 안정리산41-5	1981.4.17
		제135호	안재홍 생가	고덕면 계루지1길7	1992.12.31
		제202호	평택무성산성지	청북면 옥길리 산17외	2005.1017

6) 평택문화원,《우리고장 평택시》,평택문화원,2015.12. 88~89쪽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203호	평택자미산성지	안중읍 용성리 산68외	2005.10.17
		제204호	평택비파산성지	안중읍 용성리산6외	2005.10.17
		제205호	평택용성리성지	안중읍 용성리455외	2005.10.17
		제206호	평택덕목리성지	현덕면 덕목리647외	2005.10.17
	문화재자료	제4호	평택향교	팽성읍 부용로17길40	1983.9.19
		제5호	홍학사 비각	팽성읍 본정1길 8-16	1983.9.19
		제40호	진위향교 대성전	진위면 진위로 49	1983.9.19
		제141호	평택서천사석조여래좌상	고덕면 방축4길 22-49	2007.9.3
		제169호	평택약사사석조지장보살좌상	안중읍 용성3길 120-10	2013.11.12
평택시	향토유적	제1호	원정리 봉수대	포승읍원정리109-54	1986.3.5
		제2호	정도전선생 사당	진위면 은산길80-15	1986.3.5
		제3호	한온장군충신정문	서탄면 금암리 594	1986.3.5
		제4호	수성군 묘 및 사당	오좌동길 69-29(독곡동)	1991.7.11
		제5호	충의각	이충동 산 37-1	1991.7.11
		제6호	원균장군사당	도일동 산 84	1991.7.11
		제7호	원정리유적	포승읍 원정리 산109	1997.4.26
		제8호	신숙주 영정 및 감실주독	청북읍 원고잔길 20	1997.7.24

이와 같이 평택에 있는 국가지정 보물로 현덕면에 있는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진위면 만기사의 철조여래좌상,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가 있고, 중요무형 문화재 제11-2 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은 웃다리 농악의 대표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 평택 문화유산의 특징

평택에는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알려진 문화유산은 없지만 나름대로 뜻있고 의미 있는 문화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평택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에 접하고 있으며, 하천이 발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로와 해로 수로가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 통하는 거점으로 삼국이 각축을 벌인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에

는 수도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으로 통하는 점이지대로서 군사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제6대로인 삼남대로와 충청 수영로가 지나갔고 근대 이전부터 육로와 정학 상 경기문화와 충청도 및 타 지역의 접경으로의 역할을 갖고,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 유역에 많은 나루와 포구를 형성했다. 이와 더불어 전라도 순천의 방답진에서 서울 남산인 한양 목멱산으로 연결하는 제5거의 직봉(直烽)이 팽성읍 신대리 망해산 봉수와 포승읍 원정리 괴태곶 봉수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의 문화유산은 교통·통신유적과 성곽 등의 군사와 관련한 유적이 많다.[7)]

한편 평택의 문화유산 중 주목할 것은 평택농악을 비롯한 무형문화재이다.

평택농악은 1985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통보존과 교육에 힘써왔으며 최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전국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20여개의 농악과 함께 2014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서는 서각장 이규남과 평택민요가 있다.

4. 관광자원(觀光資源) 이란?

1) 관광자원의 개념과 가치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 동기나 관광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관광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요약된다. 오늘날 관광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성장하여 하나의 산업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세계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개인의 여가와 레저 활동에 대

7) 평택문화원,《우리고장 평택시》,평택문화원,2015.12 88쪽

한 관심의 증가로 관광산업은 더욱 규모가 커져가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관광이 하나의 산업화 되면서 관광을 유발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원천들을 관광자원이라 한다.

한편 관광자원은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자연관광자원에는 산악, 구릉, 해양, 섬, 호수, 산림, 수목, 동물, 온천 등이 포함되며 인문관광자원에는 문화적 사회적 자원으로서 건축물, 사적, 예술품, 민속, 문화시설, 유·무형 문화재 등이 포함된다.[8)]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일반 국민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연 및 문화재 보존이라는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당국은 평택호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려한 자연과 함께 오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우리 고유문화유적 보호라는 양면성을 조화시키면서 발전 추진해야 한다. 즉 관광자원이란 관광 구성요소 중 관광객체로서 관광객이 인식하는 감상, 관람, 보건, 휴양, 활동, 지식습득, 경험 등의 충족하기 위한 관광목적물과 관광시설이라 할 수 있다.

(1) 관광 구성요소 ; 관광주체(관광객) 관광객체(관광대상) 관광매체(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2) 관광자원 유형 ;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행동, 관광시장 특성, 관광입지 특성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관광자원의 특성 ; 매력성, 유인성, 개발 요구성, 범위의 다양성, 가치

8) 김상윤,《관광자원의 이론과 실제》, 대왕사, 2017. 2.

의 변화, 보존 보호의 필요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등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가치결정의 요인으로는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관광시설, 하부구조 등을 들 수 있다.[9]

2) 평택 관광자원 현황

(1) 입지 및 자연환경

① 입지 현황

○ 한반도 중서부, 경기도 최남단, 환 황해권, 경기도 유일항만 보유

○ 서울로부터 70㎞, 대전 95㎞, 광주 260㎞, 부산 380㎞ 의 거리

○ 북부, 서부, 남부 권으로 분리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환경이 상이

② 수계 자원

○ 진위천, 안성천 등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18개소

○ 안성천, 진위천은 평택호 관광단지로 연결

③ 지형

○ 평택시는 동서고저 지형으로 동쪽에 무봉산, 백운산, 무봉산, 덕암산 있다.

(2) 평택 관광자원 보유 현황

① 평택은 평택호 관광단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② 평택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 문화자원과 함께 평택농악, 평택민요 등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9) 김상윤,《관광자원의 이론과 실제》, 대왕사, 2017. 2.

3) 평택 관광자원 분류

평택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평택 관광자원 유형 분류〉[10]

구분		주요 내용
무형문화 콘 텐 츠	역사적 인물	원효, 정도전, 신숙주, 조광조, 이대원, 원균, 홍익한, 박문수
	현대적 인물	안재홍, 엄복동, 원심창, 지영희
	무형문화재	평택농악, 평택 민요
	기 타	평택호 예술관, 한국소리터, 평택농악 전수회관, 박문수 문화관
축제 및 프로그램	지역축제/ 대표프로	평택 꽃나들이, 시민건강걷기대회, 한미한마음축제, 평택호 물빛축제, 평택항 마라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원평나루 억새축제
	공연/음악	노울동요제, 지영희 국악대전, 소리악 축제, 락밴드 경연대회
	미술/영화	가족캠핑 스마트 영상제
문화여가 시 설	문화 공간	자연테마식물원,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지영희국악관, 평택항 홍보관, 유아체험 교육원
	주 요 문화재	팽성객사, 대동법시행기념비, 평택향교, 농성, 심복사, 이대원 장군유적, 신숙주 사당, 정도전 사당, 원균 사당, 진위향교, 만기사, 안재홍 생가, 약사사, 서천사,
	주요테마 거리/지역	평택호 관광지, 송탄관광특구, 안정리 로데오거리, 통복시장 청년 숲, 무봉산 천문대, 해군2함대 천안함, 웃다리 문화촌
	체험마을	바람새 마을, 초록미소 마을, 하나농원, 호랑이 배꼽마을 평택채소마을, 밝은세상 마을
자연명소	공 원	농업생태공원, 이충레포츠 공원, 부락산 문화공원, 배다리생태공원, 신장근린공원
	생태관광	진위천 시민유원지, 소풍정원, 어린이 학농원
기타 설립예정	고덕신도시	예술의 전당, 알파탄약고 문화공간, 평택박물관, 안재홍 역사공원

5. 평택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평택관광 자원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자원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은 역사적 인물과 주요 유·무형 문화재이다. 〈표-3〉 평택 관광자원 유형 분류표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유·무형문화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 평택시,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용역(최종보고서)》 2019.12. 61쪽

1) 주요 유형 문화재

(1) 팽성읍 객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궐패' 를 두고 지방 관리들이 한 달에 두 번 망궐례를 하거나, 공적인 일로 여행하는 전직 고관을 대접하고 묵게 하는 곳이다. 객사리라는 지명도 객사에서 유래하였다.

(2) 대동법시행 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이란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 조세제도이다. 조선 중기 김육선생의 죽은 뒤 충청도 백성들이 대동법 시행에 감사하여 경기와 충청으로 넘어가는 삼남대로 평택시 소사동에 세운 것으로 유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된 비의 본래의 명칭은'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소사동에 있다.

(3) 평택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호)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에서 운영하던 중등 지방교육기관이다. 평택향교는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다. 건립목적은 인재육성과 학문의 발달 지방민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강학공간인 명륜당과 배향공간인 대성전이 있으며 숙식 공간인 동.서제가 있다. 이 평택향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인 이승훈 평택현감의 성묘불배사건이 있었다.

(4) 농성(農城) (경기도 기념물 제74호)

농성은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축의 평지성이다. 평지에 해당되는 해발 24미터 낮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그 외곽을 감싸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고려시대 해안방어와 관련하여 축조된 장방형 토성이다.

(5) 심복사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국가지정 보물 제565호)

심복사는 현덕면 덕목리에 소재한 조선 명종 5년(1549)에 창건된 절로 단정하고 온화한 모습의'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절에는 다음과 같은 창건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심복사가 있는 지금의 평택호에는 고기가 아주 많아 전국에서 어부들이 모여들었는데 파주 문산포에 사는 천을문이라는 어부가 동료들과 고기잡이를 왔다가 바다에서 불상을 건져 창건하였다고 한다. 불상은 신라 후기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6)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56호)

이대원장군은 명종 21년(1556년) 포승읍 내기리에서 태어나 18세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조 22년(1587년)에 전라도 고흥지방의 녹도만호로 재직중일때 왜구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뒤 가족들이 장군의 속저고리에 혈서로 써 보낸 절명시 28자를 받아 고향 포승읍 회곡리 대덕산 밑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7) 신숙주 영정 및 감실주독(향토유적 제7호)

조선 전기의 정치가이며 학자인 신숙주의 영정과 감실 주독은 청북면 고잔리 고령신씨 사당에 함께 봉안되어 있다. 신숙주의 영정은 이곳 종가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명나라에서 2본이 그려져 1본은 종가에 나머지 1본은 차남가계에 보존하도록 했다고 하나, 아마도 1475년에 이모할 때 2본을 그려 각각 보존케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초상화는 모본을 충실하게 이모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안면묘사에만 치중하였고 관복의 흉배나 의습 처리는 간단하게 처리 한 듯하다.

(8) 정도전 사당 (향토유적 제2호)

고려말 조선초기의 대학자이며 탁월한 정치가로서 숭앙을 받아오던 정도전이 제1차왕자의 난(1398년)때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모든 훈작이 삭훈되었다가 후세에 경복궁 재건을 계기로 정도전의 위업이 높이 평가되어 고종2년(1865년)에 지위를 회복시키고 문헌(文憲)이란 시호를 내리며 '유종공종(儒宗功宗)'이란 편액을 하사하였다. 고종9년(1872년) 봄에 정도

전 후손과 죽산부사 이현경이 주도하여 양성현 산하리에 문헌사라는 사당을 지은 후 같은 해 4월 2일에 국왕이 정도전에 대한 제사를 죽산부사가 대신해 인근 7개고을 수령과 함께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 후 1912년에 봉화정씨문중에서 옛 양성현 성은면 산하리287번지 (현 진위면 은산리)에 사당을 옮겨 증축하였고 1930년에 종가터인 은산리 202번지에 이전하였으며 1970년에 현 위치에 증개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9)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국가지정보물 제1133호)

원균 장군은 (1540~ 1597)에 평택 도일동에서 태어났다. 25세때 무과에 급제하여 여진족 토벌에 큰 공을 세웠고, 경상절도사로 승진하자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순신 장군과 함께 당포, 당항포, 옥포, 한산도 등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다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 이순신, 권율과 함께 선무1등 공신 교서가 내려졌다. 이 교서는 남아 있는 것으로는 하나로 임진왜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10) 진위향교 대성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0호)

진위향교는 태조 7년(1398)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병자호란때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인조 22년(1644)에 현령 황종림이 명륜당을 중수하였으며 고종 26년(1889)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위향교 대성전은 큰 건물은 아니지만 18세기 건축기법을 잘보여 주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맛배지 붕이다. 쇠서(전각기둥위에 덧붙이는 소 혀 모양의 장식)두개를 기둥과 두주에 얹은 이익공식 구조이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양측면에는 풍판이 있다.

(11) 만기사 철조 여래 좌상(국가지정 보물 제567호)

무봉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만기사는 고려 태조 25년(942)에 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절에는 모셔져 있는 불상의 특징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철불로 강건하고 씩씩한 기상에서 점차 귀족화 되어가는 모습의 신라말과 고려초에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절에는 조선 세조 임금이 남행하다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좋아 감로수로 하였고, 임금님이 마신 우물이라 하여 어정'이라 한다.

(12) 안재홍 생가 (경기도 기념물 제135호)

안재홍 생가는 고덕면 두릉리 계루지 마을(현, 고덕 신도시)에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언론인,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안재홍이 태어나 살던 집이다. 1914년에 지은 전통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담장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ㄷ 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2) 무형 문화재

(1) 평택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2014년 유네스코지정 문화재)

평택농악은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로 지정되었다. 평택농악은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기념으로 거행된 전국 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고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1980년 제21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그 기능이 너무나 뛰어나 특별상을 수상하고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계기가 되었다.

평택농악의 특징은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은 반면 힘이 있고 빠르고 변주가 다양하며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또한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가락으로 공연성이 뛰어나며 무동놀이(5무등)와 버나놀이가 발달하였다. 현재 평택농악은 국내는 물론 해외공연도 많이 나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2) 서각장 이규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은 각자라고도 하며 나무나 돌과 같은 재료를 칼과 망치로 두드려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것이다. 서각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주술적 의미로 새기거나 기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서각의 대표적인 것은 너무나 유명한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궁궐이나 서원 사찰의 현판으로 이어져 왔다. 이규남 선생은 서각의 장인으로 목계서각연구실에서 작업을 하고 꾸준히 그룹전과 개인전을 열고 있으며 대표적인 그의 작품은 독립기념관의 현판이다.

(3) 평택민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는 근대 평택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의식 등 생활상이 함축된 민요로 농요, 어로요, 장례요 세 부문으로 나뉘어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다. 농요는 수십명의 두레꾼들이 북 장단에 맞추어 모심는 소리와 논매기 소리 등을 흥겹게 부르며 농작업의 힘든 일을 달래주는 소리이다.

어로요는 경기남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승되는 것으로 고기잡이배가 바다로 나가는 과정부터 고기 잡을 때, 포구에 도착하여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과 흥정하는 과정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노래이다.

장례요는 상여를 메고 갈 때 선소리꾼이 부르는 장례의식으로 상여가 죽은이의 집을 떠나면서 부르는 발인하는 소리 상여를 들거나 내리며 부르는 소리 장지까지 가면서 부르는 소리 등이 있다.

※ 위의 유·무형 문화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우리고장 평택시'에서 인용 요약 하였으며,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평택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6. 평택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1) 평택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배경 및 목적

(1) 평택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배경과 목적

앞서 소개 하였듯 평택은 국가지정 보물 및 중요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가장 중요한 기본관광자원으로, 국가에서는 물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요즈음 관광문화 변화의 하나는 숨겨진 매력을 탐색을 위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 체험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보다는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평택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지역 문화유산을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례

① 최근 문화재청 지원사업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택문화원에서도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② 충남 부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백제 역사자원과 벚꽃을 활용'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여행'부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평택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내용

(1) 평택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시티투어

기존에 평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주1회(토요일) 실시하고 있으나, 확장 운영과 함께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 새로운 투어버스를

도입하여 개인대상, 단체 관람객 대상 등 이용자 중심의 순환형 시티투어와 테마형 시티투어 확대 운영한다.

〈 시티투어 코스의 새 구성 〉

① 순환형 시티투어

순환형 시티투어 코스는 남북 순환형, 38번 도로 코스 2개의 코스로 운영하며 남북 순환형은 진위, 평택, 팽성 지역을 1일 4회 상시 순환하며 38번 도로코스는 평택역과 평택호를 주말 2회 순환 운영하며 2개 순환코스는 1일 패스 형식으로 운영 어디서든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테마형 시티투어

테마형 시티투어는 특화된 디자인 버스를 타고 정해진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된 코스를 따라 평택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적 유적지 장소를 이동하는 여행이다.

예를 들어 평택의 유명사찰과 명승지 (심복사, 평택호, 평택항, 수도사 등) 투어, 역사적 평택인물 유적지(정도전 사당, 원균장군 묘, 안재홍 생가 등) 투어,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한 각 장소에서 특정형 공연을 (과거- 팽성읍 일원 유적지 객사, 평택향교, 농성 등, 현재-통복시장, 미래- 평택호)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투어 등을 말한다.

(2) 평택 문화유산 배움 여행

① 배움 여행의 배경 및 목적

○ 평택은 진위향교, 평택향교, 정도전 사당 등 조선시대 유교문화 자원과 심복사, 만기사 수도사 등의 불교문화 자원, 안재홍 생가, 원균 사당, 신숙주 사당역사적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평택시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교문화, 불교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향교의 기능인 배움과 원효 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현대적 시선으로 재활용한 교육중심의 이미지를 부각 할 수 있는 여행이 필요하다.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교에서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등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배움 여행 내용

○ 세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한 미군 가족 등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표-4, 배움 여행 내용〉 (예)

	주 제	대상	주요 내용
1	선비 정신을 배우다 깨달음을 찾아서	초, 중고 학생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의 지혜를 배움 (가훈짓기, 명상의 시간 등)
2	청춘, 어른됨의 의식	청년층	향음주례 성인이 되기 위한 예법체험 (관례, 혼례 체험 등 프로그램 포함)
3	100세 시대 평생에 걸쳐 배운다	중장년층	향교음악회, 향교 콘서트 등 지역 예술가 공연 프로그램,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사찰음식, 템플스테인) 3대가 함께하는 교육 등
4	유교, 불교 문화 체험	미군가족 및 외국인	향교 및 불교유적지 방문 (한복 입어보기,사찰음식 체험,템플스테이)

(3) 전통문화를 즐기는 풍류관광

① 사업배경 및 목적

○ 평택시의 권역(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에 따른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기획운영 전통문화의 가치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지역의 문화유산을 누구나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참여율 유도.

○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자원을 권역 내 코스로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통여행 '전통 문화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평택'을 목표로 전통 풍류 여행 코스를 제시함.

② 권역별 문화유산 활용사업 내용

〈남부권 = 풍류 여행〉

○ 남부권 내 유 무형 문화재인 평택농악, 평택향교, 팽성읍 객사, 농성 등을 연계한 전통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어울릴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예를 들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망궐례''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등 재현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북부권 = 유교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

○ 북부권의 유무형 문화재인 진위향교, 정도전 사당과 삼봉집 목판, 원균 장군묘와 원릉군 기념관, 암행어사 박문수 문화관 등을 엮은 배움의 시간여행을 실시한다.

〈 서부권 = 불교의 원류 깨달음을 찾아서〉

○ 서부권에는 국가보물로 지정된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는 심복사를 비롯하여 원효 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있는 수도사가 있는 곳이다.

○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불교의 원류를 찾아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또한 이 지역에는 천혜의 평택호 관광단지와 평택항 홍보관 그리고 천안함이 전시된 서해 안보관이 있어 문화유적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4)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문화유적지와 자연명소, 생태관광이나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1박2일 또는 2박3일 여행 코스 개발도 필요하다.

〈1박2일 여행 코스〉 (예)

1일차 ; 대동법 시행기념비-팽성객사-평택향교 -농성- 웃다리 문화촌체험 - 송탄 신장몰 쇼핑과 먹거리 - 송탄 호텔 투숙

2일차 ; 삼봉유적지 - 원균장군묘 - 부락산 산림체험장 - 로컬푸드판매장 - 소풍정원/오성 생태원- 평택역 해산

〈 2박3일 여행 코스〉 (예)

1일차 ; 원균 장군 묘 - 삼봉 유적지 - 진위향교 - 부락산 산림 체험장 - 국제대 벚꽃길/로컬푸드 판매장 -송탄 신장몰 쇼핑- 송탄호텔

2일차 ; 수도사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만선 체험 - 서해수호관/천안함 - 포승국가산업단지 호텔 투숙

3일차 ; 평택호 - 심복사 - 농성 - 안정리 로데오거리 - 평택향교 - 팽성객사 - 대동법 시행기념비 - 평택역 해산

(5) 기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브랜드 개발

① 평택 문화유적지 해설을 영어로 하는 투어코스 개발
(영어교육 가능 시민과 학생으로 생활영어 교육기능 역할)

② 수도권 도시민과 미군 가족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문화유산 체험관광

③ 스토리가 있는 생활문화 관광콘텐츠 발굴 확대 (삼남로 옛길, 섶길, 산성길 등)

7. 결 론

평택은 다양하고 특징적인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요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보다는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관광문화의 트랜드

변화의 하나는 숨겨진 매력탐색을 위한 그 지역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축제도 참가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각 지자치제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체류 및 방문시간 연장을 위한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은 당국이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직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평택도 산업도시에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관광정책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보았다. 문화유산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관광객이 지역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평택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기존의 시티투어 형식을 변경 확대하여 평택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테마여행코스’와 전통문화를 즐기는‘풍류여행’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체류 및 방문시간 연장을 위한 동기부여와 관광콘텐츠로 ‘평택문화유산 배움 관광’과‘체류형 관광 코스’개발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평택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브랜드 즉 주한미군과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유적지 를 영어로 해설하는 시티투어와 스토리가 있는 생활문화 관광 즉 삼남길 걷기여행 섶길 걷기 여행 등 정책안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평택의 문화유산을 근간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관광정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새로운 관광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문화 관광 도시 평택’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상윤,《관광자원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2017.2
김희태.조웅.김경칠,《문화재학의 이론과 실제 》, 향지사, 1998
문화재청,《문화재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실제 》, 문화재청, 2000.3
평택문화원,《우리고장 평택시 》, 평택문화원, 2015.12
평택시,《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 평택시, 2019.12

평택 심복사(深福寺) 고려초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찰

최성은/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배경
3.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현상과 조형적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경기도 평택의 심복사(深福寺)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원만한 상호와 우수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좌에 사자가 새겨져 있는 독특한 표현이 돋보이는데, 일찍이 197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 565호)로 등록되어 문화재도록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상은 물론이고 봉안사찰인 심복사에 대한 문헌기록이 영세하고 고고학적 발굴자료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불상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이번에 비로자나불상에 대한 3D 스캔이 이루어지게 되어 불상의 세부관찰을 통해 불상의 도상과 양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심복사 비로자나불좌상이 보여주는 표현 상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불상의 편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배경: 심복사의 역사와 창건설화

심복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末寺)로 경기도(京畿道) 평택시 현덕면 심복사길 22(덕목리 115)의 광덕산(光德山)에 있으며, 사찰 경내에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대적광전(大寂光殿)을 비롯해서 내원당(內院堂), 어촌재(漁村齋),[1] 삼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2] 심복사가 위치한 현덕면 일대는 신왕나루, 구진나루와 가까이 있는 아산만 하구와 인접한 곳으로 서쪽으로는 당진, 서산과,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 동쪽으로는 안성, 진천과 연결된 수륙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유동인구들이 드나들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 어촌재는 사찰주변의 地主인 孔氏집안의 先靈을 모시는 齋室이다.

2) 권상로,《한국사찰전서》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773쪽.

심복사 창건에 관한 설화로는 고려말 파주 문산포(文山浦)에 살던 천씨·박씨·문씨 등 세 노인이 바다에서 석조불상을 건져냈으나 절을 세울 재료가 없었는데, 꿈속에서 나타난 부처님의 계시로 바닷가에서 주인 없는 검은 소와 파손된 배를 찾게 되었고 이 재목으로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3] 또한 사찰의 명칭이 처음에는 '신복사'였으나 후에 '심복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4] 그런데 이 설화에서 이야기하는 심복사 비로자나불좌상은 현재 불상 뿐 아니라 대좌까지 구비하고 있고, 대좌의 제작시기도 불상 조성시기와 동일하다고 추정되는데, 대좌까지 온전한 상태로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므로, 바닷가 근처에 있던 사찰이 어느 시기에 폐사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불상을 고려말에 새로 사찰을 지어 봉안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불상이 원래 봉안되어 있던 사찰도 지금의 심복사에서 멀지 않은 평택의 인근 해안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몽고침입시 큰 피해를 입었던 중부 서해안의 다른 사찰들처럼 전란을 겪으면서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찰의 연혁에 관해 전하는 기록은 없으나 1934년 기존에 있던 법당을 해체하고 1935년 중건(重建) 불사를 시행할 때 발견된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이후 연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중건불사 때 법당 위 기와에서 '萬歷3年(1575) 三月日'이라는 명문와가 발견되었고, 내

3) 평택시·경기도박물관,《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73쪽; 경기문화재단,《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2010, 196-198쪽. 세 노인 대신 천문을(千文乙)이라는 어부라는 설도 있다.

4) 김정희, 〈평택 심복사〉,《강좌미술사》1, 1988, 171-172쪽.

원당 앞의 석주에는 '康熙四十四年(1705) 乙酉三月日 石柱施主朴又玉(?) 化主孫正玄石手(?) 姜老斤全'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법당 대들보 상량문(上樑文) 묵서(墨書)에 남아있는 '乾隆三十二年(1767) 丁亥三月十七日 重建上梁' 기록으로 보아 1767년에 중건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이 밖에도 道光 4年과 5年에(1824~1825)에 중건불사가 있었고, 30년 후인 咸豊 6年 丙辰(1856)에 다시 중수를 하였으며, 光緖元年 乙亥(1875)에는 단청불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6] 이를 통해 볼 때, 심복사는 적어도 조선중기 1575년 무렵부터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창이 이루어지면서 법등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평택지역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조성배경을 추론할만한 자료가 전하지 않으므로 고려시대에 평택지역 어떤 세력이 어떤 사원에서 이 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는지 추측하기 어렵다. 다만, 평택이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여 아산만을 통해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 안성천 등, 4개의 큰 지류를 끼고 평야가 넓게 조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7] 북서쪽으로 당항성(現 화성시 남양읍 일대)과 맞닿아 있어[8] 통일신라시대는 물론이고 나말여초기와 고려시대에도 중국대륙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상교류의 요충지인 동시에 방어의 거점으로서 중요시되었을 것은 쉽게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9]

5) 평택시·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1999, 273쪽.

6) 文化財管理局, 《'89文化財修理報告書》(上卷), 1991, 76쪽.

7) 평택군,《평택군현지》, 1990; 평택시·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1999; 조일규, 〈평택 방언 연구〉,《사회과학연구》 5, 2001; 평택문화원, 《평택 민속지》 (상)·(하), 2009;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1, 2014 등이 있다.

8) '唐恩'은 곧 '唐의 은혜'라는 뜻으로 성덕왕대 활발한 대당교섭의 결과로 생긴 지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의 선진문물이 당항성을 중심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명이 생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은포의 위치는 은수포(서신면 전곡리)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김덕원, 2015, 앞의 논문, 12쪽 참조; 정진술,〈신라 당은포(唐恩浦)의 위치〉,《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3, 2016, 해군사관학교 충무공연구회, 100-132쪽.

평택은 나말여초기에는 궁예의 세력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10] 이후 고려초에는 평택일대가 진위현과 평택현으로 나뉘어져, 진위현은 수주의 속현, 평택현은 천안부의 속현이었다가, 성종대에 와서 지방제도가 다시 개편되면서 광주목(廣州牧)과 청주목(淸州牧)의 관할이 되었다.[11] 평택지역에 있는 14개소의 성곽 가운데[12] 안중읍 용성리에 위치한 비파산성은 통일신라시대 축조되어 고려 광종대에 이르러서 크게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13] 건덕(乾德) 3년(광종 7년, 965)명의 기와가 수습되었고 파손된 성벽 단면의 판축토 내에서 고려시대 와편(瓦片)이 출토되는 것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축성된 성으로 보기도 한다.[14] 심복사가 위치한 현덕면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현암면, 광덕면 등이 병합되어 만들어졌으

9) 양정석, 〈고고유적을 통해 본 신라 후기~고려 전기의 평택지역〉, 《신라사학보》 34, 2015, 65쪽 참조.

10) 《삼국사기》 卷 50, 열전 10 弓裔. 《고려사》에는 평택현의 옛 지명을 河八縣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기록들과는 달리 본래 소속에 대해 '예전[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 '河八縣'은 河口를 의미하는 '河入縣'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때의 '河口'는 고려시대에 河陽倉이 있었던 安城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본래 백제의 영역으로 경덕왕대에 湯井郡의 영현이 되어 熊州에 속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후백제시대의 지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사》, 卷56, 志 卷第10, 地理1, 天安府 平澤縣;《신증동국여지승람》卷19, 平澤縣; 김덕원, 앞의 논문, 2015, 10-11쪽 및 19쪽;《삼국사기》 卷 50, 열전 10 弓裔.

11) 성종 14년(995) 전국을 10道로 나누게 되면서 평택지역이 분할되어 진위현이 소속된 수주는 關內道의 영역이 되고, 평택현이 소속된 천안부는 □州로 개명되어 中原道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려사》, 卷3, 세가 3, 성종 14년 가을 9월 庚戌;《고려사》, 卷56, 志 卷第10, 地理 양광도 천안부.

12) 이 가운데 관방유적은 6개소이며, 용성리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무성산성은 서해안 방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정석,앞의 논문, 2015, 58쪽.

13) 한백문화재연구원, 〈고고·역사학적 배경〉,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27쪽.

14) 양정석, 앞의 논문, 2015, 58쪽.

며, 이 일대에는 토축 평지성인 덕목리성이 있는데, 이 성은 동성과 서성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마주보는 독특한 구조로, 서성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과 함께 고려시대 기와편, 토기류가 주를 이룬다.[15] 이처럼 성곽유적의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이 일대가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방어의 거점으로서 중요시되었던 곳이고 따라서 관청이나 사찰들이 소재하여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인근의 평택 진위면 만기사에 고려초기 철조여래좌상이 전해오고, 현덕면 심복사에도 고려초의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시대에 이 일대에 융성하였던 사찰들의 존재를 말해주며, 고려 초기에 이 일대에 존재하였을 유력한 세력을 추측하게 된다. 태조 왕건이 南征할 때 귀부하여 도왔던 水州의 김칠(金七) · 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명 가운데에 평택 일대를 관리하고 사찰을 세워 경영했던 유력 세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16]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이 원래 봉안되어 있던 절이 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한 해안가 포구 근처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창건목적은 서해안으로 진출하기

15) 현덕면 일대는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인구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촌락이 필요해지고 행정적인 거점의 역할로 덕목리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성이 고려시대 廣德縣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덕목리성의 주변지역은 도시적인 요소가 강하고 내륙의 관방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치소와 연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평택시·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267-268쪽; 金虎俊,〈京畿道 平澤地域의 土城 築造方式 □究〉,《문화사학》27, 2007, 746쪽; 정인숙,〈수원지방의 성지〉,《경기향토사학》 2, 1997, 155쪽; 양정석, 앞의 논문, 2015, 68쪽 참조.

16) 태조 왕건이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金七 · 崔承珪 등 2백여 명이 귀부하여 도왔으므로 그 공을 감안하여 水州로 승격시켰고 진위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姓氏를 가진 상기 두 인물은 이 지역의 지배층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水州本高句麗買忽郡, 新羅景德王, 改爲水城郡. 太祖南征, 郡人金七·崔承珪等二百餘人, 歸順效力, 以功, 陞爲水州." 《고려사》, 卷56, 志 卷第10, 地理 〈양광도 수주〉; 진위면지편찬위원회,《진위면지》, 1999, 42쪽.

위한 거점사원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조성배경으로는 지금은 특정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유력세력을 자연스럽게 지목하게 된다.

3.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현상과 조형적 특징

1)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현상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재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옛 금당은 능인전(能仁殿)이었고, 1988년에 철거되어 대적광전으로 새로 지어졌다.[17] 대적광전의 본존불상인 석조비로자불좌상(보물 제 565호)은 중대석이 둥근 통형(筒形)인 삼단 연화대좌위에 앉아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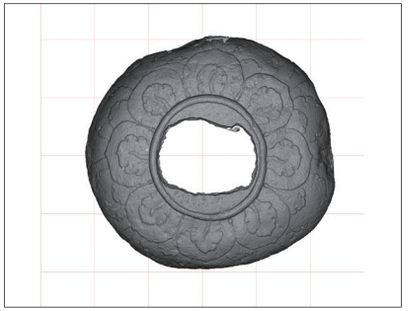




도 1-1.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시대, 경기도 평택
도 1-2.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반측면), 고려시대, 경기도 평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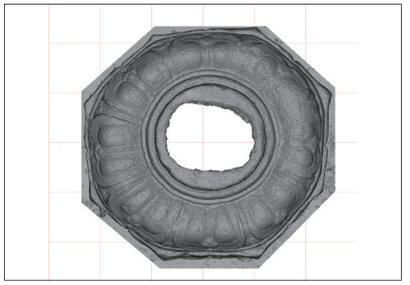
17)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 1991, 76-81쪽; 文化部 · 文化財管理局,《'90年度 文化財修理報告書》(上卷), 1992, 66-71쪽; 최성은,〈고려전기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美術資料》 67, 국립중앙박물관, 2003. 34-37쪽(同,《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99-101쪽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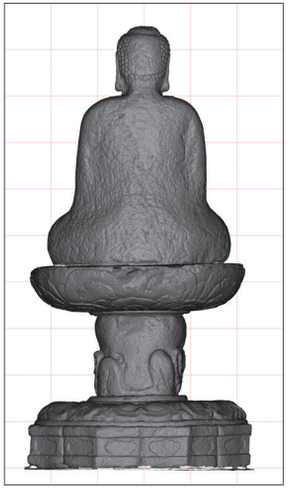


도 2-1.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면 3D 스캔
도 2-2.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연화대좌의 상대 앙련좌 3D 스캔





도 2-3.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연화대좌 중대석의 사자 뒷면(사진 정성권)
도 2-4.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연화대좌의 하대 복련좌 3D 스캔



도 3.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뒷면 3D 스캔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도 1).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236.3cm, 불상높이 128.7cm로 등신대(等身大)보다 약간 큰 상인데, 현재 광배는 전하지 않으나 연화대좌 상대 앙련좌의 앞쪽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상 전체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불신(佛身)은 어깨가 둥글고 가슴은 편평한데 어깨 폭이나 무릎 폭[坐幅]에 비해서 허리가 길고, 두부(頭部)도 그다지 크지 않은 신체비례를 보인다. 머리의 육계(肉髻)는 낮고 나발은 큼직하게 새겨져 있으며 넓지 않은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가 새겨져 있다. 코 부분은 후보(後補)된 것인데, 양 뺨이 통통하고 입가에 미소를 띤 상호(相好)는 부드럽고 인간적이며 인중이 넓고 턱 중앙이 옴폭 안으로 들어가게 새겨져 있다. 짧고 굵은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통견식(通肩式)으로 입은 대의(大衣)에는 전면에 일정한 간격의 옷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양 팔이 접히는 부분에는 꽃잎 두 개가 겹쳐진 듯한 주름이 새겨져 있다. 양 어깨에서 내려오는 대의 단과 양 손목에서 좌우 무릎으로 흐르는 옷단에도 꽃문양(花紋)이 서로 엇게 양각되어 있고 대의 안쪽으로는 내의(內衣)가 사선으로 살짝 드러나며 내의 매듭이 리본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다.

대좌(도 2-1)는 상·중·하대로 이루어진 평면 팔각의 삼단 연화대좌로 상대 연화좌의 넓은 연판에는 장식적인 꽃잎이 이중으로 새겨져 있고(도 2-2), 상대 앙련좌와 하대 복연좌에 비해 폭이 좁은 둥근 통형의 중대석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양쪽에서 상대석를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도 2-3). 하대의 팔각 복판연화문(複瓣蓮華紋)의 연잎사이에는 귀꽃이 새겨져 있고(도 2-4) 이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석은 몇 개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팔각의 각 면에 2개의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불상의 뒷면은 조각이 되지 않았고 머리 뒷면에도 나발이 새겨지지 않아(도 3),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은 완전히 정면 위주로 조각된 상으로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들의 경우에 상의 뒷면에도 옷자락이나 주름이 조각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심복사불상의 편년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도상

심복사 석불은 두 손은 마주 모아 왼손의 검지(檢指)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 이 수인은 이(理)와 지(智), 중생(衆生)과 부처, 미혹(迷惑)과 깨달음(悟)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비로자나불 특유의 별인(別印)이다. 지권인의 별인으로 표현되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毘盧舍那佛, Vairocana)은 불교의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로 진신(眞身) 혹은 법신(法身)이라고도 하는데,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법을 부처의 모습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변조(遍照), 광명변조(光明遍照), 변일체처(遍一切處)의 의미로서 태양처럼 대광명을 발





도 4.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766년, 경남 산청 내원사
도 5-1.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863년 이전, 대구 도학동
도 5-2.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좌 중대석의 7사자

하여 지혜의 빛으로 시방세계를 밝게 비춘다는 개념이다.[18] 비로자나불은 대승경전인 《화엄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주불(主佛)로 등장하는데, 《잡아함경(雜阿含經)》 권 22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신으로 비로자나불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고,[19] 60권본 《화엄경》에서는 현재불인 '석가모니불'과 같은 의미로서 '노사나불'이라는 존명으로 소개되며, 이후 《80화엄경》에서는 '법신 비로자나불'로 음역된다.[20]

비로자나불이 주로 결하고 있는 수인인 지권인은 왼손은 검지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지권인의 수인과 존명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화엄경》이나 《범망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수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 당대(唐代) 밀교승 금강지(金剛智)가 8세기 전반에




도 6.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865년경, 경북 봉화
도 7.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나말여초, 강원도 동해

18) 비로자나불에 대해서는 《望月大辭典》(增訂版), 1975, 4367-4369쪽 참조.
19) 《大正新修大藏經》 제2권 阿含部 下, 155a쪽,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250·251, 2006, 42쪽(同著,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2009, 132쪽 재수록).
20) 《望月大辭典》(增訂版), 4368쪽; 문명대, 〈화엄종계 불상 조각과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한국의 불상조각 2-원음과 고전미》, 예경, 2003, 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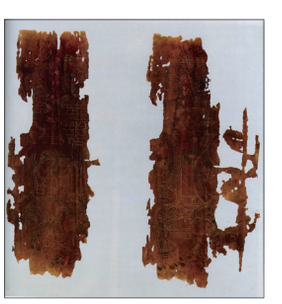
번역한《금강정유가중략출염송경(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21]과 불공(不空)이 번역한《금강정경일자정륜왕유가일체시처염송성불의궤(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에는 지권인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금강정경(金剛頂經)》계통의 밀교경전인 반야(般若)가 번역한《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는 지권인의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22] 따라서 지권인은《금강정경》계통의 밀교경전이 번역되는 8세기 전반에 비로자나불의 수인으로 수용되면서 여래형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23]

이와 같은 금강정경계 밀교도상인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신라하대에 유행했던 것은 현존하는 여러 불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1)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 133, 東國譯經院, 1994, 450-451쪽.《금강정유가중략출염송경》권3에는 "왼손의 둘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응당 잡아야한다. 이것을 보리최상계라 이름한다. 능히 불보리를 수여한다. 이 대인을 결하고 나서 마땅히 비로차나존자를 관해야한다." 이숙희, 앞의 책, 2009, 134쪽 참조.

22) "즉 堅字金剛拳印을 짓는데 먼저 좌우의 엄지를 각각 좌우의 손바닥 안에 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주먹을 쥔다. 이것이 견우금강권인이라 한다. 다음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은 세우고 왼쪽 주먹 손등(背)을 가슴(명치)까지 올려 손바닥을 왼쪽 바깥으로 돌린다. 다시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의 첫마디를 잡으며, 오른손 검지머리로 오른손 엄지 첫마디에 붙인 후 가슴(명치)까지 올린다. 이것이 菩提引導第一智印이라 하며, 또한 能滅無明黑闇印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即結堅牢金剛拳印。先以左右大拇指。各入左右手掌內。又以左右餘四指。堅握指作拳。即是堅牢金剛拳印。次竪立左頭指。其左拳背。安當心上。其掌面轉向左邊。即以右拳小指。握著左拳頭指一節。又以右拳頭指之頭。拄著右拳拇指一節。亦安心前。是名菩提引導第一智印。亦名能滅無明黑闇印。緣此印加持。諸佛與行者。授無上菩提最勝決定之記。即是毘盧遮那如來大妙智印)." 唐 般若譯《諸佛境界攝眞實經》,《大正新修大藏經》卷18 密教部 1, 275쪽c; 문명대, 〈화엄종계 불상조각과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앞의 책, 2003, 188쪽 참조.

23) 이숙희, 앞의 책, 2009, 134-135쪽. 한편, 여래형 비로자나불은 화엄사상과 밀교가 융합되는 불교사적인 배경에 따른 것으로 신라적인 변용의 한 예로 해석되기도 한다. 문명대, 〈한국 화엄종 미술론〉, 앞의 책, 2003, 160-161쪽; 이숙희. 앞의 논문, 2006, 39쪽 참조.





도 8-1.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통일신라 755년, 서울 리움미술관
도 8-2.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드로잉), 통일신라 755년, 서울 리움미술관
도 9. 칠사자연화좌의 백묘도상(《五部心觀》,《大正新脩大藏經》圖像部 卷2, 3쪽

(766, 도 4)을 비롯해서 약 30여구에 이르며 그 가운데 신라하대 9세기의 불상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59),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 도 5),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 도 6) 등을 꼽을 수 있다.[24] 한편, 구역(舊譯)《화엄경》(60권본)에 전거(典據)한 노사나불상의 도상은 나라(奈良) 도쇼다이지(唐招提寺)의 템표(天平) 후기의 건칠노사나불좌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중대신라부터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도 7)이나 연산 개태사 석조노사나불입상의 예를 보면 나말여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5]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상당기간 시무외·여원인의 노사나불상 도상이 이어져오다가 밀교계 지

24) 현재 전하는 작품 중 지권인이 최초로 등장하는 예는 755년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변상도이다. 그러나 수인 부분이 박락되어 팔의 각도로 지권인임을 짐작할 뿐이다. 따라서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766)이 지권인이 확실한 가장 오래된 例라고 할 수 있다.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박경원, 〈永泰二年銘석조비로자나좌상〉,《考古美術》168, 한국미술사학회, 1985, 1-21쪽; 문명대,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성립문제와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의 연구〉,《佛教美術》11, 1992. 70-88쪽(同著, 〈화엄종계 불상조각과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앞의 책, 2003, 200-211쪽 재수록) 참조.

25) 최성은, 〈신라하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한국사학보》54, 2014, 179쪽.

권인 도상이 전래되는 9세기 중엽부터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도상이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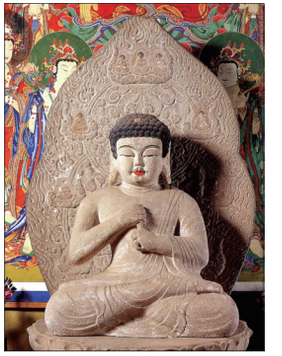
현존하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화엄사 사사자 석탑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755년)의 〈비로자나불도〉(도 8-1)이다. 이 변상도는 지권인을 결한 중앙의 수인부분이 훼손되어 보이지 않지만, 보살형의 비로자나불이 일곱 구의 사자가 받치는 이른바 '7사자 대좌' 위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8-2). 비로자나불상이 7사자 대좌에 앉아있는 도상은 당대 금강계 밀교도상을 보여주는 백묘도상인《오부심관(五部心觀)》[27]에도 나타나는데(도 9),[28] 8세기에 통일신라에도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755년)보다 십여 년 뒤에 조성된 산청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766년, 도 4)에서는 팔각연화대좌의 중대석에 사자와 같은 조식(彫飾)이 표현되지 않았으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신라하대 9세기의 비로자나불좌상 가운데는 팔각연화대좌의 중대에 7구의 사자가 나타나는 도상이 표현된 예가 보이고 그 밖에도 하대 복련좌를 받치는 팔각지대석의 각 면에 새겨진 여덟 개의 안상(眼象) 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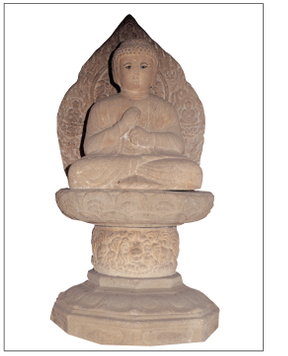
26) 최성은, 앞의 논문, 2014, 179-180쪽.

27) 《五部心觀》은 일본의 천태승려 智証大師 圓珍(814-891)이 唐에 체재하던 大中 9년(855)에 長安 青龍寺의 法全으로부터 받았다는 밀교 白描圖像으로 원본 2권은 일본 滋賀縣 園城寺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金剛頂経》에서 설해진 金剛界 5부(불부, 금강부, 보부, 연화부, 갈마부)의 여러 존상이 나열되어 있고, 각 존상의 형상, 眞言, 印契가 上中下 3단에 묘사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善無畏의 초상을 추가하여 이 도상이 善無畏로부터 전해오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八田幸雄,《五部心觀の研究》, 京都: 法藏館, 1981.

28) 《大正新脩大藏經 : 圖像部》권 2, 大藏經刊行會, 新文豊出版公司, 1997, 3쪽; 朴亨國, 〈七獅子蓮華坐の圖像について-韓國統一新羅後記の石造毘 盧遮那佛座像を中心に-〉,《密教圖像》14호, 1995, 34-60쪽; 朴亨國, 〈韓国·統一新羅時代後期の石造毘盧遮那仏坐像について- 洛東江中·上流地域(慶尚北道地方)を中心に -〉,《美術史》45(1), 美術史學會, 1996, 44-67쪽; 이숙희, 앞의 책, 2009, 145쪽 참조.







도 10-1.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시대, 충북 괴산
도 10-2.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도 11.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나말여초, 경북 성주

데 일곱 면에 사자가 새겨진 예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좌상에서 뿐 아니라 석등의 지대석에서도 보이고 있어 '사자'의 모티프가 신라하대 석조의장으로서 크게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대좌 중대석에 사자가 새겨진 예는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 이전, 도 5-2)과 풍기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0),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1), 등과 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나말여초기에 걸쳐 제작된 몇 구의 비로자나불상에서만 보이는데, 이 가운데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1)은 고복형(鼓腹形)의 중대석에 사자가 6구만 새겨져 있어 7사자 대좌의 도상이 완전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29]

29) 통일신라와 고려초기 칠사자대좌 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서는 홍채아,〈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한국고대사탐구 - 조성시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29, 2018, 408-415쪽 참조,

표 1. 대좌 중대석에 사자가 표현된 통일신라~고려초기의 비로자나불좌상

순서	명 칭	연 대	특징
1	화엄사 4사자석탑출토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755년	대좌 중대에 사자 7구 표현됨.
2	대구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8면 중 1면에는 연꽃, 나머지 7면에는 사자상 상체만 표현됨.
3	풍기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신라하대	8면 중 1면에 운문, 나머지 7면에 사자상 상체만 표현됨.
4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나말여초	8면 가운데 운문이 새겨진 2면 제외. 6면에 사자상 상체만 표현됨.
5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면 중 1면에는 연꽃 봉오리, 나머지 7면에 사자의 상체가 표현됨.
6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	2마리 사자가 좌우대칭으로 몸체까지 표현됨

앞에서 언급한 비로자나불상의 7사자 대좌의 도상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은 심복사상에서는 더욱 심해지는데, 이 상 대좌의 통형(筒形) 중대석에는 사자 두 마리가 마주 앉아 앞발을 올려 상대 앙련좌를 받치고 두 사







도 12.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나말여초, 국립광주박물관
도 13.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羊頭山석굴 제 2굴 마애삼존불상, 隋代, 산서성 高平

자 사이의 공간에는 사자 한 마리가 얕게 부조되어 있을 뿐이다(도 2-1). 심복사상에서는 비로자나불상의 7사자 대좌의 도상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 표현된 사자들이 운문(雲紋)을 배경으로 얼굴만 조각되는 것과는 달리, 사자의 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상으로 조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쌍사자의 표현은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광양 중흥사지 쌍사자 석등(도 12),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등(도 13)에서도 보인다.[30] 앞의 3기의 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가 서있는 자세로 앞발을 올려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고 고달사지 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의 등과 연결된 운문이 석등의 간주석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31] 이 두 형태의 절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심복사상 대좌의 사자인데, 서있거나 엎드려 있지 않고 무릎을 세워 앉아있으며 운문 속에 가려진 앞발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두 마리의 사자가 대좌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형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산서성 고평에 위치한 양두산(羊頭山) 석굴 제 2굴의 수대 조각에서 보이는 사자좌를 연상하게 한다(도 14). 여기서는 사자 두 마리가 머리로 상대석을 받치고 그 사이에는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작은 동자형의 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쌍사자 대좌가 고대조각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때, 심복사 불상의 조각장인이 7사자 대좌의 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당시 석조물에서 유행하던 쌍사자의 개념과 고대조각의 일반적인 사자좌 형태를 빌어서 밀교적인 7사자 대좌의 도상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내려 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상의 변용이 일어났다는 점은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0) 원주 법천사지의 탑비전지에서도 사자의 둔부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쌍사자 석등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인제 한계사지에서도 석조 사자상이 2구 출토되어 쌍사자 석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복규, 《한계사》, 강원대학교박물관, 1985, 56-57쪽 및 110쪽의 도 4,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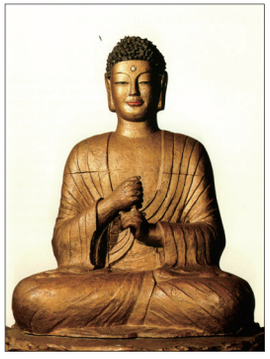
31) 박경식,《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257-281쪽 참조.

3)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현실속의 사람모습이 표현된 듯한 사실적인 조형성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사실적인 상호의 표현은 안성, 여주, 원주, 홍천 등, 중부지역 남한강 유역 일대의 나말여초 불상들에서도 발견된다.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도 15)이나 원주 학성동출토 철조약사여래좌상(국립춘천박물관, 도 16), 등에서 보이는 낮은 육계와 인간적인 상호(相好) 뿐 아니라, 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안성 봉업사지 석불좌상, 서울 은평구 자씨각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에서 나타나는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곡면적인 조각처리 등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나말여초기부터 유행하였던 것으로서 심복사 비로자나불좌상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지역은 나말여초기 후삼국시대에 태봉의 영역에 속해있던 곳이므로 심복사 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지역에 태봉 불교조각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의(大衣) 옷단이 얕게 융기한 형태로 조각되고 좌우로 대칭되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표현은 철원 도피안사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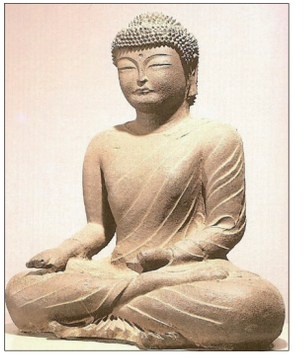




도 15. 도곡리 석불좌상, 나말여초, 경기도 여주
도 16. 원주 학성동출토 철조약사여래좌상, 나말여초, 국립춘천박물관
도 17.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865년, 강원도 철원

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도 17), 경북대학교박물관 석조비로나불좌상,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불좌상(도 16) 등, 신라하대에서 나말여초기에 이르는 불상들에서 발견되며, 어깨와 소매를 덮은 대의주름이 일정한 간격의 띠주름으로 새겨진 것 역시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도 17)와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도 6) 등에서 보이는 신라하대 불상의 전통 역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보이는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옷단에 화문(花紋)이 새겨진 것과 내의를 묶은 매듭이 리본처럼 좌우로 늘어진 표현은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도 6)과 매우 유사하여, 두 구의 비로자나불좌상이 제작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상정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심복사상에서는 대의깃 뿐 아니라 소매단에도 화문이 새겨져 있고, 축서사상의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는 편삼(偏衫 또는 覆肩衣) 표현이 심복사상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보아 심복사상은 신라하대 9세기 후반의 축서사상에 비해 장식성은 높아진 반면에 도상은 간략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심복사상의 양 팔을 덮은 대의 소매가 접히는 부분에 꽃잎모양의 옷주름이 좌우에 각각 2개씩 새겨진 모습은 매우 특이한데, 이 상에서처럼 좌우에 대칭적으로 표현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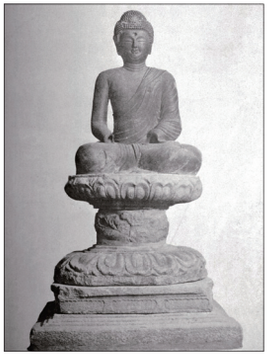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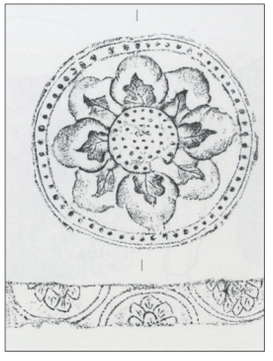

도 18. 원주출토 철불좌상,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도 19.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 고려 949년경, 국립중앙박물관

는 않았지만 고려초 10세기 전반의 철불들, 예를 들어, 원주출토 철불좌상들(도 18),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949년경, 도 19) 등에도 왼쪽 팔을 덮고 있는 대의가 팔이 접히는 부분에 꽃잎 형태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이 철불들은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착의하여 왼쪽 팔이 접히는 부분에만 꽃잎형태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서 심복사상에서는 양 팔에 두 개의 옷주름이 겹쳐져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옷주름 표현의 변화된 표현을 통해서 철불과 석불이라는 재료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심복사상이 철불들보다 제작시기가 다소 늦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상 전체의 비례 면에서 볼 때, 삼단연화대좌의 중대석 폭이 매우 좁은 점은 심복사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 앙련좌와 하대 복련좌에 비해서 중대석 부분이 좁아지는 현상은 나말여초 · 후삼국시대의 일부 불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도 15), 완주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상의 본존상(도 20)의 대좌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처럼 대좌의 중대석이 통형으로 조각된 예로는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11)과 개성 전 용암사지[傳 寂照寺址] 철불좌상(도 21)과 같은 나말여초에서 고려초기로 편년되는 불상들을 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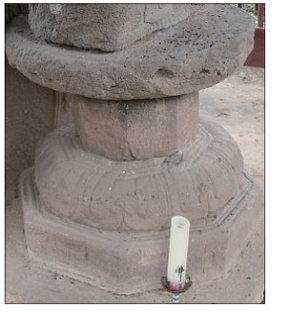
도 20. 완주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상의 본존상, 나말여초(후백제), 전북대학교박물관
도 21. 용암사지(舊稱 傳 寂照寺址) 철불좌상, 고려시대, 개성 고려박물관
도 22. 홍천 물걸리사지 출토 연화문 수막새 제 3식, 나말여초, 국립춘천박물관(차순철)

있겠는데, 금봉리상의 경우는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으로 고복형에 가까운 통형의 중대석에 사자가 새겨져있고, 항마촉지인을 결한 전(傳) 용암사지 철불좌상의 석조대좌 중대석에는 용으로 보이는 동물이 새겨져 있다. 이 두 불상의 대좌와 비교해 볼 때, 심복사상의 대좌는 중대석의 폭이 더 좁아지고 높이는 더 높아지면서 다소 안정감이 없이 오똑하게 보인다.

대좌 상대앙련좌의 연판(도 2-2)을 보면, 연화문 위에 꽃잎이 하나 더 표현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문양을 보이는 초화문(모란문) 수막새 기와가 홍천 물걸리사지에서 출토된 바 있고(도 22),[32] 심복사상의 대좌 중대석에 새겨진 두 마리의 사자의 형태(도 2-3)와 유사하게 꼬리가 밖으로 접힌 형태의 사자가 인제 한계사지에서 출토된 바 있어(도 23) 한반도 중부지역인 오늘날의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불교조각의 상호 유사성과 그 영향관계를 볼 수 있다.

심복사상의 삼단 연화대좌 하대의 복련좌 연판(도 2-4)은 복판복엽인데 꽃잎 끝에 귀꽃이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대좌나 승탑의 받침석에 조각된 귀꽃은 대체로 위쪽을 향해 입체적으로 세워져있는 것이 일







도 23. 한계사지 석조사자, 통일신라, 강원도 인제(사진 정성권)
도 24. 연당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의 대좌, 통일신라 889년, 경북 영양
도 25.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나말여초, 충북 괴산

32) 차순철,〈홍천 물걸리사지 출토 와전 검토〉,《홍천 물걸리사지 및 석조불상군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홍천군, 2018, 88쪽 도 5.

반적이며 심복사상에서처럼 귀꽃이 연판에 붙어있는 예는 영양 연당동 석불좌상(889년, 도 24)의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은 나말여초 석불의 대좌 하대석(도 25)에서 보이고 있어 신라하대부터 나타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각연사상 대좌에 비해서 귀꽃이 완전히 연판 바닥에 붙어있는 심복사상 대좌의 표현은 심복사상이 각연사상에 비해 조성시기가 늦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심복사상 대좌의 하대 복련좌의 받침은 여러 개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각의 각 면에 안상(眼象)이 2개씩 새겨져 있다. 이처럼 하대 받침





도 26. 정림사지 석불좌상의 대좌, 고려 1022년, 충남 부여
도 27. 만복사지 석조대좌, 고려시대, 전북 남원
도 28.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고려 981년, 경기도 이천

석이 여러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한면에 안상이 2개 이상 새겨진 경우는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1028년, 도 26)나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도 27)와 같은 고려중기 11세기 석불상에서 보인다. 정림사지 대좌는 팔각대좌 받침석의 한 면에 안상이 3개씩 새겨져 있고, 만복사지 석조대좌에는 2개씩 새겨져 있는데, 각 안상의 중앙에는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다. 이 11세기 석불상들의 대좌와 달리 심복사상의 대좌에는 안상에 꽃머리 장식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안상의 꽃머리 장식이 11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유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심복사상이 부여 정림사지나 남원 만복사지 석불에 비해서 제작시기가 올라갈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구 동화사 비로

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한 통일신라 9세기의 비로자나불상 도상을 계승하고, 양식적으로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나말여초 석불상들과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상과 양식면에서 여러 다양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조금 더 고려시대 불상으로의 양식화가 진행된 단계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현실 속의 인간의 모습처럼 친근하고 사실적인 상호(相好), 옷단에 꽃문양이 새겨진 장식적인 매너리즘, 소매가 접히는 부분에 꽃잎형태로 두 개씩 새겨진 옷주름, 대좌에 7사자가 표현되는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 폭이 좁아진 대좌의 중대석, 하대 복련좌 위에 문양처럼 새겨진 귀꽃의 표현, 하대 받침석에 안상의 수가 많아졌으나 그 안에 꽃머리장식이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성시기는 고려초 10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석불들은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981년, 도 28),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985년)[33]에서 보이듯이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조형적으로 지방화된 상들고 전해오는데, 평택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새롭게 변화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려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불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심복사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이 절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불좌상의 현상과 조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복사 주변의 평택지역은 서해안 진출을 위한 수륙교통로상에 위치하여 비로자나불상이 봉안되었던 사찰은 서해안으로 진출하는데 거점사찰의 역할을 하였

33) 최성은,《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133쪽 도 4-12.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복사가 위치한 일대의 덕목리 토성과의 연관성도 생각볼 수 있는데, 덕목리 토성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고 치소로서의 성격을 가졌었다면 수륙교통로 상에 위치한 이 지역에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한 사찰의 건립도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전통을 이은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으로서 금강정경계 밀교도상에 나오는 비로자나불상의 7사자 대좌와는 달리 쌍사자 대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져 왔던 밀교도상의 고려적 변용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식적인 면에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호에서 현실속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와 유사한 상호는 오늘날의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안성, 여주, 원주, 홍천, 강릉 등지의 중부지역 나말여초 불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이 지역들은 나말여초기 태봉의 지배 아래 놓였던 곳이므로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된 평택지역에도 태봉의 불교문화와 조각의 전통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심복사 비로자나불상의 착의형식이나 문양의 표현에서는 신라하대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나말려초기 조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식화가 진행되고 장식적으로 변모한 점이 드러난다. 특히, 대좌 중대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나말여초 일부 석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심복사 대좌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연판의 문양이나 귀꽃의 처리에 있어서도 고려조각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 그 조성시기는 고려 10세기 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려사》, 卷3, 및 卷56.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 133, 東國譯經院.
般若譯《諸佛境界攝眞實經》,《大正新修大藏經》卷18 密教部 1.
《望月大辭典》(增訂版), 1975,
강원대학교박물관,《한계사》, 1985.
경기문화재단,《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2010.
권상로,《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문명대,《한국의 불상조각 2-원음과 고전미》, 예경, 2003,
박경식,《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평택군,《평택군현지》, 1990.
평택시·경기도박물관,《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평택문화원,《평택 민속지》(상)·(하), 2009.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1, 2014.
이숙희,《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2009.
진위면지편찬위원회,《진위면지》, 1999.
최성은,《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八田幸雄,《五部心觀の研究》, 京都: 法藏館, 1981.
김정희,〈평택 심복사〉,《강좌미술사》1, 1988,
金虎俊,〈京畿道 平澤地域의 土城 築造方式 研究〉,《文化史學》27, 2007.
문명대,〈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성립문제와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의 연구〉,《佛教美術》11, 1992.
박경원,〈永泰二年銘석조비로자나좌상〉,《考古美術》168, 한국미술사학회, 1985.

朴亨國,〈七獅子蓮華坐の圖像について-韓國統一新羅後記の石造毘盧遮那佛座像を中心に-〉,《密教圖像》14, 1995.

양정석, 〈고고유적을 통해 본 신라 후기~고려 전기의 평택지역〉,《新羅史學報》34, 2015.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美術史學研究》250·251, 2006.

정진술, 〈신라 당은포의 위치〉,《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3, 해군사관학교충무공연구회, 2016.

차순철, 〈홍천 물걸리사지출토 와전 검토〉,《홍천 물걸리사지 및 석조불상군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홍천군, 2018.

최성은, 〈고려전기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美術資料》 67, 국립중앙박물관, 2003.

홍채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 조성시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한국고대사탐구 》 29, 2018.

평택 지역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시론

황우갑/숭실대학교 CR글로벌리더십연구소 선임연구원

차 례

1. 머리말
2.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 사례와 시사점
3. 평택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제언
4. 맺음말

1. 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에 기초한 다양한 자산을 장소자산이라 불리며, 이는 지역의 장소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장소자산에는 자연환경, 인물, 음식, 산업유산 등이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은 대표적인 장소자산의 하나로 지역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

문화유산은 관광, 환경자본 등 지역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재원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 복지 개선에 영향을 준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와 거주지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자원이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의 경제적 가치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이현정, 2019).

과거 문화유산의 지정, 관리와 보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문화유산 관련법을 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원형 보존과 관리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단순한 관리와 보존에 머무르는 수동적인 문화재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시민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역사회(Community)를 새로운 전략 목표로 추가하고 문화유산 보존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문화유산 보존방식이 아닌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지역민이 참여해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이현정, 2019).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 문화유산 원형의 자료화, 문화유산의 역사적 고증에 의한 재현, 공인된 역사기록에 상상력을 추가한 팩션콘텐츠, 역사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콘텐츠 개발, 창작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등이 있다(김시범, 2012).

그동안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우선 유럽과 일본 등 선진 OECD 국가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에 대한 국내 소개(최경은, 2019; 이현정, 2019;손동기, 2020; 이근택 외, 2014) 등이 있다. 이들 해외 사례는 대체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선진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최근 정책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정책의 방향이 시민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또한 유럽 등 산업혁명을 이끈 지역에서는 관련 산업의 쇠퇴에 따라 남겨진 산업유산의 옛 기억을 보전하고 공간문화재생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 방문객 유치에 성공한 다수의 사례들도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 연계스토리 개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종욱 외 2018;김명석, 2014;김덕묵, 2020;김준혁, 2016;김도희 외 2018;박동호, 2018) 등이 있다.

그러나 평택의 문화유산 활용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현재 평택지역은 보물 3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 도 유형문화재 3점, 도 무형문화재 2점, 도 기념물 9점, 문화재자료 5점, 향토유적 8점, 총 31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지정문화재의 2.9%이다(평택시사, 2014).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화 시대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강화시킨다.

서구화 중심의 글로벌문화는 집합적 생산양식인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한

다. 과거 고유성과 변별성을 재생산해내는 기제였던 지역은 현재의 문화적 표준화 상황에서 전형적인 지역의 모습, 전통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지형에서 전통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지역공동체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지역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단독으로 대안을 수립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송준, 2013).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지역시민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전통문화의 활용의 의의는 우리문화 유산에 대한 취향을 되살리는 방법이며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취향을 되살리는 방법이며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넘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유익한 투자가 된다(송준, 2013).

따라서 이글에서는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평택의 상황에 변용하여 평택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문화유산 활용의 최근 동향

일본의 문화유산 정책 사업은 지역에 점으로 흩어져있는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스토리에 따른 패키지화한 문화재군을 통해 면(面)으로 활용, 발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스토리 전달에 필수적인 문화재군에는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재를 지정, 미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포함할 수 있으나 국가

지정 선정, 문화재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지역형은 단일 시정촌 내에서 스토리가 완결되는 경우이며 네트워크형은 복수의 시정촌에 걸쳐 스토리가 완결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유산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의 스토리를 창출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를 구축하여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최경은, 2019).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탈리아 고대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사라진 도시와 두텁게 싸인 화산재 위로 다시 마을을 건설했다. 시민들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자신들이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문화유산과의 공생을 추구한다(이현정, 2019).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지역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상, 재산상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문화유산 지정에 큰 걸림돌이다.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가 주변 지역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과의 공생을 추구할 수 있다.

유럽의 건축역사문화유산 활용방식 사례를 보면 고고학과 귀족계층 유산에서는 보존을 하면서도 교육, 문화적 기능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마시대 창고는 상점으로, 고대 극장은 야외극장으로, 유적지는 박물관으로 마구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유적은 성채를 방문자 센터나 전시장으로 병영주둔지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 유산의 경우 재래시장을 시장 내부에 유리 박스형 구조를 신축하여 시장과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옛 교회를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장 유산의 경우는 주택, 생활박물관으로 공예유산은 맥주공장을 건축스튜디오로, 광산과 제분소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유산의 경우 채광산업관이나 석탄산업 시설을 박물관이나 전시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는 건축유산의 활용에서 기존 용도의 유지와 공익성이라는 측면이 활용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근택 외, 2014).

프랑스에서는 1983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프랑스 서쪽 낭트의 옛 조선소지역과 폐쇄된 과자공장을 관광지로 활용해 성공을 거두었다. 조선소 지역은 낭트의 대표 작가 쥘 베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섬의 기계들□이라는 주제의 테마 파크로 운영 갤러리, 극단의 공연장, 주민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변했고 프랑스 대표 과자 상표인 LU의 옛공장은 현재 국립현대예술센터로 변신했고 옛물류 창고와 같은 오래된 공장 건물을 낭트의 산업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와 니센 문화부장관은 문화유산 개발 관련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문화유산을 복원하라 둘째, 문화유산의 가치를 만들어라, 셋째, 문화유산을 전승하라. 문화유산 관련 직업 장려와 교육 넷째, 유럽 내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프랑스는 1992년부터 문화유산의 날 제정 운영하고 있다. 1984년부터 역사적 유적지를 대중에게 하루나 이틀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유럽문화유산의 날로 되었다(손동기, 2020).

2) 국내 지자체의 문화유산 활용의 동향

서울의 경우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충무로 지역은 1935년 지어진 옛 스카라극장, 충무로 영화의 거리, 1960-70년대 영화인의 아지트였던 옛 스타다방, 인쇄골목, 1955년 미국 20세기 폭스필름의 설계에 따라 개관한 대한 극장 등 근현대

문화유산이 있다. 이를 충무로 조감독의 하루라는 관련 스토리텔링으로 근현대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충무로 AR 설명듣기, AR 스팟 선택과 복원된 건축문화재와 AR 체험, 과거 풍경 배경 사진 찍기와 전송 등의 활용 예가 있다(이종욱 외 2018).

성북구의 경우 이곳에서 살던 인물과 스토리를 연계하고 관련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에 힘쓰고 있다.

성북구 인문학아카데미의 살아있는 인문학 박물관 프로그램은 북으로 창을 내겠소(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시인 장석남의 성북동 이야기, 모던보이 구보씨 성북에 집짓기(박태원), 돈암동 그여자네집 박완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등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김명석, 2014).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인물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부산 영도구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방식으로 영도보유 문화유산과 인성교육 모델 제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소정체성 전달하기로 영도다리가 지닌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는 특성과 부산 최초의 연육교로 한국 1호 만남의 광장 역할 했던 영도다리에 테마파크를 조성, 관련 문학작품 활용하여 영도다리가 지니는 장소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브랜드 구축하기로 디아스포라와 배려라는 주제로 부산항 개항과 함께 제주 해녀의 영도 이주, 그리고 함경도 출신 피난민의 영도 이주 등 근현대 역사를 바탕으로 어업이민역사관과 전쟁 이주민 교육의 현장으로 기억을 소환하고자 했다(김도희 외 2018).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 활용 과정과 노력에는 민관협력의 실천 과정이 녹아있다. 수원 화성의 복원 운동은 1922년 대홍수로 화홍문의 누각이 사라지자 수원의 유지들이 수원명소 보존회를 결성 당

시 금액 3천원의 성금을 모아 1933년 5월 복원 성공에서 시작됐다. 이 화홍문의 복원은 이후 수원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949년 9월에는 화성행궁 옆 화령전 중수운동이 자발적인 시민운동과 수원시의 노력으로 중수를 마쳤으며 1989년 4월 화성행궁 복원운동이 시작되었고 1997년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2000년부터 화성연구회 등에 의한 성신사와 종각 복원은 2009년 9월 완료하였다. 이후 수원 화성의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행궁동 일대 구도심의 재생과 활력증진에 힘쓰고 있다(김준혁, 2016)

경남 창원시는 마산을 중심으로 한 근대식민역사의 기억을 다크투어리즘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죽음 또는 재해 등의 사건 장소를 직접 방문,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은 관광을 배움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 유산 관광과는 차별화된 개념을 보여준다. 마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은 다크투어리즘의 관광주제를 기준으로 보면 식민지 역사 유형으로 수요와 공급 행렬의 공급 측면에서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낮은 옅은 색 관광에 해당.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의 역사 교육적 가치에서 볼 때 블랙관광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첫째, 근대문화유산의 자산화 :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치 발굴과 인식. 지자체 등이 대학, 학회, 민간연구단체 등과 함께 학술연구 네트워크 구축 필요. 주민의 숙의과정과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둘째 근대문화유산의 가치 창출 : 인프라 구축 및 강화거점 코어와 보조적인 새틀라이트 역할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 및 강화 필요. 빅데이터와 가상증강현실 등 ICT 기술 활용, 셋째, 근대문화유산 가치 공유 : 지역특색을 살린 다크투어리즘 탐방로 조성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박동호, 2018).

2000년대 이후 목포, 군산, 인천 등 옛 개항장의 기억을 복원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목포는 유달산 자락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 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역사자료 정리에 노력하고 개선 방향 제시에도 힘쓰고 있다. 그 과제로 현황과 활용에 대한 종합 관리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원형 유지를 위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목포지역 근대기 한국인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고 명칭에 대한 정립으로 적산가옥 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지속적인 학술행사 요구된다(최성환 2021).

안동지역의 경우 안동지역의 문화유산 특성에 대한 일반, 시대, 지역, 종교, 주제별 분류를 통해 안동지역 문화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고 안동지역 문화재 키워드로 유형문화재, 유교문화유산, 건조물 = 동성마을(종가) 이라는 3대 특성을 제시했다 (송준, 2013).

3)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에서 배우는 시사점

(1) 점·선·면 활용

평택의 문화유산 활용에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우선 점, 선, 면 활용 정책이다. 이는 먼저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충실한 자료정리와 연구, 마케팅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선으로 연계해서 유사성이 있는 소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문화유산 활용의 입체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유산 관리에서 지역형, 네트워크형 구분도 유효하다. 특히 지역문화유산 활용을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타 지역문화유산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발휘가 필요하다.

(2) 근대 산업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관심

최근 문화유산 활용의 큰 흐름가운데 하나가 근대산업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도 테이트모던은 발전소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한 사례이다. 독일은 에센 등 옛 루르공업지대의 탄광, 제철소 등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시켰으며, 프랑스도 옛 철도역의 문화공간 재생을, 스페인도 옛 방직공장을 카페와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유럽문화유산의 날은 국내에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문화유산 교육의 제도화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이나 역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외래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불러 올수 있다. (김도희 외 2018). 평택의 경우도 급격한 개발로 인해 도시정체성이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유산 교육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대개의 문화유산은 과거의 기록이기에 현장에 가면 관련 문화재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방문자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때로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야기의 활용이다. 관련 문화재에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방문객이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독대나 방망이와 같이 서민들이 사용하던 민구의 전시에서도

사람과 스토리텔링이 같이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 1단계는 민구를 그냥 나열해놓고 명칭과 실측정보만 소개 2단계는 민구와 환경을 고려한 전시로 항아리를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놓이는 장독대나 된장을 넣은 그림이나 영상을 곁들여 놓는 것이다. 3단계는 민구, 환경, 사람,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형태이다. 민구를 내세우면서도 주인공과 스토리가 있는 전시이다. 여기에 체험시설까지 해놓는다면 관람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활용공간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 주민과 민구의 관계, 사람과 스토리텔링에 주목하여 현장조사와 수집에서부터 꼼꼼한 정보 정리와 기록이 필요하다(김덕묵, 2020). 향후 평택지역문화재의 활용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등은 문화재 활용 방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4차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 기술은 방문객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흥미 유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문화유산 컬포츠 활용과 핸즈온 전시

문화유산 활용에서 체험도 중요하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유적인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을 방문하는 그리스 학생들은 현장에서 모형으로 실제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신전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체험한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컬포츠라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유무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넘어서 스포츠라는 형식에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를 채워서 그 활용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그것을 기획 구성하여 교육 실행할 지역문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컬포츠는 컬쳐와 스포츠를 융합한 조어로 문화유산을 제작하는 과정과 그것을 사용했던 문화를 스포츠와 결합시켜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

를 오늘날의 일상에 되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 접합석기 퍼즐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3종 경기는 지석묘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무기류, 토기류, 장신구를 만들고 공동으로 지석묘를 쌓고 제례의식을 공동으로 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와지붕 만들기는 한국 전통의 맞배, 우진각, 팔작지붕을 공동 협력을 통해 만드는 것이고 선사인의 하루 하이킹은 석기 등 도구제작, 암각화 그리기, 사냥과 식사 등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헌종 외, 2017). 최근 박물관에서도 석기 모형 등을 관람객이 직접 만져봄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핸즈온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문화유산 활용 현장에 컬포츠나 핸즈온 방식이 더욱 활발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평택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제언

1) 평택시 지정 문화재 현황

현재 평택시에는 보물 3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 도 유형문화재 3점, 도 무형문화재 2점, 도 기념물 9점, 문화재자료 5점, 향토유적 8점, 총 31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지정문화재의 2.9%이다. 평택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점, 경기도 유형문화재 3점, 경기도 기념물 9점, 경기도 문화재자료 5점, 시·도지정 보호수 25점, 향토유적 8점이 있다. 그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1점은 중요무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이다.(평택시사 2014)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는 현덕면 덕목리에 있는 평택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진위면 동천리에 있는 평택 만기사철조여래좌상, 도일동의 원릉군

원균선무공신교서가 있다. 평택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의 조각수법, 법의형식, 비로자나불이 유행했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조성 연대가 신라 하대로 보이는 불상이다. 평택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은 고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나말여초 평택지역의 정치변동과 호족관계를 연구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유물이다.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며 수많은 전공을 세우다 전사한 원균 장군이 권율·이순신과 함께 선무1등 공신에 녹훈된 사실을 증명하는 교서다(평택시·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도지정유형문화재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문화재인 점이 특징이다.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는 1659년에 세워졌다. 이 비는 대동법의 전국적 실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김육(1580~1658)이 죽은 뒤 호서지방에 실시한 대동법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김육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충청도 백성들이 세운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유형문화재 제132호 삼봉집 목판은 조선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것이다. 초기 판본은 생전인 1397년에 간행됐으나 1791년(정조 15) 왕명에 의해 재 판각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팽성읍객사는 동헌과 부속 관아건물이 유실돼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향교와 함께 팽성읍 객사리 지역이 옛 평택현의 읍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경기도지정 기념물은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원균 장군 묘·농성·안재홍 생가가 있다. 이대원(1566~1587) 장군은 임진왜란 직전인 1587년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토벌하다 순절한 무장이며, 원릉군 원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무장으로 선무1등 공신에 녹훈된 인물이다. 농성은 삼국시대 설, 신라하대 설, 고려 초 설 등 축성시기가 불분명하지만 팽성 지역 토호세력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문화재다.

민세안재홍은 일제하에서 해방정국까지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언론인·정치가·역사학자로 활약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운동 단체였던 신간회 총무를 역임했고 해방 후에는 좌우통합과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평택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성산성지, 자미산성지,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 덕목리성지는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됐다.

경기도지정 문화재자료 중 평택향교는 조선시대 평택지방의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으로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청소년의 향토사 교육에도 중요한 자료다. 진위향교 대성전은 병자호란 후 17세기 후반에 중건됐으며 19세기 전반에 보수된 건물로 조선후기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다.

홍학사 비각은 병자호란 당시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홍익한과 그의 아들 홍수원, 증손자 홍대성의 묘표를 모셔둔 비각이다. 홍익한은 조선 후기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택지역 인물사 연구뿐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상 연구에 필요한 인물이다.

평택 서천사 석조여래좌상은 2007년 9월 3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1호로 지정됐다. 1352년 나옹화상이 창건하고 1623년 인조반정 당시 전소된 후 1870년 동파비구가 미륵불을 발견해 사찰을 중창했다. 1953년 화재로 소실돼 1954년 법당을 지었다. 제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찰 중창시기로 볼 때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조각과 의습 등이 정확하게 표현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2013년 11월 12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9호로 지정됐다.

평택시 향토유적은 현재 제8호까지 지정됐다. 관방유적(봉수대) 1, 개인사당 3, 정문 1, 비각 1, 선사유적 1, 미술품(영정) 1점 등이다. 향토유적 1호인 포승읍 원정리 봉수는 조선시대 연안봉수 배치상황과 평택지역 군사통신 체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적이다. 사당은 봉화 정씨·수성 최씨·고령 신씨 사당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됐으며, 정문은 한온 장군의 충신정문, 미술품은 신숙주 선생 영정과 감실주독, 비각은 조광조와 오달제 선생 유허비가 모셔진 충의각이 지정됐다. 이들 유적은 평택지역의 역사·문화·인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들이다.

2) 평택시문화유산 활용 방향

향후 평택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바탕을 두고 활용에 앞서 유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활용 이후에도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적 활용시 적절한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 즉 유적지뿐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과 다른 문화유적, 유물,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가 요청된다. 아울러 단순한 방문이 아닌 이벤트 체험이 필요 하며 지역내 축제 등과 연계 흥미 유발을 검토하고 연계 관광권 수립 추진이 필요하며 유적 자체만이 아닌 관광 관련 교통과 숙박 시설, 볼거리 먹을 거리, 살거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윤덕향, 2010).

아울러 문화유산의 보전을 넘어서 문화유산 경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유형별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침이 세워져 있는 만큼 평택지역의 문화유산도 유교문화재형, 유적지형, 자연명승형, 근대문화재형, 무형문화재형, 역사인물지형, 공공시설형 (산성, 성곽, 관아) 등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야한다 (박신의, 2016).

기존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의 흐름과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평택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 정리 등 풍부한 자료 축적

점 선 면 문화유산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점 즉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연구자료의 축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택시의 문화유산 관련 정보는 대개 한 두 장 분량의 해설과 사진, 영상 자료, 위치 정보에 제한되어 있다. 이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회를 제약하고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10년 계획을 가지고라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역사 연구자 등이 참여해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경기도기념물 순서로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세부 연구 작업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20여 년 전 경남 진주시가 진주지역의 중요 문화유산을 단행본 형태의 시리즈로 지식산업사를 통해 발간에 풍부한 스토리를 축적한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강화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정리와 함께 동시대 다른 지역의 유사한 관련 문화유산의 특징을 함께 정리해서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더 풍부하게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물인 심복사 비로자나불이나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의 경우 같은 추정 시기 다른 곳의 비로자나불 현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고려시대 다른 지역의 철불의 특징과 철불의 등장 배경 등도 함께 소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원릉군 원균선무공신교서도 선무 1등 공신 교서라는 역사적 의미 이외에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역사 자료의 소개와 선무 1등, 2등, 3등에 책록된 다른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 등도 담는 다면 향후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런 개별 평택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작업은 자연스럽게 평택문화유산 사전 발간 등으로 이어져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 축적 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개별 문화재를 다양한 상관 선으로 이어 나가기

이런 점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선으로 연결되어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별 문화재 동선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북부, 남부, 서부권으로 문화유산을 나누고 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기타 볼거리, 평택의 둘레길, 자전거 도로 등을 연계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 경우 평택 북부는 덕암·부락산권, 서부는 마안산권등 지역 대표적인 산을 중심으로 분포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개별 문화유산 무인 작은 안내소 설치

셋째, 문화유산 방문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없는 현실을 고려, 평택시 차원에서 통일적인 사적지 현지 무인 안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문화유적 안내판 배치에 그치고 있으나 개별 방문객을 위해 문화유산 자료, 평택문화유산 스탬프 등이 비치된 무인 안내소를 운영하면 방문객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천주교 등에서 국내 천주교 성지 관련 사적지 안내를 위해서 무인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시의 경우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종교기관과 협력해 관련 문화유산 방문 행사를 통해 큰 호응을 받았다.

(4) 개별 문화재의 유형별 주제 분류와 집중 활용

유교 불교 등 종교문화재형, 유적지형, 자연명승형, 근대문화재형, 무형문화재형, 역사인물지형, 공공시설형 등으로 나눠서 문화재 유형에 맞게 집중적 답사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실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택의 경우도 진위향교나 팽성향교, 정도전 사당, 대동법시행비 등 유교나 만기사, 심복사, 원효오도성지 등 불교문화재 등 종교문화형, 평택

농악, 평택민요 등 무형문화재형, 안재홍 생가, 이대원 장군, 한온 장군 등 역사인물 지형, 산성과 봉수대, 팽성 객사 등 공공 시설형 등 특성에 따른 활용과 관람객 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

(5) 테마형 핵심 문화유산의 네트워크 활용

테마형 문화유산 활용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형을 넘어서 지역 간 연계와 문화유산의 네트워크 활용시 검토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평택형 메시지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원효 오도성지-삼봉집 목판-대동법 시행기념비-안재홍 고택 등을 잇고 이와 관련한 타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계한다면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주제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만도시로 발돋움하는 평택의 경우에는 해양군사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봉수대와 산성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방안 마련도 필요하고 이대원, 한온, 원균, 정담수, 방덕룡 등 조선 중기와 임진왜란기 남해바다를 지키며 왜적에 맞선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명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남해안 지역의 고흥, 해남, 남해 등 인물 관련 사적지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6) 평택근대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관심 높이기

해외와 국내 사례에서 본 것처럼 최근 들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평택의 경우는 특히 미군기지 관련 유적 등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팽성 CPX 훈련장, 고덕 알파탄약고 등 미군 관련 군사산업 유산과 일제 때 세워진 서정리 성당 등 문화유산 등의 보전과 활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특히 관련 시설에 대한 역사자료뿐 아니라 관련 증언 영상 등도 꾸준하게 확보한다면 후에 본격적인 활용 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지역 내 비지정문화재 발굴과 보전 활용도 관심

지역 내 비지정문화재 발굴과 보전 활용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출신의 민족운동가 민세안재홍의 경우 현재 생가로 지정된 곳은 1914년 민세가 일본 유학후 돌아와 분가해서 살았던 고택이다. 1991년 경기도 기념물 지정시 충분한 확인 없이 생가로 문화재 지정이 됐다. 실제 생가인 부친 안윤섭과 숙부 안태섭의 집은 현재 퇴락한 상태로 안재홍역사공원내에 남아있으나 관련 연구나 조사조차 없는 상황이다. 평택에도 급속한 개발과 함께 이런 비지정문화재가 다수 있을 것이기에 향후에 지속적인 지정 검토와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1934년 건립한 서정리성당은 평택 성당을 건립한 몰리마르 신부가 세운 것으로 평택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임에도 아직 그 역사적 가치나 의미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내포지방을 통해 유입된 천주교는 용인에서 안성으로, 다시 평택에서 송탄으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이러 사실들이 알려지고 관련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있어야할 것이다.

(8) 지역 문화재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여섯째, 이런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관협력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가는 관민협력이 아니라 민간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바탕으로 관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민관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문화유산 활용 관련한 상당수의 아이디어는 민간에서 나오고 민간을 통해서 실천될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문화유산 연대와 같은 조직이나, 수원 화성연구회의 활용에서 구체화된 정책들이 국가문화유산 정책이나 화성 복원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민간이 나서고 관이 뒷받침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민간이 재정적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에 나서는 것은 선구적 활동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다. 이런 민간협력 활동에는 특히 팔길이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팔길이원칙이 지켜진다면 평택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민관의 합심협력은 평택의 도시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평택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의 문화유산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 OECD 국가들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보존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홍보와 관광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날 제정, 근대 산업문화유산의 공간 문화재생에도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살펴보았다. 서울과 부산 등은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에 힘쓰고 있다. 창원과 목포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근대역사 공간을 활용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관광객 유치 등에 힘을 쓰고 있으며 안동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특성 분석을 통해 안동시 문화유산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 문화유산 활용의 집중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의 현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점→선→면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개개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집중연구에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 지역, 타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선 구축에 힘쓰고 다른 지역문화유산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입체적 활용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신에 걸맞게 근대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힘쓰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청소년들의 관심을 일깨우나가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문화유산과 컬포츠 활용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머리뿐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익히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이는 평택의 문화유산 활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택시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홍보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지방사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문화유산 관련한 공시적, 통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물, 경기도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순으로 매년 몇 개의 문화재를 정해 집중적으로 문화유산 포럼을 해내갈 필요가 있다. 평택문화유산의 날을 정하거나, 올해의 평택문화유산을 정해 꾸준하게 개별문화재 관련 역사와 스토리, 관련 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의 강화 노력이 구체화되면 주제, 시대, 지역, 종교, 지역문화자원, 지역둘레길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선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관련 문화유산 축제나, 평택 이외의 관련 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행사와 연계되는 면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비지정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활용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래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만큼 이런 신기술들을 문화유산 활용과 접목시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다.

평택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가운데 하나다.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 공장, 대한민국 5대 국가항구인 평택항 개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종합 계획과 우면산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건축가 김석철의 회고에 의하면 평택이 1970년대 행정수도의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당시 서해와 연결된 항만 개발 가능성에다가 오산미공군기지의 주둔은 커다란 강점이었다.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9개 도시가 항만도시인 것을 보면 항만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도시발전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인구가 불과 10여만이든 인천, 부산 등이 오늘날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 대표도시로 성장한 이유도 항만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있을 것이다.

이런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정주의식 강화이다.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소정체성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장소애나 장소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다. 평택의 수천 년 역사와 문화의 멋과 향기가 녹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평택의 문화유산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평택의 장소자산이다. 장소자산으로서의 평택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다. 이 글이 평택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김덕묵 (2020).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민구의 기록 보존 활용 방안 모색: 사람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민구를 구현하며. 민속연구 40-41. 79-113.

김도희, 안장혁(2018). 영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19(3).81-105.

김명석 (2014). 지역연계 인문학아카데미 개발 사례연구: 서울 종로, 성북, 도봉지역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2). 113-149.

김미영(20190. 안동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미래적 활용. 안동학 18. 303-324.

김시범 (2012).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김준혁 (2016).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활용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과 도시재생.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39-70.

박동호 (2018). 창원시 마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활용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 46. 168-194.

박신의(2016). 문화유산의 활용과 가치 제고 전략.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3-29.

손동기(2020). 프랑스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연구. 국제지역연구 24(2). 167-188.

송준(2013). 세계화의 대응전략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한국민속학 58. 203-234.윤덕향(2010). 익산지역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마한문화 18.171-180.

이근택, 이정진, 이상화(2014). 건축역사문화유산의 보전형태에 따른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 유럽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2(3). 343-361.

이종욱, 박현아, 박강아(2018).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한국콘텐츠학회지 18(6). 122-130.

이현정 (2019)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이탈리아 헤르쿨라네움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45). 187-217.

이헌종, 류호철(2017). 고고문화유산의 컬포츠 활용과 그 의미: 제주도 문화유산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193-223.

최경은 (2019) 일본문화유산의 관광 활용사례와 시사점. 한국관광정책 77. 116-121.

최성환 (2021). 목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용양상. 한국사학보 82. 175-214.

평택시·경기도박물관(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평택시사편찬위원회(2014). 평택시사.

일본에서 펼친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

김명섭/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차 례

1. 머리말
2. 성장과 도일
3. 일본에서의 의열투쟁
4. 중국 망명과 의열투쟁
5. 맺음말

1. 머리말

경기도 평택 출신의 독립지사인 원심창(元心昌, 1906. 12. 1~1971. 7. 4)은 제국주의 심장부인 일본 도쿄와 의열투쟁 현장인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투옥되어 해방되어 석방된 후 민단 창립과 평화통일운동에 투신한 항일투사이다. 그동안 아나키스트이자 반공산주의자, 반독재 통일운동가라는 이유 때문에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원심창의 65년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이회영과 신채호, 류자명, 박열 등 당대 아나키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제 항일투쟁과 반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해 반독재 자주독립·평화통일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와 경찰을 보유하고 있고, '1억 옥쇄'를 외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온몸으로 투쟁했으며, '철의 규율'을 강요하며 개인을 통제한 공산주의자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조국광복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동지들을 내 몸같이 아끼면서 자유와 평등, 평화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후 감옥에 나와서는 남과 북이 갈라져 동족상잔을 벌이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나가기 위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

다행히 그의 고향인 평택에서부터 그의 삶과 활동을 재조명하려는 노력과 기념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3대 해외 의열투쟁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육삼정의거'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李康勳·李奎昌 등 함께 한 동지들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1] 나아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총연맹에 맞서 우익 민족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의 결성과 반공활동, 남북한 평화통일운동도 조명되고 있다.[2] 다만 아직 원심창의 일본으로의 유학과 아나키즘 수용과정, 흑우회 재건과 노동운동 등 각종 항일활동과 중국 망명 등 행적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고찰되지 못한 편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원심창의 성장 과정과 사상수용을 비롯해 일본에서의 항일활동에 주목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유학생 당시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가 당시 수용하게 된 사상을 통해 일생 동안 품고 투쟁하게 된 지표가 된 사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조국과 세계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성장과 도일

1) 성장과 3·1운동 체험

원심창은 원주(原州)원씨 원성백계 33대손으로 1906년 12월 1일 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출생 당시는 충청남도 평택군 읍내면) 안정리 175번지에서 원흥본(元興本, 1878~1907)과 청해이씨(淸海李氏, ?~1944) 사이에

1)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숭실사학》 24, 2010 ;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집, 2012 ;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소산 이규창의 민족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2014 ; 박종연,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숭실사학》 32, 2014 ;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 ; 김인호, 《심지와 불꽃-원심창 이야기》, 평택문화원, 2018 등.

2) 성주현, 〈해방후 원심창의 민족운동과 통일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65, 2010 ; 나주현, 〈1955년 남북통일촉진협의회에 관한 연구〉《한일민족 문제연구》 11, 2006,

서 3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3] 장녀 성녀(元聖女, 1894~1987.1.14)와 장남 유학(元裕學, 1898.5.27.~1937.5.12), 차남 유경(元裕慶, 1901.1.30.~1974.8.17)에 이어 막내로 출생하였다.[4] 중국에서 활동 당시 쓴 이명은 원훈(元勳)이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안정리는 팽성읍내에서 멀지 않은 전원마을이었으며,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할아버지(元濟性, 1857~1930)가 침술이 능한 한의사로 팽성읍 일대에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중농의 가정이었지만, 부친인 원흥본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조부모와 홀어머니가 4남매를 키웠다.[5]

9세 때인 1914년 3월 소년 원심창은 집에서 멀지 않은 읍내면 객사리에 있는 평택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04년 팽성읍 남산리의 전통서당을 인수한 일제가 일본인 훈도(谷本榮吉)를 교장으로 삼아 1913년 3월 25일 4년제인 평택공립보통학교로 조선총독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6월 3일 개교하였다.[6] 칼을 찬 일본인에게 교육받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곳에서 4년 동안 학업을 마친 후 1918년 2월 이수하였다.[7] 원심창은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의협심이

3) 《원주원씨족보》에는 元興本의 생몰년을 1887~1941년으로, 부인 청해이씨는 1887~194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창의 〈병상일기〉에 부친이 28세에 요절할 당시 모친이 32세였다는 기록과 상이해 오류로 확인된다. 부친 원흥본은 원심창이 2살 되던 1907년에 별세한 것으로 여겨진다(원심창 아들 원형재(1956년생) 2021년 7월 18일 구술녹취).

4) 《원주원씨족보》권지3 ; 제적등본 등,

5) 〈병상일기〉(《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34쪽).

6) 《조선총독부관보》 제192호(1913년 3월 25일자).

7) 평택공립보통학교는 현재의 성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평택성동초등학교 개교 100년사》는 제1회 졸업생을 1922년 3월 배출한 것으로 잡고 있으며, 1918년 학업을 이수한 원심창을 성동초등학교 2회 졸업생으로 기록하고 있다(평택성동초등학교·평택성동초등학교총동문회 편, 《평택성동초등학교 개교 100년사》, 2013. 162~171쪽).

강하였다고 한다.[8]

소년 원심창에게 강한 민족의식에 눈 뜨게 한 사건은 무엇보다 조선 전국과 세계를 뒤흔든 3·1독립만세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평택지역에도 큰 영향을 받아 읍내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보통학교 졸업한 지 1년만에 일어난 원심창은 당시 14세의 소년이지만 만세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군의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9일 현덕면 각 동리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오송면과 청북면 일대 주민들도 야산과 평야 지대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힘입어 3월 11일 읍내 중심가인 평택역 사거리에서 수백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행진하였다. 오후 5시경 평택역 앞 사거리에는 수천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날 시위는 비전동에서 미곡상을 하던 이도상(李道相)이 주도했는데, 일본 경찰의 출동으로 현장에서 14명이 체포되었다.

3월 18일 진위군 읍내에서 보통학교 학생 20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21일에는 북면 야막리 주민들이 봉남리 주민들과 합세해 500여 명의 시위대를 이루어 면사무소를 습격한 후 면장을 앞세우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출동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주동자를 체포하였다. 3월 31일 오후 봉남리에서 500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북면사무소 앞과 경찰관 주재소 앞을 돌며 시위를 벌이다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4월 1일 평택 전역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밤 10시경 무수한 봉화를 올리고 시작된 만세운동은 약 3,000여 명이 평택역 앞에서 모여 새벽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다. 고덕면 율포리에서는 500여 농민들이 밤늦도록 시위를 벌였고, 북면 은산리에서는 주민들이 산 위에 올라가 독립

8) 이강훈, 〈원심창의사와 나〉《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14쪽.

만세를 외쳤다. 부용면 주민들도 이날 밤 부용산에 올라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부용면사무소와 평택역에 합류하기 위해 안성천 군문교로 진출하였다.[9] 시위대는 출동한 일본 헌병대의 무력진압에 맞서 여객으로 가장해 평택역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평택역전 만세운동은 3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컸던 시위였다.[10]

당시 평택군의 인구가 2만여 명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해 볼 때, 14세 소년인 원심창도 이날 부용면 만세시위와 평택역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후일 그는 4월 1일 부용산 만세운동에 대해 "산 정상에 올라서 목격한 광경을 일생 잊을 수 없다. 불타오르는 정상은 그야말로 장대한 화염의 바다였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그 광경이 얼마나 나에게 용기를 구고 격려해줬던가."라는 회상을 남겼다. 《병상일기》에서도 "소년시절 3·1독립운동의 맹렬한 민족항쟁 광경을 경험하였다. 불초 이 자식의 가슴에는 어언간 독립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회고 하였다. 이처럼 3·1운동의 경험은 원심창에게 평생 민족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하다.[11]

평택 주민들, 나아가 한민족의 3·1운동을 통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픈 인간의 의지'를 똑똑히 확인했지만, "불행하게도 문맹이었다."는 고백처럼 원심창은 현재 당명한 민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워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것으로 보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업에 매진하기로 하고 15세가 된 1920년 3월 서울 종로구의 중동학교(中東學校, 현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중동고등학교의 전신)에 진학하였다. 서울로 유학을 가

9)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자 ; 김방,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평택시독립운동편찬위원회, 2004.

10) 〈극비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5보), 고제9808호, 1919년 4월 2일자 ;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 489쪽; 강덕상, 《3·1운동》(1), 344쪽.

11) 〈3동지의 약력〉(《흑색신문》제23호, 1933년 12월 21일자) ;〈병상일기〉(《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34쪽).

게 된 계기는 맏형인 유학(裕學)이 당시 종로구 수송동에 설립된 수송(壽松)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숙식과 함께 중동학교로의 통학을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2]

중동학교는 1906년 관립 외국어학교 내 한어야학으로 설립되어 이듬해 중동야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1대 오세창 교장). 이어 5대 교장으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규동(崔奎東)[13]이 1914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한글학은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영어 등을 비롯해 산수와 부기 등 신식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로 유명하였다. 민족지사가 교장을 맡아 신식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첫 유학지로 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독립운동에 투신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원심창은 이곳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등을 주로 공부하고 졸업했다.[14]

이후 원심창은 고향으로 내려와 향후 진로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후 1923년 11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

12) 원심창 조카 원형재(1953년생) 구술녹취(2021년 4월 13일)

13) 최규동(崔奎東, 1882~1952)은 경상북도 성주(星州) 출신으로 구한말 정리사(精理舍) 수학연구과를 졸업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여 평양의 대성학교(大成學校)와 휘문의숙(徽文義塾) 등에서 교사로서 구국애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1906년 설립된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인수해 1915년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1920년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를 조직하여 노동야학총서 편찬과 지방순회강연, 교육 및 신문화에 대한 계몽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934년에는 국학 연구단체인 진단학회(震檀學會)의 찬조위원이 되었다. 1949년 제3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죽었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독립유공자공훈록》6, 1988).

14) 원심창이 중동학교를 2학년 무렵 중퇴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의사 원심창》의 약력란에 "중동중학에 입학하였으나 도중 독립투쟁에 전념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23년 3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라는 글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등학교는 정규 2년제 학교이며, 고교를 졸업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졸업한 후 1923년 일본대학에 입학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동고등학교에 문의한 결과, 당시의 학적부가 1950년 전쟁으로 소실되어 졸업생 명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면 안되겠다."고 상의 드렸다. 이런 결심은 큰형과 먼저 상의를 했고, 형도 모른 척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런 곤란한 운동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걱정을 하자, 평택역으로 나가 머리를 깍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떠났다고 한다.[15]

2) 도일과 아나키즘 수용

원심창은 배움에 대한 더 큰 꿈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품고 1924년 8월경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도쿄(東京)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16] 1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관동대지진로 인한 피해 시설을 복구할 노동력이 부족하데다 조선인대학살로 도쿄를 탈출한 한인들이 급증하게 되자, 일본 정부가 한인 청년들의 일본 유학을 적극 권장한 상황이었다. 원심창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에서 배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원심창을 비롯해 청년 28명이 이듬해인 1925년 4월 도쿄의 니혼(日本)대학 사회과 전문부에 입학하였다.[17] 도쿄 중심가인 간다(神田)구 시내에 위치한 니혼대학은 메이지(明治)대학, 주요(中央)대학 등 당시 민주주의운동이 꽃피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학풍에 영향을 받아 서구 민주정치와 신사상을 받아들이려는 진보적 학풍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일본대학에 재학하면서 원심창은 주로 도서관

15) 〈병상일기〉《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34쪽.

16) 원주원씨중앙종친회에서 발행한《의사 원심창》(1979)의 약력란에는 '1923년 일본대학 입학', '흑우회에 1922년말 참가'로 되어 있으나, 판결문(상해육삼정사건)〉(《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76쪽)에서는 '1924년 8월 동경시로 가서 1925년 4월 일본대학 입학'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17) 〈판결문(상해육삼정사건)〉(《의사 원심창》,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9, 76쪽) ;〈3동지의 약력〉《흑색신문》제23호(1933년 12월 21일자) ; 양일동,〈원심창전〉《자유연합신문》제93호(1934년 8월 5일자) ; 朴律來, 〈元心昌義士를 생각하며〉《統一朝鮮新聞》1971년 9월 22일자.

등에서 면학을 전념하였다. 일본에서 항일 의열활동을 함께 했던 한하연 등 동지들의 회고에 따르면, 원심창은 당시 신사상에 관심을 갖고 아나키즘사상의 대표자인 러시아 사상가 크로포트킨(1842~1921)와 일본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의 저서를 탐독했다고 한다.

"1923년 동경에 건너온 그는 날 때부터 학업을 좋아했기에 도서관 등에서 면학을 했는데, 그 사이에 크로포트킨과 大杉榮의 저서를 독파해 이론적으로 아나키즘을 신봉하게 됐고, 이윽고 아나키즘 실천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었다. 모든 것에 대해 과감한 그는 곧바로 중추 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늘 출판·결사의 자유가 없는 식민지 조국에 있어 혁명은 직접행동에 의한 적극적 투쟁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18]

이처럼 원심창은 당시 일본 신사상에 큰 영향을 준 크로포트킨의《빵의 약취》(1892년 출간)와《상호부조론》(1902년)를 비롯해 일본의 저명한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의 월간잡지《노동운동(勞働運動)》 등을 탐독하며 자유와 독립, 평등사상을 수용했다. 1920년대 당시 원심창과 같은 한인 유학생들에게 크로포트킨과 오스기 사카에의 저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1921년 당시 도쿄에서 고학생활을 했다가 아나키스트가 된 동지 최중헌(崔仲憲, 1902~?)의 회고에 잘 나타나있다.

고학생들은 인삼 행상으로 학비를 마련했는데, 아나키스트 학생으로는 정태성(鄭泰成)·김정근(金正根, 金墨)·박흥권(朴興權)과 나 최중헌이 있었다.(중략) 우리 네 사람은 오스기 사카에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정통 아나키스트로서의 길을 닦고 있었다. [중략] 우리는 아나키스트 단체의 조직을 서

18) 梁一東,〈원심창전〉《自由聯合新聞》제93호(1934.8.5.).

둘렀다. 어중이떠중이는 다 떼어내고 오스기 사카에가 주관하던 노동운동사(勞働運動社)에 자주 드나들던 골수 아나키스트들만 똘똘 뭉쳤다. 나는 노동운동에 사회혁명에로 나가는 대도(大道)가 있을 것으로 믿었으며....[19]

일본대학에 입학했지만, 고향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원심창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대학을 중퇴한 후 그는 노동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심창에게 아나키스트로의 삶을 걷게 한 계기는 1923년 9월 1일 도쿄대지진 와중에 벌어진 오스기 사카에 살해사건과 '박열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스기 사카에 살해사건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복구 보다 내란 방지를 위해 출동한 일본 계엄군의 야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헌병대위가 "평소 사회주의자의 행동이 국가에 유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무참히 구타해 질식사시킨 일이다. '박열사건'은 대지진의 혼란 와중에 조선인 6,661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만행을 박열과 불령사 회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한 사건이다. 1919년 19세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와 갖가지 고학생활을 하면서 첫 조선인 사상단체인 흑도회와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우회를 이끈 박열은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흑도(黑濤)》를 비롯해 《불령선인(不逞鮮人)》과 《현사회(現社會)》등 기관지를 펴내 일본 지식인들과 재일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의열단과도 연락이 닿았던 박열은 수차례 폭탄을 유입하

19) 1920년대 초중반 도쿄 진보조(神保町) 서점가에는 아나키즘을 비롯한 사회주의 성향의 서적,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 범람하였다.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상 잡지로는 오스기 사카에의 《노동운동》과 이시가와 산시로(石川三四郎)의 《자유연합(自由聯合)》, 농촌운동사(農村運動社)에서 발간하는 《소작인(小作人)》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자유 민권 사상이나 볼셰비즘 성향의 간행물도 다수 발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탐독할 수 있었다고 한다.(《韓國아나키즘運動史》, 284~285쪽 ; 최갑룡, 《어느 혁명자의 일생》, 이문출판사, 1995, 20쪽).

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관동 조선인대학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와 검찰에 의해 '대역사건'으로 조작되고 말았다. 하지만 폭탄유입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불령사 회원 대부분은 무혐의로 방면되었는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두 사람만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20]

원심창은 옥중에 수감 중인 박열을 자주 면회 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일본대학 사회과에 입학했던 옛 동지 박율래(朴律來)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한인들이 일본 당국에 의해 '대역사범'으로 낙인 찍힌 박열을 면회하는 것에 두려워했지만, 원심창은 한달에 두 번 이상 차입물을 싸들고 면회갔다고 하며 "시대의 분위기를 안다면 그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고 성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21] '박열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공감했던 원심창은 1926년 2월 6일 도쿄 대심원에서 열린 박열의 1차 공판장에서도 재판장의 일방적인 방청 금지 조치에 항의하다가 자신을 비롯한 7명이 체포당하기도 하였다.[22] 이후 원심창은 박열의 항일 유지를 받들어 흑우회 재건을 비롯한 각종 아나키스트 활동에 본격 참여하게 되었다.

3. 일본에서의 의열투쟁

1924년 무렵 원심창은 도쿄 나가노(中野)구 野方町에 있는 조선인학생 숙

20) 김명섭, 〈1923년 간토 조선인대학살과 '대역사건'〉《간토대지진 조선인대학살과 '대역사건'》학술토론회(2021.9.6)의 글을 참조.

21) 朴律來, 〈元心昌義士를 생각하며〉《統一朝鮮新聞》1971년 9월 22일자.

22) 《報知新聞》1926년 2월 27일자 ; 《戰前期警察關係資料集成》3, 不二出版, 2006, 90쪽

소인 계림장(鷄林莊)에서 주거하였다. 한인 고학생과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워진 기숙사였지만, 계림장은 한하연(韓河然)·정찬진(丁讚鎭) 등 아나키스트들이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점차 항일 고학생들의 생활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곳에서 원심창은 흑우회의 정찬진을 비롯해 후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같이 활동하는 박기성(朴基成) 등과 같이 기숙하며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을 펼쳐나갔다.

"당시 元心昌 동지는 같은 무정부주의 계통의 흑우연맹에서 지도적 간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같은 운동에 종사하며 鷄林莊(東京 中野區 野方町에 있는 조선인학생 숙소. 한때 조선인 무정부주의자의 거점이었고, 숙소감독은 일본인으로 유학생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었다. 그후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추방계획에 따라 相愛會라는 폭력단을 투입, 계림장사건이라 블리우는 대난동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심창 동지와는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23]

계림장에서 박기성 등과 함께 거주하며 고학생활을 하던 원심창은 도쿄의 유학생 중 무산학생들로 구성된 '무산학우회'에 가입해 임원으로 활동했다. 한인 유학생 중 집안의 어려움으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고학생 중심으로 1924년 12월 11일 조직된 도쿄 무산학생학우회(無産學生學友會)는 주의강령을 만들고 서무부·재무부·조사부·변론부·편집부·운동부

23) 박기성, 〈중국에서의 투쟁시대〉《의사 원심창》, 1979, 51쪽. 송세하(宋世何)는 1926년 봄 무렵 자신이 계림장에 들어갔을 당시, 이곳은 '아나키스트들의 소굴'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계림장에는 고학생과 날품팔이, 인력거꾼 등 다양한 직종의 조선인들이 80여 명가량 머물렀는데, 아나키스트들이 이곳의 운영권을 장악한 이후 불만이 있어도 모두 그들을 따랐으며 거기에 반항하면 따돌림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宋世何, 〈或る在日朝鮮無政府主義者の回想〉, 《思想の科學》제123호, 東京:一社.1971: 60~65)

등을 두었다. 원심창은 재무부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다.[24]

무산학생학우회는 일본으로 유학을 오려는 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업과 숙소를 소개시켜 주는 활동을 펼쳤다. 무산학우회는 1925년 4월 24일 오후 7시 1백여 명의 경찰들이 입회한 가운데 백여 명의 회원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국방문 순회강연대를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예산안과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어 위원을 선정했는데, 원심창은 김학원(金學元)·김정근(金正根)·한현상(韓晛相) 등 11명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25] 이어 그해 11월 1일 오후 1시 도쿄에서 열린 조선무산자동맹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규약 수정과 회원연령 제한 등을 결의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이날 원심창은 교양부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26]

또한 원심창은 홋카이도 오타루(小樽)고등상업학교의 군사교육 반대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 군사교육이란 아나키스트들과 한인들의 폭동에 대비해 가상으로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이 한인들에게 '제2의 관동대학살'을 예고하는 폭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원심창은 무산자학우회와 흑우회 등 9개 한인 단체들과 함께 11월 1일 강연회를 갖고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한편, 항의서를 일본 정부와 군사교육 당국자에게 제출하는 등 규탄하는 활동을 펼쳤다.[27] 이 무렵 원심창은 흑우회를 재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재건 흑우회는 박열과 함께 불령사 활동을 했다가 방면된 김정근과 장상중·최규종과 원심창 등 신진 유학생을 중심으로 점차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즉 1924년 9월 조선인

24) 〈무산학우 창립 동경에 잇는 류학생〉《동아일보》1924년 12월 23일. 무산학생학우회에서 만든 주의강령은 다음과 같다. 1. 무산학생은 상호부조할일 2. 自助修學의 정신을 수양할 일 3. 완전한 사상을 세계적으로 광구실현할일.

25) 〈근백 경관 엄중 경계리 무산학우 정기회〉《시대일보》 1925년 5월 31일 ;《朝鮮日報》 1925년 5월 31일자 .

26) 〈東京無産同盟 定總〉《시대일보》 1925년 11월 6일자.

27) 〈假像敵 문제로 軍教규탄연설〉《東亞日報》 1925년 11월 2일 ; 11월 7일자.

대학살 1주기에 맞춰 열린 '진재피해희생자추도회(震災被害犧牲者追悼會)에 흑우회 명의로 정식 참여하였고, 13개 한인 단체들과 함께 10월 '조선기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를 발기하였다. 흑우회는 이듬해인 1925년 9월 1일과 20일 도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념추도회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일월회 등 12개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가하였다.[28] 재건 흑우회에서 함께 활동한 이홍근에 의하면, 원심창을 비롯한 김정근·장상중·이홍근 등이 흑우회 재건 문제를 상의해 조우시가야(雜司谷區)에 2층짜리 건물을 얻어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김정근, 원심창 나(이홍근) 세사람이 장상중 동지를 만나 제일선에 나서서 하는 일은 우리들이 담당할 터이니 흑우회 회관(사무소)을 하나 마련하도록 간곡히 부탁하였다...(중략) 처음에는 다까다 조시가야(高田 雜司谷)에 2층 건물 방 다섯 개짜리를 얻었다가 戶塚源(兵衛 141번지)의 단층집으로 옮겼다. **여기에는 장상중 내외와 원심창, 그리고 내(이홍근)가 함께 살았는데, 이후 수년동안 재건 흑우회 발전의 총본영이 되었다.**

이들은 흑우회 간판을 달고 활동한지 1년 후에 단층집으로 옮겨 재기를 꾀하였다. 이곳에서는 장상중 내외와 원심창·이홍근 등이 거주하면서 동지 규합에 적극 나서 재일 아나키스트들의 총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29]

28) 《東亞日報》 1924년 10월 22일자 ; 1925년 9월 6일 ; 9월 22일자.

29) 이홍근, 〈역사적 직군에의 동참〉《국민문화회보》11호, 1983, 9쪽. 연락 사무실을 가진 흑우회는 점차 재일한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동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후일 중국으로 건너가 청년전지공작대 대장을 맡은 나월환(羅月煥)도 유학 도중 이곳을 찾아와 교류했다. 유학생인 최갑룡도 당시 흑우회에 자주 들러 동참하게 되었는데, 주로 일본 아나키스트들의 강연회를 방청하거나 노동절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고 회고하였다(최갑룡, 《어느 혁명가의 일생》, 이문출판사, 1995, 20~23쪽).

이처럼 사무실 개설과 새 회원의 충원으로 조직을 개편한 흑우회는 1926년 2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공식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날 출석자는 8명뿐이었으나, 총회에서는 동지의 규합 방침과 잡지 발행을 결의하였다. 참석자들은 1월에 조직된 미에(三重)縣 조선인학살사건 조사회의 활동보고와 일본 정부의 치안유지법 및 노동조합법 제정에 대한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서둘렀다.[30]

흑우회는 1926년 1월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전국 단체인 흑색청년연맹에 가입하였다. 1월 30일 창립한 흑색청년연맹은 전국 17개 사상단체와 7개의 노동단체 700여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행사 후 도쿄 긴자(銀座)거리에서 시위운동을 벌여 간부 10여 명이 경시청에 검거되기도 하였다.[31]

흑우회는 또 1926년 3월 29일 흑색청년연맹의 후원을 받아 조선문제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제국대화불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이와사 사쿠타로를 비롯해 곤도 겐지(近藤憲二), 핫타 슈조(八太舟三), 모치즈키 가쓰라(望月桂) 등 저명한 아나키스트들이 강사로 초대되었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초청 강사들은 식민지 문제의 해결이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화를 막는 길임을 역설하여 경찰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하고, 항의하는 연사들은 물론 참가자들도 검거되었다.[32]

1926년 5월경 원심창을 비롯한 흑우회 동지(장상중·육홍균·김정근·정태성·한현상·최규종·이홍근·최규동·이원세 등)들은 아나키즘 선전을 위한

30) 〈三重縣사건 조사원 파견 흑우회에서〉《시대일보》1926년 1월 20일자. 흑색운동사의 주소는 동경 高田町 雜司谷 431번지이다(朴慶植 編,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1, 1975, 210~211쪽).

31) 《동아일보》1926년 1월 22일 및《조선일보》같은 일자 ; 〈좌경단대검거〉《동아일보》1926년 2월 3일자.

32) 〈조선문제강연 돌연해산, 연사도 검속〉《조선일보》1926년 3월 31일자.

출판사로 흑색운동사(黑色運動社)라는 간판을 걸었다.[33] 흑색운동사는 그해 7월 11일 일본의 전국적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색청년연맹이 주최하는 무산정당비판박멸 연설회에 조선인 대표로 원심창과 이호(李浩) 두 명을 파견하였다. 원심창 등은 이날 연단에서 연설하였는데, '불온언사'가 있다고 하여 검거되기도 하였다.[34] 이해 7월 흑색운동사의 원심창 등은 기관지 《흑우》(한글판)와 《자유사회》(일본어판), 그리고 팜플렛 《소작농》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이 아나키즘을 선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경시청으로부터 발매와 배포를 금지 당하였다.[35] 흑우회는 그해 9월 1일 저녁 도쿄 계림장에서 무산자와 함께 '관동진재피해동포 추도회'를 주최하였다. 이날 흑우회의 대표 김정근(金正根)이 추도문을 낭독하고 실제 경험담을 나누며 작고 동포를 위문하였다고 한다.[36]

한편 이 무렵 1926년 7월 23일 박열의 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가 우쓰노미야(宇都宮)형무소의 도치키(枋木)지소에서 옥중 '자살'했다는 급전이 동지들에게 전해졌다. 이에 원심창 등 동지 7명은 곧장 기차를 타고 형무소로 달려가 사인 규명과 사체인도를 요구하였다. 후세 다쓰지 변호사와 흑우회 회원들은 매장되었던 후미코의 유해를 인수받아 도쿄로 돌아와 화장하고, 후세 변호사의 집에 보관하였다.[37] 그러나 유골의 조선이송과 이로 인한 반일감정의 고조에 위협을 느낀 경찰이 유해를 강제로 탈취하였다. 이 와중에 양측

33) 《한국아나키즘운동사》, 277쪽. 그후 박열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장상중 원심창 등은 "11월 12일 불령사로 개칭하고 기관지 《흑우》 2호를 발행하였다"라고 하였다(坪江汕二, 《개정증보 조선민족독립운동비사》, 고려서림, 1986, 286쪽).

34) 《고등경찰관계연표》,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204쪽.

35) 〈흑우회 발행한 '팜플레트' 압수〉《시대일보》 1926년 7월 7일자.

36) 〈일본대진3주년 피해동포추도회〉《동아일보》1926년 9월 6일 ; 《조선일보》같은 일자.

37) 陸洪均, 《金子文子 의문의 자살과 소위 '유골분실사건'의 경위》(작성연도 미상)

의 몸싸움을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김정근과 무쿠모토 운유(凉本運雄), 구리하라 카즈오(栗原一男) 등이 검속되기도 하였다.[38] 가네코 후미코는 죽어서도 경찰의 감시와 기만책 아래 배회하다가 죽은 지 약 4개월 만인 11월 5일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후 1926년 11월 원심창 등 흑색운동사 동지들은 이를 흑색전선연맹(黑色戰線聯盟)으로 단체이름을 바꾸어 반제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어 원심창·장상중 등은 그해 12월 12일 박열의 사업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흑색전선연맹을 불령사(不逞社, 또는 흑우사)로 개편하고 기관지로 《흑우》를 계속 발행하였다.[39] 그러나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자금난에 허덕였던 연맹은 1927년 2월 흑풍회(黑風會)로 개칭하였다.

이 무렵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일본 경찰 수십명이 원심창 등의 기숙사인 계림장을 강제 수색하며 태도 불온하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경찰서에 거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원심창·김경준(金慶俊) 등이 1927년 2월 17일 도쿄 긴자(銀座) 거리에 나가 〈이런 포악한 일을 보라, 일본 민중에게 하소연하노라〉는 격문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거리 연설을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일로 일본 나가노(中野) 경찰에서 원심창

38) 〈金子文子 유해 운반도중 검속〉《東亞日報》 1926년 8월 4일자. 김정근(본명 金默)은 가네코 후미코 유골반출 사건으로 검속되어 곧장 조선에 보내져 진우연맹 사건으로 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감옥에서 복역하였다. 1928년 4월 일제는 폐결핵에 걸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자 그를 출옥시켰으나, 집 주위에 경찰의 엄중한 경계를 세운 가운데 다량의 객혈 끝에 8월 6일 사망하였다고 한다.

39) 조선사상통신사 특파원 박상희(朴尙僖)가 쓴 탐방기에 의하면, "현재 흑풍회(黑風會)에는 '흑우사'라는 간판도 걸려 있는데, 흑우사는 이전 흑우회 시절에 기관지 《흑우》를 발행하였는데 근래에 중지되었다"라고 적혀 있다(朴尙僖, 〈朝鮮東京人團體歷訪記〉, 《朝鮮思想通信》 1927년 12월 24일). 따라서 흑우사는 또 다른 사상단체가 아니라, 재건 흑우회 내부의 출판사로 여겨진다.

등 10여 명의 계림장 학생들을 체포해 강제 구금하였다.[40]

흑풍회는 이후 친일 세력인 상애회와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사상 활동과 노동운동에 주력하였다. 당시 도쿄의 아나키스트들은 한인 노동자들에게 취업알선을 이유로 갖은 협박과 갈취를 일삼으며 괴롭혀온 상애회(相愛會)의 만행에 맞서 잦은 폭력 대결을 거듭해왔다. 이에 비해 원심창 등 흑풍회 회원들은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 힘썼고 그 결과 자유노동자들의 단체인 조선자유노동자조합(朝鮮自由勞動者組合)을 결성한데 이어 당시 최대 노동단체인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을 우의 협력 단체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원심창은 최락종(崔洛鍾)과 최상열(崔尙烈) 등 자유노동자들과 함께 1927년 9월 도쿄 이시가야구(小石川區)에서 한인 위생인부들을 결속시켜 동흥노동동맹을 조직하였다. 동흥노동동맹은 원심창을 비롯해 이홍근·장상중 등으로 선전대를 편성해 조선 노동자들의 합숙소를 순방하고 기관지인 《자유사회》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잡지는 매호마다 발매금지를 당했지만,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선전지로 활용하였다.[41] 이후 흑풍회는 보다 강력한 반일 반공산주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1928년 1월 15일 흑우연맹으로 확대·개편하였다.

40) 〈東京조선인학생단 격문살포 가상연설〉《동아일보》1927년 2월 21일 ; 《신한민보》1927년 3월 24일자.

41) 《韓國아나키즘運動史》, 278쪽. 원주원씨중앙종친회에서 편찬한 《의사 원심창》의 약력(71쪽)에 따르면, 1923년 일본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해 곧 아나키스트들이 만든 흑우회와 1924년 (조선)동흥노동동맹 결성에 참여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하지만 흑우회 초창기(1922~23년) 활동자료에는 원심창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1925년 4월부터 본격 등장한다. 또 조선동흥노동동맹은 1924년 9월 4일 창립되었지만, 당시는 공산주의경향의 색채가 강했다가 1927년 9월 18일 제3회 정기총회 이후에야 아나키즘 경향으로 노선변경을 공식 결의했다. 흑우회 활동과 조선동흥노동동맹에 관한 연구로는 김명섭, 앞의 책, 131~217쪽 참조.

이들은 조직을 연맹체제로 개편한 이후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였다.[42]

흑우연맹은 1928년 창립부터 1936년 해체시기까지 항일투쟁은 물론 반공산주의 활동과 선전활동, 노동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원심창과 오우영·이시우 등은 1926년부터 친일단체인 상애회와 줄곧 폭력적 대립을 거듭해 왔는데, 1927년 조선자유노동조합 회원 폭력사건에 맞서 집단다툼이 있었다. 이에 상애회가 1928년 2월 흑우연맹 사무실과 맹원들의 기숙사인 계림장(鷄林莊)을 습격하기에 이르자, 아나키스트들의 반격으로 퇴치하였다. 일본경찰의 후원 아래 권총과 일본도·단도 등으로 무장한 채 공공연히 자행된 상애회의 폭력은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아나키스트들의 정당방위가 입증되고 말았다. 이러한 반일·반공산주의 활동도 원심창의 민활한 움직임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43]

흑우연맹은 신간회를 이용해 공산주의를 전파하려는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웠다. 1929년 2월 9일 원심창과 이혁(李革) 등은 재일노총 도쿄 노동조합을 습격해 수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발단은 회원의 탈퇴와 이적문제로 빚어졌지만, 더 근본원인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과 유일당 결성에 대한 반대운동 때문이라 하겠다.[44]

이러한 공산주의계열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해 6월 7일 춘계 운동회 준비를 위해 신간회 동경지회 사무소에서 협의 중이던 학우회 간부들을 습격

42) 흑우연맹의 개편 당시 사무실은 도쿄 '下落合町 下落合 630'이었으나(《黑色青年》 18호), 이듬해 '外高田町 高田 783'으로 이전하였다.(《黑色青年》 호외)

43) 梁一東, 〈상해폭탄사건의 동지 원심창전〉《自由聯合新聞》1934년 8월 5일자. 박기성은 상애회가 계림장에 폭력단을 투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당시 자신과 원심창이 도쿄 中野區 野方町에 있는 조선학생숙소인 계림장에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남화한인청년연맹 동지 朴基成, 〈중국에서의 투쟁시대〉(《의사원심창》51쪽 ; 〈元心昌義士를 생각하며〉《統一朝鮮新聞》1971년 9월 15일자).

44) 《朝鮮日報》1929년 2월 19일 ; 4월 1일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東京學友會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국내에 발생한 가뭄피해에 대해 흑우연맹 회원들이 여러 차례 운동회 중지와 구호 활동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회 측이 운동회 개최준비에만 열중한 것에 반성을 촉구하고자 항의방문하면서 발생하였다.[45] 이날 신간회 도쿄지부를 찾아간 흑우연맹의 원심창·金炳運·韓河然·李時雨·河璟尙·梁相基·崔福善 등 회원들은 학우회의 비민족적 행위와 공산주의자들과의 처사에 항의하다가 폭력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자유노조 조합원 1명(權尙根)이 사망하고 신간회측(柳元祐·金基錫)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46] 이 사건을 계기로 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는 학우회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춘계운동회를 중단하는 한편, 기근구제를 위한 기금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47]

'동경학우회 사건'으로 인해 원심창·최복선·한하연 등 7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그해 9월 8일부터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사실심리를 끝내고 판결은 1930년 1월로 미루어졌다. 형무소에 수감된 백병련(白炳連)은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원심창을 비롯해 정찬진과 한하연·최복선·정진모 등 5명은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변호사의 알선에 의해 1930년 4월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48]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일제 당국의 감시에 일본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창은 중국으로 망명해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

45) 《중외일보》1929년 6월 9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동경 시외 호총정 취방 199번지 조선학생학우회관이라고 한다.

46) 《동아일보》1929년 6월 9일자. 《韓國아나키즘運動史》(279~280쪽)에는 1928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여겨진다.

47) 《朝鮮日報》1929년 6월 24일.

48) 〈東京충돌사건 5인이 보석〉《조선일보》1930년 5월 6일자. 동경학우회 습격사건은 1932년 1월 19일 공판을 재개하였으나 3명이 출두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일본 법원은 1933년 11월 10일 갑가지 공판을 열어 김병운에게 구형 8년에 징역 5년을, 변영우에게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했다(《흑색신문》제23호, 1933년 12월 21일자).

을 꾀하고자 하였다. 일본을 탈출해 중국에서 직접 항일전쟁에 참전하고자 했으니, 그의 나이 25세의 일이다.

4. 중국 망명과 의열투쟁

1930년 4월 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원심창은 귀국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독립활동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는 많은 준비 끝에 1931년 봄 비밀리에 조선을 경유해 북경으로 망명하였다. 이 무렵 가족은 물론 그의 동태를 내밀히 감시하던 일본 경찰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히 집을 빠져나와 평택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나아가 국경수비대의 삼엄한 검문을 피해 심양~길림 거쳐 마침내 1931년 2월경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였다.[49]

베이징에 도착한 원심창은 민국(民國)대학 학생인 유기석(柳基石, 1905~1980)과 정래동(丁來東, 1903~1985) 등과 교유하며 이용준(李容俊, 일명 千里芳,田理芳)을 소개받아 크로포트킨의 저작을 함께 읽으며 아나키즘 사상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1931년 5월 초순경 이용준과 함께 텐진(天津)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곧 이회영·류자명 등을 만나 회합하고, 그들의 권유에 따라 5월 15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총본부인 남화한인청년연맹(이하 '남화연맹'으로 약칭)에 가입하였다.[50] 이러한 과정은 일본 정보보고서나 이용준의 판결문에서 나와 있지만, 흑우연맹 동지인 양일동(梁一東)이 작성해 일본 아나키스트 기관지인 《자유연합신문》에 기고한 〈상해폭탄사건의 동지 원심창전〉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49) 京城本町警察署長, 〈無政府主義者行動關에 관한 件〉(1932.10.24.)에 의하면, 흑우연맹 소속의 원심창은 '1931년 봄경 上海로 도항한 이래 소재 불명(도주)'으로 기록되어 있다.

50) 京畿道知事, 〈무정부주의자 李容俊취조의건〉(1939.4.27.) ; 〈李容俊판결문〉(1940.1.19.)

그의 쉴틈 없는 활동이 우리들 운동에 큰 공적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사이 그는 수차례 투옥되어 일본에서 최후의 전투였던 학우회사건으로 징역 1개년 후 보석되었으며 비장한 결의 아래 1930년, 官犬의 감시를 곁눈질하며 일본에서 탈주해, 조선을 경유하여 북평(북경)에 도착했고, 다시 익년 5월 조선독립운동의 총책원지인 상해에 왔다. 이곳에서 그는 곧바로 南華韓人青年聯盟에 가맹하고, 청년동지의 결합과 무정부주의 선전 및 지배자의 동향 探察 등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51]

당시 상하이에는 1930년 4월경부터 류기석(柳基石) 등이 남화연맹을 조직하여 청년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직후 북경의 원로 아나키스트인 이회영을 비롯해 만주를 탈출한 정화암·백정기·엄형순·이달 등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탈출한 원심창을 비롯해 박기성과 이하유·나월환 등이 남화연맹에 가입하였다. 이 무렵 동지들의 생활이 매우 궁핍하여 원심창은 백정기·박기성·엄형순·김성수·이달·김야봉 등과 함께 방 하나를 얻어 자취했다고 한다.[52]

남화연맹은 곧 조직개편을 개편하여 류자명을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선정하고 산하단체로 남화구락부를 두어 남화통신을 발간하였다. 또한 연맹의 강령과 규약, 선언문을 작성하여 동지들을 적극 규합하였다.[53] 그해 10월 연맹은 중국 국민당 원로이며 아나키스트 동지인 이석증(李石曾)·오치휘(吳致煇) 등과 연합하여 국제적 의열단체인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였다. 주로 적의 기관파괴와 요인암살 및 친일분자 숙청, 항일선전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이 행동대는 중국인 동지 왕아초(王亞樵)와 화균실(華均實) 등이 재정과 무기를 공급해 주었고, 재북경동북의용군후원회(在北京東北義勇軍後援會) 등 중국 항일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54] 항일구국연맹은 일제와 친일분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흑색공포단(Black Terrorist Party, 일명 B·T·P)이라는 직접행동대를 조직했다.

원심창은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입한 후 1931년 10월부터 서기부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서기부에서 청년동지들의 규합은 물론 각종 정세감찰 및 보고와 항일 아나키즘 선전 등의 중책을 맡았다. 일본말도 유창할 뿐만 아니라 일본 동지들도 많이 알고 있어 그들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55] 이어 그는 연맹의 항일사상과 아나키즘을 선전하여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편제된 선전부에서 활동하였다. 선전부 위원으로는 연맹의 대외 책임자를 맡은 류자명(일명 유흥식)과 류기석과 함께 원심창이 맡은 것으로 보인다.[56]

이후 선전부의 주요 항일 선전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1931년 8월 20일 국치일을 맞아 남화한인청년연맹 명의로 격문을 배포했다.〈8월 29일은 조선민족이 이족의 노예가 된 날이다. 분발하여 적의 아성을 쳐부수자〉는 제목의 격문을 1백여 매를 등사한 그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상해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원심창은 이듬해인 1932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선전문을 우송하였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노동절의 의의

51) 양일동,〈원심창전〉《자유연합신문》제93호, 1934년 8월 5일자.

52) 이규창, 《운명의 여진》, 클레버, 2004, 218쪽 ; 박기성,〈중국에서의 투쟁시대〉(《의사 원심창》, 51~52쪽).

53) "혁명적 수단으로 현재의 사회조직을 철폐하고 상호부조의 절대적 자유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통치권을 탈취하여 조선독립을 성취하고 일본의 입헌군주제를 철폐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일반사회의 공유에 넘기고 일본 및 조선에서 무정부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원심창 외 2인 판결문〉 참조).

54) 이규창, 《운명의 여진》, 클레버, 2004, 220~224쪽 ; 김정명 편,〈1937年の在支不逞朝鮮人の不穩策動狀況〉, 《조선민족운동》II, 607쪽.

55) 〈3동지의 약력〉《흑색신문》제23호(1933년 12월 21일자) ;〈원심창 외 2인 판결문〉.

56) 京畿道知事, 〈무정부주의자 李容俊취조의건〉(1939.4.27.)

와 아나키즘 사상을 담은 선전문 1백매를 제작하여 상해와 북경·천진의 조선인들을 비롯해 조선과 일본·대만 등지에 발송하였다.[57]

또한 1933년 3월 1일에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선전문을 우송하였다. 원심창은 조선독립기념일을 맞아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에서〈일본 제국주의를 저주하며 모든 사유재산제도와 권력을 파괴하고 무정부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로 쓴 선전문70여 매를 등사하여 프랑스조계 내에 있는 조선인에게 우송하였다. 원심창은 일본에서 같이 유학한 박기성 등과 함께 각종 기념일에 격문을 살포하고 출판물을 발행해 선전하였는데, 이 선전활동 쓰인 자금은 주로 상해에 거주하는 동포 실업자들로부터 갹출하였다고 한다.[58] 원심창은 항일 선전활동 뿐만 아니라, 항일구국연맹의 흑색공포단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흑색공포단에서의 의열투쟁은 다음 발표에서 상술하기로 기약한다.

5. 맺음말

중국 천진 일본영사관 폭탄투척 사건과 주중 일본공사 아라요시 아키라(有吉明) 암살의거로 인해 투옥된 원심창은 1945년 10월 10일 출옥할 때까지 영어의 몸이 되었다. 옥중에 갇혀있는 12년 7개월 동안 원심창의 가문에게는 불행한 사태가 겹쳐 일어났다. 원심창을 가장 믿어주고 후원해준 맏형 원유학(元裕學)이 1937년 5월 어느날 국내의 강원도에서 일본 경찰의

57) 〈BTP 사건이전의 재중한인무정부주의자운동개항-남화한인청년연맹〉《흑색신문》제23호(1933년 12월 21일자).

58) 박기성,〈중국에서의 투쟁시대〉(《의사 원심창》, 51~52쪽)

조사를 받으러 간 후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59] 이어 그의 어머니인 청해이씨(淸海李氏)도 1944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형님에 이어 어머니를 잃었음에도 무기수로서 곁을 지키지 못한 한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의 평생동지인 이강훈은 "그는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 희생하려는 봉사정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으리만치 독특한 마음씨의 소유자"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성격은 지극히 온순하고 인자하였지만, "조국과 민족에 해를 끼치는 무리에 대해서는 강한 적개심과 용맹을 갖추어 민족도의심과 지용(智勇)을 겸비했다"고 평하였다.[60] 원심창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철저히 저항하면서 자유와 평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해 애쓴 선조들의 꿈과 희망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59) "백부님(元裕學, 1898~1937)은 서울 종로구 수송초교에 이어 1937년 당시 강원도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어느 날 학교로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사인이 무엇인지 왜 끌려갔는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입니다."(원심창 조카 원형재(1953년생) 2021년 4월 13일 구술녹취)

60) 《의사 원심창》, 14쪽.

오암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1)]

성주현/평택박물관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천도교 입교와 수원교구
3. 3·1운동 참여와 '제암리학살사건'
4. 신간회 경성지회에서의 활동
5. 종교인으로서의 이병헌
6. 맺음말

1. 머리말[1]

> 1919. 1~2月 서울에서 天道敎 敎祖 孫秉熙의 명을 받아 독립운동자금 5.000圓을 李昇薰에게 전달하여 기독교계의 독립만세운동을 지원하고 동년 2월 27일 普成社에서 獨立宣言書의 인쇄를 돕고 이를 비밀리에 天道敎堂으로 운반한 후 다시 전국 각지에 배부케 하였으며 3월 1일 泰和館에서 獨立宣言式 거행 당시 진행상황의 기록을 담당하는 한편 塔洞公園에 운집한 학생 시민들과의 연락을 맡아 活動하고 서울시내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도 참가하였으며 民族代表들의 被逮 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됨.[2]

위의 인용문은 오암(梧菴) 이병헌(李炳憲)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이다. 오암 이병헌은 천도교인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세시위에 직접 참여하였고, 신간회운동에 참여한 민족운동가이다.

이병헌은 서세동점기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1895년에 태어났다. 일찍이 동학에 입도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계대교인으로 동학사상을 수용하여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의 민족주의 사상에 따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릴 적 수원에서 생활한 이병헌은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주요 교역자로서 활동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초에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진출한 이후 3·1운동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

1) 본 글은 〈일제강점기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수원역사문화연구》1, 수원박물관, 2011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2)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였고, 일제의 검거령을 피해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7년 2월 신간회가 결성되자 경성지회 설립준비위원 및 총무간사를 맡아 설립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부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3]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에 참여하여 정치인으로, 1949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장으로 공직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에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행정신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환도 후에는 시사시보사를 운영하는 등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밖에 민주당 창당위원, 신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한족회 부회장,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한중협회 중앙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였다. 말년에는 천도교로 돌아와 1955년 1월부터 7년간 부교령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천도교 최고 예우직은 종법사에 추대되었다. 1960년에는 민의원에 당선 정계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4]

이처럼 이병헌은 평택과 수원, 서울을 넘나들면서 종교인, 민족운동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으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의 한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병헌과 관련된 자료는 아직 집적된 것이 없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5]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없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평택, 수원과 관련된 인물로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는 분산된 조각 조각의 자료를 모아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의 복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병헌의 민족운동의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 이러한 공로로 이병헌은 1993년 8월 15일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하였으며, 1995년 10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4) 성주현, 〈신앙보국의 화신 이병헌(李炳憲)〉, 《신인간》575, 1998.7, 80-85쪽.

5) 이병헌과 관련된 자료는 《천도교회월보》,

2. 천도교 입교와 수원교구

이병헌은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린 이듬해 1895년 11월 20일 아버지 이민도와 어머니 남원 양씨의 4대 독자로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445번지에서 태어났다.[6] 본관은 함평, 도호[7]는 오암, 필명은 석운(石雲)이었다. 그가 태어난 권관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서해안과 마주하는 마을 끝에는 닭 머리를 닮은 계두봉, 마을 뒷편에는 옥녀봉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이 두 봉우리는 3·1운동 당시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횃불을 올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 태어난 곳은 진위군 현덕면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에 속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중심지는 안중이지만 수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수도권과 더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의 아버지 이민도는 원래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28세 되던 해 동학에 입도하였다.[8]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시기는 1874년으로 1870년대 중반이었다. 이 시기 호남인으로 알려진 안교선의 포교로 안승관, 김정현 등이 동학에 입교하면서 수원지역에서 동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9] 이민도는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지 5년 후인 1879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 시기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는 시천주의 인간존중과 척양척왜의 보국안민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민도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학에 입도한 이민도는 진위와 수원 등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년 뒤인 1880년 접주로 임명되었으며, 1893년 척양척왜를

6) 《함평이씨 대동보》.
7) 道號는 천도교인에게 내려주는 號이다.
8) 〈환원일속〉, 《천도교회월보》 127, 1921.3, 118쪽.
9)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1926.11, 29쪽.

기치를 내세운 보은집회에 신용구와 함께 수원지역 동학교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혁명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혁명 당시 기호대접주 안승관을 비롯하여 김정현, 김원팔 등이 수원지역에서 기포한 바 있는데, 척왜양을 기치로 한 보은집회에 참가한 이민도 역시 동학혁명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후 이민도는 수원교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진위군 현덕면 종리사에 선임되는[10] 한편 1912년 4월 15일부터 3년간 전개한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다. 이민도는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하던 1913년에는 북수리에 40여 칸의 교당을 마련하였다.[11] 당시 마련한 교당은 정조가 수원에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국의 부호를 유치할 때 지은 유서 깊은 8부가 중의 하나였다.[12]

이외에도 이민도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3월 22일 진위군 현덕면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예비검속을 당하였다.[13] 이민도는 봉훈, 교훈, 교구장 등으로 활동한 후 1921년 2월 14일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14].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헌은 16세 때인 1911년 6월경 수원교구 제544 강습소에 입학하여[15] 근대적 학문과 종교적 소양을 쌓았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근대적 교육의 하나로 전국의 지방교구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다.[16] 교리강습소는 본과는 3년, 특별과

10)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원보》 191, 31쪽.
11) 수원교구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북수리 343번지였다.
12) 수원교구의 규모는 瓦家 40칸이었다.
13)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880쪽.
14) 〈환원일속〉, 《천도교회월보》 127, 1921.3, 118쪽.
15) 《천도교회월보》 12, 1911.8, 65쪽.
16) 〈천도교강습소규정〉, 1911;〈천도교강습소규정 부 소칙〉, 《신인간》621, 2002.5, 104-111쪽 참조.

는 2년, 속성과는 3개월 과정인데, 이병헌은 속성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이병헌이 수업한 속성과는 '천도의 진리', '교육의 원리', '교수법', '학교관리법' 등 천도교 교리과 학교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하였다.

제544 강습소를 수료한 이병헌은 이듬해 1912년 6월 22일 중앙총부에서 모집한 제1회 종학강습소 고등과에 입학하였다.[17] 종학강습소는 "지방의 고등 강생을 모집 교수하여 종리의 발천을 기도하며 또한 각지 강습소의 교수할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병헌이 입학한 고등과는 6개월 과정으로 교서, 작문, 강해 등 3개 과목을 수학하였다.[18]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종학강습소를 마친 이병헌은 수원교구로 돌아와 종교인으로 활동하였다. 1915년 4월 수원교구 현덕면 전교사로 첫 선임된[19] 이병헌은 이후 1916년에는 공선원,[20] 1917년에는 전제원,[21] 1918년에는 금융원,[22] 그리고 다시 전제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1월 교역자 활동을 그만두었다.[23] 이병헌이 수원교구에서 활동을 그만두게 된 배경은 당시 천도교의 최고책임자인 손병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병헌은 1914년 수원교구를 북수리로 이전하고 입주식을 가질 때 처음으로 손병희를 만났다. 입주식 때 이병헌이 사회를 보았는데,[24] 손병희가 그를 재목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만남을 계기로 이병헌은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할 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17) 〈학사일반〉, 《천도교회월보》 24, 1912.7, 39-40쪽.
18) 〈종령 제94호〉;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종령존안》, 모시는사람들, 2005, 187-188쪽.
19) 《천도교회월보》 58, 1915.5, 43쪽.
20) 《천도교회월보》 76, 1916.11, 36쪽.
21) 《천도교회월보》 82, 1917.5, 44쪽.
22) 《천도교회월보》 90, 1918.1, 43쪽.
23) 《천도교회월보》 102, 1919.2, 64쪽.
24) 〈수원교회 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 1936.12, 37쪽.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점 이후 유지하여 오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정책상 변경하였다.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것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표인 동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문화정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론·출판·교육·결사·산업·문예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흐름에 천도교 청년들은 천도교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문화운동에 동참하였다.[25]

3·1운동 이후 교단의 내적 위기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교단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2일 정도준, 손재기, 박달성, 박용회, 황경주, 김옥빈, 박래홍, 최혁 등의 발기[26]와 교단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교리의 연구 및 선전, 조선의 문화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발족시켰다. 강연부는 지방 교구를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27]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28] 그리고 이듬해 1920년 4월 25일 강연부를 천도교청년회로 명칭을 개정하였고,[29] 지방에서는 지회를 조직하였다.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병헌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병헌은 강연부가 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한 직후 1920년 4월경 홍종각, 이연숙, 김유경 등의 함께 수원지회를 조직하였고,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30]

25) 천도교의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천도교청년당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할 것.
26) 閔泳純, 〈天道教六十一年年譜〉, 《天道教會月報》통권 116호, 1920. 4, 32면.
27) 講研部 支部는 지방교구가 조직된 곳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1919년 11월까지 鎭南浦, 晋州, 定平, 博川, 淸州, 江東, 三登 등 10개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부원 500여 명에 달하였다.(《天道教會月報》통권112호, 1919. 12, 41면)
28) 趙基栞, 《天道教青年黨一覽表》,
29) 〈天道教青年教理講研部의 名義改定〉, 《天道教會月報》통권 117호, 1920. 5, 114면.
30)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통권 191호, 1926. 11, 30면.

이병헌은 수원지회 설립 후 첫 사업으로 5월 17일 천도교청년회 중앙에서 활동하는 박용회, 이돈화, 박사직 등을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5,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31] 이어 이해 11월에는 역시 중앙의 협조와 강사 유희준의 열성으로 교리강습회를 설치하였다.[32] 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이병헌이 지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원지역의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각종 강습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33] 이후 수원지회 지회장을 그만둔 이병헌은 중앙으로 진출해 천도교중앙총부 1921년 12월에 대종사 종법원, 1922년 9월에 경리과 종리사로서 활동하였다.[34]

1925년 들어 교단이 구파와 신파로 분화됨에 따라 천도교청년회도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수원지역의 천도교는 구파계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병헌은 구파에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고,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이병헌은 1927년 8월 11일 오후 8시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부를 조직하는데 앞장섰으며, 이날 박영호, 곽완일 등과 함께 위원[35]과 상무로 선출되었다.[36] 이듬해 1928년 2월 5일에 개최된 경성부 임시대회에서 임원

31) 〈中央總部彙報〉, 《天道教會月報》통권 118호, 1920. 6, 102면.

32)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통권 191호, 1926. 11, 30면.

33) 〈各支會의 狀況一覽〉, 《天道教青年會會報》제3호, 1921. 12, 16면(《韓國思想》제16집, 韓國思想研究會, 1978).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昨年 二月 七日 本郡 地方各處에 巡廻講演을 行함.
一, 昨年 四月 十五日 本大教區 內에 特別大講演會를 開함.
一, 昨年 八月 五日 本郡 地方 各處에 巡廻講演을 行함.
一, 今年 一月 四日 本支會에서 講習會를 開催함.
一, 同年 三月 三十一日 講習會 終了되는 授與式을 擧行하니 會員 總數 二十五人."

34) 《천도교중앙총부 직원록》.

35) 〈天道教青年同盟 京城支部組織ノ件〉, 京鍾警高祕 第8914호, 1927년 8월 14일.

36) 《천도교회월보》 202호, 1927.9, 27쪽.

을 개편할 때 집행위원으로, 이어 4월 6일 천도교청년총동맹을 결성할 때는 전형위원과 개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37] 그리고 1928년 4월 천도교청년총동맹 경성동맹으로 개편할 때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38]

또한 이병헌은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 이병헌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성동맹을 비롯하여 수원동맹, 시흥동맹 등을 규합하여 1929년 5월 30일 경기도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병헌은 대표로 선임되었다.[39] 뿐만 아니라 193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3회 천도교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기도 하였다.[40] 이어 12월 25일 개최된 청년동맹 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신파 천도교청년당과 합동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었다.[41] 1931년 2월 16일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이 합동하여 천도교청우당을 창립하자 이병헌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42]

이로써 이병헌은 경성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청년동맹의 대표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조직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31년 신파와 구파가 다시 분화됨에 따라 이병헌은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금융관과 전제관에서 종무

37) 《천도교회월보》 208호, 1928.5, 49-50쪽.

38) 《천도교회월보》 209호, 1928.6, 25-26쪽.

39) 〈중앙휘보〉, 《천도교회월보》 222, 1929.6, 38쪽; 〈天道教青年同盟京畿道 聯盟組織ニ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7145號, 1929년 6월 1일.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도내 대표는 광주 한순회, 양주 윤원세, 포천 조규원, 수원 이연숙, 홍종각, 윤준흠, 용인 송재문, 시흥 최재원, 진위 박규희, 경성 박양신, 주종석, 이윤의, 김상집 등이며, 그리고 검찰위원에는 경성 유한일, 강화 강세희, 인천 이기정 등이 선정되었다.

40)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17914號, 1930년 12월 22일.

41)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18199號, 1930년 12월 26일; 〈天道教青年總同盟通文郵送ニ關スル件 〉, 京鍾警高祕 第62號, 1931년 1월 6일.

42) 〈天道教青友黨通文郵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2008호, 1931년 2월 21일.

원으로 활동하였다.[43]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병헌은 아버지로부터 동학적 삶의 영향을 받아 교리강습소와 종학강습소를 수료하였고, 이후 수원교구와 청년회 수원지회,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동맹, 그리고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역자로서 활동하였다.

3. 3·1운동 참여와 '제암리학살사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게 된 이병헌은 3·1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병헌은 1919년 2월 27일 밤 10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이를 가마니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석탄을 담아 석탄가마니로 위장하였다. 그리고 신숙[44]과 함께 이종일 보성사 사장의 집으로 운반하였다.[45] 당시의 상황을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2월 27일 오후 10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박동 오모(博洞 吳謀)씨 집에 운반하기로 하였으나 오모는 돌연히 거절하므로 慶雲洞 88번지에 신축 중인 천도교당 기지로 운반할 때 때마침 전기고장으로 전등이 꺼져 전 시가가 암흑세계로 화하였다. 안국동, 재동 두 파출소 앞을 무사히 지나 목적지에 왔었다.[46]

43) 《천도교회월보》 269호, 1934.3, 32-33쪽; 《천도교회월보》 291호, 1936.9, 38쪽; 《천도교회월보》 295호, 1937.5, 38쪽.

44) 신숙은 1903년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1912년 종학강습소 간사로 천도교 중앙총부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서계원, 종법원, 대구교구장 등을 역임하였다.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 국민대표회의 등을 주도하였고, 만주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45)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56, 48쪽.

이병헌은 신숙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옮길 때 다행히 정전이 되어 무사히 이종일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는 당일 이병헌은 손병희를 따라 민족대표 33인이 모이기로 한 태화관 현장에 참석하였다. 원래는 민족대표들이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소를 태화관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태화관은 전일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 이완용이 거주한 집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인 이등박문과 밀의하던 장소이며 서기 1907년 7월 17일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케 한 음모도 이 장소에서 했고 합방조약 준비도 이 잡에서 모의하였다"[47]라고 하였다. 이병헌의 이러한 인식은 민족반역의 장소를 독립선언의 장소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병헌은 학생 대표인 이규갑과 같이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였다. 33인 민족대표들이 피체된 이후에는 남대문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어 3월 3일부터 5일까지 만세시위대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면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이병헌은 종로경찰서로부터 검거령이 내려졌다.[48] 이에 이병헌은 3월 15일을 전후하여 자신이 활동하였던 수원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수원에 내려온 이병헌은 수원교구에서 3·1운동을 논의하였고, 수원지역에서 3·1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병헌은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수원에서도 만세운동과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논의하였다.

46) 이병헌, 〈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64-65쪽.

47) 이병헌, 〈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비사》, 65쪽.

48)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 2, 1946. 서울신문사, 72쪽.

이날(3월 16일-필자) 오후 11시경 북수리에 있는 천도교에서는 때 마침 장날이었는데 서울서 연락차 내려온 李炳憲이가 교구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교인이 집합하여 서울의 정세를 듣고 앞으로 독립운동비를 부담할 것을 의논하던 중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消防用) 갈구리와 괭이를 가지고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구타하였다. 이때 부상자 중 金正談씨는 노인이라 경상만 당하고 金正模씨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질문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중상자는 안종환, 안종린, 홍종각, 김상근, 이병헌씨이었다.[49]

이병헌은 3월 16일[50] 밤 수원 수원교구에서 교구장 김인태, 이문원 안정옥, 전제원 김정담, 강도원 나천강, 순회교사 이성구, 안종린, 전교사 홍종각, 안종환 등 주요 교역자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할 것과 천도교에서 전개하고 있는 만세운동 자금을 수원교구에서도 부담할 것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에서는 천도교의 최고책임자이며 민족대표인 손병희가 일경에 피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서울로 올라가 구출하려는 비밀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51]

수원교구에서 이병헌이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정탐한 일제 측의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 갈고리와 괭이 등으로 교구를 난입하는 한편 교인들을 마구 구타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김정담·김정모·안종환·안종린·홍종각·김상근 등과 함께 중경상을 입었다.[52]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병헌은 수원과 진위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을 하자 수원교구에서 활동할 때 절친하게 지냈던 향남면 제암리 김학교의 집에서

49) 이병헌, 《3·1운동비사》, 868쪽.

50) 〈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3월 31일로 기록되어 있다.

5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Ⅰ-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349면.

52) 이병헌, 《3.1운동비사》, 868면.

숨어 지내면서 치료를 하였다.[53] 이병헌이 김학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우정면과 장안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불타버렸고, 화수리주재소의 일본인 순사부장 가와바타(川端豊太郎)을 참살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수비대를 동원, 우정면과 장안면 일대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자행하였다.[54]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정면과 장안면 마을을 보복한 수비대는 향남면 제암리로 몰려왔다. 4월 15일 12시경 사사키(佐板)는 아리타(有田)를 앞세우고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한 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사사키는 '할 말이 있으므로 교회로 전원 다 모이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병헌은 탈출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주민들은 김학교의 집에 숨어 있던 이병헌에게 통역을 부탁하였으나 이병헌은 자신도 검거될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거절하고 뒷산에 숨어서 동태를 파악하였다.[55]

이때 '제암리학살사건'[56]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본 참상을 목격한 이병헌은 훗날 '수원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상황을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3)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2, 72쪽.

54) 이와 관련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55)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2, 72면.

56)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 수에 대해 현재 2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1919년 8월 8일 이규완 함경도장관이 조선군사령부관에 보고에 의하면 40여 명으로 밝힌 바 있다. "水原郷南面堤巖里教人ニ告示スルニ男子ノミヲ教會堂ニ會集セシメ說諭スルト稱ヘタルヲ以テ四十餘人會集セシカ門ヲ閉ヂ全數ヲ破殺シ教會ヲ焚キ教人ハ飢死ノ境遇ニアリ"(밑줄 필자) 그리고 4월 17일자 보고에 의하면 '30여 명을 교회에 집합" 사망은 약 20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또한 조선군참모부에서 정리한 1919년 4월 16일자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自4월 6일 至4월 15일)〉에 의하면 "군중 소요 중 失火로 소실가옥 20여, 파견 군대 경무기관 협력 진압 사망 32"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는 적어도 32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전략) 金學校氏宅에 숨어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 4월 15일 정오에 발안장터 경찰관주재소에서 제암리에 와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에게 오후 한시를 위하여 수원수비대가 打合할 말이 있으니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당지 교인들이 필자를 보고 통역을 요구하였으나 필자는 자신이 체포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安政玉씨의 안내로 뒷산에 숨어서 그 동정을 감시하였던 바, 예배당 정문 앞에 日兵과 倭奴 佐板才吉이가 섰는데 순한 양과 같은 교인들은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문 앞에 섰던 일병은 총 길이로 사람 키를 비교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석유를 뿌리고 교회에서 방화를 하고 생화장을 하는 천인이 공로할 참극을 연출시켰다. 그 중에 홍순진씨가 뛰어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넘어졌다.[57]

제암리에서 탈출한 이병헌은 마을 뒷산에서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병헌이 '제암리학살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1926년 〈수원군종리원 연혁〉이었다. 〈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월 15일에 本區 管內 鄕南面 堤岩里傳敎師 안종환 외 김흥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종린, 김세기, 안응순, 안상용, 안정옥, 안종형, 안종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 즉 야소교당에서 무고히 교의 혐의로 燒殺을 당하고 곳곳마다 심한 고초가 있었다.[58]

57)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72쪽.

58) 〈수원군종리원 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30쪽. 그런데 〈수원사건〉과 〈수원군종리원 연혁〉의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두 기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고자 한다.[59]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팔탄면 고주리에서 있었던 김흥렬가의 학살사건도 함께 기록하였다.

그 隣洞(고죽골) 天道敎인 金興烈氏 집으로 가서 金聖烈, 金世烈, 金周男, 金周業, 金興福 等 六人을 逮捕하여 結縛하여 놓고 짚단과 나무로 덮어놓고서 石油를 뿌리고 또 生火葬을 하였다.[60]

이병헌이 제암리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제암리학살사건'은 이병헌 자신이 기록한 것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61] 제암리학살사건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학살된 희생자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62] 이외에도 이병헌은 3·1운동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3·1운동비사》를 남겼는데, 역시 3·1운동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59) 사실 이외에도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은 많다. 기회가 있으면,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60)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81면.

61) 한편 '제암리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이병헌은 《3·1운동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의 학살사건은 천인이 공로(天人共怒)할 잔인무도한 사건이다. 수원읍에 주재하고 있는 수비대는 4월 15일 발안장날을 이용하여 발안주재소 순사를 앞장세워 가지고 제암리로 가서 좋은 말을 한다는 구실로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을 야소교 예배당으로 집합하라고 권유한 후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이 예배당으로 집합할 때 정문 앞에서 수비대는 오는 사람마다 키를 재어서 총 길이보다 적은 아이는 돌려보내고 큰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놓고 예배당에 불을 놓아 생화장을 하였다. 이대 그 비절참절한 것은 목불인견이었다. 그중에서 홍순진은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초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62)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4. 신간회 경성지회에서의 활동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결성되고 지방에서는 지회가 설립되었다. 경성에서도 1927년 5월 25일 30여 명이 조선교육협회에 모여 신간회 경성북부지회 설치준비회를 개최하였다. 경성북부지회 설치에 천도교 구파에서도 적극 참여하였는데[63] 이병헌은 오상준, 박완, 최준모, 김영륜, 박양신, 이황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신간회본부가 경성에 지회를 하나만 둔다는 결정에 따라 경성북부지회는 6월 3일 경성지회 설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병헌은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64] 이병헌 등 신간회 경성지회 준비위원들은 6월 10일 하오 8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설립대회를 경성지회를 설치하였다. 이날 설립대회에서 이병헌은 간사로 선출되었다.[65]

이어 신간회 경성지회는 6월 15일 오후 10시 관수동 본부회관에서 제1회 간사회를 열고 서무부, 재무부, 정치문화부, 조직부, 선전부 등 5개 부서로 나누고 총부간사 5명을 선출하였다.[66] 또한 이날 간사회에서는 설립대회에서 선출된 간사 중 김정기, 조완숙, 황신덕, 이시완 등 4명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이병헌, 이원혁, 이병의, 김홍진 등 4명을 간사 보선 전형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간사 후보에는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권태열, 김응집, 이창휘, 김상진 등 8명을 추천되었고 이들 중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등 4명이 간사에 선출되었다.

이외에도 이날 간사회에서는 신간회 경성지회 약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67] 다음날 16일 오전 11시 본부 회관에서 개최된 총무간사회에서는 상무간사를 선출하고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병헌은 이날 총무부 상임간사에 선정되었다.[68] 이로써 신간회 경성지회는 설립대회를 개최한 지 7일 만에 조직이 완료되었다.

경성지회는 10월 29일 오후 1시 안국동 범어사 포교소에서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병헌이 상무간사로 있는 총무부는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회원 방문 및 회비 징수의 건, 회원 김동철 탈회의 건, 지회 규칙 수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일임하였다.[69] 이 보고에 의하면 이병헌은 상무간사로써 회원 방문, 지회 규칙 수정과 그리고 중앙고등보통학교 맹휴사건 조사 등 총무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병헌은 1927년 12월 10일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할 때 간사 등 주요 직책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천도교구파에서는 이병헌이 빠지는 한편 신태순, 손재기 등이 새로 참여하였다. 이로부터 1년여 후 제3회 임시대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3회 임시대회는 1929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병헌은 전

63)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238-239쪽.

64) 〈신간회의 경성지회, 북부지회를 경성지회로 설치 준비〉, 《중외일보》 1927년 6월 3일자; 〈확충되는 신간회 경성지회 설치〉, 《조선일보》 1927년 6월 3일자.

65) 〈신간회 경성지회 10일 夜에 설립대회〉, 《중외일보》 1927년 6월 12일자; 〈신간회 경성지회 성황리 발회〉, 《조선일보》 1927년 6월 12일자.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韓龍雲, 부회장 許憲, 간사 이원혁 김홍진 박의양 정칠성 이병헌 김항규 강인택 홍기문 이황 이병의 이시완 이희춘 김정기 김영윤 박완 김익동 김동혁 이갑준 박영태 강상희 박일 김인수 조원숙 신현구 황신덕.

66) 〈신간회 경성지회 간부 부서 작성〉,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자.

67)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件〉, 京鍾警高祕 第6701號-1, 1927년 6월 16일.

68) 〈新幹會京城支會總務幹事會ニ關スル件〉, 京鍾警高祕 제6833호, 1927년 6월 17일. 이날 간사회에서 선정된 부서별 간사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 : 총무간사 김영륜, 상무간사 김홍진 이병헌 김인수, 재정부 : 총무간사 이용흡, 상무간사 이갑준 박일, 정치문화부 : 총무간사 이춘숙, 상무간사 이관구, 조직부 : 총무간사 김항규, 상무간사 신현익, 선전부 : 총무간사 이원혁, 상무간사 이황 김동혁 정칠성.

69)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ニ件〉, 京鍾警高祕 第12237호, 1927년 10월 30일.

체 참가자 중 55표를 획득하여 간사로 선출되었다.[70] 이어 1월 23일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이병헌이 참석하여 기존의 조직인 '선전부'를 '조사연구부'로 개편하는데 적극 찬성하였다.[71]

경성지회는 신간회본부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본부는 2월 초 3월 19일과 20일 정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3월 9일 오후 7시 50분 경성지회회관에서 정기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대다수가 경성지회 회원들이었다. 이병헌도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접수부 위원이었다.[72] 이병헌은 경성지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가능하면 간사회에 참석하였다. 1929년 4월 11일 개최한 임시간사회에서는 부회장 김항규, 총무간사 민중식, 간사 김용기를 선출하는데 적극 의사를 표현하였다.[73]

한편 1929년 3월19일과 20일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신간회 정기대회가 당국으로부터 불허되자 경성지회는 4월 11일 임시간사회를 열고 수개의 인접지회에서 공동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자는 복대표대회안을 제기하였다.[74] 이에 따라 경성지회도 7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체제로 간무를 인선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회에서 조병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병헌은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75] 이어 7월 23일 개최된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조직

70) 〈新幹會京城支會第三會臨時大會續會ニ件〉, 京鍾警高祕 第642-1號, 1929년 1월 21일.

71) 〈新幹會京城支會ノ幹事會ニ關ルス件〉, 京鍾警高祕 第818號, 1929년 1월 24일.

72) 〈新幹會大會準備委員會ニ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2951호, 1929년 3월 11일. 대회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 김인수 김세진 김진태, 용도부 : 이원혁 홍명희, 접대부 : 박명환 박양신 박한경 박완 홍봉유 이청범 이병헌 조헌영 김원석 정칠성 박호진 정헌태 이기홍, 설비부 : 장수창 김응집 민중식 최성원 손재기, 선전부 : 박천 김성수 조헌식 조병옥 안재홍.

73) 〈新幹會京城支會臨時幹事會ニ關スル件〉, 京鍾警高祕 第4681호, 1929년 4월 12일.

74) 〈신간경성지회 임시간사회의〉,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자.

75) 〈신간회 경지대회〉,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자.

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76] 뿐만 아니라 1930년 1월 23일 개최한 경성지회 임시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본부 회관 건립, 회보 발행, 도연합회 조직, 도내 지회 확장, 반조직, 회원 교양, 회비 징수, 공제부 설치, 차가인 문제, 각 단체 연락 등 안건을 다룬 바 있다.[77]

이외에도 이병헌은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30년 6월 경성지회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병헌은 이황, 이민행, 김세진 등과 함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기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78] 그리고 기념식이 있는 당일 여흥부 책임을 맞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79]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친 이병헌은 기념식 후 개최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 맡아오던 교육부[80]에서 서무부로 교체되었다.[81]

이병헌은 경성지회뿐만 아니라 신간회본부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8년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순회강연을 시작하였다. 각 지역별 순회강연에서 이병헌은 이종린과 함께 함경도 지방을 담당하였다. 이때 이병헌은 강연내용이 불순하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82]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에 12월 14일 안국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민중대회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76) 〈신간 경지 부서 결정〉,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자.

77)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998號, 1930년 1월 23일.

78)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253號, 1930년 6월 3일.

79)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454호, 1930년 6월 5일.

80) 〈신간 경지 상무각부임원 결정〉,《중외일보》 1930년 4월 20일자.

81)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祕 第8815호, 1930년 6월 11일.

82)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169쪽.

1.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
2. 시위운동을 할 것.
3. 다음과 같은 표어로서 민족적 여론을 환기할 것
   (ㄱ) 광주사건의 정체를 폭로하자.
   (ㄴ) 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자.
   (ㄷ) 포악한 경찰정치에 항쟁하자.[83]

그리고 격문으로 "來하라. 형제여, 자매여, 광주대연설회. 我等의 자질이 희생되는 것을 묵시키 불능하다"를 채택하고 각 지회에 우송하였다. 학생들이 12월 9일 궐기하자 일제는 신간회본부를 찾아와 민중대회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간회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일 민중대회는 분산시켜 진행되었는데, 이병헌은 조병옥과 함께 안국동 네거리에서 민중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일제는 민중대회 하루 전인 12월 13일 신간회본부를 급습하여 신간회 임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안국동 네거리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민중대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84]

이로 볼 때 이병헌은 3·1운동과 신간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종교인으로써 삶을 추구하였다.

5. 종교인으로서의 이병헌

이병헌은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소 겸손하였던 그는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다. 자신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교회적 사회적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일지(日誌)로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분실되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천도교회월보》에 종종 기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특히 교단이 신구파로 분규에 휩싸이자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병헌은 항상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철저한 종교인이기를 원했다. 더욱이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람은 신앙심이 없어짐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역시 파멸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견고하기도 한이 없고 미약하기도 한이 없으므로 견고함으로써 집심(執心)이 되면 근본심주(根本心柱)가 자리를 잡게 되니만치 밖으로부터 침입이 있을수록 더욱 견고하여져서 만효불발이 되며, 미약함으로써 방종을 하게 되면 근본 마음이 위치를 잃게 되므로 이성목색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앙심과 각비심이 없으면 탈선된 그 마음이 한없이 방종에 빠져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종교의 신앙, 도덕의 주의에 입각해야 탈선 방종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으며 인생 생활상으로도 반드시 종교생활을 아니 할 수 없는 것"[85]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병헌은 철저하게 종교적 수양을 닦았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1933년 3월 10일 최제우 순도일을 맞아 49일 특별기도를 할 때의 일이다.

> 이번 기도 중 기차 안에서 청수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기차가 수원 군포장 사이를 통과할 때인데 식당차에 가서 청수를 얻어서 모시게 되었습

83) 〈7개항의 슬러건, 12인이 결의 서명〉, 《조선일보》 1930년 9월 7일자.

84) 이승복, 〈신간회소사〉, 《한국일보》 1958년 8얼 11일자;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184쪽.

85) 石雲, 〈생각나는 대로(독자논단)〉, 《천도교회월보》 235호, 1930.7, 27-29쪽.

니다. 기차 안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뽀이(심부름하는 소년)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묻고 제일 먼저 종이와 유리곱부(유리컵)에 냉수를 갖다 주는 것이 한 예가 됩니다. 그 청수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약 십분 동안은 되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묵념을 하는 동안에 뽀이뿐이랴, 그때 마침 만주출병으로 인하여 군인도 식당에 다수였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나보고 종교신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슴치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86]

이처럼 신앙의 규제가 몸에 철저하게 밴 이병헌은 '기도는 영통이나 도통보다는 정신통일로 규모일치를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어디서든지 모든 교인이 기도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 자신도 감상적인 신앙인이기보다는 투철한 종교인이기도 했다. 단순히 종교적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병헌은 종교적 수양을 위하여 주문과 기도를 주로 생활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의 쓸데없는 공상은 수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상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천천히 하여야 하고 어려울수록 참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주문을 많이 읽기를 권하였다. 즉 생활에서 노여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주문을 항상 읽으라고 강조했다. 주문을 만 번 읽으려면 한 시간 내에 천 번씩 열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 열 시간이 비록 지루하거나 짧게 느껴지기도 하나 결국 마음의 병, 즉 공상이라든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하나를 들었다.

86) 오암, 〈공동식사가 곤란〉, 《천도교회월보》 264호, 1933.3, 16-17쪽.

수년 전 어떤 교인 한분이 오셔서 교를 믿은 지 수십 년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 그만 두겠다고 하여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을 듣고서 그 대 나는 얼른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만 두시겠다면 그만 두실 것이나 이왕지사 일 끝치는 것이니 나하고 청수 한 번 더 모시고 주문 만 번만 더 읽고 그만 두시오' 하였다. 그는 그러면 입교할 때도 청수를 모시고 교를 믿겠다 하였으니 그만 둘 때도 청수를 모시고 그만 두겠다 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는 '그러하는 것이 원리라'고 하였다. 그는 청수를 모실 때는 반드시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 때의 그의 표정으로 보아 알 것이다. 주문 만 번을 읽고 나더니 한 번 웃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잘못으로 생각하였다' 하므로 나는 한 번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만 두겠다고 심고하고 주문을 읽는 동안 꼭 다시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아니 하겠다는 것이 자꾸 나옴으로 마음은 점점 단단하여져서 다시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함을 들었다.[87]

이러한 일화처럼 이병헌은 평소에도 주문을 일만 번씩 읽었을 만큼 철저한 종교인이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도 진위(현 평택)에서 출생하였지만 수원을 기반으로 일생을 천도교인으로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생을 천도교와 민족운동에 매진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87) 石雲, 〈여러 동무들에게〉, 《천도교회월보》 207호, 1928.3, 24-25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병헌의 활동무대는 수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도 진위군 현덕면에서 출생하였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청년기는 수원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이병헌이 태어난 현덕면은 그 생활권이 수원이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버지 이민도도 동학에 입도한 이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원지역 동학교인을 이끌고 보은 척왜양창의운동과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후 수원교구장을 비롯하여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병헌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수원교구에서 설립한 강습소에서 근대적 교육과 종교적 소양을 쌓았으며, 이후 수원교구 임원으로 적극 활동하였고, 이후 청년회를 조직하여 수원지역 청년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학 및 천도교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병헌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헌은 천도교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손병희의 부름을 받은 이병헌은 독립선언서를 운반하고 3월 1일 당일에는 태화관과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그리고 만세시위 등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수원으로 피신하여서도 수원지역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남긴 기록은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었다고 본다. 또한 이병헌은 천도교 구파에서 신간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경성지회 설립부터 참여하여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병헌이 이처럼 3.1운동과 신간회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의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버지 이민도는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인 보은의 척왜양창의운동과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그로 하여금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기로 판단된다.

셋째, 철저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학적 삶은 그를 평생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계대교인으로서 이병헌은 아버지를 이어 수원교구에서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하여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처럼 이병헌이 종교인의 삶은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일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병헌은 늘 종교적 수양을 위해 기도와 주문, 그리고 수련을 생활화하였다.

이로 볼 때 이병헌은 계대교인으로서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일생을 종교인으로써,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평택문화연구 제3집

발행일 :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박성복(평택학연구소장)
발행처 :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인 쇄 : 나무기획

저작권자 2021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ISSN 2713-6884

※ 이 책의 저작권은 발행처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